

연구보고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III

책임연구원 김경준

공동연구원 정은주

RESEARCH REPORT 2017

NYPI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III

- ▶ 책임연구원 :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정은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이지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지난 3년간 재외동포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재외동포청소년을 미래 우리사회의 중요한 자원으로 설정하고, 한민족정체성을 형성하고 동포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주류사회로 진출하고, 한민족공동체의 발전에도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은 국가에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상황, 그리고 청소년들의 특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별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요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제안된 정책이 실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은 주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과 교육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그리고 민간 기관들의 협조와 지원도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포사회에서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한된 예산과 연구 인력으로 일부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에 국한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유럽, 동남아, 일본 등 세계의 보다 많은 국가의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연구는 재외동포재단, 교육부, 현지 교육원 및 한글학교 등의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함께 하고 격려해 주신 전문가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연구를 맡아 수행하신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7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송 병 국

국 문 초 록

글로벌 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외동포청소년을 한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자 한민족공동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연차별로 수행된 연구로, 2015년에는 전 세계 동포사회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설정과 정책과제의 제안을 하였으며, 2016년에는 미국과 중국동포청소년, 그리고 2017년에는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수행하였다.

2017년도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현장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등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브라질 동포청소년 221명,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215명 등 중남미 동포청소년 436명, 우즈베키스탄 동포청소년 208명,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 174명, 국내 고려인 동포청소년 83명 등 고려인 동포청소년 465명을 대상으로 미래인재역량, 한민족에 대한 의식 및 교류 욕구,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여 의지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면접조사는 브라질·아르헨티나 및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국내 고려인 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외동포청소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공통의 정책과제로는 다양한 교재 개발·보급 및 토픽 개선, 교사 연수 및 양성제도 개발, 학부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동포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체험 및 교류프로그램 개발, 청소년활동 및 진로시설 설치 및 건립 지원, 청소년 교육 및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이 제시되었다. 또한 브라질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로는 동포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단체의 육성 지원, 한국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 지방 거주 청소년의 토픽(TOPIK) 시험 지원, 지방 순회 교사 연수 실시, 한국 진학 및 취업 정보센터 설치 및 지정 운영이 제안되었으며,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로는 타문화 및 공동체 이해 등 미래인재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꿈과 비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와 한국 내 학교 간 교류 활성화 지원, 전문교원 자격증 취득 지원 및 현지 전문교원실습기관 설치 지원, 아르헨티나와 한국 정부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제안되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국내 고려인 동포청소년 공통의 정책과제는 한국어·한국사 교육과 학습 지원, 교사 양성과 지원, 동포청소년 대상 활동 활성화, 청소년활동시설 제공,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한국 유학 및 취업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제안되었다. 우즈베키스탄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로는 특성화 진로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 확대, 한국에 이주한 부모를 둔 청소년과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 한국어 공식 교과목 채택사업 지원이 제안되었으며,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로는 재외국민 자녀를 위한 진학과 취업 정보 제공, 주재원 자녀에 대한 모국 연수 기회 부여, 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특별 강좌 개설, 문화와 한국어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 국내 거주 동포청소년 특성화 과제로는 연령과 난이도에 따른 다양한 한글 교재 개발 보급, 문화와 역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역사와 한국어 교재 개발과 보급, 원적 학교와 위탁형 대안학교의 연계를 통한 학생 관리 강화, 러시아어 가능한 상담 교사 지원, 한국 지역 탐방을 통한 역사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고려인이 재학 중인 공립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한국 학교 진학을 위한 진학과 진로 상담 서비스가 제안되었다.

주제어 : 재외동포, 재외동포청소년, 글로벌, 미래 인재, 역량, 한민족, 한민족공동체, 한민족 발전, 역할 기대, 중남미동포, 독립국가연합(CIS)동포, 고려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글로벌 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재외동포청소년을 한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자 한민족공동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대륙 및 개별 국가의 특수한 정책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이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연차별로 수행된 연구로 2015년에는 전 세계 동포사회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설정과 정책과제의 제안을 목표로 연구를 하였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대륙과 개별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을 제안한다는 목표로 수행하였음. 대상 국가의 선정은 재외동포 인구규모와 파급효과, 정치적·경제적 비중 등을 기준으로 하였음.
- 2016년에는 중국과 미국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2017년에는 재외동포 국가 중에서 중남미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동포청소년, 특히,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 그리고 국내에 이주해 있는 고려인 동포청소년들의 정책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음.

2. 연구내용

- 재외동포청소년과 한민족공동체와의 관계 정립을 위한 이론적인 검토와 중남미 및 중앙아시아 지역 동포청소년의 현황과 관련 정책 현황 분석,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독립국가연합(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 고려인) 지역 동포청소년의 한국 관련 인식과 실태 및 프로그램 요구 분석,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독립국가연합(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 고려인) 지역 동포청소년 현장전문가의 정책적 요구 분석, 중남미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 동포청소년의 정책 방향 설정과 정책과제 개발 등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였음.

3. 연구방법

- 문헌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 및 정책실무협의회 운영, 동포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현장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 콜로키움 및 전문가 워크숍 등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하였음.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이론적 검토와 연구동향 분석을 하였음. 전문가 자문 및 정책실무협의회는 학계, 현장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 등 5명 내외가 참여하여 매월 2~3회씩 정기적으로 동포청소년 연구 자문과 정책 현안 및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설문조사는 브라질 동포청소년 221명,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215명 등 중남미 동포청소년 436명, 우즈베키스탄 동포청소년 208명,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 174명, 국내 고려인 동포청소년 83명 등 전체 고려인 동포청소년 465명을 대상으로 미래인재역량, 한민족에 대한 의식 및 교류 욕구,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여 의지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음. 면접조사는 브라질·아르헨티나 및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국내 고려인 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외동포청소년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음.

4. 주요 결과

1) 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및 전문가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 및 한민족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향후 한민족 공동체에서

의 역할과 필요한 지원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글학교 및 한국학교 참여 경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능력, 가정에서의 한국어사용 및 한국문화 관련 활동, 한민족정체성,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인식, 미래인재역량, 재외동포 간 교류 및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욕구, 한민족 공동체의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역할 기대,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 한국에 대한 관심과 진로 영향 요인 등을 조사하였음.

-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은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에 비해서 한국학교 재학 경험(브라질 -69.9%, 아르헨티나-53.8%) 뿐만 아니라 한글학교 재학 경험(브라질-81.0%, 아르헨티나 -78.5%)도 많으며, 한국어에 대한 관심(5점 만점, 브라질-평균 4.26점, 아르헨티나-평균 3.55점)도 높고, 한국어능력 (브라질-평균 4.00점, 아르헨티나-평균 3.66점)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가정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으로는 한국음식 만들기(5점 만점, 브라질-평균 4.41점, 아르헨티나-4.50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국 드라마나 뉴스 시청 및 한국 노래 청취(브라질-3.67점, 아르헨티나-3.83점), 부모와 대화 시 한국어 사용(브라질-3.57점, 아르헨티나-3.40점)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한국 관련 기대는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높은 편이나 거주 국가나 한국에서 한국 관련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대가 낮았음.
- 한민족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내가 한민족의 일원이 다'라는 다소 막연한 의식은 많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지만,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거나 한민족의 사건이나 문제를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한민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실천적 행위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미래인재역량 중에서는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브라질-평균 3.98점, 아르헨티나-평균 3.41점)이 가장 높았고, 국가정체의식(브라질-평균 2.12점, 아르헨티나-평균 2.79점)이 가장 낮았음. 또한 국가별로는 브라질 동포청소년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에 비해서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세계시민의식은 높은 반면, 국가정체의식은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이 브라질 동포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한국문화가 매력적이라는 등의 인식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안정에 대해서는 다소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민족 공동체에서 동포청소년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의 홍보, 동포사회의 단합, 동포사회의 발전, 한국 경제와 사회 발전, 남북통일에의 기여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전체적으로 볼 때,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은 5점 만점에 평균 2.96점,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3.06점으로 그리 높다고 볼 수 없음. 또한 한국의 발전이나 남북통일이라는 다소 먼 미래에 할 수 있는 역할보다는 거주 국가에서 한국을 홍보하고 동포사회의 단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현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음.
- 재외동포청소년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은 거주 국가에서 열리는 캠프나 연수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참여하였으나, 한국에서 열리는 재외동포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약 20% 정도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교류 욕구를 살펴보면,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한국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브라질 평균 3.88점, 아르헨티나 평균 3.68점)와 다양한 한국 문화의 경험(브라질 평균 3.69점, 아르헨티나 평균 3.36점)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동포청소년들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실정임.
-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은 공통적으로 한류(한국 드라마, K-Pop 등)가 1순위(아르헨티나-57.2%, 브라질-43.4%)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아르헨티나-42.3%, 브라질-40.7%), 개인적 한국 방문(아르헨티나-34.0%, 브라질-32.1%) 등이었음.
-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서의 교육 및 취업 등 진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서는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교육 및 취업 정보 부족(41.9%)이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어능력 부족(41.4%), 한국조직문화 적응에 대한 자신감 부족(30.7%), 기타(22.3%), 군복무 문제(21.9%) 등이었음.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어능력 부족(40.7%)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한국조직문화 적응에 대한 자신감 부족(29.0%), 한국에서의 교육 및 취업기회 부족(25.3%), 한국에서의 교육 및 취업 정보 부족(24.1%), 경제적 어려움(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민족정체성-의식의 경우에는 미래인재역량 중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이, 한민족정체성-실천의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 및 욕구가 두 국가에 공통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브라질 동포청소년들과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교류 및 참여 욕구, 세계시민의식은 두 국가에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음.

(2) 브라질 동포청소년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 한국어 교육 실태와 한민족정체성, 교류 및 프로그램 참여 욕구, 그리고 정책적 지원 요구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은 브라질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브라질 사람들의 특성을 닮게 되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라든가 현재를 즐기는 삶의 태도 등 긍정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걱정을 하지 않고 특별한 꿈도 없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브라질 동포사회는 대부분 맞벌이 가정으로 자녀들을 돌볼 여유가 없으며, 가정에서 브라질 가정부를 두게 되어 자녀들이 포르투갈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음. 또한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어서 멀지 않아서 많은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한편, 브라질 한국학교는 2016년 말에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글학교는 차세대 교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향후 한글학교 운영에 위기가 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
- 브라질 한글학교에서 한글교육을 위한 다양한 보조교재와 역사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재외동포재단에서 한국에 초청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한글학교 단위로 모국 방문을 기획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남미지역 동포청소년들의 한국 진출 기회 확대, 지방 거주 동포청소년들의 토픽(TOPIK)시험이나 연수 및 교육 기회 확대, 주재원 자녀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동포청소년들의 각종 프로그램과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음.

(3)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교류 및 프로그램 참여 욕구, 그리고 정책적 지원 요구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다소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영향으로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남미 국가 중에서 한류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도 낮은 편임. 또한 아르헨티나 사회는 타민족에 대해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여 동양인들의 전문직으로의 진출을 쉽게 허용하고 있지 않아서 동포들의 주류사회로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음.
-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자녀들을 한국학교나 한글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경우에도 교육에 대한 관심보다는 단지 자녀들을 학교에 맡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동포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물질 중심의 가치관은 자녀들에게 다양한 가치와 비전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는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의 위치와 시설, 교재, 교사 등 동포청소년들의 한글교육을 위한 여건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학교가 집에서 거리가 멀거나 위험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등하굣길의 안전이 불안하고, 열악한 학교시설과 다양한 교재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교육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세대를 대신할 차세대 교사의 확보가 어려워져 학교 운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최근 아르헨티나 한글학교협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역사교육의 대안으로 골든벨대회와 역사문화 캠프를 운영하고 그 성과를 동포사회에 알림으로써 동포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아르헨티나에는 교회나 한글학교 이외에 동포청소년들이 방과 후나 주말에 특별히 갈만한 활동시설이나 공간이 없다고 함. 하지만 최근 한인사회 내에 개인적으로 독서실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관심을 받고 있음.
- 한국 정부와 아르헨티나 정부 간에 다양한 사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동포사회와 아르헨티나 정부를 이어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줌으로써 동포사회만의 노력으로 얻기 힘든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국내 고려인 동포청소년 및 전문가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 재외동포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민족 정체성, 한민족에 대한 관심과 이해, 미래인재역량, 재외동포 청소년과의 교류 경험과 욕구,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역할 기대, 직업 및 진로 등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였음.
- 한국어능력을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한국어능력보다는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어능력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우즈베키스탄-2.91점, 카자흐스탄-3.07점, 국내거주-3.34점).
- 가정생활과 관련한 요인의 평균 점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평균 점수가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 점수보다 높았음(우즈베키스탄-3.14점, 카자흐스탄-3.05점, 국내거주-2.74점).
- 한민족정체성 중 자신이 고려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와 관련한 요인의 평균 점수는 우즈베키스탄(4.73점), 카자흐스탄(4.54점), 국내거주(4.05점) 고려인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고려인의 역사와 전통을 잘 알고, 사건이나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가와 관련한 요인에서는 카자흐스탄(3.34점), 우즈베키스탄(3.09점), 국내거주(2.65점) 고려인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음.
- 미래인재역량 중에서는 세계시민의식(4.29점)의 전체 평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사소통능력(3.88점),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3.82점), 문제해결력(3.78점), 국가정체의식(3.45점) 순으로 나타났고, 창의적사고(3.22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 평균 점수가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 중 개별 요인에서 두 국가의 평균 점수는 비슷한 수준이었음.
- 한국에 관한 인식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4.41점). 그 다음으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다(4.40점)로 나타남. 고려인 청소년들의 한국인과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와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정도에서 국내거주 청소년의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국가별 차이는 없었으며,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남북통일에 대한 항목으로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고려인 청소년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동포청소년 간 교류 경험은 카자흐스탄(2.89점) 고려인 청소년이 우즈베키스탄(2.41점) 고려인 청소년들보다 동포청소년이나 단체들과 자주 연락하고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거주국 주최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에 참가한 경험도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은 38.7%,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은 22.8%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한국과의 교류 욕구를 살펴보면, 한국 유학이 4.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에서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4.24점)이었으며, 거주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의 취업(3.78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고려인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주로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은 한글학교 등의 한국어 교육과 개인적 한국 방문이었으며, 고려인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서의 학업 및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중 공통 요인은 한국 국적이 없는 것과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 한국관련 인식, 카자흐스탄은 한국관련 교육 참여, 미래인재역량 중 책임의식,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은 한국관련 인식으로 나타났음. 한민족공동체-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 한국어능력, 가정생활, 미래인재역량 중 창의적사고와 문제해결력이며, 카자흐스탄은 한국어능력, 교류 및 참여욕구, 미래인재역량 중 책임의식, 그리고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정생활, 한국관련 교육 참여, 세계시민의식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음.
-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은 교류 및 참여욕구, 한국 프로그램 참여경험, 책임의식이며, 카자흐스탄은 교류 및 참여욕구, 한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책임의식, 국가정체의식이고,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은 한국어 능력, 교류 및 참여욕구, 문제해결력, 국가정체의식으로 나타났음. 또한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은 교류 및 참여 욕구로 나타났음.

(2) 우즈베키스탄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거나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거주 중인 현지 전문가들의 면접을 통해 현지 고려인 청소년의 특성과 실태, 교육 현황, 이들의 진로와 고민 등을 파악하고 질적 분석 방법론에 근거하여 내용을 분석하였음.
- 최근 들어 한류 열풍으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한국어 교육 기회가 많은 편은 아니며, 고려인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즈베키스탄 현지 경제 사정이 어려워 청소년들에게 우즈베키스탄 공립교육 이외에 한국어나

역사를 별도로 교육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함.

-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려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함. 또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 한국 교육을 위한 한국인 원어민 교사의 확보, 교사들을 위한 연수와 교수법 강좌 제공, 한국 대학 또는 기관을 연계한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필요하였음.
- 최근 들어 한국교육원과 한글학교를 통해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고려인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고려인문화협회를 통해 동포청소년이 교류하는 활동도 있지만 강좌나 활동이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함. 한국어와 한국 관련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관과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적 차원을 넘어 취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카자흐스탄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 카자흐스탄 고려인들도 강제이주 이후 전면적인 러시아어 교육의 강요로 러시아어를 말하고 러시아어로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어는 고려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생활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고, 고려인들에게 한국어는 차츰 서툰 언어가 되어버렸음. 특히, 모든 소수민족이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구사할 수 있어야만 국가와 사회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주한 고려인들은 한국어는 잃어버리고 열심히 러시아어를 학습하게 되었음. 러시아어 습득과 우리 민족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중상위층 이상으로 생활하는 부유한 고려인이 많은 편임.
- 고려인 부모 역시 자녀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한 편이어서 타민족에 비해 고려인은 자녀들은 대학에 많이 입학하고 있고, 그 결과로 전문직과 고위직에 있는 고려인도 많음. 그래서 더욱 고려인의 이주 역사교육이 필요하며, 고려인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민족 발전과 개인 발전에도 중요하고,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어 교육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스스로 찾는 정체성 형성과정을 통해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카자흐어가 카자흐스탄의 공식 국가언어로 채택되면서 한민들은 민족 간 소통 언어인 러시아어와 민족 언어인 한국어 외에 카자흐스탄어까지 삼중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기 때문에 한국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짧은 한국어 교육시간으로 만든 충분히 교육할 수 없음. 또한 한국교육원 학비가 올라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으며, 만약 학비를 낮추면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교육원을 찾아 올 것임.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한류의 영향이며, 일부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으로 취직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 한국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도 우즈베키스탄과 유사하게 한국어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양성, 그리고 청소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고려인 역사와 문화 등에 관한 내용을 교재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4) 국내 고려인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은 출생국가에서 생활하다가 부모가 한국으로 취업하기 위해 이주해서 한국에서 생활하게 된 경우였고, 그로 인해 새로운 문화와 학습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음. 특히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한국의 정규 학교 과정에서 더욱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고려인 부모가 대부분이어서 부모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고려인 청소년들은 가정 내 부모의 돌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그러나 일부의 경우는 직계 가족 단위가 이주를 한 경우가 있어서 비록 부모의 돌봄은 부족하지만 주변에 삼촌, 이모 등 친척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거나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음.
- 한국 대학 입학에 희망하는 고려인 청소년들의 경우에 한국어 능력시험을 봐야 해서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 공교육과의 연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출생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러시아 고등학교 졸업장을 선호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러시아 학교 졸업장이 거주국과 러시아 본국 또는 북미 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여 일부 고려인 부모들은 러시아 학교 졸업장을 위해 사립 학원을 보내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한국 거주 기간이 늘수록 공교육 과정에 있는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어능력은 향상될 가능성이 높으나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거주국 언어, 많은 경우 러시아어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됨. 왜냐하면 비자 형태상 고려인 청소년들 중 출생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음.

5. 정책제언

1)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독립국가연합(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의 현안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특히, 정책과제는 대륙별 공통과제와 국가별 특성화 과제로 나누어 제안하였음.
- 중남미·독립국가연합 동포청소년은 재외동포청소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성과 더불어 개별 국가별, 그리고 대륙별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반영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책방향은 다양한 차원에서 한민족공동체의 미래 인재를 개발한다는 목표의 지향, 국가별 동포청소년의 상황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정책 개발, 중남미·독립국가연합 지역 내 국가 간에 긴밀한 협력과 공동사업의 추진, 거주국과 대한민국 간 연계 및 조정 기능 강화, 동포사회와의 협력과 참여 유도로 설정하였음.
- 또한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은 재외동포청소년 개인의 발전과 한민족공동체에 대한 기여라는 목표 속에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개인적인 삶과 한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삶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동포청소년과 가정, 동포사회, 동포사회 간, 거주국, 대한민국 정부 등이 상호 연계되어 지원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2) 중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정책과제

- 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공통의 정책과제는 다양한 교재 개발·보급 및 토픽 개선, 교사 연수 및 양성제도 개발, 학부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동포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체험 및 교류프로그램 개발, 청소년활동 및 진로시설 설치 및 건립 지원, 청소년 교육 및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이 제시되었음.

- 다양한 교재 개발·보급 및 토픽 개선 : 현지 맞춤형 한글학교 교재 개발·보급, 교재활용 지침서 개발·보급, 역사교재 및 역사교재 또는 역사·문화 내용을 반영한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자랑스런 한민족 위인 교재 개발 및 교육 실시, 주니어단계의 토픽(TOPIK) 개발 및 활용도 제고
- 교사 연수 및 양성제도 개발 : 한글학교 교사 대상 역사·문화교육 연수 실시, 차세대 교사 대상의 연수프로그램 개발·지원, 차세대 교사 양성을 위한 봉사활동 인증 및 마일리지 제도 도입, 현지 대학에 한국어과 신설 및 현지 대학과 한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교사 양성, 예·체능 교사 연수 및 전문교사 배치 지원
- 학부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대상 세미나 및 교육 실시, 부모학교의 개설·운영,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 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동포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체험 및 교류프로그램 개발 : 한국 알기 놀이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역사퀴즈대회 개최, 한글학교연합 등 다양한 단위의 역사문화캠프 추진, 한민족 및 글로벌 공동체 마인드 개발 프로그램 운영, 주재원 자녀에 대한 모국 연수기회 부여, 정부초청 재외동포 장학생 선발 기회 확대, 동포청소년들이 흥미롭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공모전 개발, 진로정보 제공 및 진로상담 멘토 제공
- 청소년활동 및 진로시설 설치 및 건립 지원 : 청소년회관 또는 청소년문화공간 마련, 청소년 진로상담 및 비전센터 운영
- 청소년 교육 및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 차세대 지역 커뮤니티 조직 및 지원, 소규모 공동체를 위한 온라인교류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청소년 모국방문단 지원체계 구축, 한국 내 학교에서의 교육체험 기회 제공, 차세대 전문직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브라질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로는 동포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단체의 육성 지원, 한국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 지방 거주 청소년의 토픽(TOPIK) 시험 지원, 지방 순회 교사 연수 실시, 한국 진학 및 취업 정보센터 설치 및 지정 운영이 제안되었음.
-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로는 타문화 및 공동체 이해 등 미래인재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꿈과 비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와 한국 내 학교 간 교류 활성화 지원, 전문교원 자격증 취득 지원 및 현지 전문교원실

습기관 설치 지원, 아르헨티나와 한국 정부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이 제안되었음.

3) 고려인(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국내 고려인) 동포청소년 정책과제

-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국내 고려인 동포청소년 공통의 정책과제는 한국어·한국사 교육과 학습 지원, 교사 양성과 지원, 동포청소년 대상 활동 활성화, 청소년활동시설 제공,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한국 유학 및 취업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제안되었음.
 - 한국어·한국사 교육과 학습 지원 : 시대 및 지역별 상황에 맞춘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역사 교재 개발·보급과 러시아어 번역, 러시아어 버전 한글 문법 교재 개발, 다양한 형태의 교재 개발(DVD, 인터넷, 게임 교재 등), 중학교 이전 연령의 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교사 양성과 지원 : 한국어 교사 대상 역사·문화 연수 실시, 한국어 교사 처우 개선, 교사를 위한 교재 활용 지침서 개발·보급, 지역 내 한국어 학과 고려인 졸업생 활용,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화를 위한 자격제도 지원
 - 동포청소년 대상 활동 활성화 : 청소년 진로캠프 개발 및 운영, 한 뿌리 찾기-한민족공동체 캠프의 운영, 흥미롭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공모전과 대회 개발, 한국 방문 및 연수 기획 확대
 - 청소년활동시설 제공 : 주변 시설 활용 및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고려인 청소년 단체 조직 및 지원, 직접 참여가 어려운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모임 망 구축, 한국 내 학교와 MOU 체결과 교류
 - 한국 유학 및 취업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전문직 직업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진로 정보와 진로 상담 멘토 제공, 한국 유학과 취업 정보 제공, 한국 입국 준비 중인 청소년을 위한 사전 교육
- 우즈베키스탄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로는 특성화 진로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 확대, 한국에 이주한 부모를 둔 청소년과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 한국어 공식 교과목 채택사업 지원이 제안되었음.
-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로는 재외국민 자녀를 위한 진학과 취업 정보 제공, 주재원 자녀에 대한 모국 연수 기회 부여, 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특별 강좌 개설, 문화와 한국어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안되었음.

- 국내 거주 동포청소년 특성화 과제로는 연령과 난이도에 따른 다양한 한글 교재 개발 보급, 문화와 역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역사와 한국어 교재 개발과 보급, 원격 학교와 위탁형 대안학교의 연계를 통한 학생 관리 강화, 러시아어 가능한 상담 교사 지원, 한국 지역 탐방을 통한 역사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고려인이 재학 중인 공립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한국 학교 진학을 위한 진학과 진로 상담 서비스가 제안되었음.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6
3. 연구방법	8
4. 연구의 제한	12
II. 이론적 배경	13
1. 재외동포청소년의 개념	15
2. 재외동포청소년에게 있어서 한민족공동체의 의미	18
3. 한민족공동체의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기대와 역할	19
4. 중남미 및 독립국가연합(CIS) 연구 동향	21
III. 재외동포청소년 및 관련 정책 현황	33
1. 재외동포 인구 현황	35
2.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기관 현황	44
3. 독립국가연합(CIS) 및 중남미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50
IV. 재외동포청소년 조사 개요	57
1. 설문조사 개요	59
2. 면접조사 개요	83
V. 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조사결과 분석	91
1. 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분석	93
2. 브라질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분석	162
3. 아르헨티나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분석	195
4. 소결	229

VI. 고려인 재외동포 청소년 조사결과 분석	237
1. 고려인 재외동포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분석	239
2.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분석	298
3. 소결	359
VII. 정책제언	367
1. 재외동포청소년의 현황과 문제점	369
2.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지원 방안	378
참고문헌	431
부 록	439

표 목차

〈표 Ⅰ-1〉 전문가 자문 및 정책실무협의회 추진 내용	9
〈표 Ⅱ-1〉 우즈베키스탄의 민족별, 시기별 인구 동향 (1926-2013)	23
〈표 Ⅱ-2〉 카자흐스탄의 민족별, 시기별 인구 동향 (1897-2015)	24
〈표 Ⅱ-3〉 키르기스스탄의 민족별, 시기별 인구 동향 (1959-2012)	25
〈표 Ⅱ-4〉 중남미 지역의 재외동포 연구동향 분석	28
〈표 Ⅱ-5〉 중남미 지역의 재외동포 연구의 세부 내용	29
〈표 Ⅱ-6〉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재외동포 연구동향 분석	30
〈표 Ⅱ-7〉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재외동포 연구의 세부 내용	32
〈표 Ⅲ-1〉 재외동포 인구 현황	36
〈표 Ⅲ-2〉 중남미 지역 재외동포 현황	37
〈표 Ⅲ-3〉 독립국가연합(CIS)지역 재외동포 현황	40
〈표 Ⅲ-4〉 취업 가능 비자로 체류 중인 고려인 현황	42
〈표 Ⅲ-5〉 방문취업(H-2) 자격 고려인의 연도별 체류 현황	43
〈표 Ⅲ-6〉 공관별 한글학교, 교원 및 학생수	44
〈표 Ⅲ-7〉 남미 한글학교, 교원 및 학생수	45
〈표 Ⅲ-8〉 독립국가연합(CIS) 한글학교, 교원 및 학생수	47
〈표 Ⅲ-9〉 중남미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한국학교 현황	48
〈표 Ⅲ-10〉 중남미 및 독립국가연합(CIS)지역 한국교육원 현황	49
〈표 Ⅲ-11〉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50
〈표 Ⅲ-12〉 중남미 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52
〈표 Ⅲ-13〉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54
〈표 Ⅳ-1〉 재외동포청소년 설문조사 영역 구성 및 영역별 주요 조사 항목	61
〈표 Ⅳ-2〉 한국 관련 생활 실태 관련 요인 및 신뢰도분석 결과	68
〈표 Ⅳ-3〉 미래인재역량 관련 요인 및 신뢰도분석 결과	69
〈표 Ⅳ-4〉 한국 관련 인식과 한민족공동체 관련요인 및 신뢰도분석 결과	70
〈표 Ⅳ-5〉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개요	71

〈표 IV-6〉 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배경 특성	72
〈표 IV-7〉 고려인 동포청소년 한국 관련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	76
〈표 IV-8〉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 역량 관련 요인 및 신뢰도분석 결과	77
〈표 IV-9〉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한국 관련 인식과 한민족공동체 관련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	78
〈표 IV-10〉 고려인 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개요	79
〈표 IV-11〉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	80
〈표 IV-12〉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평균 연령과 거주국 거주 기간	81
〈표 IV-13〉 아르헨티나 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87
〈표 IV-14〉 브라질 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88
〈표 IV-15〉 우즈베키스탄 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89
〈표 IV-16〉 카자흐스탄 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89
〈표 IV-17〉 국내 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90
〈표 V-1〉 최초로 이주한 세대에 대한 국가별 차이	93
〈표 V-2〉 최초로 이주한 세대(아르헨티나)	94
〈표 V-3〉 최초 이주한 세대(브라질)	95
〈표 V-4〉 부모 국적에 대한 국가별 차이	95
〈표 V-5〉 부모 국적(아르헨티나)	96
〈표 V-6〉 부모 국적(브라질)	96
〈표 V-7〉 동포청소년의 국적에 대한 국가별 차이	97
〈표 V-8〉 동포청소년의 국적/신분(아르헨티나)	98
〈표 V-9〉 동포청소년의 국적/신분(브라질)	99
〈표 V-10〉 한국학교의 재학 경험에 대한 국가별 차이	100
〈표 V-11〉 한국학교 재학 경험(아르헨티나)	100
〈표 V-12〉 한국학교의 재학 경험(브라질)	101

〈표 V-13〉 한국학교 재학 기간의 국가별 차이	102
〈표 V-14〉 한국학교 재학 기간(아르헨티나)	102
〈표 V-15〉 한국학교의 재학 기간(브라질)	103
〈표 V-16〉 한국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국가별 차이)	103
〈표 V-17〉 한국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아르헨티나)	104
〈표 V-18〉 한국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브라질)	105
〈표 V-19〉 한글학교의 재학 경험에 대한 국가별 차이	105
〈표 V-20〉 한글학교 재학 경험(아르헨티나)	106
〈표 V-21〉 한글학교 재학 경험(브라질)	106
〈표 V-22〉 한글학교 재학 기간의 국가별 차이	107
〈표 V-23〉 한글학교 재학 기간(아르헨티나)	107
〈표 V-24〉 한글학교 재학기간(브라질)	108
〈표 V-25〉 한글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에 대한 국가별 차이	109
〈표 V-26〉 한글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아르헨티나)	109
〈표 V-27〉 한글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브라질)	110
〈표 V-28〉 국가별 한국어에 대한 관심	110
〈표 V-29〉 한국어에 대한 관심(아르헨티나)	111
〈표 V-30〉 한국어에 대한 관심(브라질)	112
〈표 V-31〉 한국어 능력에 대한 국가별 차이	113
〈표 V-32〉 한국어 능력(아르헨티나)	113
〈표 V-33〉 한국어 능력(브라질)	114
〈표 V-34〉 가정에서의 한국 관련 부모와의 활동에 대한 국가별 비교	115
〈표 V-35〉 가정에서의 한국 관련 부모와의 활동(아르헨티나)	116
〈표 V-36〉 가정에서의 한국 관련 부모와의 활동(브라질)	116
〈표 V-37〉 한국 관련 부모의 기대에 대한 국가별 비교	117
〈표 V-38〉 한국 관련 부모의 기대(아르헨티나)	118

〈표 V-39〉 한국 관련 부모의 기대(브라질)	118
〈표 V-40〉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국가별 비교	120
〈표 V-41〉 한민족 정체성-의식(아르헨티나)	121
〈표 V-42〉 한민족 정체성-의식(브라질)	121
〈표 V-43〉 한민족 정체성-실천(아르헨티나)	122
〈표 V-44〉 한민족 정체성-실천(브라질)	123
〈표 V-45〉 재외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 - 국가별	124
〈표 V-46〉 창의적 사고에 대한 국가별 비교	125
〈표 V-47〉 창의적 사고(아르헨티나)	125
〈표 V-48〉 창의적 사고(브라질)	126
〈표 V-49〉 문제해결력에 대한 국가간 비교	127
〈표 V-50〉 문제해결력(아르헨티나)	127
〈표 V-51〉 문제해결력(브라질)	128
〈표 V-52〉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에 대한 국가별 차이	129
〈표 V-53〉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아르헨티나)	130
〈표 V-54〉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브라질)	130
〈표 V-55〉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국가별 차이	131
〈표 V-56〉 세계시민의식(아르헨티나)	132
〈표 V-57〉 세계시민의식(브라질)	132
〈표 V-58〉 국가정체의식에 대한 국가별 차이	133
〈표 V-59〉 국가정체의식(아르헨티나)	134
〈표 V-60〉 국가정체의식(브라질)	134
〈표 V-61〉 한국 관련 인식에 대한 국가별 비교	135
〈표 V-62〉 한민족공동체 역할 기대에 대한 국가별 비교	136
〈표 V-63〉 한민족 공동체 역할 기대(아르헨티나)	137
〈표 V-64〉 한민족 공동체 역할 기대(브라질)	137

〈표 V-65〉 교류 경험에 대한 국가별 비교	138
〈표 V-66〉 교류경험(아르헨티나)	139
〈표 V-67〉 교류경험(브라질)	139
〈표 V-68〉 재외동포청소년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대한 국가별 비교	140
〈표 V-69〉 교류 및 참여 욕구에 대한 국가별 비교	141
〈표 V-70〉 교류 및 참여 욕구(아르헨티나)	142
〈표 V-71〉 교류 및 참여 욕구(브라질)	142
〈표 V-72〉 동포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대한 국가별 비교	143
〈표 V-73〉 동포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아르헨티나)	144
〈표 V-74〉 동포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브라질)	144
〈표 V-75〉 한국에 관심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5
〈표 V-76〉 한국의 교육·취업을 방해하는 요인	146
〈표 V-77〉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147
〈표 V-78〉 장래희망	148
〈표 V-79〉 장래희망을 이루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149
〈표 V-80〉 브라질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50
〈표 V-81〉 아르헨티나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52
〈표 V-82〉 브라질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53
〈표 V-83〉 아르헨티나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55
〈표 V-84〉 한민족정체성 영향 요인에 대한 국가별 비교	156
〈표 V-85〉 브라질 재외동포청소년의 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58
〈표 V-86〉 아르헨티나 재외동포청소년의 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60

〈표 V-87〉 한민족공동체 발전의 역할 기대 영향 요인에 대한 국가별 비교	161
〈표 VI-1〉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	240
〈표 VI-2〉 거주국 거주 이유의 국가별 차이	241
〈표 VI-3〉 거주국 거주 이유 - 우즈베키스탄	242
〈표 VI-4〉 거주국 거주 이유 - 카자흐스탄	243
〈표 VI-5〉 최초로 이주한 세대에 대한 국가별 차이	243
〈표 VI-6〉 최초로 이주한 세대 - 우즈베키스탄	244
〈표 VI-7〉 최초로 이주한 세대 - 카자흐스탄	245
〈표 VI-8〉 부모 국적에 대한 국가별 차이	245
〈표 VI-9〉 부모의 국적 - 우즈베키스탄	246
〈표 VI-10〉 부모의 국적 - 카자흐스탄	247
〈표 VI-11〉 부모의 국적 - 국내거주	247
〈표 VI-12〉 동포청소년의 국적에 대한 국가별 차이	248
〈표 VI-13〉 미래에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한 국가별 차이	248
〈표 VI-14〉 한국·한글학교 재학 경험에 대한 국가별 차이	249
〈표 VI-15〉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국·한글학교를 재학 경험의 차이	
- 우즈베키스탄	250
〈표 VI-16〉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국·한글학교를 재학 경험의 차이	
- 카자흐스탄	250
〈표 VI-17〉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국·한글학교를 재학 경험의 차이	
- 국내거주	251
〈표 VI-18〉 한국과 한국어 교육관련 과정 재학 기간의 국가별 차이	251
〈표 VI-19〉 한글학교 또는 한국어 교육 과정에 다니게 된 이유에 대한 국가별 차이	252
〈표 VI-20〉 한국어 관심에 대한 국가별 차이	253
〈표 VI-21〉 한국어 학습에 대한 국가별 차이	253

〈표 VI-22〉 한국어 능력에 대한 국가별 차이	254
〈표 VI-23〉 한국어 능력 대한 국가별 차이	
- 측정문항별 평균	255
〈표 VI-24〉 부모관련 가정생활에 대한 국가별 차이	256
〈표 VI-25〉 부모관련 가정생활에 대한 국가별 차이	
- 측정문항별 평균	257
〈표 VI-26〉 한민족정체성-의식에 대한 국가별 차이	258
〈표 VI-27〉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민족정체성-의식의 차이	
- 우즈베키스탄	258
〈표 VI-28〉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민족정체성-의식의 차이	
- 카자흐스탄	259
〈표 VI-29〉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민족정체성-의식의 차이	
- 국내거주	260
〈표 VI-30〉 한민족정체성-실천에 대한 국가별 차이	260
〈표 VI-31〉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민족정체성-실천의 차이	
- 우즈베키스탄	261
〈표 VI-32〉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민족정체성-실천의 차이	
- 카자흐스탄	262
〈표 VI-33〉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민족정체성-실천의 차이	
- 국내거주	262
〈표 VI-34〉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국가별 차이	
- 측정문항별 평균	263
〈표 VI-35〉 고려인 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	
- 각 요인별 평균에 대한 국가별 차이	264
〈표 VI-36〉 고려인 청소년의 의사소통능력	
- 측정문항별 평균에 대한 국가별 차이	265

〈표 VI-37〉 고려인 청소년의 창의적사고	
- 측정문항별 평균에 대한 국가별 차이	266
〈표 VI-38〉 고려인 청소년의 문제해결력	
- 측정문항별 평균에 대한 국가별 차이	266
〈표 VI-39〉 고려인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 측정문항별 평균에 대한 국가별 차이	267
〈표 VI-40〉 고려인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 측정문항별 평균에 대한 국가별 차이	268
〈표 VI-41〉 고려인 청소년의 국가정체의식	
- 측정문항별 평균에 대한 국가별 차이	269
〈표 VI-42〉 한국에 관한 인식 조사의 국가별 차이	269
〈표 VI-43〉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국에 관한 인식의 차이	
- 우즈베키스탄	270
〈표 VI-44〉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국에 관한 인식의 차이	
- 카자흐스탄	270
〈표 VI-45〉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국에 관한 인식의 차이	
- 국내거주	271
〈표 VI-46〉 한국에 관한 인식 - 측정문항별 평균의 국가별 차이	271
〈표 VI-47〉 동포청소년 간 교류 경험의 국가별 차이	272
〈표 VI-48〉 거주국 주최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경험의 국가별 차이	273
〈표 VI-49〉 한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캠프 경험의 국가별 차이	274
〈표 VI-50〉 동포청소년 만남의 장소	274
〈표 VI-51〉 한국 관련 교류 욕구의 국가별 차이	275
〈표 VI-52〉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기여의 국가별 차이	276
〈표 VI-53〉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기여- 문항별 평균의 국가별 차이	277
〈표 VI-54〉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요구의 국가별 차이	278

〈표 VI-55〉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요구 - 문항별 평균의 국가별 차이	278
〈표 VI-56〉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279
〈표 VI-57〉 한국에서의 학업 또는 취업의 방해 요인	280
〈표 VI-58〉 인생에서 중요한 것	281
〈표 VI-59〉 장래 희망(직업)	282
〈표 VI-60〉 장래 희망을 이루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283
〈표 VI-61〉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285
〈표 VI-62〉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286
〈표 VI-63〉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287
〈표 VI-64〉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288
〈표 VI-65〉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290
〈표 VI-66〉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291
〈표 VI-67〉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294
〈표 VI-68〉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295
〈표 VI-69〉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296
〈표 VI-70〉 우즈베키스탄 교육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의 범주	298
〈표 VI-71〉 카자흐스탄 교육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의 범주	320
〈표 VI-72〉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 분야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의 범주	336
〈표 VII-1〉 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정책과제	403
〈표 VII-2〉 고려인 동포청소년 정책과제	428

그림 목차

【그림 Ⅰ-1】 연차별 추진 계획	5
【그림 Ⅰ-2】 3차 년도 주요국가 선정 및 연구	6
【그림 Ⅰ-3】 3차 년도 연구 과정 흐름도	11
【그림 Ⅱ-1】 재외동포의 정의	17
【그림 Ⅱ-2】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의	18
【그림 Ⅱ-3】 고려인 강제이주 및 중앙아시아 도착 후 분산 경로	22
【그림 Ⅱ-4】 중남미 지역의 재외동포 연구 동향의 연도별 변화	28
【그림 Ⅱ-5】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재외동포 연구 동향의 연도별 변화	30
【그림 Ⅲ-1】 2015년 재외동포 인구 분포	36
【그림 Ⅲ-2】 중남미 지역 재외동포 인구 분포	38
【그림 Ⅲ-3】 중남미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자 분포	39
【그림 Ⅲ-4】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재외동포 인구 분포	40
【그림 Ⅲ-5】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자 분포	41
【그림 Ⅲ-6】 주요 국가별 고려인 비자 현황	42
【그림 Ⅲ-7】 방문취업 자격 고려인의 연도별 변화(단위: 명)	43
【그림 Ⅲ-8】 공관별 한글학교와 교원 수	45
【그림 Ⅳ-1】 설문 개발 절차	60
【그림 Ⅳ-2】 브라질·아르헨티나 지역 응답자 현황	73
【그림 Ⅳ-3】 브라질 성별·연령별 분포	73
【그림 Ⅳ-4】 아르헨티나 성별·연령별 분포	73
【그림 Ⅳ-5】 고려인 동포청소년 국가별 응답자 현황	82
【그림 Ⅳ-6】 고려인 동포청소년 응답자의 성별 분포	82
【그림 Ⅳ-7】 고려인 동포청소년 응답자의 연령 분포	83
【그림 Ⅳ-8】 면접조사 분석 절차	86
【그림 Ⅵ-1】 거주국 거주 의 주요 이유	241
【그림 Ⅵ-2】 최초로 이주한 세대	244

【그림 VI-3】 부모의 국적	246
【그림 VI-4】 미래에 살고 싶은 나라	249
【그림 VI-5】 한국/한글 관련 학교에 다니게 된 이유	252
【그림 VI-6】 한국어 능력에 대한 국가별 차이	254
【그림 VI-7】 부모관련 가정생활에 대한 국가별 차이	256
【그림 VI-8】 한민족정체성-의식에 대한 국가별 차이	258
【그림 VI-9】 한민족정체성-실천에 대한 국가별 차이	261
【그림 VI-10】 미래인재역량의 국가별 차이	265
【그림 VI-11】 한국 관련 교류 옥구의 국가별 차이	276
【그림 VI-12】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 중 국가별 상위 3개 항목	280
【그림 VI-13】 한국에서의 학업 또는 취업 방해 요인 중 국가별 상위 3개 항목	281
【그림 VI-14】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국가별 상위 3개 항목	282
【그림 VI-15】 장래희망을 이루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중 국가별 상위 3개 항목	284
【그림 VI-16】 한민족정체성의 영향 요인에 대한 국가별 비교	292
【그림 VI-17】 한민족공동체 발전의 영향 요인에 대한 국가별 비교	297
【그림 VII-1】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방향	378
【그림 VII-2】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전략	381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 제한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재외동포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고 있다¹⁾. 외국의 경우에도 해당 국적자의 혈통의 범위 등을 어디까지 한정하느냐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재외동포의 범주에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자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재외동포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때때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병역기피, 마약, 사기, 폭력, 살인 등 동포들에 의한 범죄 발생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재외동포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욱 커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은 불필요하고, 국내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자원을 낭비하는 일이라는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부 동포들의 문제를 전체 재외동포의 문제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외동포들은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고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으로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국제사회에 한국 역사 바로 알리기,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의 기여, 주류 사회 진출을 통한 대한민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의 형성, 재외동포네트워크를 통한 경제적·문화적

* 이 장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6차 일부개정 2016.5.29. 법률 14173호) 제2조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BEF_SUB_NM=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dtype=LAW_NM&subnm=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befsubnm=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l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A1661&PROM_NO=14173&PROM_DT=20160529에서 2017년 1월 16일 인출

교류 활성화, 거주 국가에서의 한류의 확산, 우수한 능력을 가진 인적자원의 유치를 통한 국가경제 활동에의 참여 등의 다양한 기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에는 동포들의 한민족 발전의 기여 가능성이 더욱 클 수 있다는 데에서 국가가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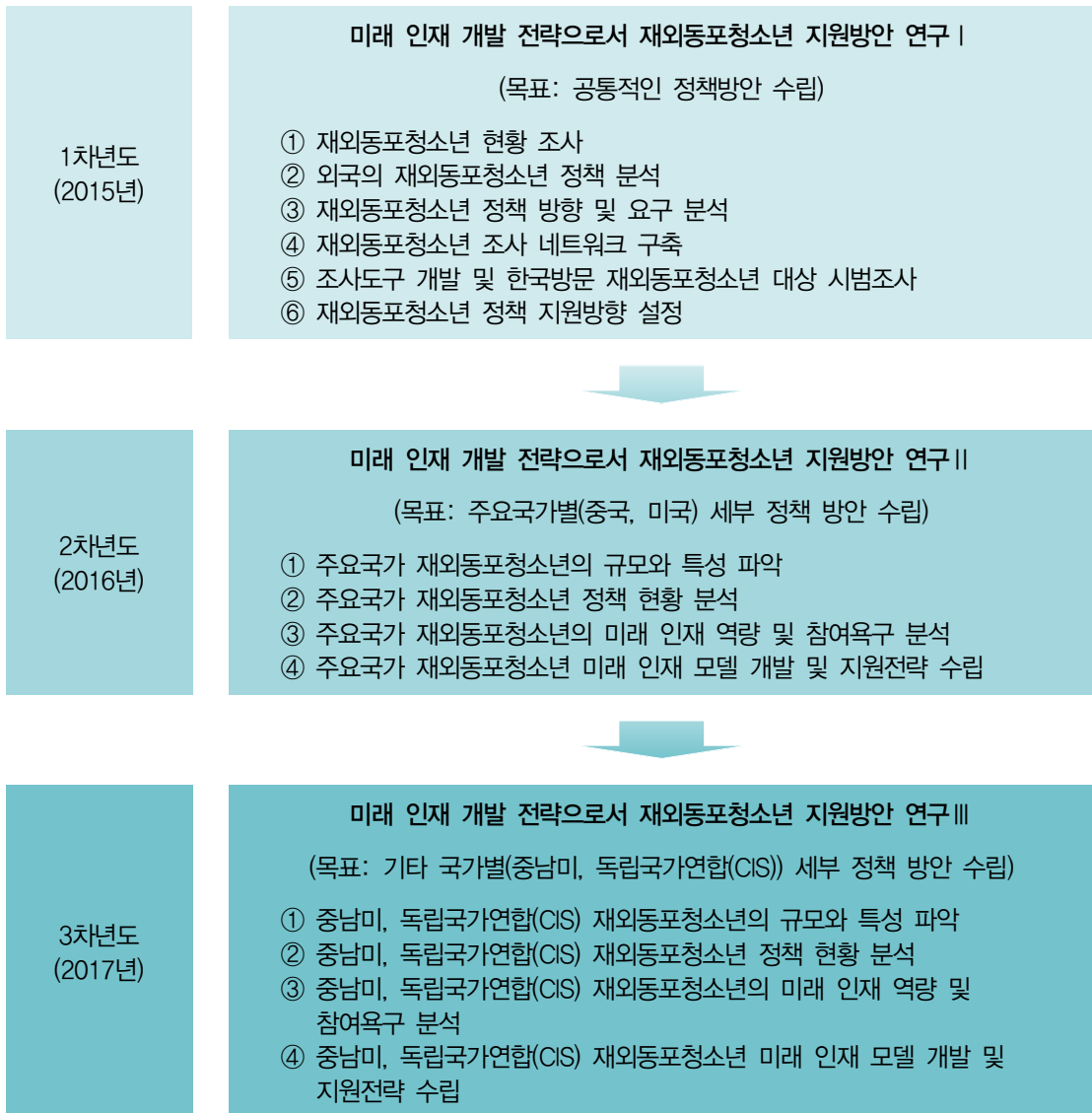
세계 각 국에서도 해외에 있는 우수한 동포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하는 등 각종 사업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이나 해당 국가의 정책과 문화 등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유테인 네트워크, 화교 네트워크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우수 인재 유치사업이나 동포네트워크의 개발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진영, 강성봉, 김관준, 임영언, 정호원, 2013; 이진영, 장안리, 김관준, 임영언, 정호원, 성일광, 2015).

그러나 재외동포사회의 현실을 보면, 국가별로 다소간에 차이가 있지만 세대 간의 교체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차세대의 경우에 거주국 사회에 동화되어 가는 비율이 높아져 한민족의 식이 점차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동포사회와 한국과의 유대관계가 현재보다 더욱 소원해져 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해서 그동안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과 교육부 등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정체성 향상과 한국과의 유대 증진을 위하여 한글과 역사교육, 국내초청 등의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최근에는 차세대 리더 육성, 차세대 직업교육 등 차세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5b: 25~30).

재외동포청소년들은 동포사회의 차세대 주역으로 거주 국가의 동포사회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과의 연계를 통하여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자원으로 판단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재외동포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위한 비전과 장기적인 정책이 부재하고, 컨트롤타워를 갖추지 못한 채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정부 부처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거주 국가별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경준, 김태기, 2015: 166~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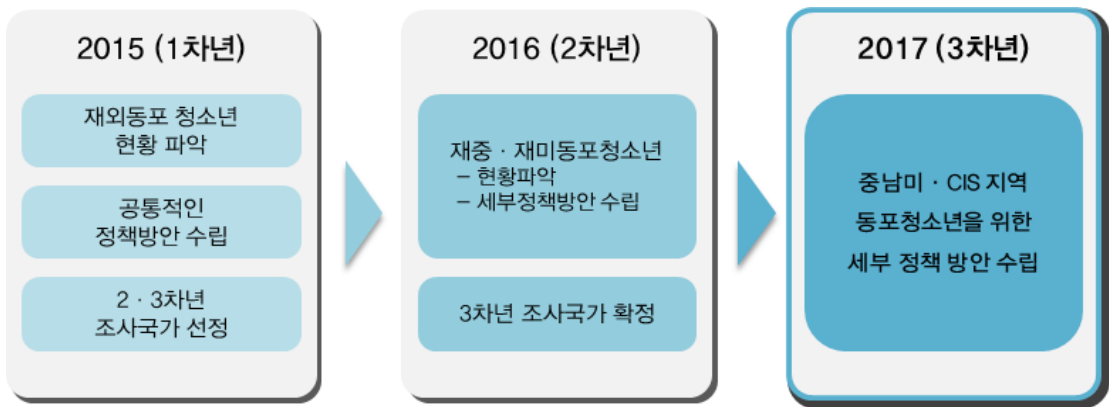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을 한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자 한민족공동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과 개별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동안 수행되는 연구로 계획되었다. 제한된 시간과 예산, 인력의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5년도인 첫 해에는 전문가조사, 국내에 초청되는 재외동포청소년 대상의 조사 등을 통하여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지원을 위한 공통적인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대륙별 또는 개별 국가의 특수한 정책에 대한 요구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1-1】 연차별 추진 계획

연구 대상 국가의 선정은 2015년도에 재외동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재외동포의 규모, 정치적·경제적 비중, 파급 효과, 미래 한민족 발전과의 연계의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주요 국가와 기타 국가를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6년도에는 재외동포 거주 국가 중에서 주요 국가로 선정된 미국과 중국 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년도인 2017년도에는 독립국가연합(CIS)*와 중남미 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고려인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국내에 이주해 있는 상황으로 현지 거주 청소년과 더불어 국내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그림 1-2】 3차 년도 주요국가 선정 및 연구

2. 연구의 내용

1) 재외동포청소년과 한민족공동체와의 관계 정립

재외동포청소년의 범주에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떠나 거주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한민족공동체와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고서는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민족에 대한 관심이나 한민족공동체에의 기여에 대한 기대를 갖기가 어렵다. 즉, 재외동포청소년과 한민족공동체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발전에 도움을 주는 쌍방적인 관계임을

* 독립국가연합(CIS)는 이하 CIS라고 함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과 한민족공동체와의 관계 정립을 통한 상호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에게 있어서 한민족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와 한민족공동체가 재외동포청소년에 바라는 기대와 역할 등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중남미·CIS 지역 동포청소년 및 정책 현황 분석

정책 개발에 앞서서 기초자료가 되는 주요 정책 대상의 규모와 주요 이슈 및 관련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륙별 재외동포 인구의 현황과 연도별 변화 추이, 중남미·CIS 지역 국가별·신분별 재외동포 현황, 한글학교,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 학생 수 등을 통해서 중남미·CIS 지역 동포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1967년 이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물의 주제별 분석을 통해서 중남미·CIS 지역의 시기별 주요 이슈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남미·CIS 동포청소년과 관련한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교부(재외동포재단) 및 교육부의 정책 및 사업을 분석하였다.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거주 국가뿐만 아니라 국내에 입국해 있는 고려인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사·분석하였다.

3) 중남미·CIS 지역 동포청소년의 실태 및 요구 분석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CIS(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역 동포청소년들의 미래 인재 역량과 한민족 정체성 등 한민족 관련 의식, 그리고 가정, 학교, 동포사회 등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의 경험 실태와 한국 관련 진로 및 교류 욕구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향후 중남미 및 CIS 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의식을 강화하고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고려인의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거주 국가에 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해 있는 청소년들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여 국내 고려인 청소년 정책과제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4) 중남미·CIS 지역 동포청소년 현장전문가의 정책 요구 분석

동포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를 보완하여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CIS(우즈베키스탄, 카

자흐스탄) 동포청소년들의 실태와 정책에 대한 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글학교 교사 등 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하여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CIS(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 동포청소년들의 한글교육과 한국문화 경험, 한글교육 및 청소년활동 여건과 부모 및 동포사회의 지원 실태, 그리고 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공동체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였다.

5) 중남미·CIS 지역 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현재 생활하고 있는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대한민국과의 관계 등에 따라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 환경에서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요구도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지역별로 특성화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CIS(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역 동포청소년과 현장전문가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국가별·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중남미·CIS 지역 재외동포 관련 선행 연구와 통계자료, 정부부처의 각종 보고서 등을 조사·분석하여 중남미·CIS 관련 연구 동향과 중남미·CIS 지역 동포청소년 및 관련 정책 현황을 파악하였다. 즉, 학술정보연구서비스(RISS)에 수록되어 있는 55건의 중남미 학술논문 및 보고서와 404건의 러시아·CIS 학술논문 및 보고서를 분석하여 1967년 이후 2016년까지의 중남미·CIS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중남미·CIS 지역의 국가 통계 또는 재외동포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재외동포청소년의 인구 규모와 생활실태 등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의 결산보고서, 교육부 성과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중남미·CIS 지역 동포청소년의 정책 및 사업을 분석하였다.

2) 전문가 자문 및 정책실무협의회 운영

중남미, CIS 등 대륙별로 3~4명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를 구성하여 연구 계획에서부터 동포청소년 설문조사, 현장전문가 면접조사, 정책과제 발굴 등 주요 연구과정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였다. 중남미의 경우에는 설문 및 면접 조사대상 지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동포전문가로 자문진을 구성하였고, CIS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지역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동포전문가로 자문진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현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거주 국가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 외교부(재외동포재단) 등 재외동포 관련 부처 담당자와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표 1-1 전문가 자문 및 정책실무협의회 추진 내용

차수	주요내용	전문가	개최 시기
1차	중남미, CIS 동포청소년 조사방향 및 현지조사 일정 논의	교육부 및 해외 파견 담당자	2월
2차	중남미, CIS 동포청소년 현황 파악 및 조사방법 논의	재외동포재단 관계자	2월
3차	청소년 설문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	재외교육기관 담당자 및 거주 국가 학자	2월
4차	CIS 연구 및 조사 자문	CIS 동포 관련 학자	3월
5차	CIS 및 중남미 동포청소년 조사 자문	CIS 및 중남미 동포 관련 학자	3월
6차	중남미 동포청소년 조사 자문	중남미 동포 관련 학자	3월
7차	국내 고려인 전문가 조사를 위한 자문	국내 고려인 관련 단체장	5월
8차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분석 방향 논의	국내 질적 연구 전문가	7월
9차	정책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운영	중남미 및 CIS 동포전문가, 정부 관련부처 담당자	7월
10차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분석 및 집필 방향 논의	국내 질적 연구 전문가	8월
11차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정부 관련 부처 담당자	8월
12차	정책과제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정부 관련 부처 담당자	9월

3) 양적 연구

재외동포청소년을 한민족공동체 발전을 위한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중남미 및 CIS 지역 동포청소년의 미래 인재 역량과 한민족에 대한 인식 및 교류 욕구, 그리고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여 의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은 만 9~24세의 중남미 및 CIS 지역 동포청소년으로 중남미 지역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그리고 CIS 지역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에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476명과 CIS(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고려인) 5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436명, CIS(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 거주 고려인) 465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2차년도인 2016년도에 조사한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외 동포 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항목은 한글학교 및 한국학교 재학 경험, 한국어능력, 생활실태, 한민족정체성,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인식, 참여욕구, 미래 인재 역량,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2017년 5월~8월 사이에 실시되었는데, 해당 국가별로 교육부와 한국교육원의 협조를 얻어서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교사 등이 수업시간에 집단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하였다. 국내 거주 고려인 조사의 경우에는 고려인 학교, 고려인 NGO단체를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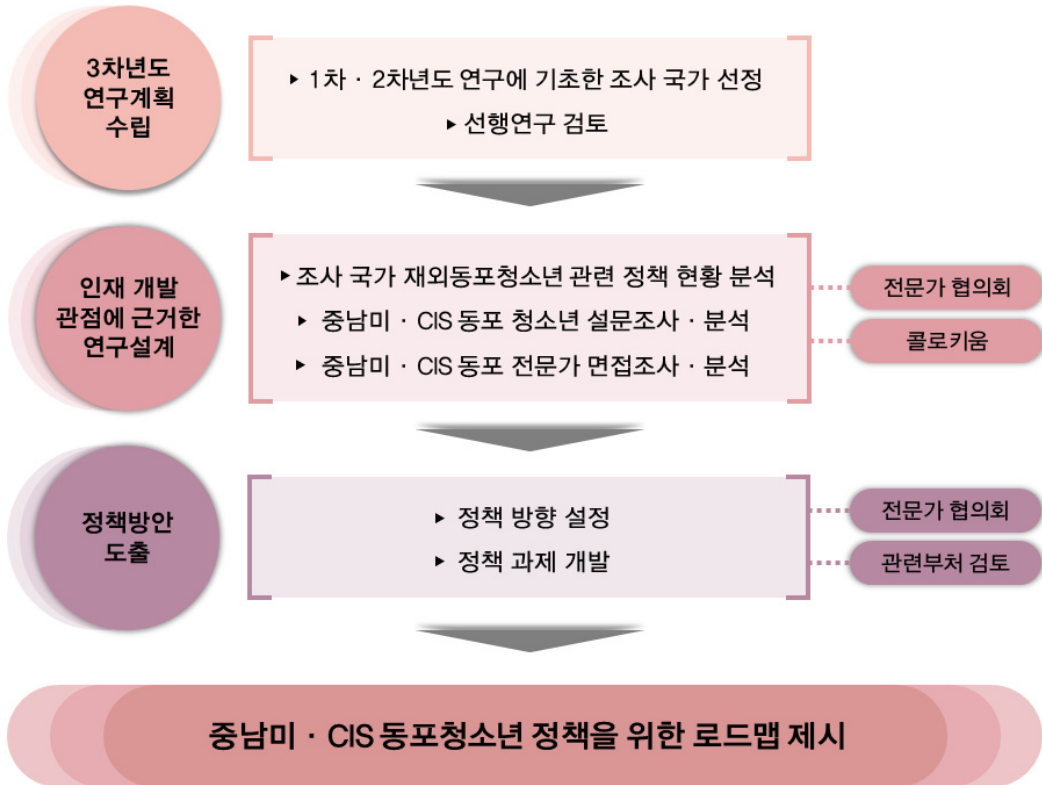
4) 질적 연구

중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CIS(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역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관련 의식과 생활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한글학교 교사 등 재외동포 전문가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중남미 및 CIS 재외동포청소년의 특성, 한국에 대한 관심 및 한글교육 실태, 한민족의식 및 진로 실태, 그리고 한민족공동체의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중남미 지역의 면접조사 대상은 총 33명(브라질 18명, 아르헨티나 15명)으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한글학교협의회 임원 등에 대한 집단면접조사와 개별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고려인 동포청소년 전문가 면접조사의 경우에는 총 19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우즈베키스탄 현지 전문가 7명, 카자흐스탄 현지 전문가 7명, 국내 고려인 전문가 5명 등으로 연구자가 거주 국가와 국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5) 콜로키움 및 전문가워크숍 개최

재외동포청소년과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와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설문조사와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로 도출된 정책과제(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중남미와 CIS 및 다문화 관련 학자, 현장 전문가, 관련 부처 담당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제안된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수정·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나 새롭게 추가 발굴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림 1-3】 3차 년도 연구 과정 흐름도

4. 연구의 제한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대륙 중에서 동포의 규모가 크고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제한된 연구진과 연구 예산을 가지고 수행되었고, 정확한 인구 규모의 파악과 조사가 어려운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중남미지역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동포청소년 중에서 일부 국가의 동포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중남미지역과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동포청소년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중남미지역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재외동포청소년을, 그리고 독립국가연합(CIS)지역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 각 국가의 동포청소년의 문제와 정책과제를 제안하는데 그쳤다. 둘째, 국가별 동포청소년 조사에서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 국가의 전체 동포청소년과 전문가들을 대변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여 동포청소년 조사와 전문가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국가별 공통과제와 특성화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재외동포청소년의 개념
2. 재외동포청소년에게 있어서
한민족공동체의 의미
3. 한민족공동체의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기대와 역할
4. 종남미 및 독립국가연합(CIS)
연구 동향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재외동포청소년의 개념

1)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의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대상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재외동포의 범위 설정의 모호함이나 대한민국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그와 관련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정책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의 주요 국가에서 실제로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외동포의 사례를 살펴보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 “재외동포란 현재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을 의미”(p. 10)하고 있다. 이들 미국인 재외동포들은 해외 파견 및 결혼, 이민자 부모의 국가로의 귀환, 외국에서 미국인 부모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등의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파악되고 있다. 미국의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18세부터 참정권이 주어지고 있으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의무교육을 지원하고, 재단 및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학자, 교육자, 대학원생 등에게 교류 프로그램과 장학금 지원 등의 인재 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장안리, 2015: 10~28).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국적의 해외거주자인 화교(華僑), 외국국적자인 화인(華人)과, 혼혈 혹은 수 세대에 걸쳐 현지 거주국에 동화되었으나 중국인의 뿌리가 있는 화예(華裔)”(pp. 36~37)를 재외동포에 포함하고 있다. 즉, 화교화인인 중국 국적자와 외국국적자를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 교육시설과 중국 내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 이 장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과 정은주 연구위원이 공동집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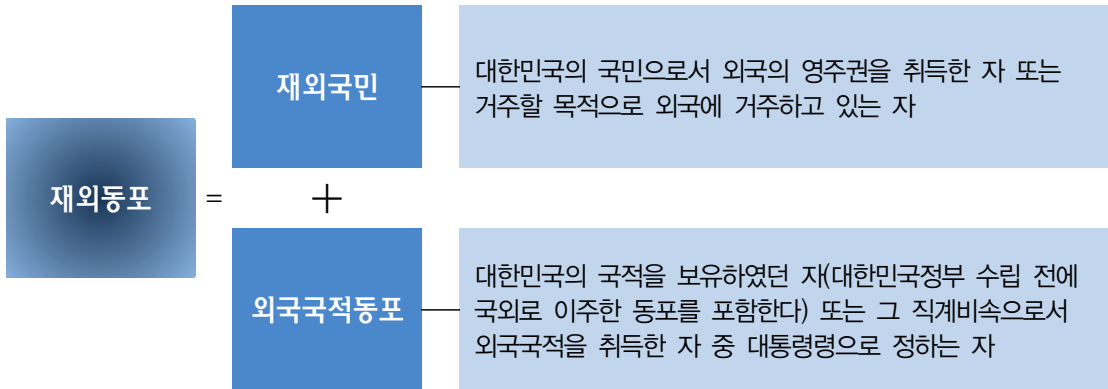
있으며, 작문대회, 노래대회, 중국연수와 캠프 등의 다양한 중화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그리고 화교화인 우수 인재의 초빙과 창업 지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김판준, 2015: 45~62).

독일에서는 재외동포를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 중인 독일 국적의 재외국민과 구소련을 비롯해 루마니아, 불가리아, 구유고, 알바니아 혹은 중국 등에 거주해 오던 외국국적의 독일 동포, 그리고 캐나다, 남·북미, 호주 등 그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의 독일 동포 등을 말한다”(p. 130). 독일의 경우에는 재외동포를 다른 국가에서 분류하는 것처럼 단순히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자로 분류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추방당하거나 탈주한 동포를 특별한 대상으로 포함하여 분류하고 있으며, 나치시대의 과오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식하여 주요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 동포에 대한 정책은 모국 귀환에서 현지거주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존 사회로의 편입 또는 통합, 그리고 문화적, 경제적, 인도적 지원 등이 포함된 현지 거주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정호원, 2015: 130~152).

이상에서 각국의 재외동포에 대한 분류와 정책 대상화는 그 국가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과 이민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외 국민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간에 시민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인식이 밀받침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항일 항쟁과 건국 과정에서 화교화인의 지원과 협력을 경험하여 건국시기부터 현재까지 화교화인을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김판준, 2015: 37). 즉, 화교화인이 중국의 발전에 도움을 주어왔고, 앞으로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서 재외국민인 화교뿐만 아니라 외국국적자인 화인에 대한 정책도 함께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독일은 나치시대 과오의 역사적 유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반영되어 있으며, 따라서 구소련 등에 거주해 오던 외국국적자를 재외동포의 주요 대상으로 하고, 현지나 모국 사회의 적응 지원 등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외동포의 범위에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과 같이 국가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다루고 있다. 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외동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²⁾고 하여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서는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제1조 및 제2조)³⁾.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과 참정권 확대 등을 추진해 왔으며, 외국국적자에 대해서는 한글 교육, 역사 교육 등을 통하여 한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밖에 고려인동포 등에 대해서는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경제적 자립지원,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 활동 지원, 한국어 및 정보 기술 교육 등 교육 활동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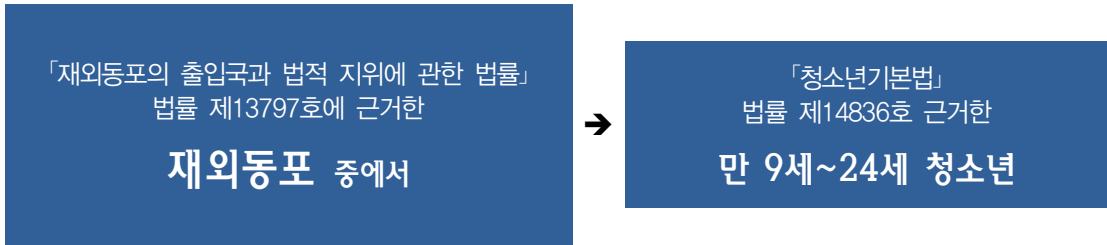
【그림 II-1】 재외동포의 정의⁴⁾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BEF_SUB_NM=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htype=LAW_NM&subnm=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befsubnm=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A1661&PROM_NO=14173&PROM_DT=20160529에서 2017년 2월 1일 인출

3)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고려인동포합법적체류자격취득및정착지원을위한특별법시행령&BEF_SUB_NM=고려인동포합법적체류자격취득및정착지원을위한특별법시행령&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htype=LAW_NM&subnm=고려인동포합법적체류자격취득및정착지원을위한특별법시행령&befsubnm=고려인동포합법적체류자격취득및정착지원을위한특별법시행령&l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A3351&PROM_NO=11690&PROM_DT=20130323에서 2017년 2월 1일 인출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97호에 근거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위의 재외동포규정과 청소년 연령을 적용하여 재외동포청소년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재외동포 중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정의한다.



【그림 II-2】 재외동포청소년의 정의

2. 재외동포청소년에게 있어서 한민족공동체의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재외동포는 재외국민인 한국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혈통을 타고난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하고 있다. 즉,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한민족의 범주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민족은 재외동포들에게, 특히, 한민족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한민족은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단지 추상적일뿐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흔히 한 민족이 가지게 되는 민족정체성은 “민족 성원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객관적인 특성과 민족의 일원이라는 주관적 소속의식”(p. 3)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객관적 특성은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그 민족 집단에 특유한 종족적(유전적) 또는 문화적(언어·종교·생활방식) 특징과 역사적 유래 등과 같은 자료들로 구성되고 주관적 소속의식은 객관적인 측면에 밀접히 의존되어 있어서 고유한 특성 여부에 따라 그 의식이 좌우된다. 또한, 주관적 민족정체성의 강도는 경합하는 여러 가치들(개인, 가문, 지역, 당파, 계급, 세계 등) 가운데 민족이 어느 서열에 배치되느냐 하는 것에 결정된다(정영훈, 2010: 3~5). 즉, 민족의식의 형성은 혈연적, 문화적 동질성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개인이 가지는 여러 가치들 가운데 민족적 가치의 우선순위가 높게 될 때 민족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적 차원에서의 (현신적인) 행동이 가능하다.

한편, 재외동포청소년들의 민족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이중적 정체성, 정주의식, 나비효과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중적 정체성은 세대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모국과 거주국의 문화와 가치가 공존해 있는 것을 말하며, 정주의식은 거주국이 장기적으로 정주할 곳이라는 의식이 강하여 모국과 거주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거주국의 편을 들게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나비효과는 어릴 때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인 등에 대한 태도, 성향, 친근성 등이 점차 확대되어 성인이 되어서는 커다란 차이로 증폭되는 현상을 말한다(윤인진, 채정민, 2007: 105~114).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 거주국과 모국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지만, 어릴 때부터 가정이나 동포사회 내에서의 한국적 교육활동 등을 통해서 형성해 온 한국적 가치와 여러 가치들 사이의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한민족 정체성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과의 교류 경험이나 교류 욕구 등도 한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캠프, 연수, 단체 활동 등을 통한 동포청소년 및 한국청소년과의 교류경험이 많을수록, 그리고 한국청소년과의 교류, 연수프로그램 참여, 유학, 인턴, 취업, 문화경험 등 한국 관련 교류 욕구가 높을수록 한민족 정체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준, 김태기, 2015: 210). 이러한 결과는 한민족 공동체가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나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거주국 사회에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자신의 욕구나 이상을 실현할 수도 있지만, 한민족 공동체는 거주국 사회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현재와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은 개인별로 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기대나 욕구의 차이가 있다. 특히, 재외동포청소년 대상의 조사에서 남미 동포청소년들은 한국 연수나 유학, 한국 취업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유럽 동포청소년들은 연수나 문화 경험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경준, 김태기, 2015: 207).

3. 한민족공동체의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기대와 역할

한민족공동체의 시각에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은 거주국과 모국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도 거주국과 모국에서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거주국

동포사회에서의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기대는 공통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동포사회 내의 세대교체 속에서 거주국 동포사회의 유지와 발전, 거주국 주류 사회에의 진출을 통한 동포사회 및 모국에의 기여, 그리고 모국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상호 이해의 도모 등이 있다. 국가별로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처해 있는 현안 이슈와 관련해서 그 역할을 살펴보면, 미국 동포사회의 경우에는 주류사회 진출과 동포사회의 결속 등이 청소년들에게 주요한 역할이 되고 있고, 일본 동포사회의 경우에는 한일 간의 정치상황의 악화에 따른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 한일관계 개선과 민족교육의 발전 등에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중국 동포사회에서는 조선족 자치구의 해체에 따른 민족정체성 유지와 민족교육을 위한 모국과의 연계의 역할 등이 있고, 고려인 동포사회에서는 거주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모국과의 연계를 통한 발전 등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김경준, 김태기, 2015: 143~161).

모국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으로서의 참여, 거주국 및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 그리고 민족의 숙원사업인 남북통일 과정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 등이 기대되고 있다.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우수한 능력을 국가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등을 통해서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 우수인재유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진영, 강성봉, 김판준, 임영언, 정호원, 2013: 65). 한국의 국익과 관련한 역할에 대해서는 거주국의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할, 경제와 무역을 통한 우리상품의 소비자·광고자·마케터로서의 역할, 그리고 한국문화의 수용자·전파자로서의 역할 등이 논의되고 있다(이진영, 박우, 2013: 23~24). 이밖에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이자 지구공동체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에 공헌함으로써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점차적으로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참여와 세계적 평화와 환경보호, 안전, 인권 등의 활동을 하는 NGO 등에서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통해서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에 초청된 전 세계 재외동포청소년 57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성공을 통한 동포사회의 발전, 한국문화의 홍보, 동포사회의 단합, 자신의 능력의 한국경제나 사회발전에 기여, 국제사회에서의 가교 역할을 통한 남북통일의 기여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과 자신의 아이디어나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나 사회발전에 도움을 주겠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경준, 김태기, 2015: 203).

4. 중남미 및 독립국가연합(CIS) 연구 동향

1) 고려인 재외동포의 이주

고려인 재외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중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며 이중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한다’라는 내용에 해당한다. 고려인 재외동포는 한 나라에 정주하여 살고 있는 다른 국가의 재외동포와는 다르게 중앙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재외동포를 포함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에 대한 법적 지위 취득과 국내 정착을 위하여 여러 방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고려인’이라는 명칭은 1860년대부터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스스로를 ‘조선사람’, 또는 ‘고려사람’이라 부른 것이 시작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김호준, 2016: 15). 연해주 지역에 민족공동체를 이루며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은 1937년 스탈린의 명령에 의해 중앙아시아 지역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역 등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 사건을 ‘고려인 강제이주’라 하며 당시 약 172,000명의 고려인은 각 지역으로 배치되어 소련의 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거하게 되었다(김호준, 2016). 올해 2017년은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김호준(2017)은 고려인 강제 이주가 현재까지도 유라시아 지역에 고려인이 유랑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아픔이라는 결과를 낳았지만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거주로 인하여 한민족의 생활권역을 획기적으로 넓힌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고려인 강제이주 과정은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 과정 속에 많은 고려인이 숙청, 기근,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나 정확한 숫자나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고 여전이 강제이주 역사는 우리 민족의 큰 상처로 남아 있다. 고려인 강제이주 및 중앙아시아 도착 후 분산 경로를 보면 이들의 험난한 이주 경로와 분산 되어 현재 거주지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연해주 근처에 거주하고 있던 고려인들은 화물열차에 간혀 3~4주를 여행하여 황무지인 우수토베로 이주된다. 이후 대부분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분산되어 이주되었다. 김호준(2017)은 1937년 강제 이주된 고려인은 총 36,442가구, 171,781명이고 이 중 카자흐스탄으로 95,256명, 우즈베키스탄으로 76,525명이 이주되었다고 한다.⁵⁾



출처: 서울신문(2017년 7월 30일자) 강제이주 80년 세월 흘러도... '카레이스키' 통한의 삶 계속된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731011001#csidx17207a0699a97209f6f5bc8eca86185>,
 2017년 9월 29일 인출.

【그림 II-3】 고려인 강제이주 및 중앙아시아 도착 후 분산 경로

강제이주 당시 약 18만 명으로 추정되는 고려인은 2015년 재외동포재단 통계에 의하면 현재 50만 명으로 늘어나 중앙아시아 지역과 일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재외동포재단, 2015b). CIS 지역 국가 중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는 강제이주 후 초기 분산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순이다. 두 국가 모두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는 다민족 국가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인구 동향을 시기별로 살펴본 표에 의하면 고려인은 두 국가에서 전체 민족 중 0.6% 정도 또는 그 이하에 해당하는 소수 민족임을 알 수 있다(이병조, 2016).

우즈베키스탄의 통계를 살펴보면, 강제이주 이전인 1926년에 고려인은 30명으로 매우 소수였으나 1959년에는 약 14만 명으로 이는 우즈베키스탄 전체인구에 1.7%에 해당한다. 이후 2013년 집계에 의하면, 고려인은 약 18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0.6%에 해당하는 소수민족으로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민족은 우즈베크인으로 전체 민족 중 83% 정도이고 타타르인 5.8%, 러시아인 2.7%로 집계되었다.

5) 본 단락은 김호준의 칼럼을 요약하였음.

출처: 서울신문(2017.07.31.), 김호준-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 특별기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731011001#csidx17207a0699a97209f6f5bc8eca86185>, 2017년 8월 10일 인출.

표 II-1 우즈베키스탄의 민족별, 시기별 인구 동향 (1926-2013)

민족/시기	1926 (%)	1959 (%)	1989 (%)	2000(평가) (%)	2013(공식평가) (%)
우즈베크인	3,383,812 (71.31)	5,038,273 (62.16)	14,142,475 (71.39)	18,959,577 (77.61)	24,858,159 (82.9)
타지크인	348,841 (7.35)	311,375 (3.84)	933,560 (4.71)	1,166,713 (4.78)	1,449,974 (4.8)
카자흐인	191,126 (4.03)	335,267 (4.14)	808,227 (4.08)	990,022 (4.05)	-
러시아인	245,807 (5.18)	1,090,728 (13.46)	1,653,478 (8.35)	1,199,015 (4.91)	809,530 (2.7)
카라칼팍인	142,688 (3.01)	168,274 (2.08)	411,878 (2.08)	504,301 (2.06)	-
키르기즈인	79,610 (1.68)	92,725 (1.14)	174,907 (0.88)	231,864 (0.95)	-
타타르인	28,335 (0.60)	397,981 (4.91)	467,829 (2.36)	324,080 (1.33)	211,119 (0.7)
고려인	30 (0.00)	138,453 (1.71)	183,140 (0.92)	163,787 (0.67)	184,699 (0.6)
합계	4,745,114 (100.0)	8,105,704 (100.0)	19,810,077 (100.0)	24,430,192 (100.0)	29,994,600 (100.0)

출처: 이병조(2016).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 내 고려인의 주류사회 분포 현황과 과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2016년 재외한인학회·IOM이민정책연구원·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 공동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재외동포의 주류화-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현황과 과제, p. 71.

카자흐스탄 통계를 살펴보면, 강제이주 이전인 1926년에 고려인은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강제이주 해인 1937년이 지난 1939년에는 1.57%의 고려인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후 2015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0.61%의 고려인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이주 직후인 1939년을 제외하고는 고려인은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 비율 대비 0.6%대를 유지하는 소수민족으로 집계되었다. 가장 많은 민족은 카자흐인으로 2015년 기준 전체 중 66.01%, 다음은 러시아인으로 21.05%, 우즈베크인 3.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 카자흐스탄의 민족별, 시기별 인구 동향 (1897-2015)

민족/시기	1926	1939	1959	1970	1979	1989	1999	2009	2015
카자흐인	58.52	37.84	30.02	32.39	36.02	39.69	53.40	63.07	66.01
러시아인	20.57	39.97	42.69	42.42	40.80	37.82	29.96	23.70	21.05
우즈베크인	2.09	1.96	1.47	1.62	1.79	2.02	2.48	2.85	3.07
우크라이나인	13.88	10.70	8.19	7.24	6.12	5.44	3.66	2.08	1.70
위구르인	1.01	0.58	0.64	0.94	1.01	1.13	1.41	1.40	1.44
타타르인	1.29	1.76	2.06	2.19	2.13	1.99	1.66	1.28	1.17
독일인	0.82	1.50	7.09	6.53	6.13	5.82	2.36	1.11	1.04
고려인(한민족)	-	1.57	0.80	0.61	0.63	0.63	0.67	0.63	0.61
터키인	-	0.01	0.11	0.14	0.18	0.30	0.51	0.61	0.61
아제르바이잔인	-	0.21	0.41	0.44	0.50	0.55	0.52	0.53	0.58
동간인	0.14	0.12	0.11	0.13	0.15	0.18	0.25	0.32	0.37
백러시아인	0.41	0.51	1.15	1.54	1.24	1.11	0.75	0.42	0.34
합계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이병조(2016).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 내 고려인의 주류사회 분포 현황과 과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2016년 재외한인학회·IOM이민정책연구원·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 공동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재외동포의 주류화-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현황과 과제, p. 69.

키르기스스탄은 CIS 지역 중 고려인 재외동포가 세 번째로 많이 거주하는 국가이다. 강제이주 초기에 대부분의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분산되었으나 이후에는 일부 고려인이 주변 국가로 이주하여 거주하게 되었다. 1959년에 3,622명이던 고려인은 2012년 현재 16,711명으로 증가하였다. 고려인은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소수민족에 해당한다. 비록 1959년에 전체 인구 대비 0.18%였던 비율이 2012년에는 0.3%로 증가하였지만 2012년에도 고려인은 전체 인구대비 0.3%에 해당하는 소수민족으로 집계되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가장 많은 인종은 키르기스인으로 약 72%에 해당하며 다음으로 우즈베크인 14%, 러시아인 6.9%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 II-3 키르기스스탄의 민족별, 시기별 인구 동향 (1959-2012)

민족/시기	1959 (%)	1989 (%)	1999 (%)	2009 (%)	2012 (%)
키르기스인	836,831 (40.52)	2,229,663 (52.37)	3,128,147 (64.86)	3,804,788 (70.95)	4,006,009 (72.16)
우즈베크인	218,640 (10.59)	550,096 (12.92)	664,950 (13.79)	768,405 (14.33)	796,291 (14.34)
러시아인	623,562 (30.20)	916,558 (21.53)	603,201 (12.51)	419,583 (7.82)	381,562 (6.87)
동간인	11,088 (0.54)	36,928 (0.87)	51,766 (1.07)	58,409 (1.09)	61,372 (1.11)
위쿠르인	13,157 (0.64)	36,779 (0.86)	46,944 (0.97)	48,543 (0.91)	50,346 (0.91)
타쭈크인	15,221 (0.74)	33,518 (0.79)	42,636 (0.88)	46,105 (0.86)	48,033 (0.87)
터키인	542 (0.03)	21,294 (0.50)	35,524 (0.74)	39,133 (0.73)	39,913 (0.72)
카자흐인	20,061 (0.97)	37,318 (0.88)	42,657 (0.88)	33,198 (0.62)	32,981 (0.59)
타타르인	56,209 (2.72)	70,068 (1.65)	45,503 (0.94)	31,491 (0.59)	28,656 (0.52)
아제르바이잔인	10,428 (0.50)	15,775 (0.37)	14,014 (0.29)	17,267 (0.32)	18,046 (0.33)
고려인	3,622 (0.18)	18,355 (0.43)	19,784 (0.41)	17,299 (0.32)	16,711 (0.30)
우크라이나인	137,031 (6.64)	108,027 (2.54)	50,442 (1.05)	21,924 (0.41)	16,657 (0.30)
쿠르드인	4,783 (0.23)	14,262 (0.33)	11,620 (0.24)	13,166 (0.25)	-
독일인	39,915 (1.93)	101,309 (2.38)	21,471 (0.45)	9,487 (0.18)	8,766 (0.16)
합계	2,065,009 (100.0)	4,257,755 (100.0)	4,822,938 (100.0)	5,362,793 (100.0)	5,551,888 (100.0)

출처: 이병조(2016).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 내 고려인의 주류사회 분포 현황과 과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2016년 재외한인학회·IOM이민정책연구원·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 공동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재외동포의 주류화-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현황과 과제, p. 72.

2) 중남미 재외동포의 이주 및 정착

한국인들이 중남미로 최초로 이주한 시기는 구한말인 1900년대 초반으로 확인되고 있다. 1905년에 1,033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인천 제물포항에서 출발하여 멕시코로 떠난 것이 시작이며, 브라질은 1918년에,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1940년경에 처음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난다(국사편찬위원회, 2007; 이자경, 2006; 김영철, 2016a).

최초이주 시기와 구분하여 중남미로의 한인들의 공식적인 이민은 한국에서 경제개발이 추진되고 있던 1960년대로 보고 있으며, 정부 및 중남미 관련 기관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공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식적 이민의 국가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62년에 정부에서는 해외이주법을 제정하여 외국으로의 인구분산정책의 수단으로 중남미로의 농업이민을 장려했는데, 브라질에는 1962년에 1차로 103명의 이민에서 시작하여 1968년까지 5차에 걸쳐 약 1,300명이 이민했다. 아르헨티나에는 1965년에 78명의 농업이민이 시작이고, 파라과이는 한국의 이민 사업가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150여명의 이주 허가를 받은 것이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김영철, 2016b: 88~89). 그러나 현지 농업 사정에 대한 몰이해와 초기 정착금 및 정부지원의 부족, 그리고 농사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부분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로 재이주하게 되었다(김영철, 2016a: 원미진, 유현경, 장소원, 조태린, 2015).

브라질에서는 1960대에 한인들의 상과울루와 같은 대도시로의 이주가 이루어졌는데, 일본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글리세리우(Glicerio)와 끈지 데 짜르다스(Conde de Sarzedas) 길 사이에 한인촌을 형성하고 행상에서부터 구슬 백이나 의류를 만들어 팔았다(국사편찬위원회, 2007: 224~225). 1968년에는 브라질 정부에서 한국 농업 이민을 금지하여 볼리비아와 파라과이를 거쳐 불법으로 이민이 이루어졌다. 1970년 이후에는 기술이민⁶⁾이 이루어졌고, 1980년에서 1990년까지는 가족이나 친지에 의한 초청 이민이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시장개방과 1994년 헤알 정책(Plano Real)의 성공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한국 기업의 대대적인 브라질 진출과 한국과의 빈번한 왕래와 역이민의 증가, 교포 남자들의 무역업으로의 전환⁷⁾, 시장의 개방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지방으로의 이주⁸⁾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이광운,

6) 서류상으로는 기술이민이었지만 대학 졸업장을 갖춘 고학력 중산층이나 남대문이나 동대문에서 의류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던 상인들이 이민을 왔으며, 여성 의류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07: 221, 225).

7) 그동안 교포사회는 대부분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여성 의류업 특성상 원단의 종류, 색상, 단추나 지퍼 같은 부속품들에 대한 선택권을 여자들이 가지고 있어서 남자들에게는 이렇다 할 역할이 없었으며, 기사나 장부 정리, 은행처리 등의 일을 하고 있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07: 232).

2011; 국사편찬위원회, 2007). 1999년 1월 브라질의 재정 위기는 한인들의 미국으로의 불법 이주의 계기가 되었고, 미주로 이주한 한인들은 주로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하여 아르헨티나에서 온 한인들과 함께 시장을 형성하여 브라질과 미국 사이의 한인들의 의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2007: 234). 1990년대 초부터 한인들은 봉헤찌로에 주택을 구입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의 동포사회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70년대까지 공식이민 단계로 볼 수 있으나 농업이민을 벗어나 중상층, 자영업자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원이 바뀌었다. 1985년에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투자이민협정을 체결하면서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인들의 투자이민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2000년을 전후로 해서는 한국인들의 투자와 이민이 절대적으로 많아졌지만 아르헨티나 경기가 침체되면서 한인들이 역이민의 형태로 아르헨티나를 떠나 이주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치안도 더욱 나빠지면서 한인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른 국가로 옮기는 경우가 많았고, 자녀 교육을 위해 선택된 재이민도 상당부분을 차지했다(김영철, 2016b: 92~93; 국사편찬위원회, 2007: 264). 2003년 말부터는 한국인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어 새로운 이민, 관광객, 유학생이 늘고 있고, 멕시코나 미국, 그리고 인근 국가로 이주하였던 동포들이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오고 있다(국사편찬위원회, 2007: 265).

3) 중남미 및 CIS 재외동포 관련 연구 동향

중남미와 독립국가연합(CIS) 재외동포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학술정보연구서비스(RISS)에 수록되어 있는 전 분야의 학술논문과 보고서를 검색하였다. 중남미 관련 학술논문 및 보고서는 남미, 중남미,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한인, 재외동포 등의 검색어로 사용하여 총 55건의 연구물이 분석되었다. 1967년~1999년까지의 연구는 8건으로 14.5%였으며, 2000년~2009년까지의 연구가 27건으로 49.1%, 2010년~2016년까지의 연구는 20건으로 36.3%로 2000년 이후의 연구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주제별로 연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한인사회 형성과 관련된 연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이민사 및 정착(16건), 교육 및 문화(10건), 기업 및 노동(6건), 정체성(5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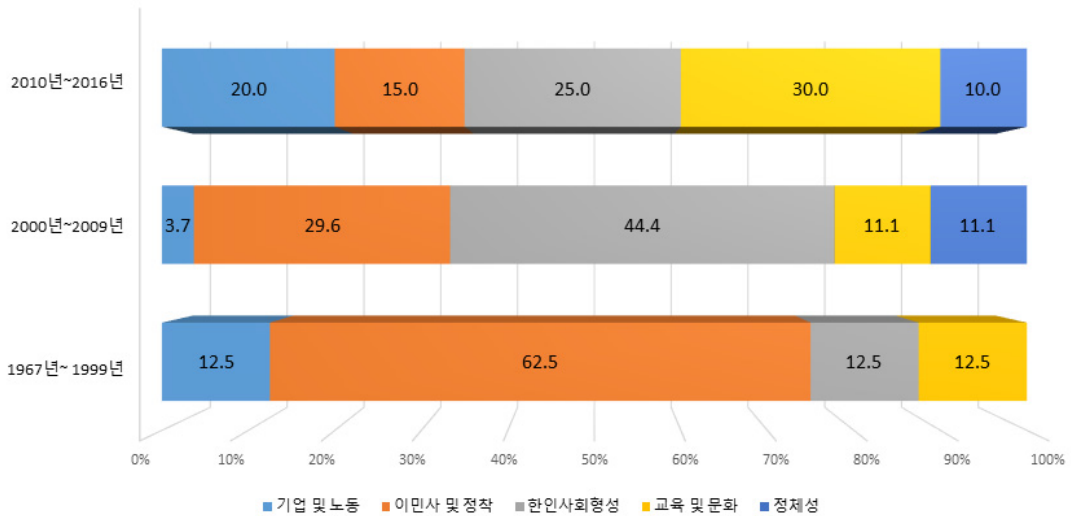
8) 한인들의 지방 이주는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한 교포사업이 브라질 전역으로 확산된 계기가 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07: 233).

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 이후의 연구에서는 교육 및 문화와 관련된 연구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인사회 형성(5건), 기업 및 노동(4건) 등의 순으로 변화를 보였다.

표 II-4 중남미 지역의 재외동포 연구동향 분석

주제	1967년~1999년	2000년~2009년	2010년~2016년	계
기업 및 노동	1	1	4	6
이민사 및 정착	5	8	3	16
한인사회형성	1	12	5	18
교육 및 문화	1	3	6	10
정체성	-	3	2	5
총계	8	27	20	55

출처: 학술정보연구서비스(RISS). <http://www.riss.kr/index.do>에서 2017년 4월 17일~4월 28일에 인출



【그림 II-4】 중남미 지역의 재외동포 연구 동향의 연도별 변화

중남미 지역의 재외동포 연구를 주제영역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및 노동의 영역에서는 중남미 지역으로 한국기업 진출에 따른 한인사회와의 관계, 한인기업에서의 한인들의 노동환경, 그리고 한인 상인들의 이주배경과 생활사, 한인 의류산업지구의 형성 등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민사 및 정착의 영역에서는 재외동포의 이주와 정착 및 역이민, 그리고 한인사회에서 한인여성으로 살아가는 문제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한인사회 형성 영역에서는 중남미 지역에서의 한인사회의 형성과 변화, 거주국에서의 한인공동체의 위상과 국민회의의 역할, 코리아타운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교육 및 문화 영역에서는 동포사회에서의 한류의 영향, 한인회, 한국학교의 문화정체성, 한국어교육의 필요성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정체성 영역에서는 한인 후손들의 사회문화적 적응, 정체성 현황과 변화, 이민자정체성 발달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표 II-5 중남미 지역의 재외동포 연구의 세부 내용

주제영역	주제별 세부 내용
기업 및 노동	현지의 한국기업 진출과 한인사회, 한인 노동환경, 한인 상인의 생활, 한인의류산업지구
이민사 및 정착	정착과 역이민, 이주, 한인사회에서의 한인여성
한인사회형성	한인사회형성과 변화, 한인공동체의 위상, 국민회의의 역할, 코리아타운
교육 및 문화	한인회, 한국학교의 문화정체성, 한국어 교육, 한류
정체성	한민족정체성, 한인후손들의 정체성 현황 및 변화, 이민자정체성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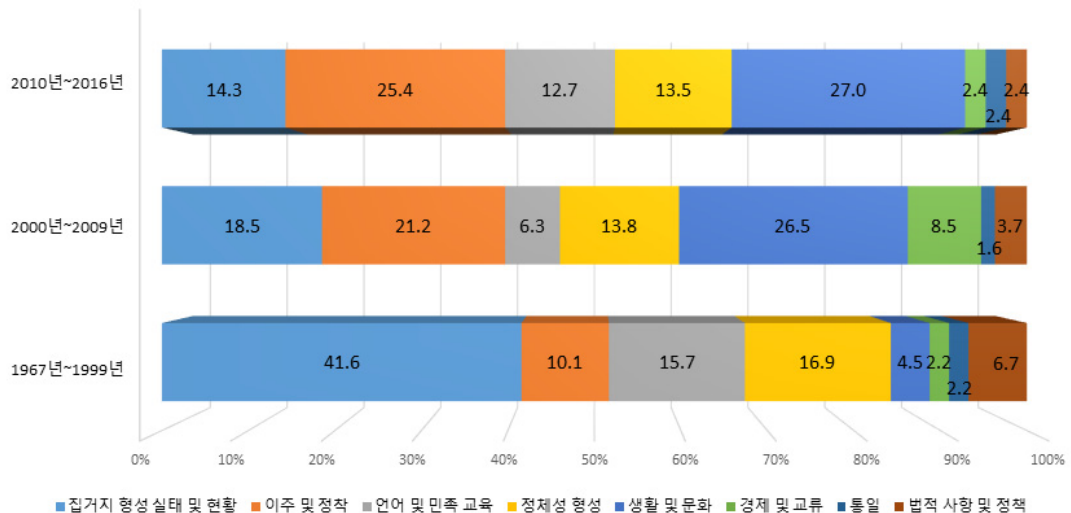
출처: 학술정보연구서비스(RISS). <http://www.riss.kr/index.do>에서 2017년 4월 17일~4월 28일에 인출

독립국가연합(CIS) 관련 학술논문 및 보고서는 CIS,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한인, 재외동포, 재러동포, 고려인 등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총 404건의 연구물이 분석되었다. 1967년~1999년까지의 연구는 89건으로 22.0%였으며, 2000년~2009년까지의 연구가 189건으로 46.8%, 2010년~2016년까지의 연구는 126건으로 31.2%로 2000년 이후의 연구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재외동포 연구동향 분석

주제	1967년~1999년	2000년~2009년	2010년~2016년	계
집거지 형성 실태 및 현황	37	35	18	90
이주 및 정착	9	40	32	81
언어 및 민족 교육	14	12	16	42
정체성 형성	15	26	17	58
생활 및 문화	4	50	34	88
경제 및 교류	2	16	3	21
통일	2	3	3	8
법적 사항 및 정책	6	7	3	16
총계	89	189	126	404

출처: 학술정보연구서비스(RISS), <http://www.riss.kr/index.do>에서 2017년 4월 17일~4월 28일에 인출



[그림 II-5]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재외동포 연구 동향의 연도별 변화

연구주제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집거지형성 실태 및 현황과 관련된 연구가 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생활과 문화(88건), 이주 및 정착(81건), 정체성 형성(58건), 언어 및 민족교육(4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연구에서는 생활 및 문화와 관련된 연구가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이주 및 정착(32건), 집거지 형성 실태 및 현황(18건), 정체성 형성(17건), 언어 및 민족교육(16건) 등의 순으로 변화를 보였다.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재외동포 연구를 주제영역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집거지 형성 실태 및 현황 영역에서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집거지역의 형성과 변동, 고려인 초기정착지, 고려인사회에 대한 재인식과 구조적 특징, 지역별 고려인의 특성,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집거지 형성과 분산, 고려인 엘리트의 변화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주 및 정착 영역에서는 고려인의 강제 이주와 그 원인 및 과정, 이주 루트, 귀환이주, 한국 이주와 정착, 연해주 고려인의 디아스포라적 삶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언어 및 민족교육 영역에서는 고려인 언어사용실태, 이중언어교육, 민족교육 및 한글학교 설립, 자녀교육 현황 및 교육기관 만족도, 한국어 교사 경험 및 교재 연구, 교육프로그램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정체성 형성의 영역에서는 한인사회의 형성과 민족정체성 변화, 언어정체성, 모국정체성, 귀속의식의 변화, 고향의식, 민족의식 및 민족운동, 차세대 정체성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생활 및 문화 영역에서는 의·식·주 생활, 민속문화 전승, 종교, 시·노래·소설·구술생애사·문화콘텐츠 등에서 표현된 고려인 문화, 전통명절과 고려인 마을, 이주와 문화 변용 등 고려인의 삶과 문화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다. 경제활동 및 교류 영역에서는 한국기업의 진출, 경제활동 실태, 자영업 실태, 현지기업 및 경영실태, 교류 및 네트워크, 경제공동체 형성 기업가 정신, 비즈니스 전망 등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다. 통일 영역에서는 통일의식, 통일에서의 고려인의 역할과 영향력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법적 사항 및 제도 영역에서는 고려인의 법적 지위, 재외동포법에서의 고려인 배제의 문제, 국적 취득 및 제문제, 러시아 정부의 정책 변화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표 II-7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재외동포 연구의 세부 내용

주제영역	주제별 세부 내용
집거지 형성 실태 및 현황	고려인 집거지역의 형성과 변동, 고려인 초기 정착지, 지역별 고려인의 특성, 고려인 엘리트의 변화
이주 및 정착	강제이주, 재이주, 정착, 역사적 경험과 귀환, 디아스포라와 이주 루트, 명예회복운동, 고려인난민이주, 광주지역이주, 탈북 디아스포라
언어 및 민족 교육	언어실태, 이중 언어, 한글학교 설립, 민족교육, 교재, 교사 경험, 한국어문표준화운동, 한국어교육관과 한국어 교육, 모국수학과정 프로그램, 자녀교육 현황
정체성 형성	언어정체성, 민족정체성, 모국정체성, 귀속의식의 변화, 민족의식, 민족운동, 고향의식, 고려인사회 정체성, 차세대 정체성
생활 및 문화	일상생활, 의·식·주, 전승, 종교(선교) 활동, 고려인 문학, 국문노래, 고려인소설의 정체성, 전통문화, 구술생애사, 문화콘텐츠, 고려극단, 전통명절과 고려인마을, 문화변용
경제활동 및 교류	한국기업진출, 경제활동 실태분석, 자영업자 실태분석, 현지기업, 경영실태, 네트워크, 교류 협력, 직업, 경제 공동체 형성, 기업가 정신, 비즈니스 전망
통일	통일 의식, 통일 역할, 남북한 식량 안전기지 건설의 고려인의 역할, 통일 한국의 고려인의 영향력
법적 사항 및 정책	법적지위, 재외동포법 고려인 배제, 국적 취득 및 제문제, 재외동포정책, 한인수용, 법률용어에대한사할린한인의어려움해결방안, 러시아정부의 정책 변화

출처: 학술정보연구서비스(RISS), <http://www.riss.kr/index.do>에서 2017년 4월 17일~4월 28일에 인출

제 Ⅲ 장

재외동포청소년 및 관련 정책 현황

1. 재외동포 인구 현황
2.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기관 현황
3. 독립국가연합(CIS) 및 중남미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제 III 장

재외동포청소년 및 관련 정책 현황*

1. 재외동포 인구 현황

1) 재외동포 인구 현황

외교부에서 발간한 재외동포 현황 통계⁹⁾를 바탕으로 재외동포 인구를 살펴보면, 재외동포는 2015년 현재 7,184,872명으로 2009년 이후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전년 대비 2.45%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륙별 인구는 동북아시아 3,441,718명, 북미 2,463,043명, 유럽 627,089명, 남아시아태평양 510,633명, 중남미 105,243명, 중동 25,563명, 아프리카 11,583명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 인구수가 가장 많은 대륙은 동북아시아와 북미로 전체 재외동포 인구수 중 82%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동북아시아 지역 중 가장 재외동포 인구수가 많은 국가는 2015년 기준으로 중국 2,585,993명, 일본 855,725명 등의 순이었다. 중국 재외동포 인구수는 2009년 이후에 증가 추세이나 일본 재외동포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지역 중 가장 재외동포 인구수가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2015년 기준 2,238,989명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재외동포 인구수는 중국 다음으로 재외동포 인구수가 많았으며, 2011년 이후 재외동포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외동포 인구수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남아시아태평양, 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증가하였으며, 동북아시아, 중남미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 인구수가 증가한 대륙 중 아프리카 지역이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9.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북미지역 7.2%p, 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이 5.1%p로 나타났다. 반면 재외동포 인구수가 감소한 지역은 중남미 지역이 전년대비 5.3%p 감소하였으며, 동북아시아 지역은 0.73%p 감소하였다.

* 이 장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과 정은주 연구위원이 공동집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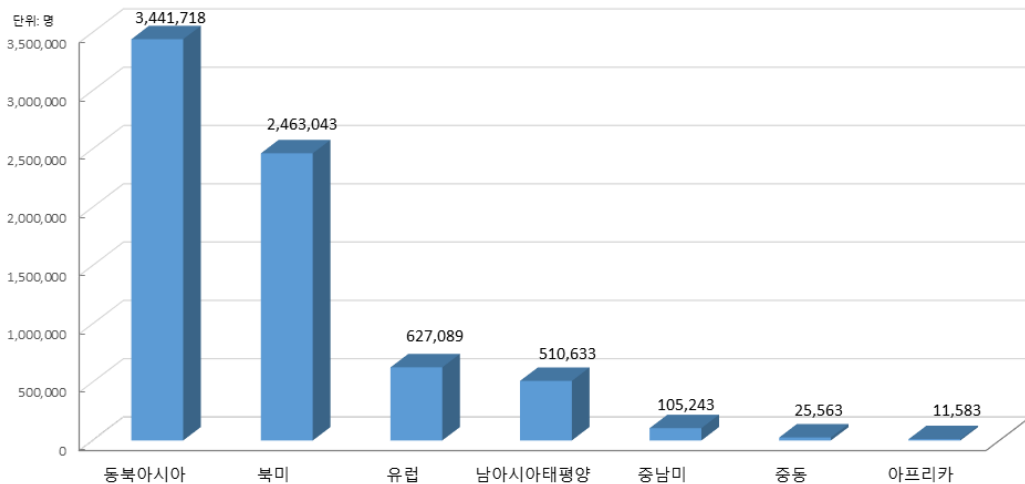
9) 해외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 작성, 보고한 공관별 재외동포현황(2014. 1. 2. 31 기준)을 취합, 정리한 것으로서 주재국의 인구 관련 통계자료, 한인회 등 동포단체 조사자료, 재외국민등록부 등 공관의 민원 처리기록, 직접조사 등을 근거로 산출한 추산·추정치임(외교부, 2015).

표 III-1 재외동포 인구 현황

(단위: 명)

구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백분율(%)	전년비 증감률(%)
동북 아시아	일본	912,655	913,097	893,129	855,725	11.91	-4.19
	중국	2,336,771	2,704,994	2,573,928	2,585,993	35.99	0.47
	소계	3,249,426	3,618,091	3,467,057	3,441,718	47.90	-0.73
남아시아태평양		461,127	453,420	485,836	510,633	7.11	5.10
북미	미국	2,102,283	2,075,590	2,091,432	2,238,989	31.16	7.06
	캐나다	223,322	231,492	205,993	224,054	3.12	8.77
	소계	2,325,605	2,307,082	2,297,425	2,463,043	34.28	7.21
중남미		107,029	112,980	111,156	105,243	1.46	-5.32
유럽		655,843	656,707	615,847	627,089	8.73	1.83
아프리카		9,577	11,072	10,548	11,583	0.16	9.81
중동		13,999	16,302	25,048	25,563	0.36	2.06
총계		6,822,606	7,175,654	7,012,917	7,184,872	100	2.45

출처: 외교부(2015). 2015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부. p. 14.



【그림 III-1】 2015년 재외동포 인구 분포

2) 중남미 지역 재외동포 인구 현황

2015년도 중남미 동포의 국가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중남미 인구 105,243명 중 브라질이 총 50,4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르헨티나(22,730명), 멕시코(11,484명), 과테말라(5,162명), 파라과이(5,090명), 칠레(2,725명), 페루(1,19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재외동포들의 국적 등을 살펴보면, 브라질은 전체 50,418명 중 재외국민이 21,702명, 외국국적자가 28,716명으로 외국국적자가 재외국민보다 조금 더 많았으며, 아르헨티나는 전체 22,730명 중 재외국민이 15,040명, 외국국적자가 7,690명이고, 멕시코는 전체 11,484명 중 재외국민이 10,535명, 외국국적자가 949명으로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의 중남미의 다른 국가에서는 재외국민만 있거나 재외국민이 외국국적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중남미 지역 재외동포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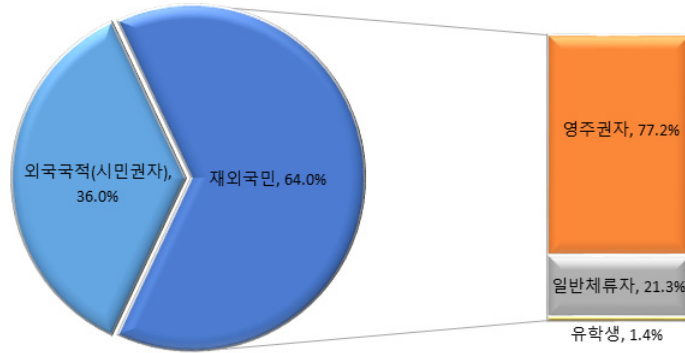
지역	거주자격별 재외국민				외국국적 (시민권자)	총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계		
브라질	20,175	1,395	132	21,702	28,716	50,418
아르헨티나	14,600	390	50	15,040	7,690	22,730
멕시코	2,468	7,480	569	10,535	949	11,484
과테말라	4,492	670	0	5,162	0	5,162
파라과이	4,510	413	27	4,950	140	5,090
칠레	2,373	243	39	2,655	70	2,725
페루	299	857	22	1,178	20	1,198
에콰도르	566	466	33	1,065	15	1,080
콜롬비아	441	433	37	911	4	915
볼리비아	636	52	14	702	35	737
니과라과	240	427	13	680	23	703
도미니카공화국	386	99	7	492	45	537
코스타리카	206	229	15	450	43	493
파나마	147	213	7	367	10	377
베네수엘라	158	168	0	326	25	351

지역	거주자격별 재외국민				외국국적 (시민권자)	총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계		
우루과이	89	158	0	247	36	283
엘살사도르	78	154	0	232	38	270
온두라스	16	215	0	231	18	249
아이티	85	74	0	159	9	168
자메이카	0	120	2	122	0	122
수리남	16	28	0	44	10	54
트리니다드토바고	4	41	1	46	0	46
벨리즈	15	6	0	21	0	21
쿠바	2	16	2	20	0	20
그레나다	0	0	5	5	0	5
세인트루시아	4	0	0	4	0	4
바베이도스	0	1	0	1	0	1
총계	52,024	14,348	975	67,347	37,896	105,243

출처: 외교부(2015), 2015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부, pp. 34~35.



【그림 Ⅲ-2】 중남미 지역 재외동포 인구 분포



【그림 Ⅲ-3】 중남미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자 분포

3)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재외동포 인구 현황

2015년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동포의 국가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95,534명 중 우즈베키스탄이 186,1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러시아(166,956명), 카자흐스탄(107,613명), 키르기스스탄(18,709명), 우크라이나(13,10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재외동포들의 국적 등을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은 전체 186,186명 중 재외국민이 3,229명, 외국국적자가 182,957명으로 외국국적자가 재외국민의 약 6배 정도 많았으며, 러시아는 전체 166,956명 중 재외국민이 7,537명, 외국국적자가 159,419명이고, 카자흐스탄은 전체 107,613명 중 재외국민이 2,213명, 외국국적자가 105,400명이며, 키르기스스탄은 전체 18,709명 중 재외국민이 1,092명, 외국국적자가 17,617명으로 재외동포가 대부분 외국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독립국가연합(CIS)지역 재외동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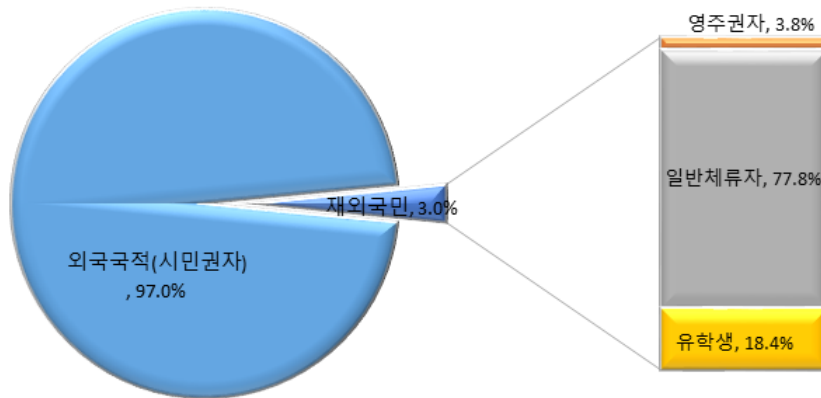
(단위: 명)

지역	거주자격별 재외국민				외국국적 (시민권자)	총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계		
러시아	320	5,474	1,743	7,537	159,419	166,956
우즈베키스탄	1	3,104	124	3,229	182,957	186,186
카자흐스탄	134	1,973	106	2,213	105,400	107,613
키르기스스탄	86	382	624	1,092	17,617	18,709
우크라이나	23	330	39	392	12,711	13,103
벨라루스	7	36	87	130	1,265	1,395
타지키스탄	0	98	11	109	634	743
아르메니아	0	6	1	7	350	357
아제르바이잔	0	283	25	308	34	342
몰도바	0	3	11	14	116	130
총계	571	11,689	2,771	15,031	480,503	495,534

출처: 외교부(2015). 2015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부. pp. 36~37.



[그림 III-4]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재외동포 인구 분포



【그림 III-5】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자 분포

4) 국내 거주 고려인 재외동포 현황

고려인 동포들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방문취업비자(H-2), 재외동포비자(F-4), 영주비자(F-5)를 소지할 경우 가능하다. 2007년부터 실시된 방문취업제¹⁰⁾를 통해 많은 중국의 조선족과 CIS 지역의 고려인들이 국내에서 일하고 거주할 기회를 갖게 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인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취업 가능 비자 종류로 살펴본 국내 장기체류가 가능한 고려인의 수는 2016년 기준으로 약 5만여 명에 달한다(<표 III-4> 참고). 국가별로 고려인 수를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이 25,0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러시아 고려인 15,237명, 카자흐스탄 고려인 4,970명,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1,828명, 우크라이나 고려인 1,245명 순으로 나타났다.

10) “방문취업제는 중국 및 구소련연방(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지역의 만25세 이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포들을 대상으로 5년간 유효, 1회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H-2)를 발급해 준다. 2009년 11월부터는 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까지 국내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다”, 정기선(2013),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p.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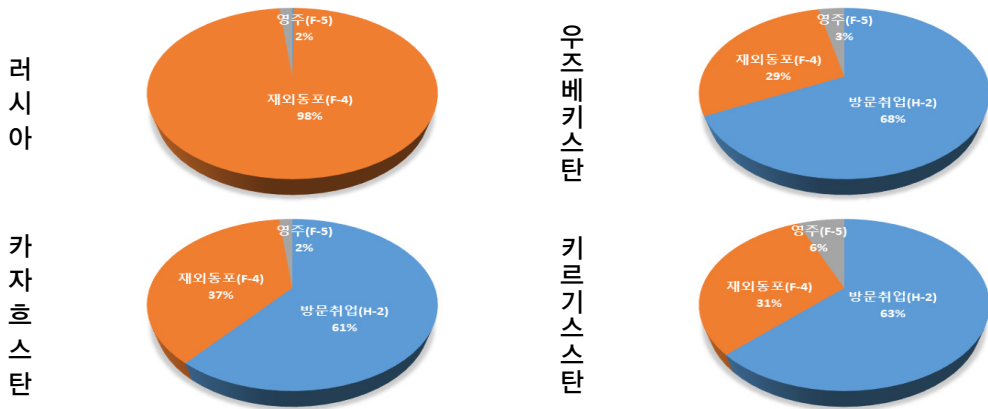
표 III-4 취업 가능 비자로 체류 중인 고려인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영주(F-5)
러시아	15,237	41	14,932	264
우즈베키스탄	25,031	16,955	7,201	875
카자흐스탄	4,970	3,030	1,852	88
키르기스스탄	1,828	1,146	567	115
우크라이나	1,245	1,086	124	35
타지키스탄	117	93	24	-
아르메니아	8	-	1	7
아제르바이잔	4	-	4	-
몰도바	3	-	-	3
총계	48,443	22,351	24,705	1,387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_체류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 (2016년).
<https://www.data.go.kr/dataset/3045188/fileData.do> 2017. 9. 14. 인출

비자 형태별로 고려인 수를 살펴보면, 방문취업비자(H-2)는 22,351명, 재외동포비자(F-4)는 24,705명, 영주(F-5)비자는 1,38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비자와 국가별 형태를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고려인의 비자는 방문취업비자가 약 60%, 재외동포비자가 약 30% 수준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러시아 고려인의 경우는 방문취업비자는 거의 없고 대다수가 재외동포비자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3 참고).



【그림 III-6】 주요 국가별 고려인 비자 현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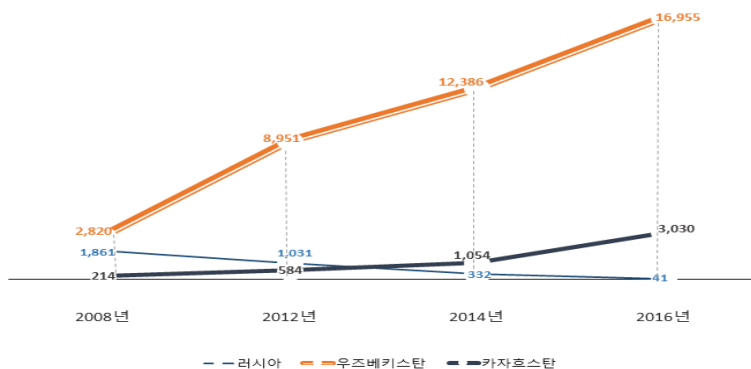
취업 가능한 비자 형태 중 방문취업비자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방문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고려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에 4,988명이 방문취업비자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하였고 2016년에는 22,351명이 방문취업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전체 22,351명의 방문취업비자를 소지한 고려인 중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은 16,955명으로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중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이 분포는 전체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국가 중 약 75.9%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 방문취업(H-2) 자격 고려인의 연도별 체류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년	2012년	2014년	2016년
러시아	1,861	1,031	332	41
우즈베키스탄	2,820	8,951	12,386	16,955
카자흐스탄	214	584	1,054	3,030
키르기스스탄	70	242	551	1,146
우크라이나	11	99	314	1,086
타지키스탄	12	40	67	93
총계	4,988	10,947	14,704	22,351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 체류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 (2016년, 2014년, 2012년). <https://www.data.go.kr/dataset/3045188/fileData.do> 2017. 9. 14. 인출. 2008년 자료는 김호준(2016),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p. 497 참고.



【그림 III-7】 방문취업 자격 고려인의 연도별 변화(단위: 명)

11)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 체류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 (2016년). <https://www.data.go.kr/dataset/3045188/fileData.do> 2017. 9. 14. 인출

2.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기관 현황

1) 한글학교 및 학생 수

재외동포재단에서 발간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한글학교와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5년 현재, 1,875개의 한글학교와 101,029명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학교 수를 재외공관별로 살펴보면, 북미가 1,051개로 한글학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아시아로 293개였다. 한글학교가 가장 적게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중동 지역으로 47개의 한글학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지역인 중남미 지역의 한글학교 수는 90개, CIS 지역의 한글학교 수는 219개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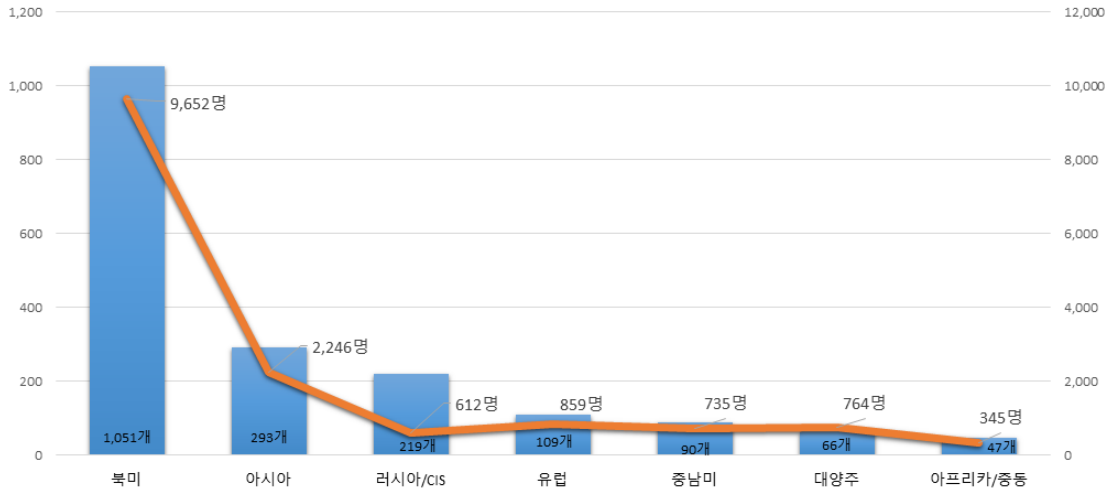
한글학교 학생 수도 역시 북미 지역이 55,26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남미 지역의 한글학교 학생 수는 5,789명, CIS 지역의 한글학생 수는 8,938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III-6 공관별 한글학교, 교원 및 학생수

(단위: 명)

지역	학생수											학 교 수	교 원 수
	합계	유		초		중		고		성인			
		일시	영주	일시	영주	일시	영주	일시	영주	일시	영주		
아시아	18,309	1,802	1,024	5,789	2,396	1,080	462	265	250	514	4,727	293	2,246
대양주	5,416	133	1,315	257	2,737	78	413	39	232	11	201	66	764
북미	55,264	1,094	11,912	1,758	24,922	548	7,849	354	4,053	152	2,622	1,051	9,652
중남미	5,789	169	755	315	1,669	69	785	34	504	68	1,421	90	735
유럽	5,526	465	800	889	1,199	221	405	89	236	82	1,140	109	859
러시아/ CIS	8,938	99	785	319	1,426	212	1,791	76	1,350	136	2,744	219	612
아프리카 /중동	1,787	184	134	498	329	170	79	51	46	32	264	47	345
총계	101,029	3,946	16,725	9,825	34,678	2,378	11,784	908	6,671	995	13,119	1,875	15,213

출처: 재외동포재단(2015a). 2015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p. 3.



【그림 III-8】 공관별 한글학교와 교원 수

2) 남미 지역 한글학교 및 학생 수

남미 지역의 한글학교와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5년 현재, 전체 90개 학교에 5,730명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한글학교와 학생 수를 살펴보면, 브라질이 각각 32개, 1,6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멕시코(15개, 1,407명), 아르헨티나(17개, 1,00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7 남미 한글학교, 교원 및 학생수

(단위: 명)

지역	학생수											학교 수	교원 수
	합계	유		초		중		고		성인			
		일시	영주	일시	영주	일시	영주	일시	영주	일시	영주		
과테말라	206	20	21	63	100	-	-	-	-	-	2	1	17
니콜라과	50	-	7	1	42	-	-	-	-	-	-	1	8
도미니카	36	-	9	-	13	-	14	-	-	-	-	3	14
멕시코	1,407	91	155	40	317	20	167	7	142	15	453	15	132

지역	학생수											학 교 수	교 원 수
	합계	유		초		중		고		성인			
		일시	영주	일시	영주	일시	영주	일시	영주	일시	영주		
베네수엘라	137	2	1	2	10	2	2	-	-	-	118	1	11
볼리비아	470	-	14	-	11	-	7	-	58	19	361	4	22
브라질	1,646	19	314	34	520	15	259	9	177	19	280	32	234
수리남	16	-	-	-	9	-	1	-	1	-	5	1	2
아르헨티나	1,001	18	117	130	339	12	174	11	77	13	110	17	154
에콰도르	92	7	11	7	27	4	12	4	9	2	9	2	17
엘살사도르	69	-	23	-	21	-	12	-	8	-	5	1	11
온두라스	35	-	5	-	16	-	-	-	-	-	14	1	8
우루과이	42	-	3	-	5	-	3	-	6	-	25	1	6
자메이카	16	-	2	-	5	-	7	-	2	-	-	1	3
칠레	101	4	23	5	40	3	26	-	-	-	-	1	14
코스타리카	46	-	-	1	25	-	15	-	5	-	-	1	8
콜롬비아	47	-	15	-	5	2	-	-	8	-	17	1	14
트리니다드 토바고공화국	20	-	1	-	2	-	-	-	1	-	16	1	3
파나마	48	7	2	25	4	6	4	-	-	-	-	1	10
파라과이	172	1	14	2	96	-	53	-	6	-	-	3	22
페루	73	-	15	3	36	-	19	-	-	-	-	1	12
총계	5,730	169	752	313	1,643	64	775	31	500	68	1,415	90	722

출처: 재외동포재단(2015a), 2015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pp. 7~8.

3)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한글학교 및 학생 수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한글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를 살펴보면, 학생 수는 8,938명, 학교 수는 219개, 교원 수는 612명으로 집계되었다.

국가별로 한글학교와 학생 수를 살펴보면, 러시아 지역이 각각 82개, 3,30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59개, 3,092명), 카자흐스탄(50개, 1,617명), 우크라이나(18개, 46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글학교 수가 1개인 국가는 벨라루스, 몰도바, 아제르바이잔으로 나타났다. 벨라루스의 경우에는 한글학교가 1개교이지만 학생 수는 98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III-8 독립국가연합(CIS) 한글학교, 교원 및 학생수 (단위: 명)

지역	학생수											학 교 수	교 원 수
	합계	유		초		중		고		성인			
		일시	영주	일시	영주	일시	영주	일시	영주	일시	영주		
러시아	3,306	26	226	86	540	38	527	34	441	2	1,386	82	256
벨라루스	98	-	7	-	9	-	13	-	24	-	45	1	10
몰도바	17	-	-	2	-	-	-	-	-	15	-	1	6
아제르바이잔	50	8	-	28	-	10	-	4	-	-	-	1	13
우즈베키스탄	3,092	35	407	-	705	110	978	-	420	-	437	59	78
우크라이나	469	1	12	32	39	12	55	11	69	3	235	18	72
카자흐스탄	1,617	24	118	89	97	32	153	24	346	116	618	50	126
키르기스스탄	219	-	15	70	29	5	58	-	36	-	6	4	38
타자키스탄	70	5	-	12	7	5	7	3	14	-	17	3	13
총계	8,938	99	785	319	1,426	212	1,791	76	1,350	136	2,744	219	612

출처: 재외동포재단(2015a), 2015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pp. 9~10.

4) 중남미 및 독립국가연합(CIS) 한국학교 학생 수

중남미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한국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중남미 지역에는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각각 1개씩 총 3개의 한국학교가 설립되어 있고, 독립국가연합(CIS)지역에는 모스크바 한국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를 살펴보면, 남미지역에는 파라과이 한국학교에 119명,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에 321명, 브라질 한국학교에 146명이 있으며, 독립국가연합(CIS)지역에는 모스크바 한국학교에 110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남미 및 독립국가연합(CIS)지역의 한국학교 학생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만이 있었다. 파라과이 한국학교 학생 수는 유치원생이 48명, 초등학생이 71명이었고,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학생 수는 유치원생 154명, 초등학생 167명이었으며, 브라질 한국학교 학생 수는 유치원생 70명, 초등학생 76명이었다. 또한 모스크바 한국학교 학생 수는 유치원생 56명, 초등학생 54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III-9 중남미 및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한국학교 현황 (단위: 명)

지역	설립 연월일	학생수(학급수)					전임교원수			
		유	초	중	고	계	유	초	교감	계
파라과이 한국학교	'92.03.01	48(3)	71(6)	-	-	119(9)	3	6	1	10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95.01.23	154(9)	167(8)	-	-	321(17)	22	19	3	44
브라질 한국학교	'98.02.12	70(5)	76(6)	-	-	146(11)	6	5	1	12
모스크바 한국학교	'92.02.14	56(3)	54(6)	-	-	110(9)	4	6	1	11
총계	-	328(20)	368(26)	0	0	696(46)	35	36	6	77

출처: 재외동포재단(2015a), 2015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pp. 9~10.

5) 중남미 및 독립국가연합(CIS) 한국교육원 현황

중남미 및 독립국가연합(CIS)에 있는 한국교육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독립국가연합(CIS)지역에는 6개 공관에 7개 교육원이 있으며, 중남미 지역에는 3개 공관에 3개 교육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국가연합(CIS)지역에는 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 사할린한국교육원, 블라디보스톡한국교육원,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 타슈켄트한국교육원, 타슈켄트한국교육원, 알마티한국교육원, 비쉬켄한국교육원이 있고, 중남미지역에는 파라과이한국교육원, 아르헨티나한국교육원, 상파울루한국교육원이 있으며, 각각의 한국교육원에는 1명씩의 파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0 중남미 및 독립국가연합(CIS)지역 한국교육원 현황

지역	재외공관	교육원명	설립 연월일	파견자수
러시아 및 CIS	모스크바대사관	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	'01.09.19	1
	주)유주노사할린스크	사할린한국교육원	'93.12.10	1
	주)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한국교육원	'95.03.24	1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	'97.08.07	1
	주)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한국교육원	'92.05.27	1
	주)카자흐스탄	알마티한국교육원	'91.08.22	1
	주)키르기스스탄	비쉬켄한국교육원	'01.05.28	1
중남미	주)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교육원	'80.01.01	1
	주)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교육원	'77.08.21	1
	주)상파울루	상파울루한국교육원	'88.09.01	1
총계		10개		10명

출처: 재외동포재단(2015a). 2015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p. 181.

3. 독립국가연합(CIS) 및 중남미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정책 현황

1) 외교부(재외동포재단)의 관련 정책 및 사업

재외동포재단의 2016년도 결산보고서를 통해서 독립국가연합(CIS) 재외동포청소년 및 중남미 재외동포 관련 정책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외동포재단에서는 2016년도에 독립국가연합(CIS) 재외동포청소년 대상의 사업으로 독립국가연합(CIS)지역 민족교육육성사업, 고려인동포 권익신장사업, 교유인 차세대단체 지원 및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독립국가연합(CIS)지역 연구단체 지원, 독립국가연합(CIS)지역 언론단체 지원, 우즈베키스탄지역 차세대 IT 교육, 독립국가연합(CIS)지역 현지장학금 지원, 독립국가연합(CIS)지역 고려인 초청 직업연수, 독립국가연합(CIS) 초청 장학사업, 독립국가연합(CIS)지역 동포청소년 한국방문사업, 국내거주 독립국가연합(CIS)지역 동포단체활동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의 한국어교육 지원, 동포청소년 간 교류, 한국방문 프로그램, 연구단체·언론단체 등 관련 단체지원 등을 통하여 현지 민족교육의 육성과 한민족 정체성 형성을 위한 사업과, 동포청소년들의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 지원과 우수한 차세대 동포에 대한 각종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III-11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정책 및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러시아·CIS 지역 민족교육육성 ¹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자재지원, 한국어교사 장기 초청 연수(약 3개월), 한글학교운영비지원,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사업(스터디 코리안)운영, 한국강사 현지파견, 교장초청연수(교장의 역할, 교직원 관리 및 학교운영 선진사례 공유 등)
고려인동포 권익신장사업 ¹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 지역 공통역사세미나/ 한국역사문학 지킴이 행사 러시아 지역 고려인 어린이·청소년 여름건강 교육센터 카자흐스탄 지역 통일 관련 어린이 사생대회 지원 러시아 지역 민족의 혼 전래동화 구연 제2회 상트페테르부르크 고려인 어린이 여름캠프 제 2회 사할린한인 청소년 역사캠프 우즈베키스탄 전국청년포럼(한국사세미나 병행 개최) 카자흐스탄 청년 포럼 키르기스스탄 청년친선 체육대회(우리는 하나)/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 문화 체험행사(영광의 시간),

정책 및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고려인 차세대단체지원 및 세계한인 차세대대회 ¹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지역 러시아 & CIS 지역 차세대 Mini Re-Union 포럼 • 러시아 지역 연해주한인유학생회 단합 및 한러학생 교류 강화 • 러시아 지역 하바롭스크 한인유학생회 단합 및 한러학생 교류행사 • 세계한인 차세대대회
러시아·CIS 지역 연구단체 지원 ¹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라시아고려인연구소 - 고려인 차세대 프레젠테이션 대회
러시아·CIS 지역 언론단체 지원 ¹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우즈베키스탄 단체 - 재외동포언론단체 지원확대를 통한 한글신문 발행, 사업 장려를 통해 재외동포 모국어 및 정체성 유지
우즈베키스탄지역 차세대 IT교육 ¹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능력 교육을 통하여 거주국 내 안정적인 취업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주류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모국과의 유대감 증진을 위해 동포청년들을 대상으로 IT 교육 실시
러시아·CIS 지역 현지 장학금 지원 ¹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S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우수 재외동포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 • 공관별 장학금 간담회 개최
러시아·CIS 지역 고려인 초청 직업연수 ¹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국 9개 공관 36명(뷰티, 한식조리, 한국어 및 한국문화체험, 산업체 현장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등)
러시아·CIS 지역 초청 장학사업 ²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학(대학원)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우수 재외동포 학생을 선발하여 생활비, 왕복항공료, 어학연수비 등 지원 • 초청장학생 대상 역사문화체험과 지역별 간담회 실시
러시아·CIS 지역 동포청소년 한국방문사업 ²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초청연수: 모국문화체험, 한국어교실, 자원봉사활동, 한민족 정체성·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등
국내거주 러시아·CIS 지역 동포단체활동지원 ²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인 지원 단체 너머

출처: 재외동포재단(2017). 재외동포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12) 재외동포재단(2017). 재외동포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p. 33~38, 42~46, 51~56, 105~106.
 13) 재외동포재단(2017). 재외동포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p. 57~60, 94~97.
 14) 재외동포재단(2017). 재외동포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 130
 15) 재외동포재단(2017). 재외동포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 127.
 16) 재외동포재단(2017). 재외동포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p. 112~113.
 17) 재외동포재단(2017). 재외동포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 98.
 18) 재외동포재단(2017). 재외동포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 133
 19) 재외동포재단(2017). 재외동포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p. 98~99.
 20) 재외동포재단(2017). 재외동포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p. 111~112, 131~132.
 21) 재외동포재단(2017). 재외동포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p. 134~135
 22) 재외동포재단(2017). 재외동포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 100.

재외동포재단에서 2016년도에 실시한 중남미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정책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중남미지역 재외동포교육사업, 중남미지역 재외동포청소년 현지교류지원사업, 중남미지역 차세대단체 지원 및 간담회 운영, 국내초청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중남미지역 국내장학초청사업, 중남미지역 동포청소년 한국방문사업, 중남미지역 재외동포 차세대 IT교육, 중남미한인회관 등 건립지원사업, 국내 연구단체 지원사업 등이 있다.

표 III-12 중남미 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정책 및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중·남미 지역 재외동포교육사업 ²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학교운영비지원, 스터디 코리아 운영, 교육자료 지원, 한글학교교사현지 및 초청 연수 지원, 한국강사 현지파견, 교장초청연수(교장의 역할, 교직원 관리 및 학교운영 선진사례 공유 등)
중·남미 지역 재외동포청소년 현지교류지원사업 ²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지역 한인 청소년을 사랑하는 모임 콘서트 지원 • 과테말라 지역 대한민국-과테말라 청소년 예술제 • 멕시코 지역 캄베체 한인후손 태권도 교육 지원사업 • 멕시코-쿠바 한인 후손 차세대 사업 추진을 위한 인물조사 • 자메이카 지역 시골학교 페인트칠 및 건물책걸상 보수 • 칠레 지역 청년세미나
중·남미 지역 차세대 단체 지원 및 간담회 운영, 국내초청 세계한인 차세대 대회 ²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한민족미래지도자연대 지원 • 멕시코지역 차세대단체 간담회 - 향후 기업연수교육 쿠바지역에서 멕시코 지역 확대 • 세계한인 차세대 대회
중·남미 지역 국내장학초청사업 ²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학(대학원) 학사과정 및 석·박사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우수 재외동포 학생을 선발하여 생활비, 왕복항공료, 어학연수비 등 지원
중남미 지역 동포청소년 한국방문사업 ²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초청 연수: 모국문화체험, 한국어교실, 자원봉사활동, 한민족 정체성·리더십 함양 프로그램 등
중남미 지역 재외동포 차세대 IT교육 ²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바 한인후손 초청 직업연수 : 한식요리,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 - 장기간 모국과의 단절로 현지 동화된 쿠바 한인 후손 대상 초청 직업연수 신설을 통한 모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중·남미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²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바한인후손문화회관 임차료 지원, 에콰도르 한인회관 리모델링, 멕시코 한인회관 및 한글학교 옥상담장 및 방수개보수, 과테말라 한인회관 겸 한글학교 개관 -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유지를 위한 구심점 역할 공간 확보, 거주국 동포사회의 거주국 안정적 정착 지원
국내연구단체 지원 ³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남미 현지 동포사회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출처: 재외동포재단(2017), 재외동포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중남미지역에 대한 사업도 한글교육, 현지 청소년 간 교류 및 한국방문사업 등 한민족정체성 형성을 위한 사업과 IT교육, 초청 직업 연수 등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도 미래 동포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양성과 네트워크를 위한 사업과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 한인회관 등의 건립,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하여 동포사회의 단합을 위한 공간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교육부의 관련 정책 및 사업

중남미 및 CIS 동포청소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한국바로알리기사업, 국제교육협력증진 및 재외동포교육 운영 지원, 이러닝 세계화 및 한국형 첨단교육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재외동포한민족정체성 확립 사업, 해외한국학지원사업 등이 있다.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은 현지교과서에 한국 관련 내용을 증·신설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우즈베키스탄, 2016년에는 아르헨티나, 브라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제교육협력증진 및 재외동포교육 운영 지원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외국민교육지원 확대, 해외 각국 초·중등학교 한국어 반 개설 등 한국어 보급,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국가 및 시행 횟수 확대, 재외교육기관 협업 및 운영의 효율화·체계화를 통한 재외동포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 프로그램의 내실화, 교육여건의 개선, 재외한국학교 추가 설립, 교육관련 고위급 회담 및 국제기구 회의, 모스크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재외한국학교 교원 파견제도 도입을 통한 비선호지역 교육 역량 제고 및 민족교육 강화, 재외한국학교 운영제도개선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23) 재외동포재단(2017). 재외동포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p. 33~36, 42~46, 51~53.

24) 재외동포재단(2017). 재외동포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71, 73, 87.

25) 재외동포재단(2017). 재외동포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 89, pp. 129~130.

26) 재외동포재단(2017). 재외동포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p. 131~132.

27) 재외동포재단(2017). 재외동포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p.134~135.

28) 재외동포재단(2017). 재외동포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136.

29) 재외동포재단(2017). 재외동포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72, 94.

30) 재외동포재단(2017). 재외동포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p.126.

표 III-13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및 프로그램

정책 및 프로그램명	주요 사업내용
한국바로알리기 ³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즈베키스탄(2015), 아르헨티나·브라질(2016) 현지 교과서에 한국관련내용 증·신설
국제교육 협력증진 및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³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 교육지원 확대 • 해외 각국 초·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학교 수 등 한국어 보급현황 조사 •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국가 및 시행 횟수 확대 • 재외동포교육 서비스의 질 제고, 프로그램 내실화, 교육여건개선, 재외한국학교 추가 설립 • 국제회의 등 교육외교 추진(페루, 브라질, 콜롬비아 15.7.26~8.2) • 재외한국학교 교원 파견제도 도입 • 재외한국학교 운영제도 개선 및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이러닝세계화 및 한국형 첨단교육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³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교류협력국 선도 교원 초청 연수 및 PC 등 이러닝 인프라 지원, • 국제컨설팅 지원 등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의 구축·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본통계 가족기관 연계, 공유자료 활용성 향상, 연구 및 사업 기초자료, 정부 주요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통계서비스 제공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재외동포 한민족정체성확립 ³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 모국수학 장기교육 과정(2015년 16명 → 2016년 100명) • 개발도상국 기초교육 지원사업(13·14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15년 칠레 추가) • 재외동포현지교육용 교과서 및 교재 공급
해외 한국학 지원 사업 ³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학 연구 활성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이 현지 사정에 따라 3개 사업(세계화랩, 중책대학, 씨앗형)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며 한국학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 • 1단계 해외한국학 씨앗형 사업- 우즈베키스탄, 페루, 칠레, • 중핵: 세계화랩 사업 - 카자흐스탄, 러시아 • 해외한국학 씨앗형 사업 설명회 개최-파나마(15.4.20), 코스타리카(15.4.22), 러시아 중·동유럽 한국학회(15.5.29) • 맞춤형 관리 및 철저한 사업운영을 위해 해외사업 컨설팅 실시- 러시아(15.9.22)

출처: 교육부(2015). 회계연도 교육부 성과보고서,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4&lev=0&statusYN=W&s=moe&m=040103&opType=N&boardSeq=64017>에서 2017년 5월 23일 인출

31) 교육부(2015). 2015 회계연도 교육부 성과보고서(p.380~386)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4&lev=0&statusYN=W&s=moe&m=040103&opType=N&boardSeq=64017>에서 2017년 5월 23일 인출

32) 교육부(2015). 2015 회계연도 교육부 성과보고서(p.440~445, 448~457)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4&lev=0&statusYN=W&s=moe&m=040103&opType=N&boardSeq=64017>에서 2017년 5월 23일 인출

33) 교육부(2015). 2015 회계연도 교육부 성과보고서(p.470~474, 486~491)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4&lev=0&statusYN=W&s=moe&m=040103&opType=N&boardSeq=64017>에서 2017년 5월 23일 인출

34) 교육부(2015). 2015 회계연도 교육부 성과보고서(p.498~523, 509~510, 519~524)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4&lev=0&statusYN=W&s=moe&m=040103&opType=N&boardSeq=64017>에서 2017년 5월 23일 인출.

35) 교육부(2015). 2015 회계연도 교육부 성과보고서(p. 335~343)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4&lev=0&statusYN=W&s=moe&m=040103&opType=N&boardSeq=64017>에서 2017년 5월 23일 인출

이러닝 세계화 및 한국형 첨단교육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17개 교류 협력국 선도 교원 초청 연수 및 PC 등 이러닝 인프라 지원, 이러닝 국제컨설팅 지원 ('14년 파라과이, '15년 우즈베키스탄), 첨단 ICT 활용 시범교실 구축·운영 지원('14년 파라과이, '15년 우즈베키스탄)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재외동포한민족정체성 확립 사업은 재외동포 모국수학 장기교육과정 운영, 개발도상국 기초교육 지원사업, 재외동포현지교육용 교과서 및 교재 공급 등의 사업을 포함한다.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은 한국학 연구의 활성화와 국가 이미지 제고,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이 현지 사정에 따라 세계화랩, 중책대학, 씨앗형의 3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며 한국학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 IV 장

재외동포청소년 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2. 면접조사 개요

제 IV 장

재외동포청소년 조사 개요*

재외동포청소년 조사는 브라질·아르헨티나와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청소년과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의 실태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개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 전문가와 동포청소년 교육 전문가와의 면접 조사를 통해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보다 시의적절하고 현실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 개요

재외동포청소년 설문조사는 2차 년도에 조사되었던 재중·재미동포 청소년 조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통 설문 조사문항과 3차 년도 조사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설문 조사문항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첫째,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지에 포함된 공통항목과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개별 문항에 대한 설명과 문항이 개발된 절차에 대해 기술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인 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청소년에 대한 내용과 조사 방법을 각각 제시하였다.

1)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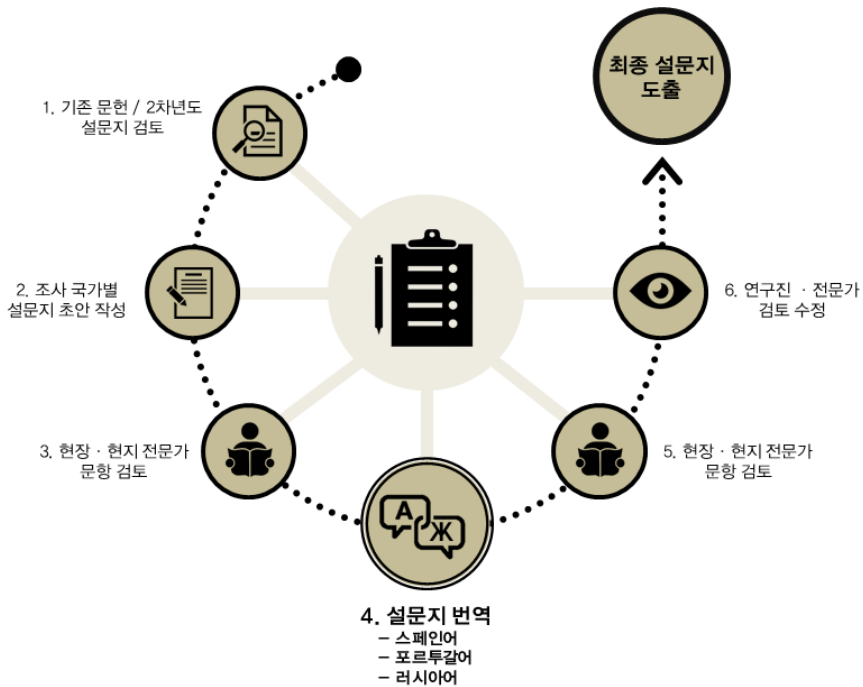
(1)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설문 개발 절차

중남미와 고려인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개발은 문헌 검토와 2차 년도 연구 설문지에 기초하였다. 설문지 개발은 브라질·아르헨티나와 고려인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 이 장은 정은주 연구위원과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집필하였음.

질문할 공통 문항을 우선 도출하고, 이후 각 국가·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과 현지 상황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과 대상에게 필요한 개별 설문 문항을 포함하였다.

설문 개발과 최종설문지 도출 순서는 [그림 IV-1]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졌다. 우선, 설문은 문헌 검토와 김경준·정은주(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2차 년도의 설문지 문항 검토로 시작하였다. 이후 조사 국가별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국가별 설문지 초안은 청소년들에게 공통으로 질문할 문항 위주로 작성되었으며,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여 질문해야 할 개별 문항을 포함하였다. 설문지 초안은 현지(조사국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해당 지역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설문 문항인지를 검토 받고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국가별 필요 문항을 추가로 도출하여 설문 항목에 수정·보완하였다. 설문 문항 개발이 완료된 설문지는 조사 국가 현지 언어로 번역하였다. 번역은 브라질 동포청소년을 위한 포르투갈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을 위한 스페인어, 고려인 동포청소년을 위한 러시아어로 번역되었다. 번역된 설문지는 해당 국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한 번역본 언어에 대한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쳤다. 이후 연구진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최종 설문을 도출하였다.



【그림 IV-1】 설문 개발 절차

(2) 재외동포청소년 대상 조사 내용의 구성 및 문항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경험, 한국어능력, 한민족정체성, 한민족에 대한 인식, 미래 인재 역량, 동포청소년과의 교류 경험과 욕구, 동포청소년에 대한 역할 기대, 장래 희망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과제와 관련한 설문 영역과 주요 항목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재외동포청소년 설문조사 영역 구성 및 영역별 주요 조사 항목³⁶⁾

설문 영역		주요 항목
응답자 배경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거주 국가 및 지역, 출생년도, 성별, 현재 신분, 현재 다니는 학교³⁷⁾ • 거주국 거주 이유³⁸⁾, 가장 먼저 이민 온 세대 • 응답자 국적, 부모 국적, 미래 거주 희망 국가
한국/한글학교, 한국교육원, 한국어 과정에 대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학교/한글학교, 한국교육원 경험, 기간, 동기와 이유³⁹⁾
한국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에 대한 관심, 학습 희망 정도
	한국어사용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말하기, 듣고 이해하기 읽고 쓰기
한국 관련 가정생활 및 부모의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가정 내 사용,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 드라마나 뉴스 보기, 한국 관련 직업 희망, 한국 사람과 결혼 희망
한민족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민족이라는 인식,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 •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 타인에게 한민족을 이야기함, • 한민족 사건이나 문제를 나의 일로 여김
한국/한국인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한국인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 • 한국 정치, 경제, 문화,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

36) 설문영역과 주요조사 항목 중 2차년도와 조사항목이 동일한 문항은 김경준·정은주(2016)의 보고서 85p의 표 내용을 인용하였음.

37) 현재 다니는 학교는 국가별로 학급 또는 학제가 상이하여 공통문항이나 각 국가별 특성에 맞게 질문 세부 항목을 조정하여 질문함

38)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는 출생국가에서 거주한 기간과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을 나누어 질문함.

39)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는 한국학교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학교와 관련한 질문은 제외되었음.

설문 영역		주요 항목
미래 인재 역량	의사소통능력	• 타인과 의사소통 시 정확한 질문, 대화, 경청, 상대방의 생각의 존중 등
	세계시민의식	• 타국에 대한 친근한 느낌, 개방적인 자세, 타국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 타문화의 이해 및 수용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 사회 개선을 위한 개인의 행동, 법 준수, 사회봉사활동 참여 • 지역사회 및 세계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양심과 사회적 평등 실현
	창의적사고	• 새로운 생각, 부분을 듣고 전체 상상하기, 연결 지어 생각하기
	문제해결력	• 과제 난이도에 따른 해결, 문제해결 전의 구체적인 해결방법 모색, • 과제 시 이전 경험 반영
	국가정체인식	• 자국의 문화, 역사, 국민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과 홍보
교류경험 및 교류 욕구		• 동포청소년과의 교류 경험, 교류 장소 • 한국 또래친구들과의 만남, 한국 연수 프로그램 참여, 거주 국가의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프로그램 참여, 한국 유학, 거주국가의 한국기업 취업, 한국 취업, 한국 문화 체험 등의 욕구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역할 기대		• 동포사회의 발전, 한국 문화의 보급, 동포사회의 단합, • 한국 경제나 사회발전에 기여, 남북통일에 기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 한국 방문기회의 제공, 거주 국가 동포청소년과의 교류 활성화 •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민족교육 지원
한국에 대한 관심과 진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		• 한국에서의 교육과 취업에 방해가 되는 요인 •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래 희망		• 장래 희망하는 직업, 장래 희망 성취의 방해물 •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표 IV-1>에서 제시한 설문 영역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 문항 개발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재외동포청소년의 배경변인

응답자의 배경변인은 거주 국가, 거주기간, 출생년도, 성별, 현재 재학 중인 학교, 거주 국가에 살게 된 이유, 거주 국가로 최초로 이민 온 세대, 현재 국적, 부모의 국적, 미래에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배경변인은 조사국가 모두에 동일하게 질문하였으나, 국내거주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경우는 한국으로 이주한 년도, 한국 거주 기간을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 설문에 사용한 문항은 조혜영 외(2007), 김경준·김태기(2015), 김경준·정은주(2016)의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② 한국 또는 한국어 관련 교육 기관 경험

재외동포청소년이 거주하는 국가에 따라 한국 관련 교육 기관의 형태가 다양하여 재외동포 청소년의 거주 국가에 따라 질문을 달리하였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우에 교육부에서 설립한 한국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한국학교가 없기 때문에 한글학교 또는 한국교육원에 대한 질문만을 포함하였다. 공통적으로 교육 과정에 재학한 기간과 어떤 동기로 교육 과정에 다니게 되었는지 질문하였다. 이와 관련한 문항은 김경준·정은주(2016)의 설문 문항을 참고하였다.

③ 한국어에 대한 관심 및 한국어능력

재외동포청소년의 한국어 관련 실태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능력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한국어 능력은 말하기, 듣고 이해하기, 읽고 쓰기의 능력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김경준·정은주(2016)의 설문의 문항을 인용하였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에 대한 욕구를 묻는 문항을 통해서도 한국어 학습의 동기를 조사하였다. 이 문항들은 연구진이 본 연구를 위해 개발하여 추가한 설문 문항이다.

④ 한국 관련 가정생활 및 부모의 기대

재외동포청소년이 가정에서 부모와 생활할 때 한국어를 사용하고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지, 그리고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보거나 한국 노래를 듣는지 등의 가정생활 실태와, 부모가 거주 국가에서 한국과 관련한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지, 한국에서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지, 한국 사람과 결혼을 원하는지 등의 설문을 통해 부모와의 기대를 조사하였다. 본 문항들은 김경준·정은주(2016)의 설문을 인용하였다.

⑤ 한민족정체성

한민족정체성은 한민족이라는 인식,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의 한민족에 대한 다소 막연한 의식적인 부분과,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한민족에 대해서

이야기 하거나 한민족의 사건이나 문제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 부분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은 김경준·정은주(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인용하였다.

⑥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인식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평소에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진이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 문항은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남북통일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한 인식을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⑦ 미래인재역량

미래인재역량은 2차년도 조사의 설문 문항을 인용하였다(김경준·정은주, 2016). 2차년도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들은 본 연구의 1차년도 조사에 기초하여 문항을 도출하였다(김경준·김태기, 2015). 도출된 주요 6개 항목은 의사소통능력, 세계시민의식,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국가정체의식, 창의적사고, 문제해결력이다. 주요 6개 항목별 주요내용 및 출처와 내용은 김경준·정은주(2016)의 보고서 내용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능력은 타인과의 대화 시 잘 이해하고 필요시 질문, 또한 상대방의 행동, 생각에 대한 존중 등을 묻는 질문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의사소통능력 항목은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Ⅱ」 연구의 설문지에서 그 항목을 추출하였다(장근영 외, 2015: 434-435). 둘째, 세계시민의식은 타국에 대한 친근함 느낌, 타국에 대한 개방적 또는 우호적인 자세, 타문화의 이해와 수용을 포함한 항목, 셋째,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은 사회개선을 위한 개인의 행동, 법 준수, 사회봉사활동, 지역사회 및 세계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양심과 사회적 평등 실현을 포함한 항목, 넷째, 국가정체의식은 자국의 문화, 역사, 국민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된 항목을 통해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 항목들은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변인 연구」의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다(지은림·선광식, 2007: 122). 다섯째, 창의적 능력은 창의적사고(새로운 생각, 부분에서 전체 상상, 연결지어 생각)와 문제해결능력(과제 난이도에 따른 해결, 구체적인 해결방법 모색, 이전 경험 활용)에 대한 질문으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구축(II)」 연구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최상덕, 2014: 53-54).⁴⁰⁾

⑧ 동포청소년 간 교류경험 및 한국 관련 교류 욕구

동포청소년 또는 대한민국 청소년들과의 교류 경험을 묻는 설문 문항은 2차년도 설문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경험에 대한 욕구와 참여 경험에 대한 설문을 나누어 설문 항목에 포함하였다.⁴¹⁾ 한국 관련 교류 욕구는 2차년도의 설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한국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 한국 연수프로그램 참여, 거주 국가에서의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프로그램 참여, 한국 유학, 거주 국가 한국 기업 취업, 한국에서의 취업, 한국 문화 체험 등의 설문 항목을 포함하였다.⁴²⁾

⑨ 동포사회 및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역할 기대

재외동포청소년의 동포사회 및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는 동포사회의 단합과 발전, 한국문화의 보급, 한국 경제나 사회발전, 그리고 남북통일への 기여 등에 있어 청소년 스스로의 역할기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2차년도 설문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⁴³⁾

⑩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한국 또는 동포사회의 한국 방문기회의 제공, 거주 국가 동포청소년과의 교류 활성화, 한국청소년과의 교류, 민족교육 지원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2차년도 설문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⁴⁴⁾

40) 김경준·정은주(2016), p. 88 인용.

41) 2차년도 설문은 윤인진·채정민(2007) 연구의 설문을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여 활용함.

42) 2차년도 설문은 윤인진·채정민(2007)과 김경준·김태기(2015) 연구의 설문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함.

43) 2차년도 설문은 1차년도 델파이조사를 기초하여 그 내용을 구성하였다(김경준·김태기, 2015).

44) 2차년도 설문은 1차년도 델파이조사를 기초하여 그 내용을 구성하였다(김경준·김태기, 2015).

⑪ 재외동포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진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국에서 학업이나 취업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는 영향요인과 한국에서의 교육이나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각각 조사하였다. 설문 문항은 2차년도 설문 문항을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⑫ 장래 희망

재외동포청소년들의 진로와 인생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장래에 희망하는 직업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조사 내용은 1차년도에 개발된 설문 문항의 내용을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김경준·김태기, 2015).

2) 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남미 지역의 동포청소년 설문조사는 5월~7월 사이에 9~24세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의 선정은 국가의 선정과 청소년 대상자의 선정의 2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먼저 조사대상 국가의 선정은 연구 예산과 연구진의 연구 역량의 범위를 감안하여 남미 지역 중 2개 국가를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재외동포의 규모가 크고 향후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최종 선정하였다. 청소년 조사대상자는 국내 재외동포 관련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외국국적자와 재외국민을 포함한 9세~24세의 재외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한국교육원의 협조를 얻어 한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에 설문지를 발송하고, 한국교육원에서 다시 한글학교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한글학교 교사의 안내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주로 연구자 출장 기간(2017년 5월 15일~2017년 6월 4일)에 이루어졌는데, 조사된 설문지는 연구자가 출장 중에 직접 회수하거나 출장 이후에 완료된 설문지는 한국교육원을 통하여 우편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남미 지역의 설문지 발송은 거리가 멀고 세관 통과 절차 등이 까다로워서 각각 보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2017년 4월 28일에 최초 설문지 발송에서 시작하여 2017년 7월 4일에 설문지를 최종 회수하였다. 조사 완료된 설문지는 데이터 입력과 데이터 크리닝 작업을 한 후에 분석에 활용하였다. 특히, 9~24세 청소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주요 변수에 대한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의 경우에는 설문지 자체를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회수된 설문지 476부(브라질 233부, 아르헨티나 243부) 중에서 최종 분석된 설문지는 브라질 221부, 아르헨티나 215부로 총 436부였다.

(2) 조사 내용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은 <표 IV-1>과 같다.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용한 문항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각각에 해당하는 개별 문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에 필요한 문항과 요인을 결정하기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축요인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과 배리맥스(Varimax) 회전을 활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도출된 문항과 요인, 요인별 신뢰도를 제시하였다.

① 한국 관련 요인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한국 관련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어 사용능력, 한민족정체성-실천, 한민족정체성-의식, 한국 관련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의 5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민족정체성을 제외한 요인은 단일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민족정체성은 스스로를 한민족으로 생각하는 의식과 구체적인 실천적 행동의 2개 요인으로 나누어졌다.

각 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를 살펴보면, 한국어 사용능력은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7로 나타났다. 한민족정체성-실천은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0이며, 한민족정체성-의식은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66으로 나타났다. 한국 관련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6으로 나타났다. 5개의 모든 요인에 대한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이 .66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IV-2 한국 관련 생활 실태 관련 요인 및 신뢰도분석 결과

변수		측정문항	1	2	3	4
한국어 사용능력		Q14_3	.888	.186	.163	-.005
		Q14_4	.883	.142	.153	.047
		Q14_5	.854	.109	.126	.011
한민족정체성	실천	Q16_3	-.012	.834	.160	.031
		Q16_4	.237	.753	.093	.124
		Q16_5	.260	.669	.114	.244
	의식	Q16_1	.016	.058	.001	.897
		Q16_2	.001	.247	.015	.851
한국 관련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Q15_4	.108	.163	.880	-.008
		Q15_5	.126	.128	.862	-.133
		Q15_6	.219	.070	.503	.263
고유치			3.69	1.83	1.04	1.02
설명변량			33.61	16.68	12.78	9.32
누적변량			33.61	50.29	63.07	72.40
Cronbach's α			.87	.70	.76	.66

② 미래인재역량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과 관련된 요인은 동일한 요인을 사용한 2차년도 연구(2016)와 유사하게 개인 및 사회적 책임, 국가정체의식, 세계시민의식,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력의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를 살펴보면,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은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5로 나타났다. 국가정체의식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4로 나타났다. 세계시민의식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1로 나타났다. 창의적 사고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66 이었으며, 문제해결력은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51로 나타났다.

표 IV-3 미래인재역량 관련 요인 및 신뢰도분석 결과

변수		측정문항	1	2	3	4	5
개인 및 사회적 책임		Q20_2	.774	.156	.139	.173	.018
		Q20_1	.746	.046	.221	.240	-.095
		Q19_3	.683	.024	.295	.049	.257
		Q20_4	.669	.107	.234	.022	.079
		Q20_3	.640	-.092	.165	.115	.291
		Q19_1	.627	.095	.138	.136	.376
		Q19_2	.512	-.058	.194	-.045	.504
국가정체 의식		Q22_1	-.025	.880	-.069	-.008	-.082
		Q22_2	.066	.874	-.021	.036	-.124
		Q22_3	.016	.848	-.051	.039	.053
		Q22_4	.169	.722	.148	.023	.094
세계시민의식		Q21_3	.204	.045	.802	.073	.152
		Q21_4	.270	.035	.768	.105	.086
		Q21_1	.232	.044	.743	.251	.082
		Q21_2	.267	-.140	.643	.100	.188
창의 역량	창의적 사고	Q18_2	.144	-.006	.162	.787	.138
		Q18_3	.058	-.012	.267	.702	.223
		Q18_1	.170	.092	.011	.699	-.001
	문제 해결력	Q18_6	.161	.063	.113	.123	.788
		Q18_4	.167	-.137	.231	.286	.606
고유치			3.51	2.89	2.68	1.91	1.72
설명변량			17.57	14.47	13.43	9.57	8.63
누적변량			17.57	32.04	45.47	55.05	63.68
Cronbach's α			.85	.84	.81	.66	.51

③ 한국에 대한 인식 및 한민족공동체 역할 기대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인식 및 한민족공동체의 동포청소년에 대한 역할기대와 관련된 요인은 한국 관련 인식, 한민족공동체의 동포청소년에 대한 역할 기대, 한국과의 교류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의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를 살펴보면, 한민족공동체의 동포청소년에 대한 역할 기대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9로 나타났다. 한국과의 교류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8로 나타났다. 한국 관련 인식은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61로 나타났다.

표 IV-4 한국 관련 인식과 한민족공동체 관련요인 및 신뢰도분석 결과

요인	문항 번호	1	2	3
한민족공동체의 동포청소년에 대한 역할 기대	Q27_4	.795	.135	.083
	Q27_1	.762	.127	.048
	Q27_3	.704	.224	.092
	Q27_5	.703	.081	.034
	Q27_2	.626	.250	.122
한국과의 교류 및 인식제고를 위한 지원	Q28_2	.125	.831	-.023
	Q28_3	.201	.807	.032
	Q28_4	.190	.693	.186
	Q28_1	.221	.597	.235
한국관련 인식	Q23_1	.091	.231	.765
	Q23_2	.192	-.146	.764
	Q23_3	-.017	.214	.668
고유치		2.77	2.45	1.73
설명변량		23.14	20.44	14.49
누적변량		23.14	43.59	58.09
Cronbach' α		.79	.78	.61

(3)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20.0을 활용하여 연구 목적 및 변수 특성에 따라 기술통계 분석, 교차분석(χ^2 분석), t-검증, 일원변량분석(ANOVA), 다변량분석(MANOVA),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등의 통계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과 한민족공동체 역할 기대와 관련한 주요 변인을 발견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에 관한 개요는 <표 IV-5>의 내용과 같다.

표 IV-5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에 거주중인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의 동포청소년 • 최종 분석대상 : 436명 (아르헨티나:215부, 브라질 221부, 조사대상자 외 연령 및 기타 누락 설문지 제외)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헨티나의 한국교육원 및 한글학교를 통한 조사 • 브라질의 한국교육원 및 한글학교를 통한 조사 • 연구자가 현지 방문을 통하여 협조 요청 및 설문지 수거
조사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아르헨티나: 2017년 4월 ~7월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사용능력, 한민족정체성, 미래인재역량, 한민족공동체 참여욕구 및 역할기대 등

(4) 설문조사 응답자의 배경 특성

최종 설문조사 분석에 포함된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배경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은 총 215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이 44.7%, 여자청소년이 55.3%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9~12세가 25.6%, 13~15세가 30.2%, 16~18세가 29.8%, 19~24세가 14.4%로 중·고등학생 연령대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연령대별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평균 연령은 16.05년이었으며, 아르헨티나에서의 거주기간은 평균 14.09년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동포청소년은 총 221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이 51.6%, 여자 청소년이 48.4%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9~12세가 23.5%, 13~15세가

35.7%, 16~18세가 15.8%, 19~24세가 24.9%로 중학생 연령대가 가장 분포가 높았고, 고등학생 연령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평균 연령은 16.62년이었으며, 브라질에서의 거주기간은 평균 13.36년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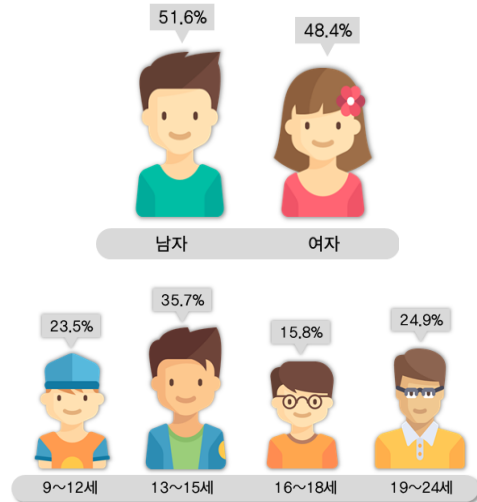
표 IV-6 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배경 특성

항목			합계		
			빈도	%	
아르헨티나	성별	남자	96	44.7	
		여자	119	55.3	
		전체	215	100.0	
	연령별 ⁴⁵⁾	9-12세	55	25.6	
		13-15세	65	30.2	
		16-18세	64	29.8	
		19-24세	31	14.4	
		전체	215	100.0	
	브라질	성별	남자	114	51.6
			여자	107	48.4
전체			221	100.0	
연령별		9-12세	52	23.5	
		13-15세	79	35.7	
		16-18세	35	15.8	
		19-24세	55	24.9	
		전체	221	100.0	
아르헨티나		거주기간 (년)		$M = 14.09$ $(SD = 4.13)$	
		연령 (년)		$M = 16.05$ $(SD = 3.57)$	
브라질	거주기간 (년)		$M = 13.36$ $(SD = 4.96)$		
	연령 (년)		$M = 16.62$ $(SD = 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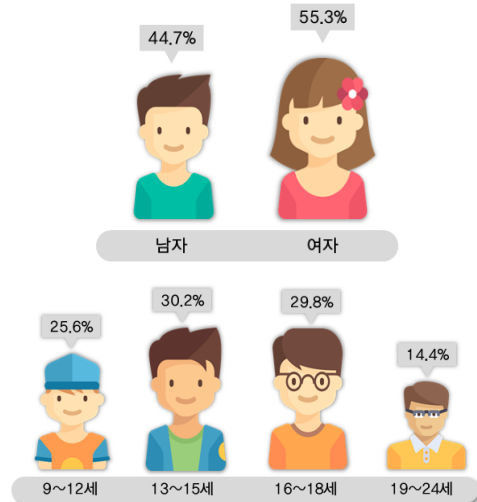


[남미 지역 응답자 현황]

【그림 IV-2】 브라질·아르헨티나 지역 응답자 현황



【그림 IV-3】 브라질 성별·연령별 분포



【그림 IV-4】 아르헨티나 성별·연령별 분포

45) 9~12세: 2008년~2005년생, 13~15세: 2004년~2002년생, 16~18세: 2001년~1999년생, 19~24세: 1998년~1993년생

3) 고려인 동포청소년 설문조사

(1)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설문조사 개요

고려인 동포청소년 설문조사는 재외동포청소년 대상으로 개발된 공통 설문조사의 항목을 활용하여 지역별,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현지 특성과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지의 일부 항목을 수정 또는 보완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은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청소년이 그 대상이다. CIS 지역 중 조사 국가 선정은 전문가 자문과 문헌을 통하여 재외동포비율이 높은 국가와 그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셋째,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정책제언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는 거주 국가 시민권자인 고려인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의 연령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근거하여 만9세~24세 사이의 청소년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현지 동포청소년 설문조사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재외동포청소년 교육 담당 전문가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담당한 기관은 한국교육원과 한글학교 또는 교육 담당 전문가를 통하여 2017년 5월~6월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약 1달 동안 조사한 설문지를 접수하였다. 접수 완료된 설문지 원본은 연구진에게 발송하였고, 연구진은 데이터 입력 작업과 접수 작업을 마친 후 설문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국내 거주 고려인청소년의 설문조사는 연구진이 고려인 청소년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고려인 거주 지역의 NGO 단체 등을 섭외한 후 설문 조사원을 교육시켜 설문 조사를 의뢰하고 수거에 참여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7년 6월~8월 동안 실시하였으며, 이후 데이터 입력과 접수 작업을 거쳐 설문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데이터 입력과 접수 작업 중, 만9세~24세가 아닌 설문지 응답자의 설문은 제외되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경우 해당 대한민국 국적자는 제외하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만을 설문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회수된 설문지 536부(우즈베키스탄 221부, 카자흐스탄 228부, 국내거주 87부) 중에서 최종 분석된 설문지는 우즈베키스탄 208부, 카자흐스탄 174부, 국내거주 83부) 총 465부였다.

(2) 조사 내용

고려인 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의 주요내용은 <표 IV-1>과 같다. 문헌 연구와 2차년도 조사를 근거로 설문 문항을 결정하였으나,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 할 최종 문항을 결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통해 요인과 요인별 최종 문항을 도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중 주축요인분해법과 베리맥스 회전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추출된 요인에 대하여 요인별 신뢰도를 검증하여 분석 결과에 제시하였다.

①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한국 관련 요인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한국 관련 요인은 한국어 사용 능력과 가정에서 부모와 한국관련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질문, 한민족정체성과 관련한 설문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조사 결과는 <표 IV-7>에 제시하였다. 추출된 요인을 살펴보면, 한국어 사용능력, 한민족정체성 중 실천과 의식, 부모와의 가정생활의 요인으로 나뉜다. 한민족정체성의 경우 김경준·정은주(2016)의 재미동포청소년의 연구의 요인분석 결과⁴⁶⁾와 같이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의 차원과 타인에게 역사를 알리고 공유하려는 실천의 차원으로 나뉘었다. 요인 분석에 근거하여 고려인 동포청소년 설문 조사의 분석에서는 한민족정체성의 의식과 실천으로 나누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한국어 사용능력은 전체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7로 나타났다. 한민족정체성-실천은 전체 3문항이고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1, 한민족정체성-의식은 총2문항이고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9로 나타났다. 부모관련 가정생활은 전체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63로 나타났다.

46) 김경준, 정은주(2016), p.97, 표 4-7.

②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 관련 요인은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전체 여섯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IV-8> 참고).

각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세계시민의식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5, 국가정체의식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7,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5, 창의적사고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5, 의사사통능력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0, 문제해결력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75로 나타났다.

표 IV-7 고려인 동포청소년 한국 관련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측정문항	1	2	3	4
한국어 능력		Q13_4	.869	.200	-.011	.131
		Q13_3	.839	.215	-.060	.215
		Q13_5	.704	.071	.158	.121
한민족 정체성	실천	Q15_4	.171	.892	.082	.127
		Q15_3	.200	.608	.266	.192
		Q15_5	.146	.596	.258	.350
	의식 ⁴⁷⁾	Q15_2	.003	.136	.802	.106
		Q15_1	.060	.096	.760	.083
가정생활		Q14_4	.020	.093	.082	.635
		Q14_6	.078	.113	.090	.523
		Q14_5	.227	.102	.139	.422
		Q14_3	.176	.150	.209	.359
		Q14_1	.251	.284	.021	.355
고유치			2.18	1.83	1.42	1.41
설명변량			16.80	14.05	10.96	10.86
누적변량			16.80	30.85	41.81	52.67
Cronbach's α			.87	.81	.79	.63

47) Q14_2은 '나와 부모님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로 한민족정체성-의식 요인에서 요인계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요인

표 IV-8 고령인 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 역량 관련 요인 및 신뢰도분석 결과

요인	측정문항	1	2	3	4	5	6
세계시민 의식	Q20_3	.749	.151	.167	.154	.206	.153
	Q20_1	.695	.192	.139	.085	.170	.145
	Q20_2	.675	.182	.142	.146	.212	.034
	Q20_4	.570	.146	.231	.124	.283	.069
국가정체 의식	Q21_3	.149	.841	.124	.025	.037	.048
	Q21_1	.179	.783	.159	.033	.095	.105
	Q21_4	.172	.692	.174	.056	.093	.236
	Q21_2	.105	.673	.194	.127	.079	-.026
개인적· 사회적 책임의식	Q19_2	.168	.215	.696	.202	.163	-.033
	Q19_1	.069	.137	.620	.280	.276	.059
	Q19_5	.203	.167	.512	.131	.042	.252
	Q18_3	.170	.183	.495	.193	.134	.207
	Q19_3	.371	.093	.489	-.009	.075	.353
	Q19_4	.396	.185	.488	-.003	.074	.327
	Q18_1	.049	.168	.463	.274	.277	.139
	Q18_2	.259	.180	.354	-.083	.094	.447
창의역량: 창의적사고	Q17_3	.069	.060	.162	.724	.168	.110
	Q17_2	.059	.071	.145	.711	.088	.028
	Q17_1	.195	.028	.136	.544	.177	.100
의사소통 능력	Q16_2	.205	.013	.078	.210	.660	.069
	Q16_4	.323	.113	.128	.026	.523	.199
	Q16_1	.222	.048	.114	.094	.512	.179
	Q16_3	.070	.085	.152	.137	.413	.034
창의역량: 문제해결력	Q17_4	.122	.091	.146	.444	.222	.525
	Q17_5	.115	.075	.203	.249	.327	.479
	Q17_6	.117	.125	.186	.246	.354	.444
고유치		2.67	2.66	2.64	2.06	1.93	1.48
설명변량		10.29	10.22	10.17	7.94	7.43	5.71
누적변량		10.29	20.51	30.67	38.61	46.04	51.75
Cronbach'α		.85	.87	.85	.75	.70	.75

특성과 신뢰도 수준을 고려하여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함.

③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한국과의 교류 및 한민족공동체 역할 기대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한국 관련 인식과 한민족공동체 관련 요인의 결과는 <표 IV-9>에 제시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한민족공동체 역할 기대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6, 한국과의 교류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87, 한국관련 인식의 내적일관성(Cronbach's α)은 .69로 나타났다.

표 IV-9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한국 관련 인식과 한민족공동체 관련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문항 번호	1	2	3
한민족공동체 역할 기대	Q26_3	.789	.176	.163
	Q26_4	.695	.216	.137
	Q26_2	.677	.251	.166
	Q26_5	.674	.101	.147
	Q26_1	.643	.281	.172
한국과의 교류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	Q27_3	.289	.763	.246
	Q27_4	.213	.736	.166
	Q27_1	.169	.720	.253
	Q27_2	.345	.620	.231
한국 관련 인식	Q22_1	.073	.313	.672
	Q22_3	.093	.329	.600
	Q22_2	.197	.005	.499
	Q22_4	.192	.196	.420
고유치		2.80	2.50	1.57
설명변량		21.52	19.25	12.06
누적변량		21.52	40.76	52.82
Cronbach' α		.86	.87	.69

(3)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20.0을 활용하여 연구 목적 및 변수 특성에 따라 기술통계 분석, 교차분석(χ^2 분석), t-검증, 일원변량분석(ANOVA), 다변량분석(MANOVA), 회귀 등의 통계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과 관련한 중요 변인을 발견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려인 동포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실시에 관한 개요는 <표 IV-10>의 내용과 같다.

표 IV-10 **고려인 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거주 중인 만9세~만24세의 고려인 동포청소년 • 국내에 거주 중인 만9세~만24세의 고려인 동포청소년 • 최종 설문대상 465명 (우즈베키스탄 208명, 카자흐스탄 174명, 국내 거주 83명)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내 한국교육원과 한글학교를 통한 설문지 조사 •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은 고려인 교육기관을 연구진이 직접 방문 또는 NGO 단체 협조로 설문지 조사 실시
조사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5월~8월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능력, 한민족정체성, 미래인재역량, 한민족공동체 참여 욕구 및 역할기대 등

(4) 고려인 동포청소년 설문조사 응답자의 배경 특성

<표 IV-11>에는 고려인 동포청소년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이 제시되었다. 전체 응답자수는 465명이었으며, 남자 청소년은 37.6%, 여자 청소년은 62.4%로 여자 청소년이 설문에 더 많이 참여하였다. 이 중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은 208명,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은 174명,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은 83명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15세 이하 연령그룹보다는 16세 이상 연령 그룹의 청소년이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

구분		빈도	%			
설문 응답자 전체	성별	남자	175	37.6		
		여자	290	62.4		
		전체	465	100.0		
	연령별 ⁴⁸⁾	9-12세	27	5.8		
		13-15세	91	19.6		
		16-18세	164	35.3		
		19-24세	183	39.4		
		전체	465	100.0		
	국가별	우즈베키스탄	성별	남자	91	43.8
				여자	117	56.3
전체				208	100.0	
연령별		9-12세	9	4.3		
		13-15세	44	21.2		
		16-18세	63	30.3		
		19-24세	92	44.2		
		전체	208	100.0		
카자흐스탄		성별	남자	49	28.2	
			여자	125	71.8	
			전체	174	100.0	
		연령별	9-12세	0	0.0	
			13-15세	26	14.9	
			16-18세	68	39.1	
			19-24세	80	46.0	
			전체	174	100.0	
국내 거주		성별	남자	35	42.2	
			여자	48	57.8	
	전체		83	100.0		

구분		빈도	%
연령별	9-12세	18	21.7
	13-15세	21	25.3
	16-18세	33	39.8
	19-24세	11	13.3
	전체	83	100.0

<표 IV-12>에는 설문 응답자의 평균 연령과 거주국 거주 기간을 제시하였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17.60세였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은 고려인 청소년 연령은 17.89세, 카자흐스탄은 18.36세,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 연령은 15.30세로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경우 출생국에서 거주한 기간은 평균 12.24년이고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평균 2.54년으로 나타났다⁴⁹⁾. 설문 응답자의 결과를 보면,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은 평균 초등학교 고학년에 한국으로 이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IV-12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평균 연령과 거주국 거주 기간

항목		평균 (표준편차)
설문 응답자 전체		연령 (년) $M = 17.60 (SD = 3.18)$
국가별	우즈베키스탄	거주기간 (년) $M = 17.04 (SD = 3.76)$
		연령 (년) $M = 17.89 (SD = 3.20)$
	카자흐스탄	거주기간 (년) $M = 15.46 (SD = 5.14)$
		연령 (년) $M = 18.36 (SD = 2.76)$
	국내 거주	한국 거주기간 (년) $M = 2.54 (SD = 1.11)$
		출생국 거주기간 (년) $M = 12.24 (SD = 4.31)$
		연령 (년) $M = 15.30 (SD = 2.92)$

48) 9-12세: 2008년-2005년생, 13-15세: 2004년-2002년생, 16-18세: 2001년-1999년생, 19-24세: 1998년-1993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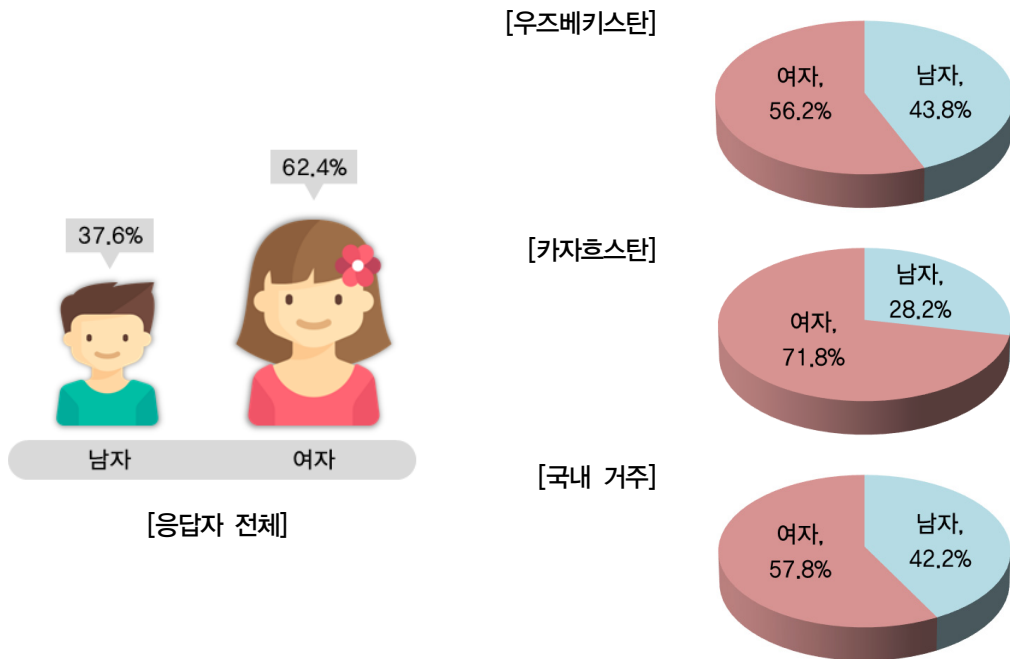
49) 거주기간과 관련한 미응답으로 출생국 거주기간과 한국거주기간의 합의 평균이 연령 평균과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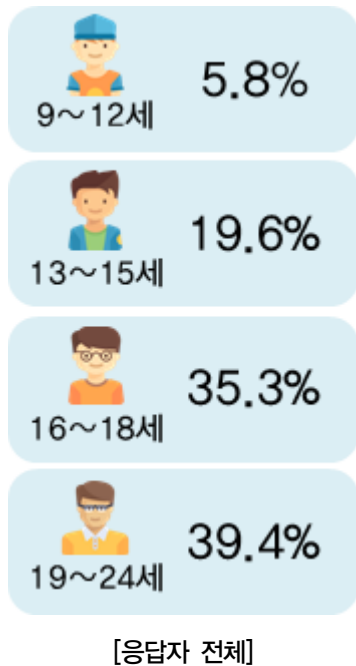
[중앙아시아 지역]

[국내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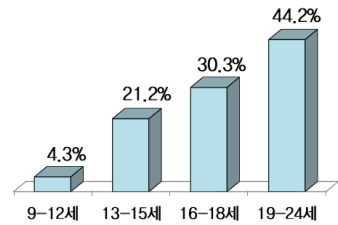
【그림 IV-5】 고려인 동포청소년 국가별 응답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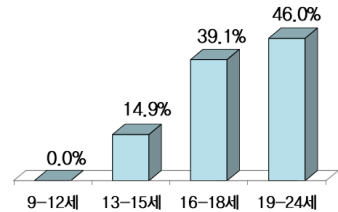
【그림 IV-6】 고려인 동포청소년 응답자의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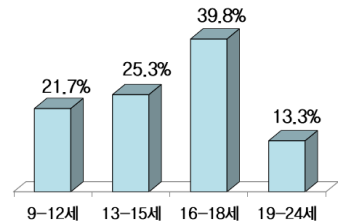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 거주]



【그림 IV-7】 고려인 동포청소년 응답자의 연령 분포

2. 면접조사 개요

1) 면접조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첫째, 브라질·아르헨티나와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지역 및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재외동포청소년의 실태와 역량 및 한민족공동체에의 역할기대 등을 설문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양적 분석과 둘째,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한 심층적인 실태 파악과 정책적 요구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질적 조사로 구성되었다.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모두는 재외동포청소년을 위한 적실성 있고 현실적인 정책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질적 조사는 전문가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렇게 수집된 방대한 정보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그 내용이 요약·정리되어 결론을 도출하였다. 김병욱(2010)에 의하면,

“질적 연구는 개인의 삶에서 일상 속에 발현된 의미 있는 순간들을 포착하고 그 의미들을 기술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삶과 문화, 사회적 행위나 상호작용 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그에 관한 연구자의 해석을 덧붙이는 연구 방법이다(김병욱, 2010)”라고 한다(김경준·정은주 2016 p. 103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의 경험과 의견을 경청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후, 전체 사회적 맥락과 연계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전소연·남부현, 2015: 625).

본 연구에서는 현지에서 거주하는 동포청소년들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고 한민족 공동체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심층면접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즉,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한글학교에서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및 청소년 관련기관의 전문가, 그리고 국내에서는 고려인 학교 및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 자료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재외동포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한민족정체성의 문제와 진로, 그리고 미래인재 역량, 미래에 대한 비전, 필요한 지원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면접 진행 절차

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7년 5월 15일~2017년 6월 4일 사이에 본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개별 면담 및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즉, 브라질에서는 상파울루의 한국교육원과 한글학교 및 근교 도시인 꾸리찌바의 한글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글학교 교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브라질 한글학교협의회 임원 8인이 참여한 집단 면담과 꾸리찌바 한글학교 교사 6인이 참여한 집단 면담을 각각 실시하여 브라질 전국에 있는 한글학교의 운영과 실태, 그리고 정책적 요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국교육원과 한국학교, 한글학교를 각각 현장 방문하여 청소년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르헨티나 한글학교협의회 임원 15인 참여하여 워크숍 형태로 집단면담을 실시하여 전국 각 지역의 한글학교의 상황과 요구 등을 논의하였다. 개별면담은 1시간 내외로 진행되었고, 집단면담은 2~3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질문내용은 반구조화된 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고려인 동포청소년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7년 5월 연구자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방문하여 한국교육원과 한글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거나 현지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현지 사정과 전문가의 사정에 따라 개별 또는 3~5명으로 구성된 집단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별 면담은 1시간 이내, 집단 면담은 2~3시간 정도 이루어졌으며, 반구조화된 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의 주요 내용은 현지 청소년 현황과 교육 환경, 고려인 가정환경, 한국어 교육, 한민족 정체성, 미래에 필요한 역량, 고려인 지원을 위한 제언, 발전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국내에 거주 중인 고려인 동포청소년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2017년 6월~8월까지 고려인 마을, 학교, NGO 단체 등을 방문하여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고려인 청소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1시간 이내로 이루어졌다.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청소년에 대한 면담 내용에는 국내 적응과 관련한 문제, 국내 교육 제도와의 연계 등도 포함하였다.

연구자들은 면담 내용 모두를 참여자의 양해를 구하고 녹음하였으며, 필요시 중요 내용은 연구자가 직접 받아 적었다. 녹음된 모든 면담 내용은 빠짐없이 전사하였다. 전사한 원자료는 녹음자료와 비교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검토를 마친 전사자료를 근거로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신경림 외, 2004).

3) 면접 조사 분석 단계 및 절차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 면담을 전사한 자료로 준비된 면담 원자료는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에 따라 다음 6단계를 따라 분석되었다(남부현, 2015: 186-189에서 재인용; 전소연·남부현, 2015: 627에서 재인용).

첫 번째 단계는 아르헨티나 15명, 브라질 18명, 우즈베키스탄 7명, 카자흐스탄 7명, 국내 고려인 5명에서 수집된 방대한 면담 자료의 내용이 모두 다 전사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정독하는 절차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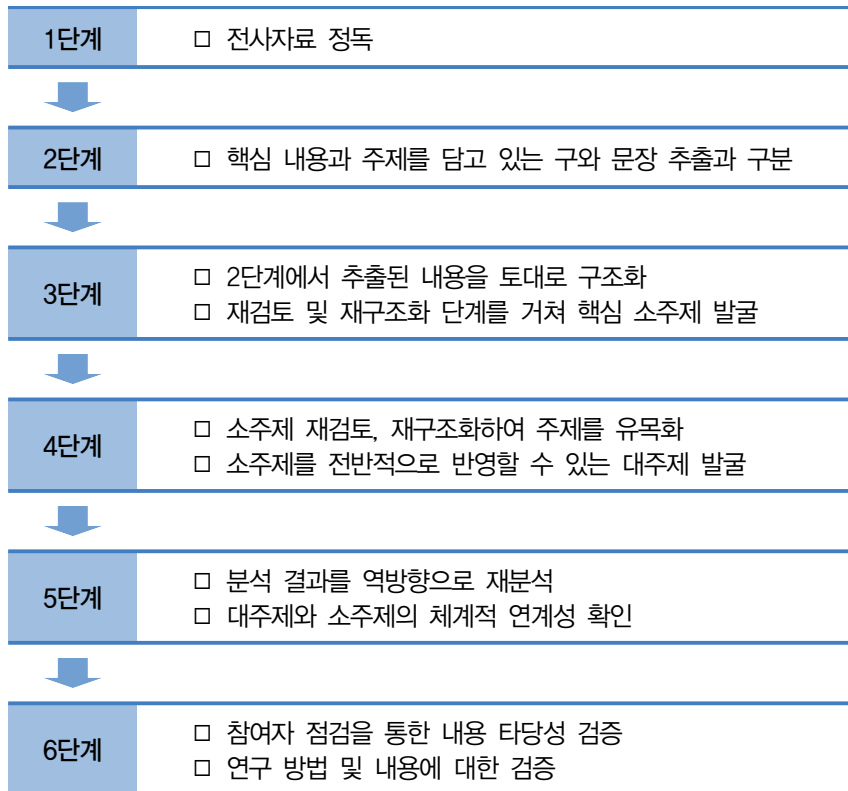
두 번째 단계는 연구자들이 참여자들이 진술한 경험들 중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구와 문장을 추출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 문장을 반복적으로 읽고 객관적인 주제 도출을 위한 작업을 반복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서 추출된 내용을 토대로 국가와 그룹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핵심 소주제를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대주제를 선정 또는 발견하는 단계로 도출된 소주제를 재검토하여 이를 유목화 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와 지역에 적절한 대주제를 선정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는 역방향으로 재분석하여 발견한 대주제와 소주제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소주제는 공통된 주제를 담고 있고 이를 근거로 대주제가 도출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여섯 번째 단계는 도출된 결과가 타당한지 검증하는 절차로 참여자의 진술을 충분히 반영하고 객관적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출처: 김경준·정은주(2016), 106쪽 [그림 VI-8]의 내용을 재구성

【그림 IV-8】 면접조사 분석 절차

4) 면접 조사 참여자

본 연구의 질적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참여자 정보는 <표 IV-13>에서 <표 IV-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미 지역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내 교육 또는 청소년 전문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내 교육 또는 청소년 전문가와 국내의 고려인 동포청소년 전문가 등이다.

남미 지역의 면접조사 참여자는 아르헨티나 15명, 브라질 18명 등 총 33명이 참여하였다. 아르헨티나의 면접조사 참여자는 청소년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로 공립학교 교사이거나 한글학교 교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육분야에 근무한 경력은 3년~40년 이상으로 다양하였다.

표 IV-13 아르헨티나 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참여자	나이	성별	직업	경력
참여자 1	61세	여	교사	41년
참여자 2	55세	남	교사	10년
참여자 3	51세	남	교사	25년
참여자 4	63세	남	교사	18년
참여자 5	58세	남	교사	4년 반
참여자 6	61세	여	교사	9년
참여자 7	63세	여	교사	무응답
참여자 8	47세	여	교사	16년
참여자 9	50세	여	교사	15년
참여자 10	45세	여	교사	8년
참여자 11	68세	여	교사	3년
참여자 12	43세	여	교사	무응답
참여자 13	47세	여	교사	무응답
참여자 14	49세	여	교사	23년
참여자 15	66세	여	교사	6년

브라질에서 면접에 참여한 참여자는 18명이었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대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가 한글학교 교사 또는 한국 교육과 관련한 기관의 교사로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표 IV-14 브라질 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참여자	나이	성별	직업	경력
참여자 1	46세	여	교사	9년
참여자 2	46세	남	교사	4년 반
참여자 3	45세	여	교사	무응답
참여자 4	무응답	남	교사	무응답
참여자 5	29세	여	교사	6년
참여자 6	19세	남	교사	2년
참여자 7	17세	여	교사	무응답
참여자 8	25세	여	교사	무응답
참여자 9	17세	여	교사	2년
참여자 10	60세	남	교사	13년
참여자 11	56세	여	교사	4년
참여자 12	53세	여	교사	13년
참여자 13	38세	여	교사	10년
참여자 14	45세	여	교사	16년
참여자 15	58세	여	교사	29년
참여자 16	52세	여	교사	6년
참여자 17	61세	여	교사	17년
참여자 18	무응답	남	교사	무응답

우즈베키스탄에서 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는 7명이었으며 모두 30대 이상이였다. 7명 모두 여성이었으며 한국어 교사이거나 교장 또는 우즈베키스탄 교육부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도 참여하였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일한 경력은 3년에서 45년으로 다양하였다.

표 IV-15 우즈베키스탄 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참여자	나이	성별	직업	경력
참여자 1	48세	여	공립학교 교장	20년
참여자 2	67세	여	교육부 과장	45년
참여자 3	56세	여	국립학교 한국어 교사	17년
참여자 4	34세	여	IT고등학교 한국어 교사	12년
참여자 5	36세	여	한국교육원 한국어 교사	3년
참여자 6	35세	여	한국교육원 한국어 교사	9년
참여자 7	41세	여	한국교육원 한국어 교사	19년

카자흐스탄에서 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는 5명이었으며 36세~75세 사이의 다양한 연령의 참여자가 면접에 참여하였다. 5명 모두 여성이었으며 한국어 교사, 대학교 한국어 강사, 한글학교 교장 등 고려인 청소년 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었다. 이들의 경력은 7년에서 30년으로 다양하였다.

표 IV-16 카자흐스탄 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참여자	나이	성별	직업	경력
참여자 1	54세	여	주말 한글학교 교장	11년
참여자 2	36세	여	한국교육원 한국어 교사	7년
참여자 3	41세	여	대학교 한국어 강사	12년
참여자 4	62세	여	한국교육원 한국어 교사	10년
참여자 5	75세	여	주말 한글학교 교장	30년

국내 면접 참여 대상자는 5명이었으며 여성 4명, 남성 1명이었다. 청소년 분야 전문가들로 위탁형 대안학교의 교감 또는 교사로 재직 중인 교육 전문가, NGO 단체에서 고려인 청소년의 적응과 지원을 돕고 있는 청소년 분야 전문가, 고려인 청소년 학업을 지원하고 있는 교사 등이 면접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IV-17 국내 면접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배경

참여자	나이	성별	직업	경력
참여자 1	61세	여	위탁형 대안학교 교감	12년
참여자 2	50세	여	NGO 단체 직원	6년
참여자 3	48세	여	NGO 단체 직원	6년
참여자 4	60대 후반	남	위탁형 대안학교 교사	40 여년
참여자 5	49세	여	학원 학원장	10년

제 V 장

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조사결과 분석

1. 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분석
2. 브라질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분석
3. 아르헨티나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분석
4. 소결

제 V 장

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조사결과 분석*

1. 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최초 이주 세대 및 국적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가정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 이주하게 된 최초의 이주 세대를 국가별로 비교해서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에서는 조부모 혹은 그 이전 세대가 최초 세대인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브라질에서는 부모 세대가 최초 세대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국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가정의 경우에는 최초로 이주한 세대가 조부모 혹은 그 이전 세대가 61.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부모세대(31.6%), 부모님과 함께 이주(7.1%)의 순이었으나, 브라질 동포청소년 가정의 경우에는 부모 세대가 41.7%로 조부모 혹은 그 이전세대(39.4%)보다 조금 더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이주한 세대(19.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 최초로 이주한 세대에 대한 국가별 차이

	합계	조부모 혹은 그 이전 세대		부모 세대		부모님과 함께 이주		χ^2
		빈도	%	빈도	%	빈도	%	
아르헨티나	212	130	61.3	67	31.6	15	7.1	28.82***
브라질	216	85	39.4	90	41.7	41	19.0	

주: *** α .001; ** α .01; * α .05.

* 이 장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거주국가로 최초로 이주한 세대를 동포청소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가정의 경우에는 남녀 청소년과 모든 연령대에서 최초로 이주한 세대로 조부모 혹은 그 이전 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V-2 최초로 이주한 세대(아르헨티나)

구분	합계		조부모 혹은 그 이전 세대		부모 세대		부모님과 함께 이주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94	100	63	67	25	26.6	6	6.4	2.35
	여자	118	100	67	56.8	42	35.6	9	7.6	
	전체	212	100	130	61.3	67	31.6	15	7.1	
연령별	9-12세	55	100	28	50.9	26	47.3	1	1.8	11.16
	13-15세	64	100	41	64.1	18	28.1	5	7.8	
	16-18세	62	100	42	67.7	15	24.2	5	8.1	
	19-24세	31	100	19	61.3	8	25.8	4	12.9	
	전체	212	100	130	61.3	67	31.3	15	7.1	

주: *** α .001; ** α .01; * α .05.

브라질 동포청소년 가정의 경우에는 최초로 이주한 세대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대학생 연령대인 13~15세(49.4%), 16~18세(42.9%), 19~24세(41.5%)에서는 최초 이주 세대로 조부모 혹은 그 이전 세대가 가장 많았으나 초등학생 연령대인 9~12세의 경우에는 최초 이주 세대로 부모세대가 62.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브라질에서 조부모 세대 이전에 이민 온 가정이 가장 많으나 최근에는 부모 세대에 이민 온 가정도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표 V-3 최초 이주한 세대(브라질)

구분	합계		조부모 혹은 그 이전 세대		부모 세대		부모님과 함께 이주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13	100	42	37.2	48	42.5	23	20.4	.56
	여자	103	100	43	41.7	42	40.8	18	17.5	
	전체	216	100	85	39.4	90	41.7	41	19	
연령별	9-12세	51	100	10	19.6	32	62.7	9	17.6	20.28**
	13-15세	77	100	38	49.4	29	37.7	10	13.0	
	16-18세	35	100	15	42.9	14	40.0	6	17.1	
	19-24세	53	100	22	41.5	15	28.3	16	30.2	
	전체	216	100	85	39.4	90	41.7	41	19.0	

주: *** $p < .001$; ** $p < .01$; * $p < .05$.

동포청소년의 부모님 국적은 두 분 다 한국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가정의 경우에는 두 분 다 한인인 경우가 8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버지만 한국인이 8.8%, 어머니만 한국인이 2.3%, 두 분 다 한국인이 아님이 1.4%였다. 브라질 동포청소년 가정의 경우에도 두 분 다 한인인 경우가 8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버지만 한국인이 5.9%, 두 분 다 한국인이 아님이 4.2%, 어머니만 한국인이 2.7%였다.

표 V-4 부모 국적에 대한 국가별 차이

	합계	아버지만 한국인		어머니만 한국인		두 분 다 한국인		두 분 다 한국인 아님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르헨티나	215	19	8.8	5	2.3	188	87.4	3	1.4	4.20
브라질	220	13	5.9	6	2.7	192	87.3	9	4.1	

주: *** $p < .001$; ** $p < .01$; * $p < .05$.

성별, 연령별로 부모의 국적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가정의 경우에는 남녀와 모든 연령대에서 부모님 국적이 두 분 다 한국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V-5 부모 국적(아르헨티나)

구분		합계		아버지만 한국인		어머니만 한국인		두 분 다 한국인		두 분 다 한국인 아님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96	100	8	8.3	3	3.1	83	86.5	2	2.1	1.13
	여자	119	100	11	9.2	2	1.7	105	88.2	1	0.8	
	전체	215	100	19	8.8	5	2.3	188	87.4	3	1.4	
연령별	9-12세	55	100	8	14.5	2	3.6	45	81.8	0	0.0	8.59
	13-15세	65	100	6	9.2	0	0.0	58	89.2	1	1.5	
	16-18세	64	100	2	3.1	2	3.1	59	92.2	1	1.6	
	19-24세	31	100	3	9.7	1	3.2	26	83.9	1	3.2	
	전체	215	100	19	8.8	5	2.3	188	87.4	3	1.4	

주: *** $p < .001$; ** $p < .01$; * $p < .05$.

브라질 동포청소년 가정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녀와 모든 연령대에서 부모님 국적이 두 분 다 한국인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 부모 국적(브라질)

구분		합계		아버지만 한국인		어머니만 한국인		두 분 다 한국인		두 분 다 한국인 아님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14	100	9	7.9	5	4.4	97	85.1	3	2.6	5.32
	여자	106	100	4	3.8	1	0.9	95	89.6	6	5.7	
	전체	220	100	13	5.9	6	2.7	192	87.3	9	4.1	

구분		합계		아버지만 한국인		어머니만 한국인		두 분 다 한국인		두 분 다 한국인 아님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연령별	9-12세	52	100	4	7.7	4	7.7	41	78.8	3	5.8	13.54
	13-15세	79	100	6	7.6	0	0	69	87.3	4	5.1	
	16-18세	35	100	3	8.6	1	2.9	30	85.7	1	2.9	
	19-24세	54	100	0	0.0	1	1.9	52	96.3	1	1.9	
	전체	220	100	13	5.9	6	2.7	192	87.3	9	4.1	

주: *** α .001; ** α .01; * α .05.

동포청소년의 국적은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과 브라질 동포청소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자의 비율은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과 브라질 동포청소년이 각각 39.3%, 39.9%로 두 국가의 동포청소년의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이 47.7%, 브라질 동포청소년이 34.9%로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이 브라질 동포청소년보다 많은 반면, 대한민국 국적자는 브라질 동포청소년이 20.6%,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이 7.5% 브라질 동포청소년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에 비해서 청소년기에 한국국적을 많이 취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7 동포청소년의 국적에 대한 국가별 차이

	합계	시민권자		이중국적		대한민국		기타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르헨티나	214	84	39.3	102	47.7	16	7.5	12	5.6	17.78***
브라질	218	87	39.9	76	34.9	45	20.6	10	4.6	

주: *** α .001; ** α .01; * α .05.

성별, 연령별로 동포청소년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별로는 차이가 없으나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별로 볼 때, 이중국적자의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졌으며, 이에 반하여 대한민국 국적자의

비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24세 연령대의 경우에는 이중국적자가 32.3%로 가장 낮은 반면, 대한민국 국적자의 비율은 25.8%로 높게 나타나, 다른 연령대와 차이를 보였다. 19~24세 연령대는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연령대에 비해서 약 20% 정도의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8 동포청소년의 국적/신분(아르헨티나)

구분	합계		시민권자		이중국적		대한민국		기타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96	100	45	46.9	43	44.8	5	5.2	3	3.1	5.99
	여자	118	100	39	33.1	59	50.0	11	9.3	9	7.6	
	전체	214	100	84	39.3	102	47.7	16	7.5	12	5.6	
연령별	9-12세	54	100	21	38.9	32	59.3	0	0.0	1	1.9	26.92**
	13-15세	65	100	24	36.9	31	47.7	3	4.6	7	10.8	
	16-18세	64	100	27	42.2	29	45.3	5	7.8	3	4.7	
	19-24세	31	100	12	38.7	10	32.3	8	25.8	1	3.2	
	전체	214	100	84	39.3	102	47.7	16	7.5	45	5.6	

주: *** $\alpha < .001$; ** $\alpha < .01$; * $\alpha < .05$.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도 성별로는 차이가 없으나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볼 때, 시민권자의 비율과 이중국적자의 비율은 고등학생 연령대인 16~18세가 가장 높았으며, 대한민국 국적자의 비율은 19~24세가 42.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19~24세에는 고등학생 연령대에 비해서 약 30% 이상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9 동포청소년의 국적/신분(브라질)

구분		합계		시민권자		이중국적		대한민국		기타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12	100	39	34.8	42	37.5	26	23.2	5	4.5	2.69
	여자	106	100	48	45.3	34	32.1	19	17.9	5	4.7	
	전체	218	100	87	39.9	76	34.9	45	20.6	10	4.6	
연령별	9-12세	51	100	15	29.4	23	45.1	9	17.6	4	7.8	32.52**
	13-15세	78	100	37	47.4	30	38.5	9	11.5	2	2.6	
	16-18세	35	100	20	57.1	8	22.9	4	11.4	3	8.6	
	19-24세	54	100	15	27.8	15	27.8	23	42.6	1	1.9	
	전체	218	100	87	39.9	76	34.9	45	20.6	10	4.6	

주: *** $\alpha < .001$; ** $\alpha < .01$; * $\alpha < .05$.

2) 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1) 한국학교

가. 한국학교 재학 경험

그동안 중남미지역은 1990년대부터 파라과이 한국학교(1992), 아르헨티나 한국학교(1995), 브라질 한국학교(1998)의 3개 학교가 운영되어 왔으나 브라질 한국학교가 2016년 하반기에 운영이 중단되어 2개의 학교만이 운영되고 있다. 남미지역 동포청소년의 한글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글교육 중추기관인 한국학교 재학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한국학교 재학 경험을 국가별로 비교해서 살펴보면,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에 비해서 한국학교 재학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한국학교 재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은 53.8%인데 비해 브라질 동포청소년은 69.9%로 브라질 동포청소년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에 비해서 약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0 한국학교의 재학 경험에 대한 국가별 차이

	사례수	있다		없다		한국학교가 없다		χ^2
		빈도	%	빈도	%	빈도	%	
아르헨티나	208	112	53.8	93	44.7	3	1.4	11.83**
브라질	216	151	69.9	62	28.7	3	1.4	

주: *** $p < .001$; ** $p < .01$; * $p < .05$.

성별, 연령별로 한국학교 재학 경험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한국학교 재학 경험은 성별,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중학생 연령대 이후에 청소년들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한국학교에서의 재학 경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학교 재학 경험은 13~15세가 59.4%로 가장 높았으나 16~18세는 48.4%, 19~24세는 46.7%로 낮아졌다.

표 V-11 한국학교 재학 경험(아르헨티나)

	사례수	있다		없다		한국학교가 없다		χ^2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92	51	55.4	40	43.5	1	1.1	.27
	여자	116	61	52.6	53	45.7	2	1.7	
	전체	208	112	53.8	93	44.7	3	1.4	
연령별	9-12세	50	29	58	21	42	0	0	5.30
	13-15세	64	38	59.4	24	37.5	2	3.1	
	16-18세	64	31	48.4	31	50	1	1.6	
	19-24세	30	14	46.7	16	53.3	0	0	
	전체	208	112	53.8	93	44.7	3	1.4	

주: *** $p < .001$; ** $p < .01$; * $p < .05$.

한편,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한국학교 재학 경험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학교에서의 재학 경험은 초등학생 연령대인 9~12세가 86.5%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연령대 이상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한국학교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학교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3~15세가 60.5%, 16~18세가 67.6%, 19~24세가 68.5%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청소년 연령대에서 한국학교 참여가 잘 이루어져 왔고, 특히, 최근에 초등학생 연령대의 참여가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12 한국학교의 재학 경험(브라질)

	사례수	있다		없다		한국학교가 없다		χ^2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11	78	70.3	31	27.9	2	1.8	.33
	여자	105	73	69.5	31	29.5	1	1	
	전체	216	151	69.9	62	28.7	3	1.4	
연령별	9-12세	52	45	86.5	7	13.5	0	0	14.32*
	13-15세	76	46	60.5	27	35.5	3	3.9	
	16-18세	34	23	67.6	11	32.4	0	0	
	19-24세	54	37	68.5	17	31.5	0	0	
	전체	216	151	69.9	62	28.7	3	1.4	

주: *** $p < .001$; ** $p < .01$; * $p < .05$.

나. 한국학교 재학 기간

한국학교에서의 동포청소년들의 재학기간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이 평균 4~5년 정도 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한국학교 재학기간은 평균 4.47년이었고,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평균 4.91년으로 나타났다.

표 V-13 한국학교 재학 기간의 국가별 차이

	재학기간(년)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아르헨티나	4.47	3.23	1.22	-
브라질	4.91	3.04		

주: *** $p < .001$; ** $p < .01$; * $p < .05$.

성별, 연령별로 한국학교에서의 재학기간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별,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14 한국학교 재학 기간(아르헨티나)

		사례수	재학기간(년)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52	4.82	3.46	1.10	-
	여자	63	4.18	3.03		
	전체	115	4.47	3.23		
연령별	9-12세	33	3.89	2.60	.79	-
	13-15세	39	4.72	3.21		
	16-18세	30	5.00	3.48		
	19-24세	13	3.96	4.16		
	전체	115	4.47	3.23		

주: *** $p < .001$; ** $p < .01$; * $p < .05$.

하지만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한국학교에서의 재학 기간은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연령대인 9~12세(평균 3.95년) 청소년에 비해서 중·고등학생 연령대인 13~15세(평균 5.39년)와 16~18세(6.07년)의 한국학교 재학기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5 한국학교의 재학 기간(브라질)

		사례수	재학기간(년)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68	4.46	2.92	3.01	
	여자	69	5.35	3.10		
	전체	137	4.9	3.04		
연령별	9-12세	38	3.95	2.87	2.77*	13-15세> 9-12세, 16-18세> 9-12세
	13-15세	44	5.39	2.70		
	16-18세	20	6.07	3.06		
	19-24세	35	4.66	3.36		
	전체	137	4.91	3.04		

주: *** $p < .001$; ** $p < .01$; * $p < .05$.

다. 한국학교 입학 이유

동포청소년들이 한국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는 본인 스스로의 결정보다는 부모님에 의한 권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 동포청소년들 간에는 한국학교 입학 이유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로 부모님의 권유가 75.6%, 본인의 결정이 7.3%, 친구의 권유가 0.8% 등이었는데,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권유가 84.4%, 본인의 결정이 7.8% 등으로 부모님의 권유에 의한 입학이 70% 이상으로, 대부분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한국학교를 다니고, 학생들 스스로가 원해서 한국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V-16 한국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국가별 차이)

	합계	부모님 권유		본인결정		친구의 권유		기타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르헨티나	123	93	75.6	9	7.3	1	0.8	20	16.3	6.17
브라질	154	130	84.4	12	7.8	0	0	12	7.8	

주: *** $p < .001$; ** $p < .01$; * $p < .05$.

한국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를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는 부모님의 권유가 70~80%대로 높았으나, 19~24세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권유가 56.3%였으며, 기타 이유가 43.8%로 나타났다. 기타 이유에 대한 응답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한국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부모님에 의한 권유가 대부분을 차지했던 초·중·고등학생 연령대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17 한국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아르헨티나)

	사례수	부모님 권유		본인결정		친구의 권유		기타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55	41	74.5	3	5.5	1	1.8	10	18.2	1.94
	여자	68	52	76.5	6	8.8	0	0.0	10	14.7	
	전체	123	93	75.6	9	7.3	1	0.8	20	16.3	
연령별	9-12세	34	24	70.6	3	8.8	0	0.0	7	20.6	17.65*
	13-15세	40	34	85.0	2	5.0	0	0.0	4	10.0	
	16-18세	33	26	78.8	4	12.1	1	3.0	2	6.1	
	19-24세	16	9	56.3	0	0.0	0	0.0	7	43.8	
	전체	123	93	75.6	9	7.3	1	0.8	20	16.3	

주: *** $\alpha < 0.001$; ** $\alpha < 0.01$; * $\alpha < 0.05$.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성별,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에서는 동포청소년들이 남녀 및 모든 청소년 연령대에서 80% 이상이 부모님의 권유로 한국학교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8 한국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브라질)

	사례수	부모님 권유		본인결정		친구의 권유		기타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81	67	82.7	7	8.6	0	0.0	7	8.6	.37
	여자	73	63	86.3	5	6.8	0	0.0	5	6.8	
	전체	154	130	84.4	12	7.8	0	0.0	12	7.8	
연령별	9-12세	45	36	80.0	6	13.3	0	0.0	3	6.7	5.37
	13-15세	48	43	89.6	2	4.2	0	0.0	3	6.3	
	16-18세	24	21	87.5	2	8.3	0	0.0	1	4.2	
	19-24세	37	30	81.1	2	5.4	0	0.0	5	13.5	
	전체	154	130	84.4	12	7.8	0	0.0	12	7.8	

주: *** $p < .001$; ** $p < .01$; * $p < .05$.

(2) 한글학교

가. 한글학교 재학 경험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한글학교 재학 경험은 80% 내외 정도 되었으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국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중에서 한글학교 재학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78.5%,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21.5%였으며, 브라질 동포청소년 중에서는 한글학교 재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81.5%,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17.5%로 나타났다.

표 V-19 한글학교의 재학 경험에 대한 국가별 차이

	사례수	있다		없다		한글학교가 없다		χ^2
		빈도	%	빈도	%	빈도	%	
아르헨티나	191	150	78.5	41	21.5	0	0.0	2.80
브라질	200	163	81.5	35	17.5	2	1.0	

주: *** $p < .001$; ** $p < .01$; * $p < .05$.

한글학교 재학 경험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남녀와 모든 청소년 연령대의 약 70~80%가 한글학교 재학 경험이 있었는데,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0 한글학교 재학 경험(아르헨티나)

	사례수	있다		없다		한글학교가 없다		χ^2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84	62	73.8	22	26.2	0	0.0	1.98
	여자	107	88	82.2	19	17.8	0	0.0	
	전체	191	150	78.5	41	21.5	0	0.0	
연령별	9-12세	46	39	84.8	7	15.2	0	0.0	2.36
	13-15세	56	45	80.4	11	19.6	0	0.0	
	16-18세	61	46	75.4	15	24.6	0	0.0	
	19-24세	28	20	71.4	8	28.6	0	0.0	
	전체	191	150	78.5	41	21.5	0	0.0	

주: *** α .001; ** α .01; * α .05.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도 한글학교 경험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1 한글학교 재학 경험(브라질)

	사례수	있다		없다		한글학교가 없다		χ^2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102	81	79.4	20	19.6	1	1.0	.64
	여자	98	82	83.7	15	15.3	1	1.0	
	전체	200	163	81.5	35	17.5	2	1.0	
연령별	9-12세	48	43	89.6	4	8.3	1	2.1	12.56
	13-15세	67	58	86.6	9	13.4	0	0.0	
	16-18세	34	28	82.4	6	17.6	0	0.0	
	19-24세	51	34	66.7	16	31.4	1	2.0	
	전체	200	163	81.5	35	17.5	2	1.0	

주: *** α .001; ** α .01; * α .05.

나. 한글학교 재학 기간

한글학교 재학기간은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평균 4.51년,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평균 5.14년이었으나 국가별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2 한글학교 재학 기간의 국가별 차이

	사례수	재학기간(년)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아르헨티나	145	4.51	3.15	2.82	-
브라질	157	5.14	3.37		

주: *** $p < .001$; ** $p < .01$; * $p < .05$.

한글학교 재학기간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별,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남녀 및 모든 청소년 연령대에서 평균 약 4~5년 동안 한글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3 한글학교 재학 기간(아르헨티나)

	사례수	재학기간(년)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57	4.17	1.09	-
	여자	88	4.73		
	전체	145	4.51		
연령별	9-12세	40	4.13	.48	-
	13-15세	41	4.33		
	16-18세	45	4.88		
	19-24세	19	4.78		
	전체	145	4.51		

주: *** $p < .001$; ** $p < .01$; * $p < .05$.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도 한글학교 재학 기간에서 성별,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남녀 및 모든 청소년 연령대에서 평균 4~6년 동안 한글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4 한글학교 재학기간(브라질)

	사례수	재학기간(년)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자	81	4.71	2.73	-
	여자	76	5.60		
	전체	157	5.14		
연령별	9-12세	41	4.48	.75	-
	13-15세	56	5.46		
	16-18세	27	5.45		
	19-24세	33	5.16		
	전체	157	5.14		

주: *** $p < .001$; ** $p < .01$; * $p < .05$.

다. 한글학교 입학 이유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이 한글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는 부모님의 권유가 대부분이었다.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과 브라질 동포청소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글학교 입학 이유로 부모님의 권유가 84.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본인 결정(6.4%), 친구의 권유(1.3%) 등이었다.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도 부모님의 권유가 78.0%로 대부분이었고, 본인 결정이 12.5%, 친구의 권유가 2.4% 등으로 나타났다.

표 V-25 한글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에 대한 국가별 차이

	합계	부모님 권유		본인결정		친구의 권유		기타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르헨티나	157	132	84.1	10	6.4	2	1.3	13	8.3	4.24
브라질	168	131	78	21	12.5	4	2.4	12	7.1	

주: *** α .001; ** α .01; * α .05.

한글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를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별,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남녀 및 모든 청소년 연령대에서 80% 내외가 부모님의 권유로 한글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6 한글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아르헨티나)

	사례수	부모님 권유		본인결정		친구의 권유		기타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64	49	76.6	7	10.9	1	1.6	7	10.9	5.25
	여자	93	83	89.2	3	3.2	1	1.1	6	6.5	
	전체	157	132	84.1	10	6.4	2	1.3	13	8.3	
연령별	9-12세	40	33	82.5	3	7.5	0	0.0	4	10.0	7.73
	13-15세	47	40	85.1	4	8.5	0	0.0	3	6.4	
	16-18세	49	41	83.7	3	6.1	2	4.1	3	6.1	
	19-24세	21	18	85.7	0	0.0	0	0.0	3	14.3	
	전체	157	132	84.1	10	6.4	2	1.3	13	8.3	

주: *** α .001; ** α .01; * α .05.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도 한글학교 입학 이유에 대해서 성별,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남녀 및 모든 청소년 연령대에서 80% 내외가 부모님의 권유로 한글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등학생 연령대인 16~18세에서는 본인 결정에 의해서 한글학교에 다니는 비율이 17.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V-27 한글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브라질)

	사례수	부모님 권유		본인결정		친구의 권유		기타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85	66	77.6	9	10.6	3	3.5	7	8.2	1.74
	여자	83	65	78.3	12	14.5	1	1.2	5	6.0	
	전체	168	131	78	21	12.5	4	2.4	12	7.1	
연령별	9-12세	45	34	75.6	6	13.3	1	2.2	4	8.9	7.28
	13-15세	60	48	80.0	6	10.0	0	0.0	6	10.0	
	16-18세	28	22	78.6	5	17.9	1	3.6	0	0.0	
	19-24세	35	27	77.1	4	11.4	2	5.7	2	5.7	
	전체	168	131	78	21	12.5	4	2.4	12	7.1	

주: *** α .001; ** α .01; * α .05.

(3) 한국어에 대한 관심 및 한국어능력

가. 한국어에 대한 관심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과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지를 묻는 2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 5점 만점에 평균 4.26점인데 비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은 평균 3.55점으로 나타났다.

표 V-28 국가별 한국어에 대한 관심

문항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다.	아르헨티나	214	3.55	.991	57.08***	브>아
	브라질	217	4.26	.977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싶다.	아르헨티나	214	3.55	1.07	1.81	-
	브라질	216	3.72	1.45		

주: *** α .001; ** α .01; * α .05.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남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에 대한 관심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여자 청소년은 5점 만점에 평균 3.68점인데 비해서 남자 청소년은 3.34점으로 나타났다.

표 V-29 한국어에 대한 관심(아르헨티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96	3.34	1.01	6.68*	여>남
	여자	119	3.68	.86		
	전체	215	3.53	.94		
연령별	9-12세	55	3.41	1.07	2.05	-
	13-15세	65	3.37	.85		
	16-18세	64	3.66	.87		
	19-24세	31	3.79	.98		
	전체	215	3.53	.94		

주: *** $p < .001$; ** $p < .01$; * $p < .05$.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에서 남녀별,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그리고 9~12세 청소년이 19~24세 청소년보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에 대한 관심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여자 청소년은 5점 만점에 평균 4.15점인데 비해서 남자 청소년은 3.82점 이었으며, 연령별로는 9~12세 청소년의 평균이 4.28점인데 비해서 19~24세 청소년의 평균은 3.78점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0 한국어에 대한 관심(브라질)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112	3.82	.94	6.66*	여>남
	여자	105	4.15	.94		
	전체	217	3.98	.95		
연령별	9-12세	52	4.28	.78	2.73*	9-12세> 19-24세
	13-15세	76	3.95	1.00		
	16-18세	35	3.88	.96		
	19-24세	54	3.78	.97		
	전체	217	3.98	.95		

주: *** $p < .001$; ** $p < .01$; * $p < .05$.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들보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 초등학교 연령대 청소년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한국어능력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능력은 말하기, 듣고 이해하기, 읽고 쓰기 능력을 조사하였다. 브라질 동포청소년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보다 모든 한국어 능력의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말하기 능력에서는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3.91점인데 비해서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은 3.51점 이었으며, 듣기 말하기 능력은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평균 점수가 4.19점인데 비해서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은 3.90점 이었고, 읽고 쓰기 능력은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평균 점수가 3.95점인데 비해서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은 3.59점으로 나타났다.

표 V-31 한국어 능력에 대한 국가별 차이

문항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215	3.51	1.11	12.97***	브>아
	브라질	216	3.91	1.16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아르헨티나	215	3.90	.92	7.93**	브>아
	브라질	216	4.17	1.02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다.	아르헨티나	215	3.59	1.18	10.59***	브>아
	브라질	216	3.95	1.15		
전체	아르헨티나	215	3.66	.97	13.16***	브>아
	브라질	216	4.00	.98		

주: *** $p < .001$; ** $p < .01$; * $p < .05$.

한국어능력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한국어 능력에 대한 점수가 높았으며, 20~24세 연령대의 동포청소년이 다른 연령대의 동포청소년보다 한국어능력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2 한국어 능력(아르헨티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96	3.48	.98	6.37*	여>남
	여자	119	3.81	.94		
	전체	215	3.66	.97		
연령별	9-12세	55	3.43	.92	4.06**	20-25세> 9-12세, 13-15세, 16-18세
	13-15세	65	3.63	.86		
	16-18세	64	3.65	.99		
	19-24세	31	4.17	1.07		
	전체	215	3.66	.97		

주: *** $p < .001$; ** $p < .01$; * $p < .05$.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도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한국어 능력에 대한 점수가 높았으나, 연령별로는 초등학교 연령대인 9~12세가 중학교 학생 연령대인 13~15세와 16~18세보다도 한국어능력에 대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3 한국어 능력(브라질)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111	3.84	1.01	6.32*	여)남
	여자	105	4.18	.92		
	전체	216	4.00	.98		
연령별	9-12세	52	4.37	.87	4.35**	9-12세) 13-15세, 16-18세
	13-15세	75	3.78	.98		
	16-18세	35	3.81	.91		
	19-24세	54	4.09	1.04		
	전체	216	4.00	.98		

주: *** $p < .001$; ** $p < .01$; * $p < .05$.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능력에서도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보다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모두 남자청소년들보다 여자청소년들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별로는 아르헨티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20~24세 연령대의 청소년들의 능력이 가장 뛰어난 반면,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9~12세의 초등학교 연령대의 청소년들의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 국가 간에 차이를 보였다.

(4) 한국 관련 부모와의 활동 및 부모의 기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알게 하는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와 대화할 때 한국어 사용,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 드라마나 뉴스 시청 및 한국노래 청취 등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가정에서 부모와 한국 관련 활동을 상당 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음식 만들기 활동(브라질-평균

4.41점, 아르헨티나-4.50점)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 드라마나 뉴스 시청 및 한국 노래 청취(브라질-3.67점, 아르헨티나-3.83점), 대화 시 한국어 사용(브라질-3.57점, 아르헨티나-3.40점) 등의 순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 관련한 부모와의 활동이 국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34 가정에서의 한국 관련 부모와의 활동에 대한 국가별 비교

문항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아르헨티나	215	3.40	1.35	1.47	-
	브라질	221	3.57	1.55		
나와 부모님은 한국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아르헨티나	214	4.50	.64	1.09	-
	브라질	220	4.41	1.02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보거나 한국 노래를 듣는다.	아르헨티나	213	3.83	1.17	1.71	-
	브라질	221	3.67	1.37		
전체	아르헨티나	215	3.88	.80	.02	-
	브라질	221	3.87	1.04		

주: *** $p < .001$; ** $p < .01$; * $p < .05$.

가정에서 부모와의 한국 관련 활동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평균 4.06점)이 남자청소년(평균 3.67점)에 비해서 한국 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중·고·대학생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연령대의 청소년들보다 한국 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5 가정에서의 한국 관련 부모와의 활동(아르헨티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96	3.67	.80	13.54***	여)남
	여자	119	4.06	.76		
	전체	215	3.88	.80		
연령별	9-12세	55	3.44	.71	10.38***	19-24세, 16-18세, 13-15세) 9-12세
	13-15세	65	3.86	.71		
	16-18세	64	4.15	.81		
	19-24세	31	4.17	.78		
	전체	215	3.88	.80		

주: *** $p < .001$; ** $p < .01$; * $p < .05$.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평균 4.10점)이 남자청소년(평균 3.67점)보다 한국 관련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6 가정에서의 한국 관련 부모와의 활동(브라질)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114	3.65	1.045	10.88***	여)남
	여자	107	4.10	.99		
	전체	221	3.87	1.04		
연령별	9-12세	52	4.08	.96	2.64	-
	13-15세	79	3.71	1.06		
	16-18세	35	3.62	1.07		
	19-24세	55	4.06	1.02		
	전체	221	3.87	1.04		

주: *** $p < .001$; ** $p < .01$; * $p < .05$.

맛별이 가정이 대부분인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사회에서 생각보다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한국어 사용이라든가 한국음식 만들기, 한국 드라마나 뉴스 시청 및 한국 노래 듣기 등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보다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관련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는 브라질에서의 한국 관련 직업 선택, 한국에서의 직업 선택, 한국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중에서 한국 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기대(아르헨티나 3.67점, 브라질 3.78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브라질에서의 한국 관련 직업 선택(아르헨티나 2.18점, 브라질 2.51점), 그리고 한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대한 기대(아르헨티나 1.92점, 브라질 2.29점)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간 비교에서는 브라질에서의 한국 관련 직업 선택과 한국에서의 직업 선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부모들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부모들보다 자녀들의 거주 국가에서의 한국 관련 직업 선택과 한국에서의 직업 선택을 더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7 한국 관련 부모의 기대에 대한 국가별 비교

문항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부모님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서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르헨티나	213	2.18	1.03	8.80**	브>아
	브라질	220	2.51	1.27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르헨티나	213	1.92	.96	11.5***	브>아
	브라질	218	2.29	1.26		
부모님은 내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르헨티나	209	3.67	1.34	.71	-
	브라질	216	3.78	1.28		
전체	아르헨티나	214	2.55	.88	9.03**	브>아
	브라질	220	2.83	1.00		

주: *** α .001; ** α .01; * α .05.

한국 관련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V-38 한국 관련 부모의 기대(아르헨티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95	2.47	.91	1.60	-
	여자	119	2.62	.85		
	전체	214	2.55	.88		
연령별	9-12세	54	2.51	.97	.64	-
	13-15세	65	2.48	.79		
	16-18세	64	2.58	.92		
	19-24세	31	2.74	.81		
	전체	214	2.55	.88		

주: *** $p < .001$; ** $p < .01$; * $p < .05$.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별로 한국 관련 부모의 기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V-39 한국 관련 부모의 기대(브라질)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114	2.76	.99	1.14	-
	여자	106	2.90	1.02		
	전체	220	2.83	1.00		
연령별	9-12세	51	3.08	1.12	1.99	-
	13-15세	79	2.64	1.00		
	16-18세	35	2.80	.86		
	19-24세	55	2.87	.96		
	전체	220	2.83	1.00		

주: *** $p < .001$; ** $p < .01$; * $p < .05$.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기대는 높으나 거주 국가나 한국에서 한국 관련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대가 낮다. 국가별로는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부모들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부모들에 비해서 한국 관련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 남미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한국으로의 진로도 모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진로를 한국보다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나 그동안 주로 진출했었던 미주나 유럽으로 보다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한민족 정체성

한민족정체성은 요인분석을 통해서 자신과 한민족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한민족의 일원인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다소 막연한 의식의 영역과,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한민족 관련 사건이나 문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구체적인 실천적 행동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조사결과, 한민족에 대한 막연한 의식은 평균 4점대 이상으로 높았으나,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에서는 2~3점대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동포청소년 간의 국가 간의 비교에서는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에 비해서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한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0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국가별 비교

문항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사후 검증	
의식	나는 한민족인 것이 자랑스럽다.	아르헨티나	213	4.13	1.09	.36	-	
		브라질	220	4.06	1.22			
	나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한다.	아르헨티나	212	4.08	1.00	.01	-	
		브라질	218	4.10	1.19			
	전체		아르헨티나	214	4.07	.97	.03	-
			브라질	220	4.06	1.10		
실천	나는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아르헨티나	213	2.85	1.01	5.02*	브>아	
		브라질	215	3.08	1.18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	아르헨티나	214	2.55	1.13	4.64*	브>아	
		브라질	218	2.81	1.32			
	나는 한민족의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르헨티나	209	2.82	1.08	.28	-	
		브라질	219	2.88	1.33			
	전체		아르헨티나	214	2.71	.87	.28	-
			브라질	220	2.88	1.02		

주: *** $p < .001$; ** $p < .01$; * $p < .05$.

한민족정체성을 의식과 실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성별,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신과 한민족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한민족의 일원인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막연한 의식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1 한민족 정체성-의식(아르헨티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96	3.96	1.05	2.26	-
	여자	118	4.16	.89		
	전체	214	4.07	.97		
연령별	9-12세	55	4.04	.85	.46	-
	13-15세	65	4.16	.92		
	16-18세	64	3.98	1.02		
	19-24세	30	4.15	1.16		
	전체	214	4.07	.97		

주: *** $p < .001$; ** $p < .01$; * $p < .05$.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도 자신과 한민족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한민족의 일원인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의식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2 한민족 정체성-의식(브라질)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114	4.03	1.14	.18	-
	여자	106	4.09	1.06		
	전체	220	4.06	1.10		
연령별	9-12세	51	3.91	1.12	.78	-
	13-15세	79	4.20	.95		
	16-18세	35	4.01	1.06		
	19-24세	55	4.02	1.28		
	전체	220	4.06	1.10		

주: *** $p < .001$; ** $p < .01$; * $p < .05$.

하지만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 한민족정체성의 실천의 영역에서는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민족정체성 실천의 영역에서 19~24세의 동포청소년(3.26점)이 초·중·고 연령대인 9-12세(2.45점), 13-15세(2.61점), 16-18세(2.76점) 동포 청소년보다도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24세의 동포청소년들이 9-12세, 13-15세, 16-18세 동포청소년보다도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이를 타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한민족 관련 사건이나 문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등 실천적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43 한민족 정체성-실천(아르헨티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95	2.70	.90	0.10	-
	여자	119	2.71	.84		
	전체	214	2.71	.87		
연령별	9-12세	55	2.45	.99	6.72***	19-24세> 9-12세, 13-15세, 16-18세
	13-15세	65	2.61	.74		
	16-18세	63	2.76	.76		
	19-24세	31	3.26	.84		
	전체	214	2.71	.87		

주: *** $p < .001$; ** $p < .01$; * $p < .05$.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도 한민족정체성의 실천의 영역에서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24세의 동포청소년(3.36점)이 9-12세(2.60점)와 13-15세(2.67점) 동포청소년보다도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24세의 동포청소년들이 9-12세와 13-15세 동포청소년보다도 한민족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한민족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남에게 알리기 위한 구체적 실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V-44 한민족 정체성-실천(브라질)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114	2.78	.99	.26	-
	여자	106	3.00	1.05		
	전체	220	2.88	1.02		
연령별	9-12세	51	2.6	.95	6.39***	19-24세 > 9-12세, 13-15세
	13-15세	79	2.67	.92		
	16-18세	35	2.95	1.02		
	19-24세	55	3.36	1.08		
	전체	220	2.88	1.02		

주: *** $p < .001$; ** $p < .01$; * $p < .05$.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이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동일의식과 한민족의 일원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으나 한민족의 역사나 전통과 한민족의 사건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한 지식과 실천적 행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은 다소 막연한 측면에 머물고 있고 실천적 영역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한 지식의 습득, 한민족 관련 이벤트 참여기회의 제공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 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미래인재역량

재외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 역량을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인 및 사회적 책임, 국가정체의식, 세계시민의식, 창의적사고, 문제해결력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미래인재 역량에 관한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과 브라질 동포청소년 간의 비교를 살펴보면, 두 국가 모두 미래인재 역량 중에서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이 가장 높았고(브라질 평균 3.98점, 아르헨티나 평균 3.41점), 국가정체의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브라질 평균 2.12점, 아르헨티나 평균 2.79점). 또한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세계시민의식은 브라질 동포청소년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에 비해서 높았으나, 국가정체의식은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이 브라질 동포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5 재외동포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 - 국가별

항목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창의적사고	아르헨티나	213	2.93	.84	7.76**	브>아
	브라질	219	3.16	.87		
문제해결력	아르헨티나	212	3.28	.94	27.05***	브>아
	브라질	218	3.72	.79		
개인적 및 사회적 책임의식	아르헨티나	213	3.41	.76	70.02***	브>아
	브라질	218	3.98	.65		
세계시민의식	아르헨티나	213	3.38	.79	53.51***	브>아
	브라질	218	3.94	.81		
국가정체의식	아르헨티나	213	2.79	.79	65.53***	아>브
	브라질	220	2.12	.95		

주: *** $p < .001$; ** $p < .01$; * $p < .05$.

가. 창의적 사고

창의적 사고는 새로운 생각의 발상, 부분에서 전체 내용의 추리, 내용들의 상호 연관 등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에 비해서 창의적 생각의 발상, 부분에서 전체 내용의 추리의 창의적 사고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새로운 생각의 발상에서의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서 3.27점인데 비해서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은 평균 3.00점 이었으며, 부분에서 전체 내용의 추리 부분에서는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평균 점수가 3.16점인데 비해서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평균 2.91점으로 나타나,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V-46 창의적 사고에 대한 국가별 비교

문항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사후 검증
창 의 적 사 고	나는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을 잘한다.	아르헨티나	212	3.00	1.02	6.56*	브>아
		브라질	218	3.27	1.15		
	나는 부분적인 내용만 듣고도 전체 내용을 상상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212	2.91	1.06	5.40*	브>아
		브라질	219	3.16	1.15		
	나는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을 잘 연결지어 생각한다.	아르헨티나	209	2.98	1.11	1.58	-
		브라질	217	3.12	1.08		
	전체	아르헨티나	213	2.93	.84	7.76**	브>아
		브라질	219	3.16	.87		

주: *** $p < .001$; ** $p < .01$; * $p < .05$.

창의적 사고 능력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별,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표 V-47 창의적 사고(아르헨티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94	2.94	.87	.01	-
	여자	119	2.92	.83		
	전체	213	2.93	.84		
연령별	9-12세	53	2.84	.77	2.14	-
	13-15세	65	2.83	.83		
	16-18세	64	2.94	.92		
	19-24세	31	3.26	.76		
	전체	213	2.93	.84		

주: *** $p < .001$; ** $p < .01$; * $p < .05$.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창의적 사고에서 남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 청소년의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서 3.29점으로 여자 청소년(평균 3.02점)보다 창의적 사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8 창의적 사고(브라질)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114	3.29	.90	5.26*	남>여
	여자	105	3.02	.82		
	전체	219	3.16	.87		
연령별	9-12세	50	3.24	.93	.63	-
	13-15세	79	3.06	.87		
	16-18세	35	3.14	.79		
	19-24세	55	3.24	.88		
	전체	219	3.16	.87		

주: *** $p < .001$; ** $p < .01$; * $p < .05$.

나. 문제해결력

문제해결력은 ‘과제가 어렵거나 중요한 정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와 ‘지난번 방법이 좋았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사용할지 결정한다’는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보다 문제해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제해결력의 각각 문항에 대한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평균 점수(3.75점, 3.69점)가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평균점수(3.30점, 3.3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9 문제해결력에 대한 국가간 비교

문항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나는 과제가 어렵거나 중요한 정도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아르헨티나	211	3.30	.97	21.50***	브>아
	브라질	218	3.75	1.03		
나는 지난번 방법이 좋았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사용할지 결정한다.	아르헨티나	210	3.31	1.18	12.71***	브>아
	브라질	218	3.69	1.00		
전체	아르헨티나	212	3.28	.94	27.05***	브>아
	브라질	218	3.72	.79		

주: *** $p < .001$; ** $p < .01$; * $p < .05$.

문제해결력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별로는 차이가 없으나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고등학생과 대학생 연령대인 19~24세와 16~18세 청소년의 문제해결력의 평균 점수가 중학생 및 초등학생 연령대인 13~15세와 9~12세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은 청소년들이 연령이 낮은 청소년들보다 문제해결력이 높았다.

표 V-50 문제해결력(아르헨티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94	3.26	.93	.09	.75
	여자	118	3.30	.94		
	전체	212	3.28	.94		
연령별	9-12세	52	3.15	1.00	5.03**	(19-24세, 16-18세) > (13-15세, 9-12세)
	13-15세	65	3.06	.86		
	16-18세	64	3.35	.92		
	19-24세	31	3.80	.81		
	전체	212	3.28	.94		

주: *** $p < .001$; ** $p < .01$; * $p < .05$.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도 성별로는 차이가 없으나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중고대학생 연령대인 13~15세, 16~18세 및 19~24세의 문제해결력 평균 점수가 초등학교생 연령대인 9~12세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1 문제해결력(브라질)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114	3.65	.81	1.45	-
	여자	104	3.78	.77		
	전체	218	3.7	.79		
연령별	9-12세	49	3.31	.79	6.43 ^{***}	(19-24세, 16-18세, 13-15세) > 9-12세
	13-15세	79	3.75	.79		
	16-18세	35	3.87	.79		
	19-24세	55	3.93	.69		
	전체	218	3.72	.79		

주: *** $p < .001$; ** $p < .01$; * $p < .05$.

다.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은 사회생활에서의 양심과 법 준수, 지역사회 봉사 및 글로벌 공동체의 이슈에 대한 관심 등을 묻는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브라질 동포청소년이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의 모든 항목에서 아르헨티나 청소년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다.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보다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52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에 대한 국가별 차이

문항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사후검증
나는 사회가 좋아지도록 무언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르헨티나	213	3.43	1.03	14.89***	브>아
	브라질	217	3.82	1.02		
나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르헨티나	208	3.45	1.02	86.92***	브>아
	브라질	218	4.31	.87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르헨티나	213	3.16	1.09	83.62***	브>아
	브라질	218	4.05	.91		
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환경, 평화, 기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212	3.25	1.05	31.14***	브>아
	브라질	218	3.82	1.07		
나는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르헨티나	213	3.48	1.04	19.53***	브>아
	브라질	218	3.92	1.01		
나는 양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르헨티나	213	3.72	.94	40.93***	브>아
	브라질	216	4.30	.90		
나는 지역사회 또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르헨티나	213	3.85	1.00	8.67**	브>아
	브라질	217	4.08	1.06		
전체	아르헨티나	213	3.41	.76	70.02***	브>아
	브라질	218	3.98	.65		

주: *** $p < .001$; ** $p < .01$; * $p < .05$.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연령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남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들(평균 3.56점)이 남자 청소년들(3.28점)보다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3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아르헨티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95	3.28	.77	5.02*	여)남
	여자	118	3.56	.74		
	전체	213	3.41	.76		
연령별	9-12세	50	3.87	.63	1.40	-
	13-15세	78	3.94	.61		
	16-18세	35	4.13	.54		
	19-24세	55	4.04	.76		
	전체	218	3.98	.65		

주: *** $p < .001$; ** $p < .01$; * $p < .05$.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이 남녀 및 모든 청소년 연령대가 5점 만점에 평균 4점 내외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4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브라질)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112	3.95	.68	.55	-
	여자	106	4.09	.61		
	전체	218	3.98	.65		
연령별	9-12세	50	3.87	.63	4.01	-
	13-15세	78	3.94	.61		
	16-18세	35	4.13	.54		
	19-24세	55	4.04	.76		
	전체	218	3.98	.65		

주: *** $p < .001$; ** $p < .01$; * $p < .05$.

라.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의식은 다른 국가에 대한 친근한 느낌, 세계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한 우호적인 자세,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묻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보다 세계시민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민의식을 묻는 모든 문항에서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보다도 평균 점수가 높았다. 즉, 세계시민의식의 각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가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5점 만점에 2.76점에서 3.77점 사이인데 비해서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평균 3.76점에서 4.12점 사이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국가들에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평균 2.79점으로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3.93점과 차이가 큰 차이를 보였다.

표 V-55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국가별 차이

문항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다른 국가들에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212	2.79	1.03	142.05***	브>아
	브라질	218	3.93	.955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430	3.37	1.14	19.49***	브>아
	브라질	212	3.33	1.02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216	3.76	1.00	16.19***	브>아
	브라질	428	3.54	1.03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213	3.67	.96	13.51***	브>아
	브라질	217	4.05	.99		
전체	아르헨티나	213	3.38	.79	53.51***	브>아
	브라질	218	3.94	.81		

주: *** $\alpha < .001$; ** $\alpha < .01$; * $\alpha < .05$.

세계시민의식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남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24세 청소년(평균 3.66점)이 9~12세 청소년(평균 3.22점)보다 세계시민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6 세계시민의식(아르헨티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95	3.35	.74	.24	-
	여자	118	3.40	.83		
	전체	213	3.38	.79		
연령별	9-12세	53	3.22	.85	2.81*	19-24세 > 9-12세
	13-15세	65	3.27	.74		
	16-18세	64	3.47	.75		
	19-24세	31	3.66	.78		
	전체	213	3.38	.79		

주: *** $p < .001$; ** $p < .01$; * $p < .05$.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남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24세 청소년(평균 4.14점)이 9-12세 청소년(평균 3.65점)보다 세계시민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7 세계시민의식(브라질)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112	3.89	.75	.83	-
	여자	106	3.99	.87		
	전체	218	3.94	.81		
연령별	9-12세	50	3.65	1.00	3.51*	19-24세 > 9-12세
	13-15세	78	4.01	.70		
	16-18세	35	3.90	.68		
	19-24세	55	4.14	.78		
	전체	218	3.94	.81		

주: *** $p < .001$; ** $p < .01$; * $p < .05$.

마. 국가정체의식

국가정체의식은 동포청소년들이 현재 자신의 국적으로 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가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국 문화의 우수성, 자국 역사의 우수성, 자국 국민의 우수성, 자국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려는 의지 등을 묻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세계시민의식의 결과와는 정반대로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이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에 비해서 국가정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국가정체의식을 묻는 각 문항에 대하여 5점 만점에 평균 2.58점에서 2.93점 사이로 나타난데 비해서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낮게는 평균 1.92점에서 2.52점으로 대체로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표 V-58 국가정체의식에 대한 국가별 차이

문항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자국의 문화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아르헨티나	213	2.93	.98	78.52***	아>브
	브라질	220	2.03	1.12		
자국의 역사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아르헨티나	212	2.89	.98	71.01***	아>브
	브라질	220	2.05	1.08		
자국의 국민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아르헨티나	212	2.58	.98	42.99***	아>브
	브라질	220	1.92	1.12		
자국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키려고 한다.	아르헨티나	213	2.80	1.04	6.49**	아>브
	브라질	218	2.52	1.26		
전체	아르헨티나	213	2.79	.79	65.53***	아>브
	브라질	220	2.12	.95		

주: *** $p < .001$; ** $p < .01$; * $p < .05$.

국가정체의식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남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연령대인 9~12세(평균 3.09점)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 연령대인 13~15세(평균 2.61점)와 16~18세(평균 2.68점) 청소년들보다 국가정체의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9 국가정체의식(아르헨티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95	2.84	.88	.72	-
	여자	118	2.75	.70		
	전체	213	2.79	.79		
연령별	9-12세	53	3.09	.78	4.44**	9-12세 > 16-18세, 9-12세 > 13-15세
	13-15세	65	2.61	.80		
	16-18세	64	2.68	.79		
	19-24세	31	2.89	.63		
	전체	213	2.79	.79		

주: *** $p < .001$; ** $p < .01$; * $p < .05$.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도 남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연령대인 9~12세(평균 2.60점) 청소년들이, 중·고·대 학생 연령대인 13~15세(평균 1.87점)와 16~18세(평균 2.07점) 및 19~24세(평균 2.07점)의 청소년들 보다 국가정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0 국가정체의식(브라질)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113	2.16	1.00	.40	-
	여자	107	2.08	.89		
	전체	220	2.12	.95		
연령별	9-12세	51	2.60	1.02	6.75***	9-12세 > 13-15세, 16-18세, 19-24세
	13-15세	79	1.87	.80		
	16-18세	35	2.07	.91		
	19-24세	55	2.07	.96		
	전체	220	2.12	.95		

주: *** $p < .001$; ** $p < .01$; * $p < .05$.

미래인재역량은 브라질 동포청소년들과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 간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적이고 다문화적인 브라질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은 자유로운 사고와 타인을 배려하는 책임의식, 그리고 타문화에 개방적이고 수용하는 태도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국가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 등이 반영되어 국가정체 의식이 강하고 타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한국 관련 인식

한국 관련 인식은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정치적인 안정 정도, 경제적인 발전 정도를 묻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반면, 정치적인 안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별 비교에서는 브라질 동포청소년들(평균 4.04점)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3.56점)에 비해서 한국/한국인에 대해서 보다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1 한국 관련 인식에 대한 국가별 비교

문항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한국/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212	3.56	.87	29.43***	브)아
	브라질	220	4.04	.94		
한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아르헨티나	209	3.28	.98	1.61	-
	브라질	219	3.15	1.14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다.	아르헨티나	211	4.07	.77	3.07	-
	브라질	216	4.22	.84		
한국문화(K-Pop등)는 매력적이다.	아르헨티나	212	3.85	1.11	.19	-
	브라질	220	3.90	1.26		
남북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르헨티나	208	3.65	1.15	.39	-
	브라질	219	3.57	1.39		
전체	아르헨티나	213	3.63	.61	3.77	-
	브라질	220	3.75	.63		

주: *** $p < .001$; ** $p < .01$; * $p < .05$.

(8) 한민족공동체 역할 기대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공동체 역할에 대한 기대는 동포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 한국문화의 홍보 역할, 동포사회의 단합, 한국 경제와 사회발전의 역할, 남북통일에의 기여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한국문화를 알리는 역할(브라질 평균 3.28점, 아르헨티나 평균 3.35점)에 대해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동포사회의 단합을 위한 역할(브라질 평균 3.18점, 아르헨티나 평균 3.18점), 동포사회의 발전에의 역할(브라질 평균 3.10점, 아르헨티나 평균 2.89점), 한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의 역할(브라질 평균 3.01점, 아르헨티나 평균 2.93점), 남북통일에의 기여의 역할(브라질 평균 2.56점, 아르헨티나 평균 2.71점) 등의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발전이나 통일을 위한 직접적인 역할보다는 거주 국가에서의 한국 홍보나 동포사회의 단합과 발전에 대한 역할 등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역할 비교에서는 동포사회의 발전과 남북통일에의 역할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평균 3.10점)은 브라질 동포청소년들(2.89점)보다 동포사회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북통일의 역할에 대해서는 브라질 동포청소년들(2.71점)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2.56점)보다도 더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2 한민족공동체 역할 기대에 대한 국가별 비교

문항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공해서 동포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아르헨티나	210	3.10	.95	4.59*	아)브
	브라질	221	2.89	1.05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	아르헨티나	212	3.28	.91	.39	-
	브라질	220	3.35	1.14		
동포사회를 단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르헨티나	210	3.18	.90	.00	-
	브라질	220	3.18	1.05		
한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르헨티나	210	3.01	.92	.70	-
	브라질	219	2.93	1.11		
국제사회의 다리역할을 해서 남북통일에 기여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219	2.56	1.20	7.97**	아)브
	브라질	429	2.71	1.14		
전체	아르헨티나	212	3.06	.71	1.77	-
	브라질	221	2.96	.84		

주: *** $p < .001$; ** $p < .01$; * $p < .05$.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공동체 역할 기대를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별,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V-63 한민족 공동체 역할 기대(아르헨티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95	2.98	.71	2.36	-
	여자	117	3.13	.71		
	전체	212	3.06	.71		
연령별	9-12세	54	2.98	.70	.43	-
	13-15세	64	3.12	.61		
	16-18세	63	3.05	.73		
	19-24세	31	3.11	.90		
	전체	212	3.06	.71		

주: *** α .001; ** α .01; * α .05.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한민족공동체 역할 기대가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24세 청소년들(평균 3.18점)이 16~18세 청소년들(평균 2.72점)보다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역할을 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4 한민족 공동체 역할 기대(브라질)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114	3.02	.88	1.25	-
	여자	107	2.89	.79		
	전체	221	2.96	.84		
연령별	9-12세	52	3.13	.90	4.15**	19-24세) 16-18세
	13-15세	79	2.80	.83		
	16-18세	35	2.72	.77		
	19-24세	55	3.18	.76		
	전체	221	2.96	.84		

주: *** α .001; ** α .01; * α .05.

(9) 동포청소년 간 교류 및 프로그램 참여 경험

가. 동포청소년 간 교류 경험

동포청소년들 간의 교류 경험은 평상시 동포청소년들과의 만남이나 연락, 청소년단체 사람들과 연락이나 활동을 함께 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평상시 동포청소년과의 만남이나 연락한 경험(브라질-평균 3.65점, 아르헨티나-3.53점)은 어느 정도 되었으나 동포 청소년단체 사람들과 함께 한 경험(브라질-평균 2.63점, 아르헨티나-2.93점)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간에 교류 경험을 비교해 보면, 동포 청소년단체 사람들과 함께 한 경험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이 브라질 동포청소년보다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5 교류 경험에 대한 국가별 비교

문항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평상시 동포 청소년들과 만나거나 연락한다.	아르헨티나	213	3.53	1.207	.99	-
	브라질	220	3.65	1.286		
동포 청소년단체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다.	아르헨티나	212	2.93	1.414	4.8*	아)브
	브라질	220	2.63	1.448		
전체	아르헨티나	213	3.22	1.14	.79	-
	브라질	221	3.12	1.15		

주: *** $p < .001$; ** $p < .01$; * $p < .05$.

동포청소년의 교류 경험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연령별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 연령대의 19~24세 청소년들(평균 3.59점)이 초·중학생 연령대인 9~12세(평균 2.89점) 및 13~15세(평균 3.09점) 청소년들보다 교류 경험이 많았으며, 16~18세 청소년(평균 3.46점)이 9~12세(평균 2.89점) 청소년보다 교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6 교류경험(아르헨티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95	3.05	1.08	3.63	-
	여자	118	3.35	1.17		
	전체	213	3.22	1.14		
연령별	9-12세	55	2.89	1.03	4.01**	19-24세> 13-15세, 9-12세.
	13-15세	64	3.09	1.06		
	16-18세	63	3.46	1.20		
	19-24세	31	3.59	1.16		
	전체	213	3.22	1.14		16-18세> 9-12세

주: *** $p < .001$; ** $p < .01$; * $p < .05$.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도 성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연령별로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 연령대의 19~24세 청소년들(평균 3.49점)이 중학생 연령대인 13~15세 청소년(평균 2.92점)보다 교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7 교류경험(브라질)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114	3.01	1.11	2.18	-
	여자	107	3.24	1.19		
	전체	221	3.12	1.15		
연령별	9-12세	52	3.04	1.23	2.77*	19-24세> 13-15세
	13-15세	79	2.92	1.06		
	16-18세	35	3.11	1.04		
	19-24세	55	3.49	1.22		
	전체	221	3.12	1.15		

주: *** $p < .001$; ** $p < .01$; * $p < .05$.

나. 재외동포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경험

재외동포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은 거주 국가에서 열리는 캠프나 연수에 대한 경험과 한국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거주 국가에서 열리는 캠프나 연수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참여 경험이 있었으며, 한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약 20% 정도가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재외동포청소년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을 비교해 보면, 거주 국가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캠프 및 연수 프로그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브라질 동포청소년들(56.8%)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53.6%)보다 거주 국가에서 열리는 캠프나 연수에 대한 참여 경험이 많았으며, 4회 이상 참여한 청소년들도 브라질 동포청소년들(33.2%)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13.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8 재외동포청소년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대한 국가별 비교

문항	국가	전체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χ^2
		백분률 (빈도)	백분률 (빈도)	백분률 (빈도)	백분률 (빈도)	백분률 (빈도)	백분률 (빈도)	
거주 국가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아르헨티나	100.0 (211)	46.4 (98)	20.4 (43)	11.4 (24)	8.1 (17)	13.7 (29)	33.53***
	브라질	100.0 (220)	43.2 (95)	5.9 (13)	11.8 (26)	5.9 (13)	33.2 (73)	
한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아르헨티나	100.0 (209)	77.5 (162)	10.5 (22)	5.3 (11)	1.9 (4)	4.7 (10)	4.13
	브라질	100.0 (220)	78.2 (172)	9.5 (21)	2.7 (6)	4.5 (10)	5.0 (11)	

주: *** $\alpha.001$; ** $\alpha.01$; * $\alpha.05$.

(10) 동포청소년 교류 및 참여 욕구

동포청소년들의 교류 및 참여 욕구는 한국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 한국 연수 프로그램 참여, 자국의 동포청소년 캠프 및 연수프로그램 참여, 한국 유학, 거주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의 취업,

한국에서의 취업, 한국 문화의 경험을 묻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 공통적으로 한국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브라질 평균 3.88점, 아르헨티나 평균 3.68점)와 다양한 한국 문화의 경험(브라질 평균 3.69점, 아르헨티나 평균 3.36점)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 보다 자국의 동포청소년 캠프 및 연수프로그램 참여, 한국에서의 유학, 거주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의 취업, 한국에서의 취업, 한국 문화의 경험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9 교류 및 참여 욕구에 대한 국가별 비교

문항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사후검증
한국에서 또래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	아르헨티나	214	3.68	1.06	3.39	-
	브라질	221	3.88	1.19		
한국에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아르헨티나	214	3.01	1.18	2.98	-
	브라질	220	3.23	1.42		
자국의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아르헨티나	211	2.77	1.11	19.18***	브>아
	브라질	220	3.29	1.30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다.	아르헨티나	214	2.78	1.26	19.15***	브>아
	브라질	221	3.34	1.41		
자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아르헨티나	213	2.78	1.19	5.45*	브>아
	브라질	218	3.06	1.29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아르헨티나	214	2.51	1.16	6.73*	브>아
	브라질	220	2.83	1.34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	아르헨티나	213	3.36	1.26	6.81**	브>아
	브라질	221	3.69	1.36		
전체	아르헨티나	214	2.97	.798	17.65***	브>아
	브라질	221	3.31	.900		

주: *** $p < .001$; ** $p < .01$; * $p < .05$.

동포청소년들의 교류 및 참여 욕구를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들(평균 3.18점)이 남자 청소년들(평균 2.80점)에 비해서 교류 및 참여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0 교류 및 참여 욕구(아르헨티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95	2.80	.77	8.13**	여>남
	여자	119	3.18	.79		
	전체	214	2.97	.79		
연령별	9-12세	54	2.89	.66	.24	-
	13-15세	65	2.99	.75		
	16-18세	64	3.02	.81		
	19-24세	31	2.98	1.05		
	전체	214	2.97	.79		

주: *** $p < .001$; ** $p < .01$; * $p < .05$.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도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들(평균 3.55점)이 남자 청소년들(평균 3.10점)에 비해서 교류 및 참여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1 교류 및 참여 욕구(브라질)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114	3.10	.93	14.62***	여>남
	여자	107	3.55	.80		
	전체	221	3.33	.90		
연령별	9-12세	52	3.25	.91	1.94	-
	13-15세	79	3.29	.94		
	16-18세	35	3.11	.82		
	19-24세	55	3.55	.84		
	전체	221	3.31	.90		

주: *** $p < .001$; ** $p < .01$; * $p < .05$.

(11) 동포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동포사회나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동포청소년을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은 한국방문 프로그램, 자국 동포청소년과의 교류,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 민족교육 지원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결과,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자국내 동포청소년과의 교류(브라질 평균 3.35점, 아르헨티나 평균 3.28점)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 청소년과의 교류(브라질 평균 3.18점, 아르헨티나 평균 3.18점) 등의 순으로, 동포청소년들 간의 교류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지원에 대한 요구 중에서 한국방문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평균 3.10점)이 브라질 동포청소년들(평균 2.89점)보다 한국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2 동포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대한 국가별 비교

문항	국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한국방문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210	3.10	.95	4.59*	아)브
	브라질	221	2.89	1.05		
자국의 동포청소년들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르헨티나	212	3.28	.91	.39	-
	브라질	220	3.35	1.14		
한국의 청소년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르헨티나	210	3.18	.90	.00	-
	브라질	220	3.18	1.05		
한민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민족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210	3.01	.92	.70	-
	브라질	219	2.93	1.11		
전체	아르헨티나	212	3.06	.71	1.77	-
	브라질	221	2.96	.84		

주: *** $p < .001$; ** $p < .01$; * $p < .05$.

동포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대한 요구를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성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 청소년들(평균 3.63점)이 남자 청소년들(평균 3.29점)보다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3 동포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아르헨티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94	3.29	.76	11.41**	여)남
	여자	118	3.63	.71		
	전체	212	3.48	.75		
연령별	9-12세	55	3.38	.69	1.82	-
	13-15세	63	3.37	.77		
	16-18세	63	3.61	.66		
	19-24세	31	3.62	.93		
	전체	212	3.48	.75		

주: *** $p < .001$; ** $p < .01$; * $p < .05$.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동포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구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4 동포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브라질)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114	3.76	.84	.99	-
	여자	107	3.86	.72		
	전체	221	3.81	.78		
연령별	9-12세	52	3.81	.92	2.06	-
	13-15세	79	3.69	.68		
	16-18세	35	3.72	.69		
	19-24세	55	4.02	.82		
	전체	221	3.81	.78		

주: *** $p < .001$; ** $p < .01$; * $p < .05$.

(12) 한국에 대한 관심과 진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

동포청소년들이 어떠한 경로로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에 진출하게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에서의 학업 및 취업 등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은 공통적으로 한국 드라마, K-Pop 등 한류가 1순위(아르헨티나-57.2%, 브라질-43.4%)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아르헨티나-42.3%, 브라질-40.7%), 개인적 한국 방문(아르헨티나-34.0%, 브라질-32.1%)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한민족 캠프나 축제(31.2%), 인터넷 사이트 방문이나 SNS활동(29.3%), 주변 친구들의 관심과 대화(27.9%), 한글학교 등에서의 한국어교육(16.3%)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변 친구들과의 관심과 대화(30.8%) 및 교환학생이나 한국방문 프로그램(30.8%), 한글학교 등에서의 한국어교육(26.7%), 한민족 캠프나 축제(2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미지역에서 한류가 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을 알리게 되는 가장 큰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교육, 그리고 한국방문 등 동포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체험경험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75 한국에 관심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항	아르헨티나			브라질		
	순위	빈도	%	순위	빈도	%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	2	91	42.3	2	90	40.7
주변 친구들의 관심과 대화	6	60	27.9	4	68	30.8
한류를 통한 드라마나 K-Pop등	1	123	57.2	1	96	43.4
인터넷 사이트 방문이나 SNS활동	5	63	29.3	8	27	12.2
한글학교 등의 한국어 교육	7	35	16.3	5	59	26.7
개인적 한국 방문	3	73	34	3	71	32.1
교환학생이나 한국방문 프로그램	9	21	9.8	4	68	30.8
한민족 캠프나 축제	4	67	31.2	6	52	23.5
기타	8	30	14	7	40	18.1
전 체		215			221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서의 교육 및 취업 등 진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교육 및 취업 정보 부족(41.9%)이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어능력 부족(41.4%), 한국조직문화 적응에 대한 자신감 부족(30.7%), 기타(22.3%), 군복무 문제(21.9%) 등의 순이었다.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어능력 부족(40.7%)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한국조직문화 적응에 대한 자신감 부족(29.0%), 한국에서의 교육 및 취업기회 부족(25.3%), 한국에서의 교육 및 취업 정보 부족(24.1%), 경제적 어려움(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76 한국의 교육·취업을 방해하는 요인

문항	아르헨티나			브라질		
	순위	빈도	%	순위	빈도	%
한국국적이 없음	8	39	18.1	9	29	13.1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음	2	89	41.4	1	90	40.7
군복무를 하지 않음	5	47	21.9	7	40	18.1
한국의 교육·취업에 대한 정보부족	1	90	41.9	4	53	24.1
한국에서 교육·취업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6	42	19.5	3	56	25.3
경제적 어려움	9	37	17.2	5	45	20.4
한국조직문화에 적응에 자신이 없음	3	66	30.7	2	64	29
혼자 생활할 자신 없음	7	40	18.6	6	42	19
기타	4	48	22.3	8	37	16.7
전체		215			221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한국어능력의 부족, 한국조직문화 적응에 대한 자신감 부족, 한국에서의 교육 및 취업에 대한 정보 및 기회 부족 등이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으로의 진출을 어렵게 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으로의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의 확대와 한국조직문화에 대한 적응 교육, 그리고 진학 및 취업 정보 및 기회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13) 인생관 및 장래 희망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미래에 어떠한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장래희망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조사결과,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75.3%)이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을 하는 것(75.3%), 건강하게 사는 것(60.0%), 돈을 많이 버는 것(34.9%),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34.0%), 종교생활을 하는 것(33.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73.3%)이라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72.4%),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을 하는 것(67.0%), 종교생활을 하는 것(48.0%),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43.0%), 돈을 많이 버는 것(38.0%),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3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77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문항	아르헨티나			브라질		
	순위	빈도	%	순위	빈도	%
돈을 많이 버는 것	4	75	34.9	6	84	38
명예를 얻는 것	8	49	22.8	8	77	34.8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	7	51	23.7	7	79	35.7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5	73	34	5	95	43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을 하는 것	2	132	61.4	3	148	67
건강하게 사는 것	3	129	60	2	160	72.4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	1	162	75.3	1	162	73.3
종교생활을 하는 것	6	71	33	4	106	48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9	47	21.9	9	75	33.9
기타	10	23	10.7	10	30	13.6
전체		215			221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과 브라질 동포청소년 간에 순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돈과 명예, 그리고 사회봉사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건강과 행복 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래희망 직업에 대해서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공통적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교사(100.0%)나 회사원(100.0%)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기타(25.6%), 의사(10.7%)와 연예인(10.7%), 엔지니어(8.8%)와 디자이너(8.8%), 요리사(7.4%) 등의 순이었으며,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은 기타(24.4%), 의사(15.8%), 엔지니어(10.9%), 없음(8.6%), 연예인(7.2%)고 법조인(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인생관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게 명예나 부를 추구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이나 법조인 등을 선호하기보다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사, 회사원 등의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8 장래희망

문항	아르헨티나			브라질		
	순위	빈도	%	순위	빈도	%
의사	4	23	10.7	4	35	15.8
법조인	-	-	-	6	16	7.2
전문경영인	9	14	6.5	-	-	-
교사	1	215	100	1	221	100
회사원	1	215	100	1	221	100
요리사	8	16	7.4	8	11	5
연예인	4	23	10.7	7	16	7.2
엔지니어	6	19	8.8	5	24	10.9
디자이너	6	19	8.8	9	10	4.5
기타	3	55	25.6	3	54	24.4
없음	9	14	6.5	6	19	8.6
전 체		215			221	

장래희망을 이루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기타(48.8%)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신의 능력부족(24.7%),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13.0%), 국가 경제의 어려움(11.6%), 교육기회의 부족(11.2%), 사회의 차별(8.4%), 동포사회의 관심과 부족(7.0%) 등의 순이었다.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 부족(33.5%)이 가장 큰 원인 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30.8%), 국가 경제의 어려움(30.3%),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27.1%), 동포사회의 관심과 지원 부족(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 내용은 거의 없어서 이를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동포청소년들 모두 국가나 동포사회에 원인을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능력 부족 등을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79 장래희망을 이루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문항	아르헨티나			브라질		
	순위	빈도	%	순위	빈도	%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3	28	13	4	60	27.1
자신의 능력 부족	2	53	24.7	1	74	33.5
교육기회의 부족	5	24	11.2	6	26	11.8
부모님의 관심 부족	8	12	5.6	8	13	5.9
동포사회의 관심과 지원 부족	7	15	7	5	27	12.2
사회의 차별	6	18	8.4	7	25	11.3
국가 경제의 어려움	4	25	11.6	3	67	30.3
기타	1	105	48.8	2	68	30.8
전 체		215			221	

(14)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민족정체성을 의식과 실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한국 관련 인식 및 활동, 미래인재역량의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개인적 특성인

성별(남=0, 여=1), 연령을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한국어능력, 한국에 대한 관심 및 욕구, 한국학교 경험 여부(없음=0, 있음=1), 한글학교 경험 유무(없음=0, 있음=1), 한국/한국인에 대한 인식, 가정에서의 한국관련 활동, 한국 관련 부모의 기대, 교류경험, 거주국에서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없음=0, 있음=1), 한국에서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없음=0, 있음=1), 교류 및 참여 욕구를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미래인재역량(창의적사고, 문제해결력, 세계시민의식, 국가정체의식, 개인적·사회적 책임)을 투입하였다.

가. 한민족정체성 -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회귀모형 Model 3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변화량=4.09, $p<.01$). 각 변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한글학교 경험 여부($\beta=.14$, $p=.05$), 가정에서의 한국 관련 활동($\beta=.23$, $p=.05$), 한국에서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beta=-.18$, $p=.05$), 문제해결력($\beta=.21$, $p=.05$), 개인적·사회적 책임($\beta=.15$, $p=.10$)이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글학교 경험이 있고, 가정에서 부모와 대화 시 한국어 사용, 드라마 시청 등 한국 관련 활동을 많이 할수록, 미래인재역량 중에서 문제해결력과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이 높을수록 한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민족정체성 의식 형성에 미래인재역량(문제해결력과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과 한글학교 및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과 한국문화 체험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V-80 브라질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성별(남=0, 여=1)	.10	.16	.04	.00	.17	.00	-.04	.17	-.01
연령	.01	.02	.01	.02	.02	.09	-.01	.02	-.03
한국어능력				-.13	.11	-.12	-.12	.11	-.10
한국어 관심 및 욕구				.12	.09	.10	-.04	.09	-.03
한국학교 경험 여부 (없음=0, 있음=1)				.05	.17	.02	.23	.17	.09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한글학교 경험 여부 (없음=0, 있음=1)				.48	.22	.17**	.42	.21	.14**
한국/한국인 인식				.13	.11	.08	.06	.11	.04
가정에서의 한국 관련 활동				.27	.12	.25**	.25	.11	.23**
한국 관련 부모의 기대				-.05	.09	-.05	-.02	.09	-.02
교류경험				.04	.08	.04	.02	.07	.02
자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0, 있음=1)				-.06	.18	-.02	.02	.17	.01
한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0, 있음=1)				-.56	.19	-.21***	-.47	.19	-.18**
교류 및 참여 욕구				-.04	.10	-.03	-.07	.10	-.06
창의적사고							-.04	.10	-.03
문제해결력							.28	.11	.21**
세계시민의식							.19	.12	.14
국가정체의식							-.03	.09	-.03
개인적·사회적 책임							.25	.15	.15*
R ²		.01			.12			.22	
F 변화량		.21			2.16**			4.09***	

주: **** α .001; *** α .01; ** α .05; * α .10

하지만 한국에서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한민족정체성-의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여 후에 한민족정체성 의식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의 부정적 효과나 기타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회귀 모형 Model 3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변화량=2.31, $p < .01$). 각 변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인식($\beta = .18$, $p = .05$), 교류 및 참여 욕구($\beta = -.16$, $p = .10$), 개인적·사회적 책임($\beta = .19$, $p = .10$)이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1 아르헨티나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성별(남=0, 여=1)	.18	.14	.09	.10	.15	.05	.02	.15	.01
연령	-.01	.02	-.02	-.01	.02	-.04	-.02	.02	-.07
한국어능력				.00	.09	.00	-.01	.09	-.01
한국어 관심 및 욕구				.13	.08	.13	.13	.08	.13
한국학교 경험 여부 (없음=0, 있음=1)				-.01	.14	-.00	.00	.14	.00
한글학교 경험 여부 (없음=0, 있음=1)				.29	.17	.12*	.24	.18	.10
한국/한국인인식				.31	.11	.21***	.27	.11	.18**
가정에서의 한국 관련 활동				.15	.11	.12	.17	.11	.14
한국 관련 부모의 기대				.05	.09	.04	.04	.09	.04
교류경험				.10	.07	.11	.08	.06	.09
자국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0, 있음=1)				.16	.15	.08	.17	.15	.09
한국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0, 있음=1)				-.07	.18	-.03	-.07	.18	-.03
교류 및 참여 욕구				-.16	.10	-.13	-.20	.11	-.16*
창의적사고							-.09	.10	-.08
문제해결력							.14	.09	.14
세계시민의식							.04	.12	.03
국가정체의식							-.13	.10	-.11
개인적·사회적 책임							.24	.12	.19*
R ²		.01			.16			.22	
F 변화량		.79			2.65***			2.31***	

주: *** α .001; ** α .01; * α .05; α .10

즉,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교류 및 참여 욕구가 낮을수록, 개인적·사회적 책임이 높을수록 한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미래인재역량(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과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한민족정체성 의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관련 교류 및 참여 욕구가 한민족정체성-의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추가적인 분석을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나. 한민족정체성 -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회귀모형 Model 3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변화량=4.28, $p<.001$). 각 변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연령($\beta=.19, p=.01$), 한국어능력($\beta=.16, p=.10$), 한국어에 대한 관심 및 욕구($\beta=.09, p=.01$), 문제해결력($\beta=.21, p=.01$)이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포청소년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한국어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를 배우려는 욕구가 높을수록, 그리고 미래인재역량 중에서 문제해결력이 높을수록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실천, 즉,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인식이나 한민족 사건과 문제 등을 자신의 일로 여기는 등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실천 형성은 청소년 연령과 미래인재역량(문제해결력)이 관련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한국어(능력 및 관심)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82 브라질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성별(남=0, 여=1)	.18	.14	.08	-.09	.14	-.04	-.04	.14	-.02
연령	.06	.01	.25****	.06	.01	.25****	.04	.01	.19***
한국어능력				.16	.09	.15*	.17	.09	.16*
한국어관심및욕구				.21	.07	.19***	.10	.08	.09***
한국학교경험여부 (없음=0, 있음=1)				-.17	.14	-.08	-.02	.14	-.01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한글학교 경험여부 (없음=0, 있음=1)				-.05	.18	-.02	-.07	.17	-.02
한국/한국인인식				.06	.09	.04	.00	.09	.00
가정에서의 한국관련활동				-.04	.10	-.04	-.07	.09	-.07
한국관련부모의기대				.09	.079	.09	.04	.08	.04
교류경험				.05	.06	.06	.01	.06	.01
자국프로그램참여경험(없음=0, 있음=1)				.04	.15	.02	.08	.14	.04
한국프로그램참여경험(없음=0, 있음=1)				-.02	.16	-.01	-.05	.16	-.02
교류및참여욕구				.30	.08	.26 ^{***}	.28	.08	.24
창의적사고							.08	.08	.07
문제해결력							.27	.09	.21 ^{***}
세계시민의식							-.02	.10	-.02
국가정체의식							.12	.07	.11
개인적·사회적 책임							.17	.12	.11
R ²		.07			.29			.37	
F 변화량		7.22 ^{****}			4.83 ^{****}			4.28 ^{****}	

주: **** α .001; *** α .01; ** α .05; * α .10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회귀모형 Model 3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변화량=6.54, p <.001). 각 변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성별(β =-.13, p =.05), 한국어능력(β =.25, p =.01), 한국어에 대한 관심 및 욕구(β =.17, p =.01), 한글학교 경험 여부(β =.15, p =.05), 한국 관련 부모의 기대(β =.14, p =.05), 교류 경험(β =.12, p =.05), 창의적 사고(β =.19, p =.05), 개인적·사회적 책임(β =.22, p =.01)이 한민족 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청소년들보다 남자청소년들이, 한국어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를 배우려는 욕구가 높을수록, 한글학교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한국 관련 부모의 기대가 높을수록, 교류경험이 많을수록, 창의적사고와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이 높을수록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실천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83 아르헨티나 재외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성별(남=0, 여=1)	.06	.12	.03	-.17	.111	-.10	-.22	.10	-.13**
연령	.05	.01	.23*	.02	.017	.04	.01	.01	.05
한국어능력				.27	.071	.32****	.22	.06	.25***
한국어관심및욕구				.19	.064	.21***	.15	.06	.17***
한국학교경험여부 (없음=0, 있음=1)				-.14	.106	-.08	-.14	.10	-.08
한글학교 경험여부 (없음=0, 있음=1)				.36	.129	.17***	.31	.12	.15**
한국/한국인인식				.06	.084	.04	-.02	.07	-.01
가정에서의 한국관련활동				.04	.085	.04	.10	.08	.10
한국관련부모의기대				.14	.068	.15**	.17	.06	.14**
교류경험				.12	.051	.16**	.09	.04	.12**
자국프로그램참여경험 (없다=0, 있다=1)				-.07	.110	-.04	-.08	.10	-.04
한국프로그램참여경험 (없다=0, 있다=1)				.07	.133	.03	.07	.12	.03
교류및참여욕구				-.05	.079	-.05	-.07	.07	-.06
창의적사고							.18	.07	.19**
문제해결력							.04	.06	.04
세계시민의식							-.04	.08	-.03
국가정체의식							.00	.07	.00
개인적·사회적 책임							.24	.08	.22***
R ²		.05			.41			.51	
F 변화량		5.21***			9.34****			6.54****	

주: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한민족정체성-의식의 경우에는 두 국가에 공통적으로 미래인재역량 중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한글학교 경험 여부와 가정에서의 한국 관련 활동, 그리고 미래인재역량 중 문제해결력이 한민족정체성-의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글학교와 가정에서의 한국 문화 체험 등이 한민족정체성-의식 형성에 중요하다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한민족정체성-의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민족정체성-의식 형성에 있어서 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한민족정체성-실천의 경우에는 두 국가에 공통적으로 한국어 능력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 및 욕구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가 한민족정체성-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한민족정체성-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미래인재역량 중 문제해결력이 한민족정체성-실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한글학교 경험, 한국 관련 부모의 기대, 교류 경험, 그리고 미래인재역량 중 창의적 사고와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이 한민족정체성-실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인재역량 중 문제해결력은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에게 한민족정체성-의식과 한민족정체성-실천에 동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인재역량 중에서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이 한민족정체성-의식과 한민족정체성-실천에 동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두 국가 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실천을 위해 한글학교 경험과 한국 관련 부모의 기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V-84 한민족정체성 영향 요인에 대한 국가별 비교

한민족정체성-의식			한민족정체성-실천		
브라질	공통요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공통요인	아르헨티나
한글학교 경험 가정에서의 한국관련활동 문제해결력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한국/한국인에 대한 인식	문제해결력	한국어능력 한국어관심 및 욕구	한글학교경험 한국관련부모의 기대 교류경험 창의적사고 개인적·사회적책임의식

(15)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

향후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공동체 발전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포청소년들의 역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한국 관련 인식 및 활동, 미래인재역량의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개인적 특성인 성별(남=0, 여=1), 연령을 투입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한국어능력, 한국에 대한 관심과 욕구, 한국학교 경험 여부(없음=0, 있음=1), 한글학교 경험 유무(없음=0, 있음=1), 한국/한국인에 대한 인식, 가정에서의 한국관련 활동, 한국 관련 부모의 기대, 교류경험, 거주국에서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없음=0, 있음=1), 한국에서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없음=0, 있음=1), 교류 및 참여 욕구, 한민족정체성-실천, 한민족정체성-실천을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미래인재역량(창의적사고, 문제해결력, 세계시민의식, 국가정체의식, 개인적·사회적 책임)을 투입하였다.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한민족공동체 발전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회귀모형 Model 3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변화량=3.33, $p<.001$). 각 변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성별($\beta=-.19$, $p=.01$),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인식($\beta=.11$, $p=.10$), 교류경험($\beta=.21$, $p=.01$), 한국에서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beta=.12$, $p=.10$), 교류 및 참여 욕구($\beta=.17$, $p=.05$), 한민족정체성-실천($\beta=.14$, $p=.10$), 창의적 사고($\beta=.14$, $p=.05$), 세계시민의식($\beta=.15$, $p=.05$)이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이,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교류경험 및 한국에서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많을수록, 교류 및 참여 욕구가 높을수록, 한민족정체성-실천이 높을수록, 그리고 미래인재역량 중에서 창의적 사고와 세계시민의식이 높을수록 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85 브라질 재외동포청소년의 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성별(남=0, 여=1)	-.13	.12	-.07	-.38	.11	-.22***	-.33	.11	-.19***
연령	.01	.01	.04	-.01	.01	-.05	-.01	.01	-.05
한국어능력				.03	.07	.03	.01	.07	.01
한국어관심및욕구				.11	.06	.12*	.06	.06	.07
한국학교경험여부 (없음=0, 있음=1)				-.01	.11	-.01	.043	.11	.02
한글학교 경험여부 (없음=0, 있음=1)				-.08	.14	-.04	-.06	.14	-.03
한국/한국인인식				.19	.07	.16**	.12	.07	.11*
가정에서의 한국관련활동				.03	.08	.04	.03	.07	.04
한국관련부모의기대				-.01	.06	-.02	-.01	.06	-.01
교류경험				.19	.05	.26****	.15	.05	.21***
자국프로그램참여경험 (없음=0, 있음=1)				-.01	.11	-.01	.05	.11	.03
한국프로그램참여경험 (없음=0, 있음=1)				.29	.13	.14**	.24	.13	.12*
교류및참여욕구				.18	.07	.20***	.15	.06	.17**
한민족정체성_실천				.16	.06	.19**	.12	.06	.14*
한민족정체성_의식				-.01	.05	-.01	-.03	.05	-.04
창의적사고							.14	.06	.14**
문제해결력							-.02	.07	-.02
세계시민의식							.16	.08	.15**
국가정체의식							.06	.06	.07
개인적·사회적 책임							.07	.10	.05
R ²		.01			.37			.43	
F 변화량		.74			7.57****			3.33****	

주: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한민족공동체 발전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회귀모형 Model 3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변화량=8.36, $p<.001$). 각 변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한국 관련 부모의 기대($\beta=-.15$, $p=.05$), 교류 및 참여 욕구($\beta=.33$, $p=.001$), 창의적 사고($\beta=-.21$, $p=.01$), 세계시민의식($\beta=.18$, $p=.05$), 개인적·사회적 책임($\beta=.25$, $p=.01$)이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관련 부모의 기대가 낮을수록, 교류 및 참여 욕구가 높을수록, 창의적 사고가 낮을수록, 세계시민의식이 높을수록 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86 아르헨티나 재외동포청소년의 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성별(남=0, 여=1)	.14	.11	.09	.01	.10	.01	-.03	.10	-.02
연령	.00	.01	-.00	-.01	.01	-.02	-.00	.01	-.03
한국어능력				.03	.07	.05	.07	.06	.09
한국어관심및욕구				-.01	.06	-.02	-.00	.05	-.00
한국학교경험여부 (없음=0, 있음=1)				.03	.10	.02	.04	.09	.03
한글학교 경험여부 (없음=0, 있음=1)				-.09	.12	-.05	.00	.11	.00
한국/한국인인식				.05	.08	.04	.02	.07	.02
가정에서의 한국관련활동				-.14	.08	-.15*	-.09	.07	-.10
한국관련부모의기대				-.14	.06	-.17**	-.12	.06	-.15**
교류경험				.06	.04	.09	.05	.04	.09
자국프로그램참여경험 (없음=0, 있음=1)				-.07	.10	-.04	-.06	.09	-.04
한국프로그램참여경험 (없음=0, 있음=1)				-.00	.12	-.00	.04	.11	.02
교류및참여욕구				.45	.07	.48****	.30	.07	.33****
한민족정체성_실천				.20	.07	.23***	.09	.07	.10
한민족정체성_의식				.06	.05	.08	.00	.05	.01
창의적사고							-.18	.07	-.21***
문제해결력							.12	.06	.15*
세계시민의식							.176	.07	.187**
국가정체의식							.056	.06	.06
개인적·사회적 책임							.250	.08	.25***
R ²		.01			.31			.46	
F 변화량		.86			5.63****			8.36****	

주: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브라질 동포청소년들과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비교해 보면, 두 국가에 공통적으로 교류 및 참여 욕구, 세계시민의식이 역할 기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향후 동포청소년들로 하여금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동포청소년 교류와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세계시민의식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래인재역량 중 창의적 사고의 경우에는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역할 기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측되나, 보다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밖에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인식, 교류 및 한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한민족정체성-실천이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에게 한민족공동체 발전을 위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민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직접적인 체험 기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한국 관련 부모의 기대가 청소년들의 역할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기대가 오히려 동포청소년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표 V-87 한민족공동체 발전의 역할 기대 영향 요인에 대한 국가별 비교

브라질	공통요인	아르헨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한국인에 대한 인식 • 교류 경험 • 한국프로그램 참여 경험 • 창의적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류 및 참여욕구 세계시민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관련 부모의 기대(부적영향) • 창의적 사고(부적영향)

2. 브라질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분석

1) 청소년 특성

(1) 행복도 높은 삶 추구 : 적은 학업스트레스, 자유롭고 순수한 자기 개발의 기회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은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서 학업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있었으며, 자기개발의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한국에 있을 때에 비해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브라질 교육시스템은 학생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그 학년에 적절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낙제의 기준이 되는 60점 이상을 받아서 패스하게 되면 그 자체로 만족하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으며, 그 이외에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해요. 한국이랑 다르게 아이들이 별로 크게 스트레스를 공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죠. 애네 교육제도가 초등학교 2학년부턴 낙제를 시켜요. 그래서 평균 60점이 안되면 낙제를 시키는데, 저희 아이들도 현지 학교를 보내면서 ‘어 무슨 낙제를 시켜’ 바로 왔을 때는 ‘빨리 못하는 애를 걸러서 되는 놈만 키우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학년에 알아야 되는 거는 꼭 알고 가라. 그래가지고 그 성적을 못 얻으면 보충수업해서 또 재시험 보고 방학 때 또 공부해서 개학하자마자 또 시험을 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올려줄려고 꼭 알고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그런 낙제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뒤쳐져서 낙제를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낙제 안하면 그냥 되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참여자 2)

애네는 한나절 학교 다니고 숙제하고 놀아요. 뭐 뛰어놀기도 하고요. 학교에 또 오후 액티비티가 있어요. 무슨 뭐 스포츠들도 있고 체스 뭐 이런 것도 대부분 학교가 체스 이런 거 있고, 뭐 축구나 뭐 농구나 체조 유도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면 학교 프로그램 연극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들어도 되고 아니면 집에 와서 아니면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놀죠. 텔레비전 보고... (참여자 2)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여기 유학을 오고 나서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왜 유학을 온 이유자체가 거기서는 항상 밤11시, 12시까지 학원에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도 숙제를 하고 하루에 잠을 한 4시간정도 밖에 자지를 못하고 공부를 했던 학생으로서 내가 공부를 왜 해야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에 와서는 내 생각을 공부와 함께 같이 공부하니까 행복감은 넘치죠. (참여자 7)

(2) 현재를 즐기는 삶의 태도

브라질 청소년들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삶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휴식도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오히려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고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인생에서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벌던, 공부를 하던 간에 현재를 즐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아이들은 돈을 버는 목적이 즐기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벌어야 해. 노후를 위해서 나의 아이를 위해서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히 브라질에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아니면 아예 브라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가 이번 휴가 때 놀러갈려면 돈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야 해 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도 그 막 나는 나중에 대기업에 들어갈 거야. 나는 뭐가 유명한 뭐 농구선수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은 그냥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주 현실적인 게 되는 거 같아요. 노후가 아니라 정말 찰나를 사는 사람들처럼 그래서 정말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학가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자 2)

휴일도 없이 투 잡, 쓰리 잡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고 한심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 지금 젊고 지금 여유가 있는데 왜 안 쉬고 안 놀고 안 즐기고 그렇게 모아. 도대체 왜 넌 니 인생을 허비해?’ 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반덴데 대비를 해놔야 되는데 언제 일을 잃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재는 저렇게 생각을 할까, 참 다르구나. 그래서 여유가 많은 건지 아님 그냥 놀기 위해서 태어난 애들인지 많이 달라, 정말로 많이 다르더라고요. 깜짝, 아직까지도 깜짝깜짝 놀라요. (참여자 2)

(3)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

브라질 사람들은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경향이 있다. 동포청소년들도 브라질 사람들의 이러한 특성을 받아들여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편이다. 한국에서 낯을 많이 가렸던 청소년의 경우에도 브라질에서 생활한 후에는 개방적이고 낯을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생겼음을 경험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브라질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오픈 마인드 이고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교포들도 다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많이 자기 주변에서 보고 자랐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친해지는 그런 속도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빨라서 그런 쪽에서 나중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참여자 5)

저는 한국에서는 낯을 되게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말도 못 붙이고 사람들을 봐도 낯을 심하게 가리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 저도 여기 와서 확실히 성격이 많이 바뀌었던 거 같아요. 그니까 애들한테, 친구들한테 처음에 한국에서 브라질 왔을 때는 완전 한국 사람이고 애들이랑 말도 못 붙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성격이 한국에 서랑은 180도 다 바뀐 거 같아요. 저번에 친구들이랑 한국에 방학 때 놀러갔다 왔는데 애들이 저보고 완전 성격이 다른 사람이 됐다고 확실히 그건 느껴요. 여기 사람들이 확실히, 여기 사람들이 마인드가 오픈되고 수용하는 능력이 있구나. 나같이 낯을 가리더라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동포들도... (참여자 6)

(4)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고, 특별한 꿈도 없는 삶의 태도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어떠한 전공을 했는지에 상관없이 졸업 후에 대부분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래에 어떠한 직업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 미래에 대한 목표도 구체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오히려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한국대학이나 한국기업에의 가능성을 두고 자녀들

에게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다.

여기 브라질에서 한국 사람들은 제품 봉제업이나 제품 쪽에 대부분이 다 종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음속에 ‘아, 난 대충 대충 졸업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가게 내가 물려받으면 되겠지’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특별한 꿈도 없고 또 다른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든가 무슨 그런 폭넓은 생각들을 못하는 거 같아요. (참여자 16)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삭막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걱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고 지금 저희반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커서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어 변호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그럼 대학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럼 대학가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어느 만약에 한국을 간다면 그런 거는 부모님들이 좀 욕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한글학교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보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한국기업에 취직을 하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두자. 그렇게 되면 한국어를 공부 하는 게 좋지 않겠니? 해서 오시는 거지. 아이들은 ‘아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어를 해야지’ 이런 목적의식을 그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적의식을 갖고 오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참여자 2)

2) 가정 및 청소년활동 환경

(1) 맞벌이 가정 : 학원과 교회에 자녀 위탁

대부분의 브라질 동포들은 부부가 함께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일하고 있는 동안 자녀들을 돌볼만한 여유가 없다. 그런데 브라질 학교는 수업시간이 적어서 학생들이 일찍 귀가하는데, 주변에 치안이 매우 불안하여 자녀들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방과 후에 자녀들을 학원이나 교회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 주로 봉혜찌로에 있는 여기는 주로 보통 학교가 일찍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래서 이제 학원으로도 많이 가요. 여기도 우선은 부모님들이 일을 하시니까 맡길 곳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깐 특별하게 그리고 또 여기가 치안이

불안하다 보니까 어디 특별하게 외부활동을 하는 데는 별로 없고요. 만일 외부 활동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하는 활동, 뭐 수련회나 이런 거를 하지 특별히 뭐 한국처럼 어디 학교 측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수학 여행은 있습니다만, 한국처럼 뭐 여러 개 단체 학생수련원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은 거 같고요. 집에서 이제 못 돌봐 주는 경우에는 교회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그래서 여기도 꽤 학원도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는 상태고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안 때문에 어디를 따로 학생들 끼리 간다거나 이런 것도 잘 없는 거 같아요. (참여자 3)

(2) 부모들의 한글학교에 대한 관심 부족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 있으나 한글학교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글학교는 자녀들을 맡기는 곳 또는 미래 자녀의 진로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현재의 한글학교 운영에 대한 부모들의 협조가 부족한 상황이다.

교내와 교외활동이 어려운 문제가 학생들 자체나 또는 학부모님들이 별로 한글학교에 그런 관심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니까 남미는 또 다른 지역들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한국어를 배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뭐지? 그런 게 조금 학부형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형 분들도 그렇고 그게 그렇게 굉장히 많이 그런 걸 많이 갖고 계시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학생들한테 한글학교에 대한 그리고 한국에 대한 좀 더 호기심 이런 걸 일깨워 주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예 없다보니까 아이들도 한글학교에 오는 것도 조금 귀찮아하는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참여자 5)

불평하는 엄마들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 불평이라는 컴플레인 함으로써 학교의 질도 높아지고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저도 무관심속에서 자라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이민이었기 때문에... (참여자 13)

(3) 청소년 활동 공간의 부재

청소년들이 방과 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히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주로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동포들 간의 모임을 할 수 있는 한인회관의 경우에는 현재 거의 버려진 상태로 우범지역으로 변해 있어서 청소년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특별히 어디 가 있을 때는 특별하게 없는 거 같아요. 친구들끼리 해서 저희도, 직원들도 대학생이니까 ‘친구들하고 뭐하니?’ 하니까 카페에 앉아서 얘기하는 수준. 그니까 ‘뭐니?’ 하면, 그냥 ‘수다 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직원들한테 휴가 받아서 ‘뭐할 거야?’ 하면 진짜 뭐 요 근처에 바닷가에 가서 친구들과 1박 2일 하고 대학생들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말고는 그냥 ‘주말에 뭐했어?’ 하면 그냥 ‘친구들이랑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 거 같아요. (참여자 3)

한인회관은 지금 거의 버려진 상태입니다.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어 가지구요. 그래서 지금 한인사회에서도 그걸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이 많거든요. 사용도 하지 않는데 거기 뭐하고 낮에 가도 무섭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참여자 3)

(4) 청소년, 청소년 주도의 모임 형성이 어려움 : 60, 70대 주도

브라질 동포사회는 현재 주로 60, 70대가 단체를 주도하고 있고, 차세대 단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까지 1세대의 차세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도 하고, 차세대들도 스스로 차세대 단체나 모임이 필요하여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동포사회가 2,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차세대들이 동포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할 수 있다.

여기 한인단체들도 다들 60대, 70대가 주도를 하세요. 그니까 40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세대를 좀 낮추세요. 좀 인제 젊은 세대를 좀 키워 주십사 하고 막 이러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아니 40대, 50대 이렇게 해도 못 믿으시겠다고 젊은

친구들은 그게 별로 없어요. 아주 그냥 젊은 층들이 뭔가를 해서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죠. (중략) 저는 젊은 친구들이 뭔가를 계속 주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니까 기본적으로 할머니랑 조부모랑 대화가 안 되는 가정들이 되게 많죠. 심지어 부모하고도 제대로 깊은 대화를 못하는 가정들도 많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예 그냥 신념이 확고해서 한국말을 잘 가르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정 아니면 못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아요. (참여자 3)

3) 교육환경

(1) 브라질 현지 학교

가. 공립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브라질 공립학교에 대한 동포사회의 인식이 좋지 않다. 학교에서 공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아서 교사들이 학교를 결석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질 좋은 서비스가 어려워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도 공립학교는 우선은 대부분의 공립학교가 잘 운영이 안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다 모두 다 무료거든요. 국공립학교는. 뭐 교복에서부터 간식 이렇게 하는데 그니까 교사들이 월급이 적다 보니까 교사들이 학교를 안와요. 그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들이 없어서 그냥 오는 경우가 있죠. 교사들의 월급과 대우가 안 좋아요. (참여자 3)

나. 공립학교 다니는 것을 숨기는 분위기

동포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자녀들을 브라질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는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옮겨가는 가정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동포사회에서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고 있어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숨기는 경향이 있다.

지금 되게 경기가 안 좋거든요. 한인경제가, 그래서 이제 공립학교를 보내는 걸 거의 숨기려고 하죠. 그만큼 안 좋다는 거거든요. 가정경제가. 대부분은 사립학교를 보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요즘 공립학교로 옮기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고 제가 갔더니 공립유치원에서 한국 애들을 보긴 봤어요. 몇 명~ (참여자 3)

(2) 브라질 한국학교

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운영 중단상태

브라질 한국학교는 그동안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사회에 의해서 2016년 11월에 운영 중단이 결정되고, 이사회에서 이를 교육부에 통보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학교는 교민들과 교육부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만든 사립학교로서 이사회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브라질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많기도 하지만 교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해 오지 못한 점도 문제가 되었고, 교육의 질이 낮은 점 등 학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가 계속 어느 순간부터 인제, 여기가 세금이 되게 세거든요? 저희 아까 자동차도 막 비싸다고 그랬는데 그게 세금이 많이 붙어서 그래요. 그런 거에서, 학교도 이제 세금 그런 게 있어요. 가옥세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세금이 체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세금이 체납이 되면서 이제 한 30억, 환율에 따라서 30억, 4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은데 그거를 더 이상 이제 빚을 못 갚겠다 라고 하고, 이제는 그 교육부에서도 이제, 교육부도 항상 일 년에 운영비를 많이 보내줬어요. 근데 한브협회라고, 학교 이사회에서 더 요구를 했는데 우선은 예산이 투명하지 않았어요. 교장선생님이 예산을 공개 투명하게 하고 정관분리를 하자고 했는데, 그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와중에서 육부는 기본적으로 항상 주는 운영비만큼만 주고, 이제 이사회는 더 달라 우리가 빚도 있고 이러니까 더 달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그 못마땅하셨는지 11월 3일날 총회를 소집했어요. 총회에서 그걸 결의하시더라고요. 작년 11월 3일, 그래서 결의 해가지고 학교 운영을 중지하겠다고. 그리고 교육부에 통보를 했죠. (참여자 3)

교민자체도 거기에 이사장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요, 자기자식은 그 학교에 안 보내요. 자기 자식 자기 손주들은요 좋은 사립학교 브라질 학교를 보내요. 그 한국학교는 안 보낸다고요. 질이 문제였던 거죠. 만약에 거기가 고급스럽게 뭔가를 잘하고 수준이 높고 했으면요. 한국사람들 돈 다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거기 다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미치지 못하니까 안 보내니까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문을 닫게 된 거지. 저는 백 프로 그거는 어떤 무슨 경제적인 경영 이것만은 아닌 거 같아요. (참여자 12)

나. 학교 중단 후 교육원에서 임시로 교육 실시

한국학교 운영 중단이 결정된 이후에 학생들은 공립학교로 간 경우도 있고 돈이 많은 가정의 학생들은 사립학교로 보내졌다. 또한 한국학교에 있던 선생님들이나 일부 학생들은 교육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이제 정규학교 수업은 아니지만 한국학교에 파견된 2명의 교사가 교육원에서 한국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을 일부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아직 한국학교가 완전히 정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정적인 조치라 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학교 처리가 완료되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전에는 브라질 과정을 하고 오후에는 한국과정을 해요. 그러니까 애네들은 아침에 보낸 저녁에 5시까지 학교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른 학원에도 보낼 수 없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보내셨었어요. 사실, 실제로 좀 안타까운 현실이기 하지만, 그니까 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랬다가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그중에서는 이제 또 많은 정말 공립학교로 간 학생들도 있다고 듣고 좀 그런 중에서 좀 괜찮은 정말 의식이 있어서 한국 학교를 보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중에서 돈 많으신 분들은 진짜 사립학교 좋은 데로 다시 보내셨고...(참여자 3)

지금 거기서 그래서 지금 초등선생님 두 분이 지금 파견 나왔던 선생님 두 분이, 지금 현재 교육원 소속돼서 수업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정식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 갔다가 오는 거죠. 아까처럼 문제는 이제 아까도 대부분 애들이 여기 보면 교회에도 애프터스쿨이나 뭐 이런 걸 운영을 해요. 학생들이 별로 특별하게 갈 데가 없고 부모님들이 다 가게를 하시니까, 봉제업을 하시니까 애들을 맡아줘야 될 게 있으니까 거기 가면 아주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생, 대학 이렇게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있는데 인제 왔다갔다

데려다 줘야 되는데, 학교 끝나고 교육원에 데려왔다 다시 수업 끝나면 또 데려갈 그런
뭐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게 교통편이 안 된다고 막 그랬던~ (참여자 3)

다. 향후 방향 : 방향 잃은 한국학교

그동안 한국학교는 브라질 동포사회에서 자녀들의 한글교육과 동포들 간의 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동포사회에서 한국학교의 처리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한국학교 중단 이후의 수습단계로 다른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재개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등에 대한 방향이 논의가 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이사회에서는 교육부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처리가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그것도 수습단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게 다 끝난 상태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학교건물을 그래서 매각을 해서 빚을 갚고 본인들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길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그 매각승인권이 이제 교육부에 있는데, 교육부는 지금 조건부로 이걸 하면 조건부 매각승인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서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또, 왜냐면 저희는 교육부가 어쨌든 50%계속했고 해마다 운영비를 지원한 것도 있고, 빚을 갚고도 돈이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을 교민교육을 위해서 다시 이제 그 총영사관에 이제 위탁을 하게 해서 교육 사업을 할 만한 그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나 아니면 대사관이나 그래서 한국학교 형태를 해서 이렇게 다시 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사회에서 아직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게 총영사관에 위탁해서 적합한 단체가 나타나서 교육 사업을 다시 한국학교를 다시 하든지, 그런 거를 이제 하겠다고 정관을 바꾸면 교육부가 조건부매각, 그걸 승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서~(참여자 3)

(3) 한글학교

가. 자녀들의 한국 진출의 기회

최근 동포사회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모들이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에도 자녀들에게는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가정보도

있다. 하지만 동포청소년들이 한글학교에 다니게 되는 동기는 자발적이라기보다는 학부모들의 강압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들에게 한글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글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최근 브라질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어를 다시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 수는 더 많아진 거 같고, 부모님들도 그니까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학부모님들이 한국말을 못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못하는데 본인이 자기에는 한국어를 배우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니까 한글학교에 등록하고..... (참여자 3)

여기 아이들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브라질 애들이예요. 한글학교에 나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부모님들이 뒤에서 너희는 한국사람 이니까 한국말 배워야 된다고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참여자 16)

그니까 지금 한국으로 대학을 보내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이 지금 최근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전에는 필요가 없었던 게 브라질 경제가 그나마 안정적이었고 대학을 졸업을 해도 부모님의 그런 사업을 물려받아서 어느 정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브라질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 길을 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한국으로 보내거나 미국으로 보내거나 이제 다른 쪽 루트를 찾는 도중에 이제 한국이 이제 한류의 영향으로 조금 더 넓어진 건 사실이에요. (참여자 14)

나. 교포사회 친선 도모의 장으로서 역할

그동안 한글학교는 청소년들에게 한글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교민들이 만나서 친선을 도모하는 장으로서의 역할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교포들은 대부분 맞벌이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른 교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 한글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한인교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한글학교가 동포사회의 구성원 간의 교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니깐 일 년에 한 번도 못 보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청강 장소가 그렇게 좋으니까 주차공간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그니까 자기에들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눈 마주치고, 잠깐 5분, 10분이라도 서로 얘기를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 교민사회에, 교포사회에 크게 뭐라 그럴까, 이게 기여를 하는 거 같아요. 자주 만나니까, 일주일에 한번은 꼭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한인교포 1.5세 뭐 이렇게 되면, 아주 유능한 변호사, 현지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치과의사도 있고 상업인, 여러 분야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서로 바쁘다 보니까 못 만나요. 일 년에 한 번도 한인회에서 한 번 이렇게 뭘 주최를 해서 하게 되면, 한번 정도는 이렇게 만나는데 서로 저희 한글학교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한글학교가, 일주일에 한번 만나게 그게 정말 좋아요. 친선을 도모하는데 한글학교가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참여자 10)

다. 역사문화교육 : 한글교육 활성화와 한국 이해수단

한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역사교육과 문화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경우가 많다. 한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온 경우가 드물고 학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한글 자체만의 교육으로는 지루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역사교육이나 문화교육을 하게 되면 관심이 생겨서 역사문화 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한글교육도 저절로 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브라질 한글학교에 역사문화교재가 보급되고 있지 못해서 한글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글학교에 온 애들이 자기 의지로 온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애들이 배우는 거보다 재미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재밌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역사교과서를 하면 애들이 흥미를 별로 돋굴 수 있지 않을 거 같아요. (참여자 9)

교재부분도 좀 이제 좀 하시는가 본데, 역사가 이렇게 좀 단계별로 유아서부터 썩 이렇게, 지금 전혀 신경 안 쓰세요. 여기 아이들 브라질 역사는 빠삭하게 알고 시험 보는데, 한국

역사는 단군 할아버지도 몰라요. 저는 그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제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없고, 문화교육도 그렇고 교재부분, 이제는 한글 더 말고 한글 기능적인 거 말구요. 좀 정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고.....(참여자 1)

문화적인 부분은 저희가 더 아이들한테 한국과의 교류를 쌓게 해주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왜냐면 언어 자체보다는 언어를 저희들이 가르치기 시작하면 아이들한테는 이게 압박감이 들지만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 그거는 아이들에게 정말 관심이 돼서 아이들도 처음부터 찾아보고 좀 더 수업을 들어도 더 귀 기울여 아이들이 듣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긴 한데...(참여자 5)

라. 한글학교의 위기 : 차세대 한글교사 확보의 어려움

브라질 한글학교는 1세대들이 주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대가 바뀜에 따라 한글학교를 이어갈 새로운 교사의 확보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1세대에 비해서 2, 3세대들의 경우에는 한글교육에 대한 사명감이나 의욕이 부족하여 한글교사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고, 현재 한글학교에서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속성을 유지하는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향후 한글학교 교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한글학교 운영에 위기가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한글학교 교사에 대한 지원방법 등 차세대 교사 양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는 지금 새로 교사로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저희가 그걸 시도해 봤었어요. 여기에서 자란 친구들을 교사로 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봤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사명감을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메리트가 없잖아요. 여기서 한글학교에서 가르쳐서 자기 평생에 어떤 물질적인 도움도 잘 안 되고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그만 하더라도, 그니까 열심히 키워냈는데 다 그만둬 버리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양성부분이 안 된다는 거, 근데 특별히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도 갖고 있고, 인제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현재까지는 저희가 한 건 실패했구요. (참여자 1)

지금 조금 정말 위기상황인 거 같아요. 인제 뭐 꼭 저희 한글학교만의 문제인 건 아니겠지 만 점점 젊은 교사들이 정말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이게 이 교육이라는 게 백년을 바라보 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간다면 아줌마 아저씨들이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한글학교, 지금두요 한글학교 폐교하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인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교사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참여자 16)

마. 차세대 한글학교 교사 운영의 모범 사례 : 꾸리찌바 한글학교

꾸리찌바 한글학교는 교장선생님을 제외하고는 교사들이 20대의 청년과 10대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에는 주로 학부모들이 교사로 활동하였으나 그 후 교사 확보의 어려움을 겪다가 보조교사로 참여했던 청년을 교사로 채용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변의 청소년들이 교사로 모이게 된 사례이다. 젊은 교사들은 한글학교 학생들과 연령 차이가 크지 않아서 쉽게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배운 것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들의 참여가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전에는 많이들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아이들을 상대를 하려다 보면 조금 더 공감대를 좀 더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낮겠다 싶어서 저희도 많은 여러 시도 후에 그렇게 왔거든요. (참여자 5)

그니까 저희가 학생이니까 저희도 학교에서 지금 배우잖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저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희가 보고 좋은 방법이면 저희가 또 애들한테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부모님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보면 그냥 한글학교에 놔두면 저절로 한국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요. (참여자 9)

4) 한글교육 및 정체성

(1) 한글교육 환경 : 교민들의 무관심과 포르투갈어 사용에 과도한 노출

브라질 교민들 사이에서는 자녀들이 한글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라질 사회에서 안정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일수록 한글교육에 대한 관심은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이 남미지역 중에서 가장 큰 나라라서 대국에 대한 자존심도 한글교육에 대한 관심을 적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가정에서는 교민들이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라서 브라질 정부를 두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포르투갈어에 노출하게 되면서 한국어 사용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 보통 교민들 뭐 이제 한 4~5만명 되죠. 근데 한 절반정도는 한글 왜 배워, 필요 없어 뭐 이래요. 자리 잡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래요. 여유롭게 사는 분들일수록..., 여기서 경기 좋을 때는 한국 별로 관심 안가지고 경기 안 좋으면 한국에 조금 관심 갖게 되고... 한국도 옛날에 못 살 때는 별로, 여기 이민 오래전에 자리 잡은 사람들 한국말 하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가자고 해도 안가요. 우리 처남은 사십 중년 됐는데 한국가자 그러면 막 지옥 가는 것처럼 싫어해요. 한국말 안할래. 그리고 자기애들도 한국말 안 가르치더라고. 애들이 태어났는데 엄마는 한국 사람이예요. 근데 한국말 못 가르치게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리 잡은 연합 교회 같은 경우 많아요. 어른들 다들 인텔리고 잘 살고 그런데 애들 한글 가르쳐요. 그러면 그걸 왜 가르쳐요? 이래요. 한국에 갈 것도 아닌데.....(참여자 10)

그런데 여기는 한국말 못하는 교포들도 엄청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글학교가 많은데 왜 이렇게 한국말을 못하냐고 되게 걱정될 정도로 하는데, 그 보통 선진국에 가면 저희 동포 자녀분들이 한국말을 빨리 잊어버리잖아요. 그니까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서 한글학교 할 때도 너무 한국말을 몰라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빨리 영어를 하려고 하는데 브라질도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교포 분들이 브라질이 남미대국이라는 자존심이 되게 강하세요. (참여자 3)

가정환경이라고 한다면 짜이라고, 여기 그 가정에서 일을 도우미, 도와주시는 분들이 브라질 사람들이예요. 거의 엄마, 아빠가 밖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어려서부터 여기선 짜이라고 부르는데요. 짜아 손에 자라요. 그러다보니까 한국말보다는 포르투갈어 환경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들 손에서 밥을 먹고 뭐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국어를 엄마, 아빠랑 사용하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로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에게요. (참여자 1)

(2) 한글교육에 대한 한류의 영향

브라질 교포사회에서의 한류의 영향은 주변 국가에 비해서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교포들보다 브라질 사람들이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국이나 한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브라질 친구들에 의해서 교포 청소년들이 한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최근 들어서 한류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한글교육을 받게 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예전에는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우선은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교육원에 있다 보니까 교육원에서도 한국어 강좌 예전에는 한국사람들이 브라질 친구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브라질 친구들이 자기 한국친구를 데려 와요. 저희가 같이 하거든요. 강좌가. 인제 브라질 친구랑 한국동포랑 같이 수강을 하는데, '아유 어떻게 배우러 오셨어요?' 이러면 저 친한 친구 브라질 친구가 한국어를 좋아해서 따라오고, (참여자 3)

정말로 방탄소년단한테 감사한 게 K-Pop 때문에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 정말 많아지구요. 지금 자꾸 저희 아이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학교, 브라질 학교에서도 브라질 애들이 오히려 저희 한국에서 온 저희 애들보다 더 많이 아는 '너 한국 사람이지? 애네들 알아? 너 이 노래 알아?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개네들 때문에 그리고 K 드라마가 또 뭐 재밌잖아요. 그래서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드라마도 보면서 그래서 그 영향이 최근에 4년 전만 하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그거 배우고 싶어서 오는 아이들이 있고 궁금해 하는 아이들이 있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저희들 옛날에 어렸을 때 무슨 팝송가사도 모르고 그냥 그 들리는 대로 막 노래도 부른 것처럼 그러다가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같아요. (참여자 2)

(3) 한민족정체성 : 한국 방문과 역사문화 교육 필요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자란 동포청소년들에게서는 한민족의식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특별히

한국에 대한 경험을 하지 않는 한 자신은 브라질 사람이라고 명백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성장하면서 브라질이 최고라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어서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을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거나 한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한민족 정체성도 형성된다고 한다. 따라서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한국 방문의 기회나 역사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제 아이들이 '내가 한국사람이다'라는 의식이 정말 아쉽게도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난 싫어요. 엄마 아빠가 오라고 그래서' 쪼그만 아이들은 '배우기 싫어요' 완전 팔짱끼고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참여자 2)

너희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하고 물으면 일단 태어난 곳의 국적을 자기들이 그 나라 사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밖에 나갔을 때 너희 생긴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너를 브라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해도, 하지만 자기는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나라 사람이예요. 라는 말을 듣게 돼요. (참여자 1)

여기 있는 아이들은 브라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부모님들 자체가 브라질에서 여기서 잘 살면 되지가 더 커요 사실. 그니까 일부는 정말 한국의 정체성을 가르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솔직히 창피하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정체성 보다는 너무 오랜 시간동안에 저희 한글학교 아이들은 브라질에서 정착할 것을 목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여자 13)

아이들한테 제가 작년 12월, 1월 이렇게 방학 때 애들을 데리고 한국에 갔었어요. 그런데 저희 큰 애가 전쟁기념관을 한번 갔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랑 해서. 외할아버지랑 가가지고 막 뭐 보여줬어요. 2차, 저 뭐지? 6.25관부터 쪽 보여주고 그날 오니까는 기특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한국사람 인 게 자랑스러워요.' 그러더라고요. 뭐야? 막 이러니까 한국은 그렇게 못살던 나라가, 어 정말 세계에서 제일 못살던 나라가 이 짧은 시간 내에 정말 우뚝 서가지고 이런 자리까지 와서 나는 한국 사람인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니까 한국에서도 못 느꼈었는데 잠깐 나와 있다가 또 가서 뭔가를 보니까 막 정말 느끼고 내가 한국사람 이구나. 나는 국적이 브라질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한국사람 이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 그러면 안 시켜도 찾아낼 아이들이에요. (참여자 2)

정말로 정체성이 반쪽인 아이도 있고 정말 백퍼센트 한국사람인 아이들도 있고 그럼에도 자기는 브라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뽐뽐하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아~ 내가 한국사람 이구나’ 라고 이렇게. 근데 가장 아이들한테 좀 감동이 되는 거는 정말 그렇게 우리가 바닥이었는데 정말 못 살았었는데 그 교육열로 아니면 무언가로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는 그런 한국사람이다 라는 거를 집어넣어만 준다면 좋을 거 같아요. (참여자 2)

5) 진로

(1) 학부모들의 자녀의 진로에 대한 기대

브라질 동포사회의 학부모들도 한국의 학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법조인, 의사 등의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전문직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의류업에서의 수입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아직 큰 변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은 영향 등으로 자녀들을 의류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다른 전문직 일을 하게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니까 지금은 ‘아 우리 애는 의류업 쪽으로 이렇게 할 뉘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은 계신 거 같아요. 그니까 아직까지 눈에 두드러진 변화는 아닌 거 같고, 왜냐면 진짜 이게 안 좋은, 경기가 안 좋다고 여기서 제품 하나면 하루에 만 헤알 벌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데 아니어도, 그니까 의사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포 분들은 또 이제 한국 분들의 로망이 있잖아요. 법대, 그다음 의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들 보면 정말 치대, 법대, 의대 그렇게 많아요. 이제 아무도 그분들이 전공을 살리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여기 브라질 이제 모든 게 다 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변호사들이 많거든요. 한인 변호사도 많은 편인데, 제품하시는 분들 중에 법대, 의대, 치대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처음부터 저도 디자인이나 이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나갈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녀분들 하고 맞아서 이제 가면 괜찮은데, 본인들이 막 다 나중에는 의사나 이런 걸 만들어 보시려고 다 그렇게 보내놓고 결국은 ‘야 그거 밖에 못 버니? 너 그냥 내일이나 도와’, 막 이런 식이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3)

(2) 한국대학에 대한 관심 증가

그동안 브라질 동포들은 자녀들의 유학을 한국보다는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컸다. 특별히 한국에서 살 것도 아닌데 한국으로 유학을 보낼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류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한국과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보다도 한국으로의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한다. 한국으로의 유학이 많아진 이유 중의 하나로 학생들은 한국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외국 대학 출신보다는 한국문화에 익숙한 한국 대학 졸업자를 선호하고 있어서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부유층은 다 국제학교죠. 브라질이 남미에서 제일 많은 재외동포수를 갖고 있는 국가인데 한국으로 대학을 보내는 수는 제일 적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르헨티나보다 더 적다고. 그니까 아예 돈을 많이 번 분들은 여기서 이제 국제학교 보내고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이제 대학을 보내시고요, 아니면 여기서도 본인들이 여기 대학을 보내시죠. 여기서 아주 성공해서 돈 많아서 가지고 국제학교 보내시는 분들은 자제분들을 이제 한국이라기보다는 미국 쪽으로 유학을 보낼 생각을 하고 국제학교를 보내셨던 거고요. (참여자 3)

지금 제가 맡은 아이들이 중고생,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K-Pop이나 뭐 이런 한국 드라마 인제 인터넷 때문에 많이 보급이 돼서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꿈을 더 많이 키워요. 그래서 한국을 한번 갔다 왔다가나 하면 벌써 다음은 한국에 대학을 가겠다고 한국에서 살겠다고 이런 마음이 되게 커지고요. (참여자 1)

제가 상파울로, 상파울로에 있는 친구들은 한국에서 주재원 부모님이랑 와도 과거에는 막 '나는 아, 북미로 가야지, 나는 호주로 갈 거야. 캐나다로 갈 거야' 그랬는데 요즘에 저도 가서 다 보니까, 다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왜 북미로 갈 생각을 안 하나, '나는 그냥 한국이 좋다'고 다들 한국 가서 살 생각을 많이 하고 한국학생이 되게 많은데 놀다 와서 보니까 이번에 졸업한 사람 중에 반절이 한국으로 가고 반절이 미국이랑 캐나다 호주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참여자 6)

학생들이 한국으로 간다고 생각한 이유가 제 친구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인데, 한국 회사

한국에서 근무를 하실 때 면접 볼 때 받는 게 뭐죠? 이력서를 받는데 거기서 대학교가, 이사님이 계시대요. '외국인 애들은 싹 다 빼라.' 왜 그러냐니까, 물어보니까 '아, 외국에서 대학교 다닌 사람들은 한국문화에 그제 안된다. 그 사람들 일단 싹 다 제외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말 듣고 한국 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자기가 한국 만약에 외국으로 가면 한국사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소외될까봐 그런 생각으로 한국 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참여자 6)

(3) 한국 유학의 어려움 : 과도한 유학비용과 영어시험의 부담감

한국 유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유학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영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학비, 주거비 등 유학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브라질 학교에서는 영어가 필수가 아니어서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한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유학에 대해서 자신 없어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제가 아는 부모님들은 많이 보내고 싶어 해요. 많이 보내고 싶어 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조금 걱정이 되죠. 그치만 부모님들이 중간에 주춤하는 거는 비용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아이도 한국에다 넣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려고 그러면 너무 방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니까 인제 포기해 버리더라고요. (참여자 12)

영어가 안 되는 여기 교민아이들은요, 아무리 한국말을 좀 하고 포르투갈어를 잘한다고 해서 이 나라에서 공부를 잘 해도요, 영어가 영어시험에서 패스해야, SAT나 뭐 이런 시험 있잖아요? 그거를 반드시 봐야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또 12년은 괜찮은데, 12년에 영어가 되도 한국에서 또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12년이 채 안되는 아이들은 반드시 SAT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것을 좀 그렇게 부모들도 자신이 없어하고 아이들도 그 부분에서 좀 영어가 안 되니까. 여기는 기본으로 포르투갈어 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들은 보내고 싶은데 영어 때문에 못 보내는 그런 상황이 돼요. (참여자 12)

6) 정책제안

(1) 보충교재 및 역사문화교재의 개발·보급

가. 보충교재 개발·보급

교재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재를 세분화하든가 기본 교재를 보충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한글 자체만의 교육을 하는 기능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문화, 역사 교육을 위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

교과서가 별로 세분화 되어 있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같아서 저는 따로 교과서를 찾아서 복사해서 주로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 문제가 제일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 9)

기본이 되는 뭐가 있고 그 도와주는 참고서나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면은 훨씬 더 편할 텐데. 그래서 애네들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가르치는 입장에서 한국에서 자라온 입장으로는 자료가, 교재가 좀 더 잘 구비가 되었으면 포루투갈어로 되어있는.... (참여자 2)

저는 교과서에 대해서 교과서 안에 보면 한국문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에 대해서 조금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조금 더 풍부한 자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니깐 그렇게 좀 더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노래라든지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거뿐만이 아니라 명상이나 안 그럼 무슨 노래나, 그렇게 오려서 만들고 뭐 접기 그런 자료들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8)

교재부분, 이제는 한글 기능적인 거 말고요. 좀 정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좀 강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고요. (참여자 1)

나. 청소년들의 흥미에 부합하는 교재 내용 구성

브라질 현지 청소년들의 관심을 반영한 교재의 개발에 대한 요구가 있다. 전래동화라든가 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교재에 포함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임이나 이중국적자의 군 입대 등의 사례를 포함한 교재로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한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좀 뭐 전래동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스토리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청소년이라든지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한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생들이랑 조금 더 이제 교류를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을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시작한 게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아, 나는 한국 뭐 그 프로게이머를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근데 그 프로게이머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대. 한국에서는 뭐 이렇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다보니까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정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담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자기네들도 이중국적이다 보니까 남자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아, 너희들은 이제 군대 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뭐 그 외 학교에서는 한국학교는 이렇다 이런 것도 많이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들이 훨씬 관심이나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사이트라든지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참여자 5)

다. 다양한 역사교재의 개발·보급

역사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있다. 다만, 역사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상황과 다른 한국어능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의 수준, 그리고 연령 등을 고려해서 문서로 된 교재뿐만 아니라 시청각 교재, 포루투갈어로 된 교재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교재부분 다 필요하죠. 교재부분도 좀 이제 좀 하시는가 본데, 역사가 이렇게 좀 단계별로 유아서부터 고학년까지 여기 아이들 브라질 역사는 빠삭하게 알고 시험 보는데, 한국 역사는 단군 할아버지도 몰라요. 저는 그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1)

저희들이 역사수업도 해보려고 해서 간단하게 다 같이 강당에다 모아놓고 왜냐하면 저희 시청각이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다 모아놓고 틀어 주면 어떤 아이들에게만 한정된 관심 있는 만화를 틀어 주면 그 또래 애들만 보고, 한국말이 많고 조금 더 학구적이 되면 한국말 못하는 애들은 또 못 듣고, 포루투갈어로 한국말 역사를 되어 있는 자료들은 거의 전무하고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는 포루투갈어로 되어있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나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사정과 그 반별 특성에 따라서 좀 쉽게 골라서 쓸 수 있는...(참여자 2)

라. 교재 활용을 위한 지침서 개발·보급

현재 한글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재 지침서에 대한 요구가 있다. 한글학교 교재의 구성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구분에서 더 나아가서 성별이나 연령별 등으로 세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한글학교에 보급해주면, 교사들이 학생들의 특성이나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준은 보통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초급수준이 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초급수준에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가 한 어느 정도인지 근데 이 아이들한테 파릇파릇, 아장아장 이런 거 가르쳐주긴 몰라요. 근데 그거 하는 거 보다는 차라리 뭐 다행이다, 뭐 이런 거 좀 더 실생활에 왜냐면 나이가 많은 아이들한테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이거 안 와 닿고 공부하더라도 실생활에서 많이 안 쓰는데 동요를 가르쳐줄 수가, 좀 우선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좀 연령별로 남녀별로 다양하게 해주시면 이 정도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가르치기 훨씬 더 편할 거 같아요.(참여자 2)

(2) 주니어 토픽(TOPIK) 개발 및 지방거주자 시험 지원

가. 주니어 토픽(TOPIK) 개발 제공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의 한국어 사용능력을 검증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인 토픽(TOPIK)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시험으로 청소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글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도 토픽(TOPIK)이 중고등학생들에게 맞지 않는데, 억지로 시험을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한국어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상황을 고려한 주니어 토픽(TOPIK)이 개발되어 보급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토픽 아시죠? 능력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근데 이거를 원래 성인 대상인데 중고등학생 위주로 지금 시험을 중용하고 계세요. 이해가 되세요? 실적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도저히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는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거지 뭐 애들이 한국에 대해서 아는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니어 단계로 토픽 하나를 좀 만들어 주십사하고, 지금 현재로 간다면 일단은 언어 잘 사용해서 많이 배워서 기업에 진출해서 기업에 들어가서 통역업무 잘 해주고 번역업무 잘 해주고 이게 지금 한국인 아이들이 이중언어를 배우는 그냥 목적이예요. 그거 밖에 더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 거 같아요. (참여자 1)

나. 지방 거주 청소년에 대한 토픽(TOPIK) 지원

브라질에서 토픽(TOPIK)은 상파울루와 큰 도시 몇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규모가 작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토픽(TOPIK)을 보기 위해서는 큰 도시로 가야 하는데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한다.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토픽(TOPIK)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직접 보러 가기도 안 그래도 다 일들 하시고 학생인데 주말에도 그렇다고 저희가 주말에 시간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한글학교도 해야 되지만 저희도 학생이기 때문에 본업에 충실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하면 저희가 상파울로까지 가기는, 가는데 하루 시험보고 또 오는데 하루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업무를 업무대기가 힘들거든요. 커뮤니티에서만 해도 저희는 할 수가 있거든요. 저, 저번에 한번 상파울로에서 친구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한번 갔다 오니까 도저히 갈 업무가 안 나더라고요. 가는데 하루 가서 살짝 있다 오니까 주말 다 끝나있고 그니까 도저히 그때는 ‘아, 상파울로 한국어

시험이 있구나! 가기 전에는 ‘아, 한번 갔다 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는 인제 더 이상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참여자 6)

다. 통합된 레벨 테스트 실시

한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글 교육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한글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을 적절하게 테스트 할 수 있는 통합 레벨 테스트가 있을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한국어 수준을 테스트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레벨에 맞는 학생들을 반으로 조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저는 통합된 레벨테스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그런 테스트가 있으면 해요. 애들이 시험을 안치니까 훨씬 더 한글학교에 신경을 안쓰는 거 같고, 근데 시험이 있으면 약간 긴장이 되고 뭔가 좀 잘해야 되는 기분이 들잖아요. 레벨테스트 기간을 정해가지고 한 세 달이나 한 6개월 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 레벨에 맞게 애들 반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9)

(3) 교사, 학부모 대상 연수 및 교육 실시

가. 교사 연수의 필요성 : 교수방법 등의 개선

현재 브라질 한글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는 정식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교육내용이나 교수방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지 못해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역사나 문화 교육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역사문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재 보급과 함께 교사 연수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아 수업은 저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이런 거 있는데 확실히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정식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수업 면에서는, 좀 더 이제 많이 아쉽기도 하고.... (참여자 3)

그니까 제일 문제는 사실 교사진이에요. 일단 교사가 얼마만큼 뭐라 그럴까 어린 초등반에서는 얼마나 그 저, 심리학도 좀 해야 될 거고, 애들 교육하는데 그 답에 인제 교수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교수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어디 가서 연수를 해야 될 필요성을 꼭 느끼고 있어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참여자 18)

전에 말씀하신 문화적이거나 역사적인 그런 것도 가르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선생님도 그렇고 다 어릴 때 와서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무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자료를 받는 것도 받는 건데, 그런 교육도 따로 선생님들끼리 받아야 될 거 같아요.(참여자 7)

나. 지방 순회 교사연수 실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한글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는 연수를 받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라든가 시간의 문제 등으로 상파울루로 가서 연수를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특히,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이 크다. 이러한 교사들에게도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에서도 교사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상파울루에서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선생님들 세미나가 있습니다. 세미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참석을 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 중에서 선생님 한분, 두 분을 보내더라도 왕복경비 라든지 그런 게 사실은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보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 한 세 명 정도 모아가지고, 제 차를 가지고 아예 세미나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밤에 제가 데리러 가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다 저 대학생이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 보니까 그런 시간을 빼기가 쉽지가 않은 거 같아요.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안됩니다.(참여자 4)

저희가 차세대라서 조금 장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단점인 게 저희가 다 일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도 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학교를 다니시다 보니까 대학생, 고등학생 이러시니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매번 저희가 다 서류를 준비를

해놓고 다음번에 공지가 뜨면 꼭 (상파울로로) 가자고 해도 항상 주중에 날짜라든지 그래서 여기 와서 하면 훨씬 쉬운데....(참여자 5)

다. 차세대 교사 대상의 연수프로그램 개발

교포사회에서 차세대교사 양성의 문제는 주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에 비해서 차세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연수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나이가 어린 차세대 교사들 중에는 교사 연수를 받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자격제한으로 인해서 연수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물론 교사연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차세대 대상으로 하는 연수나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관련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포사회는 다 차세대가 얼마만큼 제1세대가 우리 차세대한테 잘 전해줄 수 있는가. 그게 저희 그거고, 숙제고 과제고 그 답에 제가 볼 때는 차세대 그 뭐라 그럴까요. 이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필요할 거 같아요. 중요하고.(참여자 4)

연수는 자격 그니까 자격제한이 여러 가지(나이, 졸업, 교사자격증, 교사 년 수)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우리는 한 번도 선택이 안 된 거 같아요. (참여자 4)

라. 학부모 대상의 교육 및 세미나 실시

동포청소년들의 한글교육에는 학부모의 역할이 매우 크다. 대개 브라질 학부모들은 특별히 보낼 곳이 없어서 한글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한글학교에 자녀들을 맡겨 놓으면 저절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학부모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포르투갈어 교육만을 받아서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매우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녀들의 한글교육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다 나아가서 학부모 대상의 교육이나 연수가 필요하다. 또한 학부모 연수에서 학부모들의 한국어 능력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님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한글학교에 놔두면 저절로 한국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애들이 아니, 학부모님들이 그니까 애들이 좀 더 한국어를 배우도록 격려하고 응원할 수는 방법, 아니 학부모님들이 설득해야 될 거 같아요. (참여자 9)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갭이 있거든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하면 반면에 반대로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눠 보다 보면 아무리 교포가 제 나이 또래라고 해도 거의 한마디도 못하세요. 저보다 더 이민을 한 5년 정도밖에 더 안하신 건데, 근데 여쭙보면 또 학부모들 말씀 들어보면 '아, 처음에 우리가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 이 아이가 포르투갈어를 못 배울까봐 집에서 포르투갈어를 하계끔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반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 학생들 교육 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좀 아우러서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저희한테는 주말학교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 하거든요. (참여자 5)

(4) 다양한 체험 및 교류프로그램 개발

가. 역사퀴즈대회 개최

동포청소년들의 역사 교육을 위해서 역사퀴즈대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현재 평통에서 진행하고 있는 퀴즈대회가 있기는 하지만 평통의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라서 어렵기도 하고 내용도 다소 어색한 것도 있다고 한다. 좀 더 체계적으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마다 주제를 선정해서 퀴즈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통일 골든벨을 일 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문제를 봤어요. 저도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통일 골든벨은 민주통평에서 하는 거라서 그쪽 문제만 내는 거라서 현대도 최현대사 근대사까지 해서, 74무슨, 뭐가 뭘 설명을 해야,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아니야? 공부 못하고, 안하고 이래서 그게 개네가 막 공부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이 있으면 애들이 더 하고 친구가 가면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좀 비슷한 것도 이런 퀴즈대회 같은 게 생긴다면 아이들이 좀 더 공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뭐 조선편입니다. 내년은 뽀니다.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면 아이들이,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참여자 2)

나. 한국 내 학교에서의 체험기회 제공

동포청소년들이 방학 기간 중 한국 학교 체험 및 한국어교육을 위한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 중에서는 자녀들이 한국에서 체험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으나 학교나 교육청 사정 등으로 실제로 원하는 학교에서 체험기회를 갖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동포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학교에서의 체험기회를 찾는 것보다 체험 프로그램을 시스템화 하여 동포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포청소년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의 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가서 학교를 보내고 싶었어요. 방학 때 근데 여기는 6월말에 방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7월말에 방학을 하니까 한 3주정도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제가 6월말에 방학하자마자 보내서 가기 전에 제가 그 한국에 있는 중학교를 중학생이니까 중학교를 다 전화해 가지고 '아, 우리 애를 청강생으로 받아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서울시내 모든 학교는 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제가 인제 약간 떨어져 있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새로 생긴 아파트 안에 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전화하니까 다행히 거기선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교복도 주고 교과서도 다 챙겨줘서 2주 동안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애가 그러고 와서 한국으로 대학을 간다고 마음을 딱 먹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가까운데 한국에 그나마 누가 있으니까 애는 그게 가능했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 그렇게 학교 가서 저기 집도 좀 개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있으면 사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2주일 학교를 체험을 했는데 수업시간에는 80프로를 못 알아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가서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방학 때마다 저는 보냈어요. 그니까 그 친구들하고 2주 동안 수업한 친구들을 갈 때마다 만나는 거예요. 그니까 한국이 좋아지는 거예요.(참여자 12)

다. 주재원 자녀 대상의 프로그램 개발

재외동포 대상의 연수 등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재원 자녀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고 있다. 주재원 자녀들의 경우에도 한민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의 중요한 자원이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청소년들과 교류하고 싶은 욕구가 크에도 불구하고 배제되고 있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근데 요즘 보면 뭐였지? 교포학생들한테 주는 혜택이 되게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같이 주재원 제외되는 거로 나와 가지고 그니까 주재원 자녀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좀 제외되기도 하고 그냥 애초부터 제외되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참여자 6)

지금 한국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연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재원은 안 들어가요.
(참여자 4)

해외에서 몇 년 이상 살아야 되고 학교를 몇 년, 최소 몇 년을 다닌 그런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참여자 5)

(5)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제도 개선

가. 모국방문단 지원 제도 마련

한글학교 교사나 학부모들은 동포청소년에게 한민족 정체성을 심어주는 가장 큰 방법으로 모국 체험을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부 한글학교에서는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에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모국방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모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이를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가 어려워서 오랜 기간 준비를 해도 한계가 있고 모국방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모국방문단의 프로그램을 도와주면 프로그램이 보다 풍성해지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이나 여성가족부 이런 데서 외국에서 모국 방문단을 하면 그런 거를 도와주는 그런 전담반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네요. (참여자 10)

저희가 일선 교사랑 함께 한글학교 아이들 한 30명 한국을 방문을 해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브라질은 지금 최악의 상태예요. 최악의 상태인데 그래도 부모님들은 그래도 다 보내고 싶어 해요. 제가 이게 한글학교를 맡고 교감을 맡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태어나서 한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이들이 90프로 이상이에요. (중략) 저희가 한국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가려고 해도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턱이 높더라고요.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형식적인 그런 서류들이나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몇몇 사람에게 특혜를 주느니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프로그램 정도라도 우리 학생들이 뭔가를 정말 보고 느끼고 돌아올 수 있으면, 저희가 사방팔방 일 년을 넘게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준비 하는데도 제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 외면하시더라고요. 말씀으로는 정말 한국에 찾아오면 모두 정말 정부도 해주고 모두 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여기를 다녀가세요. 근데 다녀가시면서 명함까지 주시고 다 하세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면, 우리는 다 자비 들어서 가는 거예요. 내 생활 다 희생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데도 만나주려고도 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16)

나. 장학생 선발 제도 개선

브라질 교포사회에서는 한국 초청 장학생 선발제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적에 따른 선발이 국가별로 다른 학업평가 시스템을 감안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며,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의 장학생 선발제도는 북미 중심의 선발제도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올해에는 한명도 장학생에 선발되지 않아서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없어서 실망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선발기준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이번에도 재외동포재단에서 저희가 작년에는 5명 초청 장학생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8명을 해서 저희가 보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3명이 됐어요. 5명이 가서. 이번에는 8명 중에서 한명도 안 뽑아 주신 거예요. 정말 그 서류 준비하느라고 이 가족들도 한국어 번역 그거 서류 한번 번역하는데 거의 진짜 500불 가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한명도 안 뽑아주니까 우리 보내는데 그거 진짜 서류 준비해서 보내는 데도 며칠간 우리가 직원들 이랑 그걸 했어요. 근데 한명도 안 뽑아주니까 그게 나라마다 나중에 해보니까 그게 성적

순 이었다 그러는데 나라별로 학교별 성적매기는 것도 틀리고 다 그렇긴 한데, 아~ 좀 좀 나라별로 하다못해 한명이라도 할당을 해서 해주시든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참여자 3)

저희 아이가 이번에 고 3인데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안됐어요. 그니까 그래서 제가 왜 안됐는지 여쭙봤더니 성적표에 관한 문제예요. 그니까 우리 남미하고 북미하고는 성적표 차이가 벌써 나는데 백분율 차이에서 벌써 북미는 그게 확연하게 나오지만 저희는 성적표가 백분율이 아니라 10점 만점에 얼마예요. 그러면 백분율 했을 때 백점 만점에 80점 받은 애와 10점 만점에 8점 받은 애는 점수가 같은 80점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는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데 그거를 북미의 제도에 맞춰서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 남미 아이들한테는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책으로 좀 더 남미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한테 맞는 거를 좀 더 오픈을 해주어야 된다는 거죠. (참여자 14)

장학생 선발과 관련해서 한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쿼터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한글학교에 노래 다닌 아이들에게 한국에서의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글학교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학생들은 다시 한글학교 교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사회환원 차원에 장학금을 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한글학교 내에 장학금을 주시는 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재외동포재단에 쿼터가 35명이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에 시스템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남미는 이번에 한명도 안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글학교 오래 다닌 아이들이 한국을 모국연수를 갔다 왔을 때,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을 때 그 아이들을 장학금을 준다면 한글학교를 꾸준히 다닐 수 있고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모국인 브라질에 왔을 때 정말 큰 자긍심을 가지고 한글학교 교사가 다시 될 수 있다는 거죠. 사회환원 차원에서 한글학교 내에 장학금을 주신다는 거는 대단히 좋을 거 같아요.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서 좋은 거를 배워오고 여기 돌아왔을 때 그 좋은 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다시 가르칠 수 있다는 거를 환원할 수 있는 거라서 로테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거 같아요. (참여자 14)

다. 전문직 진로 체험기회의 제공

브라질 청소년들 중에는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직종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다. 이들 중에서 일부는 한국에서 전문직으로의 진출이나 관련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일한 직종으로의 진출이 매우 어렵고 전문직 체험기회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치과 의사의 경우에 국시원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데, 한국 대학 출신자에 비해서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동포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고 한다. 또한 치과 의사로서 체험기회를 갖고 싶으나 그러한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고 한다. 재외동포 중의 우수한 인재를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전문직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동포 청소년들에게 관련 직종으로의 진출기회나 체험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제가 치과의사이긴 한데 제 동생이랑 같이 통역이랑 번역 쪽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중략) 저도 어느 정도 진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브라질도 브라질이지만 뭐 또 한국에서도 일을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한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면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가서 국시원 시험을 다시보고.... 한국에서는 국시원 패스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학생들은... 그치만 해외권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은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 꼭 이것보다는. 한국이 저의 분야에서는 어떤지 그런 것도 굉장히 배워보고 싶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아직 학생들이라서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조금 더 기회가 주어지고 한국 쪽에 각자 분야에서 한국은 좀 어떨지 이런 거를 더 가까이서 단기간이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일이니까 오히려 한 2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만 해도 전도사님처럼 아 오히려 한국을 가서 시험을 보고 2년 일을 하다가 오히려 2년 일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러네요. (참여자 5)

3. 아르헨티나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분석

1) 청소년 특성

(1)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특성 : 남미 국가 중 가장 적은 한류의 영향

아르헨티나는 국가적으로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특성이 강해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배타적인 편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인청소년들도 이러한 국가의 영향을 받아서 다소 보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남미지역의 국가 중에서 한류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파라과이나 제가 알기로 파라과이하고 칠레 하고 페루가 대표적인 한류에 열광적인 팬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좀 적은 편입니다.마는 그래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현지인 중에서도 우리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그 일부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의사소통도 좀 잘되고, 그리고 그 뭐랄까 소주의 뭐 매운 거 이런 걸 찾는 애들이 을 정도로 하여튼 한국문화에 대한 한류에 대한 이미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빨리 빨리 좋아지고 있습니다.(참여자 3)

그니까 특히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중남미를 통틀어 봤을 때, 한류열풍이 가장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굉장히 이 나라가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예요.(참여자 16)

제가 봤을 때는 아르헨티나가 상당히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문화적인 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면이 많고 또 굉장히 폐쇄적이예요. 그래서 자기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일단 배타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참여자 3)

(2) 한국 유학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

아르헨티나의 한인청소년들은 최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유학에 대해서는 다른 남미지역 국가의 한인청소년들에 비해서 적극적이지 않다. 아르헨티나 국립대학이 무료이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학비가 그리 높지 않아서 굳이 많은 비용을

써서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대학을 돈을 내고 다니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장학금을 받고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도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학 공립 같은 경우는 공립이나 국립은 대학까지 무료잖아요. 그리고 사립도 굉장히 싸요. 등록금이 한국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바라는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내고 한국에 유학을 가겠다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죠. 왜냐하면 정서상 대학교까지는 무료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크기 때문에 유학을 높은 비용을 주고 갈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한국에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무료로 가는 거죠. 뭐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무료로 가는 건데, 사실 한국에서도 무한정 무료로 받아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중남미 브라질도 마찬가지일 거 같습니다. 중남미에서 유학생을 유치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참여자 3)

(3) 재중동포 자녀수의 증가

중국 조선족 동포는 중국 내 대도시 지역으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한국과 유럽, 미주 등 전세계적인 이동을 하고 있다. 최근 남미지역의 경우에도 조선족 동포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도 그 규모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재중 동포가 현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에 재중동포 자녀수도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 아르헨티나 교민의 그 비중이, 저기 조선족이죠. 요즘은 재외, 재중동포라 그러는데, 재중동포 출신이 꽤 많습니다. (참여자 3)

(4) 마약에 노출된 청소년의 증가 추세

현재까지 아르헨티나 한인사회에서는 한인청소년들의 마약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꺼려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마약에 대해서 허용적인 국가의 분위기로 인해서 최근 마약에 노출된 한인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 부모들의 경우에 자신들의 자녀는

마약 문제와 무관하게 살고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대마초 흡연을 허용하고 있으며, 구입 비용이 싸고 구입도 용이하기 때문에 한인 자녀들이 쉽게 마약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향후 한인사회의 이슈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아이들이 마약, 여기 마약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우리 한인사회에서 쉬쉬 하거든요 쉬쉬 하는데 우린 다 알아요. 마약에 노출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급격하게 많아졌어요 자기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면 걸리는데 자기가 개인 복용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마약 합법이고 대마초 합법이고 그 학교 같은데 근처가면 다 사잖아요 돈 주고. 값이 무진장 싸요. 그러니 아이들이 다 노출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 한인 자녀들도 지금 많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여자 5)

2) 가정환경

(1) 현지어를 중시하고 한국어 교육을 경시하는 부모

아르헨티나 한인 학부모들에게는 현지어가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영어, 그리고 한국어는 세 번째가 되고 있다. 자녀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살아야 하고, 중학교부터는 아르헨티나 현지 중학교에 나닐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학교나 한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도 현지 중학교 과정에 적응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다. 그래서 한국어교육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어서 한국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마음을 상하는 경우도 있다.

그 학생들이 중학교까지는 여기서 나오길 바래요. 부모님들이.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갈라 그러면 여기 에스파냐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에스파냐어라고 안 그래요. 카스테샤노라고 부릅니다. 한국학교에 재학생이 한 200명쯤 되는데 거기서도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뭐냐 그러면 애들이 어차피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거기에는 중학교과정이 없으니까 현지 중학교를 가야되는데, 현지중학교에 가서 카스테샤노를 잘 못해가지고 학업성취에 지장을 받을지 모른다. 그런 염려가 많이 있어요. 그런 염려가 많은 것처럼, 그 애긴 뭐냐 그러면 우리 교민 어른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현지어에 좀 더 비중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참여자 3)

중학교 현지과정이 나가야 되니까 당장 카스테샤노와 현지과정의 수학, 우리 수학도 한국 과정은 못 가르쳐요. 현지과정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제 안 되는 거 그리고 영어를 중요시하고 한국어는 세 번 짹니다. 그래서 참 그런 큰 꿈을 품고 왔지만 한국어를 너무 열심히 하면 싫어한다는 걸 인제 저희가 알았죠. 그래서 너무 심하게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참 교장으로서 내가 참 책임감과 자존심이랄까 그런 게 정말 그런 게 하여튼 굉장히 좀 속상했습니다. (참여자 1)

(2) 현지 유모의 양육에 의한 현지어 접촉 환경

아르헨티나 한인가정들은 주로 의류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부부가 함께 일하는 맞벌이 가정들이 많아서 자녀들을 아르헨티나 유모에게 맡겨두고 일하러 나가게 된다. 따라서 한인 자녀들은 현지인 유모와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보다는 현지어 접촉 빈도가 높게 되어서 현지어는 잘 하지만 한국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젊은 엄마, 아빠 밑에서 이렇게 다니면 지금 다들 생업에 종사를 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유모들 그런 손에 자란 아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뭐 이 나라 말을 많이 소통을 하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참여자 2)

(3)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인식 부족

과거에 비해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자녀들을 한국학교나 한글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녀들을 맡기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편이며,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도 매우 낮은 편이다. 자녀들의 미래 진로를 위해 힘들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경우에도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 의미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한 이유로 향후에도 한인 자녀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부모님의 관심도가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이거든요. 아이들이 여기 나온 학생들이 자기 자발적으로 물론 성인들이나 큰 애들은 내가 필요, '아 내가 좀 한국말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인제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온 애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건 진짜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다 인제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미성년자들이고 근데 부모님들의 권유로 그런 의무감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관심도가 주는 거죠. (참여자 2)

학부모들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를 초빙해 갖고 여기 오시라 그러면 정말 열 몇 명, 스무 명 밖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대한 학부모 인식도 상당히 낮다는 거 분명히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할 것이고 학교에 정보를 줄 것이고 뭐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놔도 그럴 때는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고 어떨 때 오시냐면, 학예발표회 자기 자녀들이 발표할 때 수업 자기 아이들이 수업 공개할 때, 그때만 오세요. 그래서 참 저희들이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학부모들을 연수를 시키려다 안 오신다는 게 참 실망스럽습니다. (참여자 1)

각 교회에 학교 선생님들은 어떤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서 느끼는 것은 수업을 하러 가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는 탁아소 정도의 수준 밖에 생각을 안 해요. 대부분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던져놓고 가듯이.... (참여자 16)

(4) 부모들 사이에 물질만능주의 확산

아르헨티나 한인들이 현지사회에 정착하기까지 농장생활, 봉제, 의류 도소매업 등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을 겪었다. 현재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의류 도소매업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만족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한 영향에서 비롯된 것인지 상당수 부모들은 삶에 있어서 돈과 물질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들의 교육이나 직업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녀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선택보다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의류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웬만한 전문직 수입보다 높기 때문에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가졌다가도 수업이 변변치 않으면 전문직을 포기하고 다시 부모들이 경영하는 의류업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저는 부모님들의 교육관이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문제예요. 결국은 그래서 소유

지향적인 삶을 많이 추구하고 교인이지만 또 신자이지만 결국은 돈 잘되는 거를 택하게 되고 되게 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들이 바뀔 수가 없고 개들이 안 바뀌면 그 자녀들이 바뀔 수 없으니까 정말 잘 사는 게 뭔지 새로 생각해봐야 되고 소유를 쫓아가지 않고 의미와 가치를 쫓아가고.... (참여자 15)

직업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 지금 아이가 셋인데 유일하게 의류상에 안 들어가 있어요. 다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엄마들의 생각이 너무 물질에 치여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못 기르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고 그 전문을 살리도록 봐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당장 들어오는 수입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거 같거든요. (참여자 11)

교민자녀들이 변호사가 되고 회계사가 됐는데 일감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 재가 회계사라고 해서 취직을 해서 봉급 받아 오는데 봉급 얼마 안 되거든요. '너 그러느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가 가게 하나 내줄게. 와서 가게를 해라' 그게 훨씬 월소득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문직으로 나갔던 친구들이 다시 의류업으로 회귀를 한 거예요. 그런 역사를 지난 50년 동안, 인제 뭐 지금 이 역사는 지난 한 20년쯤 되었겠죠. 그렇게 회귀를 한 상태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는 커서 상가에서 의류사업을 하겠다, 의류 도매업이라든가 의류 소매업을 하겠다. 왜냐하면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점이 되게 좁아요.(참여자 3)

(5) 혼혈 자녀 가정의 증가

이민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동포사회 내에는 다른 민족의 구성원들과 결혼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 동포사회 내에서도 1세대에 비해서 1.5세대나 2세대들 사이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은 모두 한인 부모를 둔 자녀들에 비해서 평소에 한국어를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학교나 한글학교에 가게 되면, 같은 또래에 비해서 문화나 언어적인 능력의 차이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혼혈 자녀들로 하여금 한민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고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지금 저희 유치원에서 우리 학부모들 이렇게 보면, 혼혈, 외국 현지 부모 중에 한분이 현지인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개들은 자연적으로 한국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 문제라서 앞으로는 한국어가 참 많이 개들이 자꾸 올라오면 아무래도 부모가 다 한국인 부모인 자녀하고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참여자 1)

3) 교육 및 활동환경

(1) 한국학교

가. 교육과정 : 주 50시간의 힘겨운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학교과정에 대한 요구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아르헨티나 교육과정과 한국 교육과정의 2개 교육과정을 주 50시간씩 가르치고 있다. 1개 과정만 가르치는 다른 국가의 한국학교나 아르헨티나 현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서 수업부담이 두 배로 큰 것이다. 체력이 약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업 받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의 학생들은 졸업 후에 한국에 있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다니는 많은 다른 국가의 한국학교 학생들과는 다르게 아르헨티나 현지학교나 유럽이나 미국지역의 학교로의 진학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한국어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숙제 내주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부모들이 있다. 또한 한국학교에 중학교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아르헨티나 현지 중학교에 가서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과 적응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어서 중도에 한국학교를 그만두고 현지학교로 옮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카스테야노 현지과정이 더 중요하다, 한국어는 좀 못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영어를 중요시하고 한국어는 세 번째입니다.(참여자 1)

학부모들이 여기가 주가 아니고 카스테야노가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하고 싶어도 열심히 못한다는, 숙제도 심지어는 내주지 마라. 한국과정 숙제도 내주지 마라.(참여자 1)

오전 오후 초등학교에서. 주 50시간입니다. 힘들죠. 오후에는 체력 약한 애들은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꾸벅꾸벅 줍니다. 그럼 개들 뭐라 할 수는 없죠. 애들이 힘들어하니 사실은 힘들죠. 그래도 저희 학교에서 이게 같이 이루어지니까 이정도 학생 수가 되죠. 브라질이나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한국과정만 딱 있었거든요. 딴 애들이 하다가 오니까 학생 수가 그만큼 안 많죠.(참여자 1)

한국학교에 재학생이 한 200명쯤 되는데 거기서도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뭐냐 그러면 애들이 어차피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거기에는 중학교 과정이 없으니까 현지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현지중학교에 가서 카스테야노를 잘 못해 가지고 학업성취에 지장을 받을지 모른다. 그런 염려가 많이 있어요.(참여자 3)

중간에 다 애를 빼는 거예요. 졸업 안 시키고 빼는 사람들이 유치원 한 4~5세부터 빼서 현지 유치원을 보내기도 하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벌써 빼서 절로 옮기거든요. 그럼 물어보면 다 현지과정에 대한 불만이예요. 우리학교 현지과정에 대한 불만. 그래서 불안해서 현지학교로 빨리 보내서 현지 말을 잘하게 갈 때마다 안타깝죠.(참여자 1)

따라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한국학교에 중학교 교육과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하지만 한국학교에 중학교과정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동포사회의 협조, 특히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통 한국설립이나 새로운 교육과정 설치하는 한국 정부와 동포사회와 매칭 펀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동포사회의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학교 설립에 많은 사람들이 기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가 어려워서 중학교과정 설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중학교를 세우고는 싶은데 또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첫째 학교를 옮기려면 땅을 사야 되고 그답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지원을 한대도 50%는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준비에 대한 협조가 저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 같고요. 초창기 학교가 없을 때는 여러 독지가들이 학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가 옮긴다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실까 이분들이. 교회 같은 데는 기부를 많이 하시지만 학교가 이런 상태로 있는 거 보면은 학교에는 참 기부를 안 하신다. 제가 받은 느낌입니다. 교회 수양관 같은 데는 넓은 풀밭에 운동장과 건물과 이런 게 많은데 정말 처음에 학교 와서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 기부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참여자 1)

나. 교사 : 두 잡의 현지교육과정 교사, 전문성 갖춘 한국교육과정 파견 교사

아르헨티나 공립학교 교사들의 보수가 매우 낮아서 한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것으로는 생활이 곤란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2개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 학교에 전념할 수 없는 교사들의 상황은 교재연구의 부족 등 수업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학교에 나오는 교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황으로 한국학교 학생들과 부모들은 현지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현지과정 교사들이 보면 참 발전할 기회가 부족하다. 그리고 현지과정 교사들은 하루에 두타임 뛰거든요. 보통이 두타임 뛰거든요. 오전에 이 학교, 우리 학교 하다가 오후에 다른 학교 또 갑니다. 그럼 이 교사들이 과연 교재 연구할 시간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참 현지과정의 딜레마고 그럼 저희들이 우리 한국과정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현지어과정 교육과정도 백 프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참여자 1)

한국 교육과정의 교사들은 현지에서 채용된 교사들과 한국에서 파견된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지에서 채용된 교사들의 경우에는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로써 임시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파견된 교사들은 교사자격증을 갖고 공개적으로 채용된 사람들로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미지역은 최근까지 한국 교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 지역으로 교사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재작년부터 다시 파견을 받기 시작한 곳이다.

현지 채용교사들은 아, 현지과정 말고 한국과정의 현지 채용교사들. 자격증이 없습니다.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예요. 한국에서 파견 온 교사들은 자격증이 다 있고 전형, 서류전형 거쳐서 채용된 그런 분들인데 그럼 인제 올해 제가 와서, 재작년에 제가 와서 다섯명의 여섯명의 파견교사도 데려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한국과정 쪽은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이 일부는 영어를 가르칠 수도 있는 분이예요. 그래서 한국과정에 영어과정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국과정은 이제 갈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요.(참여자 1)

파견 교사가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가 재작년에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파견교사가 없어지는 대신 뭘 했냐 그러면 현지학교에서 이렇게 국내에서 고용해주는 형태로 해서 현지학교에서 고용을 했던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잘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수 교원이 배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국내 선생님들이 선호하지 않는 이런 열악한 지역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뽑아서 보내 줘야 된다고 해서 파견제도가 이집트, 남미 그리고 몇 개 나라만 이렇게 부활이 됐습니다. 그게 2015년 일 거예요.(참여자 3)

다. 학교 위치 및 시설 상태 : 위험한 지역의 학교, 낙후된 시설

아르헨티나 한국학교는 도시 변두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등하곳길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여러 학부모들이 강도를 만나서 물품을 빼앗긴 적이 있다고 하며 학교가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사 갔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었다. 한국학교 시설의 경우에도 최근 조금 나아진 점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으며,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여기가 위험한 지역입니다.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여기 주변이 강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거든요. 경찰이 물론 서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저도 와서 한두 달 돼서 강도를 만났던 적 있고, 주변에서 인제 학부모들도 우리 학교 오다가 휴대폰 뺏기고, 지갑도 뺏기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 대부분이 우리 학교를 옮겼으면 좋겠다. 안전한 곳으로.(참여자 1)

시설 보시다시피 한국에는 이런 교무실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 처음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초등에는 교무실을 바꿔놨는데 그리고 교실 같은데도 지금은 시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참여자 1)

(2) 한글학교

가. 학생

① 한국어 초급수준에 만족, 중학생부터 탈락률 높아져

한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초급수준을 마치게 되면 굳이 한글학교를 다닐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 그 시기가 대체로 중학교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중학생이 되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다. 한글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미래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의 진로와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제 초급수준을 마쳐 가지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 학생들이 더 이상 고급으로 갈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적은 수로 있어요. (참여자 3)

중등부 정도 되면 중학생, 고등학생 자기의 뭐라 그럴까, 진로나 자기의 그거 뭐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취미로 해서 시간을 할애를 해서 배운다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나 더 배운다든지 하죠.(참여자 5)

② 한국어 실력 차이가 학교 중도탈락의 원인

학생들이 한글학교를 그만 다니게 되는 이유가 고학년으로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같은 연령대 혹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학생들에 비해서 한국어 실력이 많이 떨어져서 창피함을 느끼게 되어 그만두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잦은 사용이 자녀들의 한국어 실력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연령대 하고 실력이 너무 천양지차 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놓고 보면 통상적인 기준에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잘해야 되는데 한글교육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부모님이 평상시에 우리말을 많이 쓰고 우리말 교육에 관심 있는 가정 애들은 초등학생이라도 말을 잘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중학생이라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뭐랄까 위화감이랄까? 그런 게 느껴져 가지고 나이 어린 애들하고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위축감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에이 뭐 당장 한국어 잘 못해도 여기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내가 꼭 이러면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서서히 그 출석을 안 해 버려요.(참여자 3)

적기에, 그니까 적기라고 말씀 드리는 건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의 고학년부터 중학교에 한 3년까지 그 기간 동안에 같은 나이 또래의 애들하고 웬만큼 소통할 만큼의 실력을 쌓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탈락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더라고요.(참여자 3)

③ 교사 및 교재 부재로 중도탈락

학생들이 한글학교를 그만 두는 또 다른 이유는 배울 수 있는 교재나 교사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 현재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한글학교에는 한국어과정이 초급이나 중급과정만 있고 고급과정이 없어서 고급과정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한글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설사 고급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고급과정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저희도 전문성이 또 없잖아요. 엄마들이다 보니까 그냥 아는 한글로 그리고 인제 프로그램이나 스티디코리안 거 보고 자료 뽑아서 하고 교재 뽑아서 하고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좀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고요. 저에게는 중급 6급 이상을 저희가 가르쳐줄 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6급을 받은 아이들은 거의 졸업식을 시킨 게 아닌데 졸업을 하고 선생님이 없으니까 지금 거기서 스톱한 거예요. 지금 한 대여섯 명이 중급 6급을 본 상태 토픽 마치고 나서는 안 나오고 여러 교회행사들 땀에 그게 어렵거든요. (참여자 10)

또한 현재 보급되어 있는 한글학교 교재의 경우에도 대부분 초, 중급 교재들이고 고급과정의 교재가 없어서 특정 한글학교에서 능력 있는 교사들이 고급과정을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중고등학교 정도 되는 애들이 초등학교서부터 공부했던 애들 중에서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애들이 많은데, 그 뭐 토픽, 토픽 중급에 지금 4급, 지금 4급까지 딱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니까 (중략) 지금 다 그냥 맨날 초급, 초급수준에만 써포트 하느라고 그러지. 진짜 어느 수준이 돼서 진짜 뭐 원주민도 그렇고 현지인 애들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그거 이상을 하고자 하는 애들한테는 재료가,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거기서 종료하고...(참여자 2)

나. 교사

① 교사 수의 감소, 차세대 교사 확보의 어려움

대부분의 한글학교 교사는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한글학교 설립 초기에 비해서 최근 학부모들의 한글학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한글학교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학부모님들의 열의도 많고 그래서 다들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한 십몇 년이 지나가면서 학생들이 많이 졸업하고 올라가고 이제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지 않으니깐 인원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이제 점점 손을 놓게 되는데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협조가 낮아서 교사수도 줄어들고 학생 수도 물론 이제 늘지는 않는데 참여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참여자 11)

현재 한글학교 교사로 참여하고 있는 교사들의 연령대가 40~50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30대나 그 이하 연령의 청년들의 경우에는 교사로서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미래 한글학교 운영에 대한 걱정이 많다.

헌신하고 싶어 하는 분들 중에 사십대 후반으로 사십대, 오십대가 이제 교사로 봉사를 하려고 하지 삼십대는 거의 없어요. 이삼십대는.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이 올라와서 이어져야 한글부가 계속 유지가 되고 할 텐데 청년, 청년들부터도 다른 부서에 가서 봉사를 하려고 하지 한글부에 와서는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좀 적은 거 같아요. (참여자 7)

② 보조 교사로 보충

한글학교 교사의 부족의 문제를 한글학교 졸업생이나 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로 보조 교사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다. 한글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도우미 선생님이로 참여 가능한 사람을 섭외해서 수업시간에 참여시킴으로써 임시방편으로 교사의 부족을 보충하고 있다.

교사부족 때문에 올해부터 졸업생들 중에서 제가 인제 다들 연락을 했어요. 와서 좀 도와 달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명이 와서 수업시간에 도와주고 있는데 도우미 선생님이라고 먼저 칭을 해서 학생들한테 꼭 인사를 드리고 그런 대우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사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보조 도우미 이상으로 생각하게끔 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참여자 14)

또한 학생들 중에서 한국어시험 결과가 좋은 학생들을 또래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학생들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어느 정도 고급 실력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전에도 교사가 부족하니까 인제 중고급 정도 인제 한국어 능력시험을 보고서 결과가 좋은 학생들을 보조교사로 해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게 했어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 계속 교사로 있으면 연결이 돼서 가는데 부에노스나 한국이나 이렇게 자꾸 빠져 나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 교사 조달이 좀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참여자 12)

③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연수의 한계

학부모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의 비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한글학교 교사 연수의 경우에도 교사들의 한글학교 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나 직장 생활로 인해서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교사 연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학교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주중에

는 직장 생활 다 하거든요. 여기는 산업근거가 의류산업이라 가정 소득에 있어서 역할이 여성역할이 훨씬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주로 한글학교 나오시는 선생님들 대부분 다 여자분 이세요. 남자는 있긴 있는데 아주 그냥 가뭄에 콩 나듯이 계시고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바쁜 거예요. 그니까 주중 내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데 주말에 와서 수업하는 것도 허덕지덕하는데 뭐 연수가 잘 안되죠. 양질의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전문교사로서의 어떤 역량강화 보다는, 그중에 최초의 접근 마인드 자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차원을 갖고 있고... (참여자 3)

다. 교재

① 현장성 있는 교재 개발 필요

한국에서 한글학교에 보급해 주고 있는 교재의 경우에는 현지 사정을 감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육원에서 만든 교재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 보급한 교재가 현지의 생활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중남미용이라고 교재가 와서 봐도 여기 교육원에서 만들었던 교재와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교육원에서 만든 자료가 좀 더 현실성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교재를 만들 수 있는 현지 바탕으로 해서 현지생활에 맞춰 교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료부분이 필요해요. (참여자 16)

② 중급 수준 이상의 교재 보급 필요

현재 아르헨티나 한글학교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은 초급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글학교에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초급수준의 수업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급이나 고급 수준의 한국어는 한글학교에서 배우기보다는 과외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배우고 있다.

여기는 한국어 교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굳이 수준을 나누자면 초급, 중급, 고급으로

쳤을 때 초급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니깐 그 원인은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중급이나 고급수준의 교육을 하려면 거기에 적절한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제 초급수준을 마쳐 가지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 학생들이 더 이상 고급으로 갈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적은 수로 있어요. 숫자 자체는 있는데 그렇게 한두명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긴 어렵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초급을 넘은 아이들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개인과외 형태로 중급, 고급 공부를 하게 되고, 거의 뭐 한글학교 수준도 한국학교 수준도 초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여자 3)

하지만 한글학교에 따라서는 중급 이상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서 이를 위한 교재의 제공이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본국에서나 재외동포재단에서 만든 교재라든가 본국에서 만든 교재의 그 수준이 그 항상 초급, 초급정도 수준 그 이상의 거는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지금 당장 제가 필요한 게 지금 중급정도 그 토픽을 볼 수 있는 아이들 그 수준의 그 교재가 필요한데 그 교재가 당장 없어요.(참여자 2)

③ 역사 문화교재의 부재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나 역사를 가르칠만한 교재나 자료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 한글학교에서의 역사 문화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견이 있다.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초급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역사교재가 있어도 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역사문화교육을 통해서 한국어 공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수준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한 한글학교에서의 역사문화 교육을 실시한 긍정적인 사례는 한글학교에서의 역사문화교육과 역사문화교재 보급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저희는 역사는 제가 공부한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어느 정도 쉽게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영어로서 문화 같은 거 역사 같은 거 하죠. 예를 들어서 8월 15일 같은 경우는 차레상 한번 차려놓고 그런 문화 같은 거는 충분히 하는데 그것 역시 영어나 다른 나라어로는 번역되는 것들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독 스페인어로 번역된 그냥

간단하게 만이라도 설명할 수 있는 스페인어로 번역된 그 내용이 굉장히 없어요. 여긴 아르헨티나는 없어요. (참여자 16)

역사교재가 지금 없어서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역사교재가 들어온다고 해서 활용도가 현재로 봐서는 높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건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그 뭐랄까, 다양한 그 우리가 공부하는 게 언어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같이 하는 거니까, 문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역사잖아요. 그니까 역사교재가 사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없는 게 사실이고, 현재 수준에서 역사교재가 있어도, 현재수준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참여자 3)

저희 처음 십년동안은 이제 언어를 위주로 가르쳤어요. 한국어 근데 쓰고 듣고 말하고. 근데 깊이가 있는 발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흥미도 많이 잃어가고 그래서 점점 개발하게 된 게 한국문화하고 역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는 한 달 동안 한국어 수업을 하구요. 그 나머지 시간에는 역사하고 문화 해갖고 3.1절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하고 문화 기반을 다져주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굉장히 즐겁게 배우고 그냥 공부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역사하고 문화를 미술하고 음악하고 해서 노래까지 다 배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다 짜여주니까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죠. (참여자 14)

라. 학교 운영

① 교회 중심의 한글학교 운영 : 교육적 효과의 문제 발생

아르헨티나에는 한글학교가 총 16개가 있는데, 대부분의 한글학교는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큰 한글학교에는 200명 내외의 학생들이 있고, 작은 한글학교에는 50명 내외의 학생들이 다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교가 16개가 있는데 그중에 좀 규모가 제법 되는 학교는 토요일한국학교, 토요일한국학교가 한 190~200명 정도 되고, 제일교회는 좀 크거든요. 제일교회 한글학교가 한 180~190명, 거의 한 200명 안 밖 되고, 그담에 순복음교회가 한 70~80명 정도 되고, 그담에 중앙교회가 2개가 있어요. 중앙교회를 갈라져 가지고 옛날엔 하나였는데, 이제 또 안에서 뭐 이렇게

신앙차이가 있는지 그러셔가지고, 갈라져가지고 2개로 갈라졌는데 거기가 합쳐 가지고 한 100여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한 40~50명 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참여자 3)

주로 교회에서 한글학교를 운영하게 되는 이유는 미래에 교인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과 교회에서 한국어 설교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회 단위로 한글학교가 운영되므로 인해서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글학교를 교회에서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주로 한인교회는 주로 한인 교민들이 다니시니까 그 교민, 그 교인이죠. 교민 교인의 숫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설교를 해주시는 목사님들이 주로 한국어 설교를 하시는데 교인들이 한국어를 못하면 설교를 이해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니까 장래에 교인 확보 차원에서라도 한국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효과가 있으려면 여러 개 작은 규모의 학교들이 모여서 일정 규모이상을 이루면서 하면 투입효과가 높을텐데 그런 교육 외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폐합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참여자 3)

② 소규모 반 편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학생들이 같은 연령대인데 한국어 능력에서 차이가 나면 함께 공부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연령대와 수준을 모두 고려하여 학급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학급이 소규모로 되게 되며, 그에 따른 교사나 관련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좀 나이가 많아도 수준이 낮으면 낮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나이대가 너무 차이가 나면 같이 수업하기 꺼려 하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반편성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한반에 인원이 적으니까 교사투입이 많이 돼야 되요. 예산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진행하기에는 사실은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다.(참여자 3)

(3) 한글학교협의회

가. 구성 및 특성 : 교회와 연계되어 자생적으로 구성된 튼튼한 조직

아르헨티나 한글학교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은 올해로 12년째 되었다. 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글학교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한글학교가 소속된 교회로부터의 지원과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서 특별히 재정상의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글학교가 자생적으로 생겨서, 협의회까지, 협의회 생긴지 12년, 11년 됐나? 12년째데, 아주 자생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아주 조직이 탄탄하고 뭐 이렇게 와해될 것도 없고, 또 자발적으로 다 모여서 하고 아 근데 여기가 좀 특이한 게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들이 돼 있단 말이예요.(참여자 5)

여기는 16개 중에 4개 바달로체 빼고 지방학교 빼고, 지방학교 빼고 여기는 두 개만 빼고 10개가 교회하고 성당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깐 협의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회하고 연결이 돼 있는 점, 특수한 그런 협의회라고 생각을 하구요. 또 교회에서 예산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예산이 있어서 한글학교 예산 지원해주고 또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받고 그래서 재정이 사실은 튼튼해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뭐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지금까지 donation을 일원도 안 받고 운영을 했으니까... (참여자 5)

나. 주요 사업

① 교사연수 : 자체적인 전문성 향상의 기회

아르헨티나 한글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교사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한국어교육은 초급수준 정도를 가르치고 있으며, 역사교육의 경우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글학교협의회에서는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러한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일 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연수 강사들은 아르헨티나에서 자체 조달할 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에서 초빙하고 있다.

큰 행사는 전반기, 하반기 상반기 해서 인제 연수교육이 있고 그것도 이제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요. 교사들이 배울 데가 없으니까 상하반기 나뉘어서 자체 연수를 시키고 연수강사는 자체에서 뽑기도 하고 중남미에서 모셔오기도 하고 일 년에 이렇게 두 번 합니다.(참여자 5)

② 골든벨 대회 및 역사문화캠프 : 한글학교 역사문화교육의 대안

최근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한글학교에서는 교사나 교재 등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역사문화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한글학교협의회에서는 골든벨대회와 역사문화캠프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골든벨대회는 평통에서 하는 통일골든벨과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문화의 3개 주제를 가지고 퀴즈대회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한국어 향상은 물론 한국역사와 한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평통에서 하는 통일골든벨이 있고 그건 주제가 명확해요. 통일에 대한 거예요. 그니까 국내에 어떤 대북관계라든가 안보 통일 이런 데에 대한 주제가 명확한 거고..
(참여자 5)

저희 한글학교 학생들만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문화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제 골든벨 퀴즈 대회를 하는 거죠. 상품도 크게 걸고. (참여자 5)

역사문화캠프는 개별 한글학교에서 역사문화교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한글학교들이 연합하여 3박 4일 정도의 캠프를 통해서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회와의 협조를 통해 교회 수련원을 빌려서 1년에 한 번씩 캠프를 개최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참가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역사문화캠프라는 건 이제 학교에서 3교시를 하는데, 일주일에 3교시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언어 배우기도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는 뒷전이야 항상. 인제 거의 그러니까, 거의 자체적으로 역사교육을 못하니까 우리가 그럼 합동으로 하자 그러면, 그래 가지고 매년 1년 한번씩 3박4일 해서 다 모여가지고 야외로 나가죠. 야외로 나가서 전통문화도 가르치고 역사도 가르치고 그게 가장 큰 행사예요. 보통 오는 아이들이 백 한 이십 명? 백 명에서 백 이십 명은 와요. 근데 역사문화캠프를 하다보니까 제한이 있어, 나이가 열 살 아래 애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열 살부터 그 이상 열여덟 살까지.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한 백 명 정도, 점점 더 늘어나요.(참여자5)

역사문화캠프의 운영장소는 저희가 교회 수양관 있어요. 교회 수양관이 굉장히 넓고 시설이 좋은데 26만평이에요. 거기 시설도 있는데 아주 싸요. 거의 실비로 그걸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3박 4일, 그 한 거죠. 숙소도 다 되어 있고.(참여자 5)

다. 한글학교협회의 전망 : 중추적인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아르헨티나 한글학교협회에 대한 미래의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재외동포재단에서 실시한 246개 사업 중에서 아르헨티나 한글학교협회가 수행한 사업이 선정되어 우수상을 받게 되었으며, 그러한 사실이 교민사회에 알려지면서 한글학교협회에 대한 교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글학교협회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재외동포재단에서의 지원이 확대되면 될수록 한글학교협회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 한국에 공식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데 한글학교 협의회는 단체등록이 안되어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저희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았고 천개 한글학교 중에서 지원금은 다주는데 다 이천 개를 다 주는데,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하면 심사해 가지고 돈을 더 주죠. 그게 246개 학교가 더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안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돈 조금 주고, 한 삼천불 주고 보고서 내라고 이게 장난이 아니니까 안 해요. 근데 저희는 그걸 했는데 246개 학교 중에서 저희가 우수상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민사회에서도 우리 한글학교 협의회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어? 재네들 뭐하는 애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인제 관심이 많아졌고 그래서 협의회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재외동포재단에서 협의회 운영비까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이 협의회는 더 커지고, 또 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글학교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참여자 5)

(4) 방과 후 청소년활동시설 부재

아르헨티나에는 한인청소년들이 방과 후나 주말에 특별히 갈만한 활동시설이나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대개의 경우에 부모들은 교회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글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게 된다. 즉, 교회나 성당 등의 종교시설이나 한글학교가 한인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방과 후에 일상적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은 없다.

부모 입장에서 애네들이 너무 방과 후나 주말에 교회학교 외에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활동이 없잖아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니까 이 한글학교를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서 보내시는 부모도 계시지만요, 한편으로는 애가 어디든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넣어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없진 않다보니까 부모는 그냥 데려다 주고 넣어 놓으면 끝. 그 다음은 데리러 오는 것도 제시간에 안와서 한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요. (참여자 10)

학생들이 뭐 한글교육 받으러 오긴 오지만 또 개인적으로 주말에 다른 약속도 많고 개인 활동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결석하는 경우도 꽤 있는 거 같고요. 그렇게 파악이 되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출석률을 굉장히 독려를 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아르헨티나 한글학교는 출석률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참여자 3)

최근에 한인사회 내에 한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독서실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단체에 회의실을 임대해 주는 공간이 생겨났다. 청소년활동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아르헨티나 한인사회에서 처음으로 한인청소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씨가 독서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독서실을 만들어 놓고 자기 돈 투자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고 실비를 받으면서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또 우리 단체 같은데 회의하는 거 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그 ○○○씨가 시작을 했어요. 그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 YMCA처럼 어떤 조직력을 가지고 지원도 좀 받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그거를

공식적으로 키워야 되겠다. 근데 뭐 첫발을 그렇게 디뎠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참여자 5)

4) 한글교육 및 정체성

(1) 자녀들의 한국어교육 : 1.5세대 부모의 관심 및 협조 부족

현재의 아르헨티나 학부모들은 세대별로 볼 때, 1.5세대, 2세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한글교육의 관심과 협조는 1세대 부모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세대들은 한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비해서 1.5세대 부모들은 한글학교에서의 봉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1.5세대 부모들 중에는 어릴 때 이민 와서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현지어를 편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더욱 더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1세대 학부모들이 교사 봉사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된다는 열정이 상당히 높으셨거든요. 그사이 한 십 몇 년 지나가면서 그 세대가 빠져나고 지금 1.5세대가 학부모들이 되었는데 현저하게 협조도가 낮아요. 애들은 그냥 보내려고 하는데 봉사 자체는 하지 않으시려고 그냥 그렇게 해서 관심이 조금 한발 뒤에서 물러서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참여자 13)

지금 보내는 부모님을 보면, 1.5세 부모들, 1.5세대 10대에 온 1.5세대가 있고, 애기 때 온 1.5세가 있잖아요. 근데 십대에 온 사람들은 애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계세요. 애가 한글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중에 50%는 보내시고 지금 1.5세 애기 때 온 사람들은 2세대랑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부부도 다 이 나라 말 카스테샤노로 하고 한국말을 못하니까 애도 못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카스테샤노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카스테샤노, 학교에서도 카스테샤노를 하니깐, 만약에 한글학교 안온 학생들은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한글학교에서 배우려고 하진 않거든요. (참여자 10)

아르헨티나 초기 이민자들은 아르헨티나에서 자녀들이 주류사회에 진입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한 영향에서 1.5세대 중에는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 수 있다. 현재의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한글교육을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1.5세대 부모들에 대한 관심과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음 이민 온 사람들이 이 나라말을 배워야 된다고 한국말을 안 가르쳤어요. 이 나라말을 배워야 성적을 따니까 안 가르쳐서 청년부에 있는 애들이 한국말을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이 나라말만 써요. 근데 지금 어린이들은 한국말을 해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지금 한국말을 더 잘하고 한국말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청년부에 있는 애들은 배우기조차도 싫어해요.(참여자 11)

문제는 부모님들이 지금 1.5세대들이잖아요. 한국말을 잘 가르치지 않으려고 그런단 말이예요. 우리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 부모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줄 거예요. (참여자 5)

(2)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 : 엄마, 할머니와 할아버지, K-Pop, 한국방문 경험

한인 자녀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어머니,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의사소통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K-Pop, 한국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도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한국 방문을 통한 직접적인 체험 기회도 한국어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1세대에서 1.5세대, 2세대, 3세대 등으로 세대가 바뀌어갈수록 점차적으로 한인들의 한국어 사용이 줄어들 수 있지만, 가정에서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한국문화 환경에 대한 접촉 기회의 확대는 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활용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엄마들을 보면 거의는 가르치는 일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지만 자녀에 교육열이 있는 엄마들이 있어요. 한국말을 배워줘야 한다. 이런, 그런 자녀들을 가진 엄마들은 한글부에 와서 선생님을 해요. 그건 자식을 위해서 가르칠 필요성을 느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엄마들

또 부모가 한국말을 하면 말은 잘해요. 2세대, 2.5세대인데도 마찬가지로 2세대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내려오는 집에 따라서 있는 거 같은데 부모가 한국말을 뭐 거의 못하면 이 애를 갖다 넣어봐도 발전이 별반 없어요. 한글학교에 갖다 넣어봐도 부모가 집에서 쓰지 않으니깐 성장을 잘 한국말을 잘 못 따라 가는 거 같아요.(참여자 11)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가정이란, 또 없는 가정이란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말밖에 못 알아들으시니까 그냥 개네들도 의식적으로 한국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그런 집안에 있었던 애들은 어려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그나마도 좀 한국말이, 좀 잘 소통이 되는데..... (참여자 2)

요즘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게 그 K-Pop 하고 드라마, 자기네들이 서로 공유를 하고 보는 거예요. 말이 엄청 빨리 늘었고요. 글씨도 그냥 막, 그냥 막 써요. 그래서 깜짝 깜짝 놀라는데 2세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지금 인제 변하는 과정인거 같아요. 옛날에는 K-Pop이 없었고 거의 없었고 지금 딱 생긴 거예요. 그니까는 이 아이들이 커서 부모가 됐을 때랑 또 맘이 달라질 거 같아요. (참여자 13)

요번에 학생이 청년이 한국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국말 못하니까 창피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국을 가니깐 한국어를 못하니까 창피하다는 거예요. (참여자 12)

(3) 아르헨티나 한인청소년들의 정체성 : 언어 상실에도 한인정체성 유지

아르헨티나 한인청소년들은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국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아르헨티나인들과는 다른 한인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언어는 비록 현지어를 사용하더라도 아르헨티나인들과 자신들은 구분되고 있으며, 한인청소년들끼리 함께 있을 때 그 동질감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한인청소년들이 한글학교에 나오게 되는 이유도 그러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인사회 내 문화풍속과 가족 내의 일상 생활문화 등은 모국 언어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한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고 우리 한국사람 가족 안에 어느 정도 그런 생활습성이나 그런 풍습은 물론 꼭 한국, 한국말로 전달이 안 되더라도 생활에서 젓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애들이 다 의식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꼭 뭐 애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애는 뭐 완전히, 뭐 의식이나 그게 다 아르헨티나나 뭐 그렇게 판정을 지을 수 없고, 자기 자신들도 우리 우리아이들도 같이 보면 뭐 그런, 여기 애들은 엄격히 얘기해서 자기도 여기서 태어난 애들인데도 구분을 그 여기 애들이란 게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하고 애들은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무슨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난다든가 이런 얘기를 카스테샤노 이 나라 말로 다 설명을 할망정, 그렇게 구분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참여자 2)

한국사람도 뭐 현지인들이랑 결혼한 사람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뭐, 진짜 손꼽힐 만한 진짜 극소수와 아직까지도 여기 뭐 성당이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국아 이들끼리 이런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모여도 이야기는 다 카스테샤노로 해요. 그렇지만 같은 그 동질감,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 오겠지요. (참여자 2)

5) 진로

(1) 직업세계에서의 동양인에 대한 차별 : 전문직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의 한계

아르헨티나는 보수적이고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성격이 강해서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인들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으로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도 이것과 관련된다. 외모가 다른 동양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아르헨티나인들 중에서 고객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한인들 대상으로 일을 해야 하지만, 한인들은 그 규모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전문직으로서의 성공을 거두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전문직을 많이 길러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그 어떤 그 민족적인 배타성이라 그럴까. 같은 동양인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보이지 않는 차별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니까 이분들이 변호사나 회계사나 의사나 그 뭐니까, 좀 전에 말했던, 아무튼 전문직이 됐는데 이분들이 전문직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고객이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객이지. 그런데 아르헨티나 현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이 변호사 두 명이 있으면 아르헨티나 변호사를 쓰겠습니까? 한국인 출신 변호사를 쓰겠습니까? 외모도 다르고 아무래

도 언어도 같다고 하지만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줄어들어요. (참여자 3)

(2) 아르헨티나 청소년들의 진로관 : 적당히 장사나 하고 살면 되지~

아르헨티나 청소년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첫째 유형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그 후에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둘째 유형은 미래에 대해서 특별한 꿈을 갖지 않고 적당히 지내다가 부모님의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첫째 유형도 막상 현실에서는 그 꿈을 접고 다시 부모들이 하는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의사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도 수입이 변변치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들이 장사나 하라고 해서 전문직을 포기하고 장사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롤 모델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적당히 장사나 하고 살면 되지 하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미래 진로에 대한 비전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실제로 지금 여기 이십대 되는 청년들 보면 두 부류예요. 하나는 열심히 대학 다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꿈 갖지 않고 적당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는 친구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한국어 배워라 그러면 뭐 한국어 왜 배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데 한국어가 필요 없으니까. (참여자 3)

이제 하다가 안 되면 아부다시에 가서 장사한다. 애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거는 부모들한테 다 들은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렵게 의사공부를 해 갖고 의사자격증을 따지만 돈을 많이 못 버니까는 아부다시에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변호사 심지어 따놓고는 장사 다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모델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이나 교포 교민들 사이에서 누가 성공한 사람이 없잖아요. 기업가는 물론 있겠지만 애들이 그런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참여자 1)

(3) 한국으로의 유학 : 소수의 학생들이 관심

아르헨티나는 남미 국가 중에서 한류의 영향이 작은 국가이기도 하지만,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에 한국으로의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파라과이나 브라질에서의 경우에 비해서 훨씬 적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까지 그 한 중급, 중급수준에 도달하는 아이들을 가르쳐 봤는데 그중에 한, 한두명은 그니까 한국으로 진학 하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니까 그게 그런 경우가 매번 있는 건 아닌데, 뭐 가끔 있어요(참여자 2)

워낙 뭐 거리가 멀어서 부대경비도 많이 들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록금을 내고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연령대, 고등학교 졸업학년에 있는 부모는 한국에 있는 대학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어떻게 가면, 첫 번째 질문은 무료로 가는 거지만, 그거 이외에도 기꺼이 돈을 내고라도 보낼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가면 좋고 어딜 가면 좋으냐? 하는 문의가 꽤 들어옵니다. 요즘에는. 그니까 늘어난다는 거고 현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현지인들이, 현지인들이 한국에 간다는 것은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알기로는 아르헨티나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국에 유학 갔다는 사람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고.. (참여자 3)

(4) 주류사회 진출의 전제조건 : 돈보다는 새로운 가치 추구

동포사회의 구성원들이 거주 국가에서 주류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온 돈과 물질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전문 직종으로 진출하여 거주 국가나 인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동포사회 구성원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살게 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거주 국가에서 동포사회가 인정받는 것은 힘들고, 동포사회가 발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포사회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의 추구가 필요한 때이다.

직업 옛날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돈이 많으면 되지 않았지만 진정한 주류사회를 진출하는 거는 부모가 뭐냐 사립학교에서는 관점은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상업이 돈 많고 돈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제가 직업이 되게 뭐라 그러지? 애들 생활기록부에 부모님이 직업 적잖아요. 거기에 내가 개인 의사냐 아니면 변호사냐 라고 했었을 때 학생들 그 학교 자체에서 이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지거든

요 지금은. 그리고 또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 그런 부모를 부르기도 해요.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주류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정말 공부를 한국어도 굉장히 중요 하지만 지금 사회에서 가장 여기에서 뭐 크게 교포사회에서 그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뭐지? 돈 그거는 이제 배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돈으로서 아르헨티나에서 큰소리 칠 수 없다는 거를 제가 느끼고 있어요.(참여자 16)

6) 정책제안

(1) 모국과 거주국가와의 관계 증진 : 현지인과의 교류를 위한 디딤돌 역할 필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동포사회에서도 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모국에서 거주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거주 국가에서 동포사회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이 형성되면 아르헨티나인들과의 관계가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 아르헨티나 시정부에서 추진한 프로젝트를 한국교육원에서 참여하여 운영함으로써 현지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킨 사례도 있었으나 중단되어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

동포 자녀들은 여기 교민사회나 뭐 이렇게 물론 신경을 써야 되지만, 현지인들하고 가장 잘 어울릴 수 있게끔 본국에서 아르헨티나면 아르헨티나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에 그 보수적인 거를 깨줄 수 있는 역할만 해주시면, 본국에서 그것만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교포사회나 아니면 저희 1.5세라든지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16)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각 국립학교에 오후시간에 무료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시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우리 교육원에서 주최를 해서 시범으로 운영했었죠. 시범 운영을 6개월 하고 그 다음에 일년 정도 하다 그만뒀죠. 그걸 계속 유지를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국에서는 재외동포 자녀가 중요하겠지만, 이쪽부분도 신경을 쓰면 어차피 글로벌화시대니까 다 섞어서 융화 되면 관심이 유발되고 좋은 효과를 보겠죠.(참여자 16)

(2) 부모 대상의 교육 실시 : 동포사회 변화의 시작

아르헨티나 동포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부모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물질과 소유에 중심을 두는 삶보다 공동체의 발전과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부모들이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포사회의 발전은 차세대인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지만, 그 출발점은 부모의 의식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저는 부모님들의 교육관이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문제예요. 결국은 그래서 소유 지향적인 삶을 많이 추구하고 교인이지만 또 신자이지만 결국은 돈 잘되는 거를 택하게 되고 되게 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자녀들이 바뀔 수가 없고 개들이 안 바뀌면 그 자녀들이 바뀔 수 없으니까 정말 잘사는 게 뭔지 새로 생각해봐야 되고 소유를 쫓아가지 않고 의미와 가치를 쫓아가고 누리는 삶이 아니고 아까 기부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이들 돈 주면 기부함을 따로 두더라고요. 자기통장 따로 있고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세 살짜리도 donation하고 이거를 체질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수익의 30%까지 donation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되고 문화관, 이런 건 참 필요한데 이게 돈이 드니까요. 그래서 교민단체의 관심,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교육시켜야 되고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현장이 있어야 되고 현장이 있고 또 교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좀 고민을 해보고 한국과 여기 현지 리더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원장님 오셨을 때도 계속 그랬어요. 학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학부모교육이 필요해. 자녀들에게도 필요하지만...(참여자 15)

(3) 역사문화교육 실시 : 한글교육의 촉진제

아르헨티나 한글학교에는 특별히 역사문화교재가 보급되어 있지 않다. 한글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높지 않고 교사들의 경우에도 역사문화 교육을 시킬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한글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시간을

쫓겨서 역사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역사문화교육은 지루해지기 쉬운 한글교육을 보완해서 흥미를 갖고 한글교육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한글학교에서 역사문화교육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저희 처음 십년동안은 이제 언어를 위주로 가르쳤어요. 한국어 근데 쓰고 듣고 말하고. 그런데 깊이가 있는 발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흥미도 많이 잃어가고 그래서 점점 개발하게 된 게 한국문화하고 역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월 달에는 저희 한 달 동안 한국어 수업을 하고요. 그 나머지 시간에는 역사하고 문화 해갖고 3.1절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 하고 문화를 기반을 다져주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호응도도 높고 굉장히 즐겁게 배우고 그냥 공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사하고 문화를 미술하고 음악하고 해서 노래까지 다 배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다 짜여주니까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이 한국문화예요. (참여자 14)

(4) 세계골든벨대회 개최 : 한글교육의 활성화 계기

현재 중국,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골든벨대회를 세계 대회로 발전시키면 한글학교 교사들이나 동포청소년들의 관심이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별로 골든벨 예선대회를 실시한 후에 한국에서 최종 결선대회를 하게 함으로써 모국방문에 대한 희망과 열정으로 보다 많은 동포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에 국내에 주무부처가 있어가지고 그게 재동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교육부가 됐든 해서 각국의 한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가 한글교육이라면 한국어능력에 대해서 우수한 사람을 보내서 대회를 한다면, 이게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거 같아요. 저희가 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아르헨티나를 대표해서 가는 거니까 뭐 우수한 자원들 참여하도록 독려도 할 것이고 뽑아서 가서 국내에서 대회를 하면 비용은 꽤 많이 들어가겠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회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보긴 했었어요.(참여자 5)

(5) 중남미 역사문화캠프로 규모 확대 : 역사문화교육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성장

아르헨티나 역사문화캠프가 재외동포재단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역사문화캠프에 대한 아르헨티나 동포사회에서의 반응이 매우 좋다. 또한 중남미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역사문화교육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입증된 역사문화캠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남미지역 청소년들의 역사문화교육을 활성화를 위해서 아르헨티나 역사문화캠프를 중남미지역 역사문화캠프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예산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 함께 모국에서의 강사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항상 재외동포재단에서 1/3밖에 안줘요. 만불 필요하다 그러면 삼천불 주고 삼천불은 애들한테 회비 받고, 삼천불은 우리 예산으로 하고 독지가들한테 받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3박 4일 하거든요. 이걸 한 일주일정도 좀 대폭 늘려가지고 강사들도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지원받고 또 이래가지고 정말 크게 이렇게 하면 중남미에서도 제가 이번에 꿈이, 중남미에서도 개방을 했었어요. 다 와라, 근데 한명도 안왔어. 근데 이게 인제 우리가 우수상도 받았고 하다보면 근교에 있는 아이들은 브라질이나 이런 애들은 다 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남미 전체에서 가장 멋있는 역사문화 캠프는 저기다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참여자 5)

(6) 봉사활동 증명서 발급 : 차세대 교사 양성을 위한 수단

최근 차세대 교사 양성이 한글학교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역사문화캠프에서 열여덟 살에서 열아홉 살의 청소년을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보조교사로 참여시켜서 운영한 경험이 있다. 어느 정도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 인증서를 발급해 주어 한글학교 활동에 보조교사로 참여할 기회를 줌으로써 향후 차세대 교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우리 역사문화캠프에서 우리 총무님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차세대교사에 항상 우리가 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열여덟 살에서 열아홉 살짜리 아이들을 참여시켰어요. 개네들이, 개네들이 뭐 배우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아, 니네들한테 이런 증명서를 해줄게. 한글학교협의회장 명의로 몇 시간 봉사했다’ 그래서 왔죠 몇 명 왔어요 여섯 명이 왔는데 애 네들이 열여덟 살 밖에 안 된 애들이 선생님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업 된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교사를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번에 역사문화캠프 하는데 또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니까 그 학교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토픽 4급 이상 맞은 아이들 있죠. 전 토픽감독관으로 들어갈 때 그 신상을 다 제가 적어놨어요. 6급 받은 애도 있고 5급 받은 애도 있고 개들이 좀 있다 한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아님 여기 남아 있게 되든, 남아 있으면 반드시 한글학교 선생님이 돼야 된다. 그니까 지금부터 각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을 참여를 시켜서 보조교사로 시키고 증명서를 끊어주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키워나가야 될 거 같아요.(참여자 5)

(7)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센터 설립 : 방과 후 청소년체험 및 활동 기회 제공

동포사회는 주로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져 왔고, 그 이외에 동포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찾아갈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다. 모국을 떠나 낯선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거주국 사회에서의 정착에 신경을 쓰느라 동포사회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동포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YMCA와 같은 청소년단체의 설립이나 청소년센터의 건립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험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반영이 되면 더욱 더 애들에게 좋은 방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16)

굉장히 좋은 생각이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아이들이 YMCA 같이 어른들이 관심이 없어서 없어진 건데 그런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생겨도 존재하지 못해요. 다 없어져 버려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근데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국가차원에서 교회, 교파 이런 걸 떠나서 YMCA 같은 거 이거를 한번 정말 제대로 지원이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모여서 교육도 받고 그런 단체가 인제 생길 때가 됐다는 거죠. 아이들이 어디에서 놀아요. 놀데 없잖아요.(참여자 5)

(8) 교원 실습기관의 설치 : 한국어 전문교원 양성의 활성화

아르헨티나 한글학교 교사들의 대부분은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고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교육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에 아르헨티나 한글학교 교사들 중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원자격증 취득은 이론과 실습을 모두 이수해야 가능한데, 이론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강의를 들으면 되지만, 실습의 경우에는 현지실습기관이 없으면 한국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현지에 교원실습기관을 설치하게 되면 교원자격증 취득이 보다 수월하게 될 것이다. 정부, 대학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현장실습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론은 사이버로 공부를 하고 현지의 실습학교를 만드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MOU를 맺어가지고 실습은, 그러면 아르헨티나의 어떤 실습학교가 있어요. 좋은 교원양성학교가 있어 거기서 실습을 받으라면 학위를 인정해주겠다. 이거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정부에서도 실습기관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원양성소를 여기다 제가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그게 연결이 될 거예요. 이거는 지원금을 한 푼도 안 받거든요. 제 개인 사재를 털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참여자 5)

4. 소결

1)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남미 지역에서의 재외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 및 한민족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향후 한민족 공동체에서의 역할과 필요한 지원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글학교 및 한국학교 참여 경험,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능력, 가정에서의 한국어사용 및 한국문화 관련 활동, 한민족정체성,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인식, 미래인재역량, 재외동포 간 교류 및 프로그램 참여 경험 및 욕구, 한민족 공동체의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역할 기대, 재외동포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 한국에 대한 관심과 진로 영향 요인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의 한국교육원의 협조를 얻어 2017년 5월~2017년 7월 사이에 9~24세의 한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476부(브라질 233부, 아르헨티나 24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데이터 크리닝 작업을 통해서 최종 436부(브라질 221부, 아르헨티나 215부)가 분석되었다. 분석 대상 청소년들은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은 총 215명 중에서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이 44.7%, 여자 청소년이 55.3%였고, 연령별로는 9~12세가 25.6%, 13~15세가 30.2%, 16~18세가 29.8%, 19~24세가 14.4%였으며, 아르헨티나에서의 거주기간은 평균 14.09년이었다. 브라질 동포청소년은 총 221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이 51.6%, 여자 청소년이 48.4%였고, 연령별로는 9~12세가 23.5%, 13~15세가 35.7%, 16~18세가 15.8%, 19~24세가 24.9%였으며, 브라질에서의 거주기간은 평균 13.36년이었다.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은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에 비해서 한국학교 재학 경험(브라질-69.9%, 아르헨티나-53.8%) 뿐만 아니라 한글학교 재학 경험(브라질-81.0%, 아르헨티나-78.5%)도 많으며, 한국어에 대한 관심(브라질-평균 4.26점, 아르헨티나-평균 3.55점)도 높고, 한국어능력(브라질-평균 4.00점, 아르헨티나-평균 3.66점)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국 및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이 높는데, 면접조사결과에서 파악된 바와 같이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으로의 진출을 보다 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가정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으로는 한국음식 만들기(브

라질-평균 4.41점, 아르헨티나-4.50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국 드라마나 뉴스 시청 및 한국 노래 청취(브라질-3.67점, 아르헨티나-3.83점), 부모와 대화 시 한국어 사용(브라질-3.57점, 아르헨티나-3.40점)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한국 관련 기대는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가 높은 편이나 거주 국가나 한국에서 한국 관련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그 기대가 낮았다. 아직까지 부모들은 자녀들이 한국 기업의 취업이나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직업을 갖거나 미주나 유럽으로의 진출을 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미주 지역과는 달리 남미지역은 한국과의 관계가 소원했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한국으로의 진로는 생소하고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인식이 바탕에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민족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내가 한민족의 일원이다'라는 다소 막연한 의식은 많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지만,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한민족의 사건이 문제를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한민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실천적 행위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행위의 측면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미래인재역량 중에서는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브라질-평균 3.98점, 아르헨티나-평균 3.41점)이 가장 높았고, 국가정체의식(브라질-평균 2.12점, 아르헨티나-평균 2.79점)이 가장 낮았다. 또한 국가별로는 브라질 동포청소년이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에 비해서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력,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 세계시민의식은 높은 반면, 국가정체의식은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이 브라질 동포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브라질 국가의 특성과 보수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아르헨티나의 국가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재외동포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 국가적 특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한국문화가 매력적이라는 등의 인식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안정에 대해서는 다소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적인 면을 제외하고는 한국 및 한국인, 경제, 문화 등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긍정적인 편이다.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향후 한국청소년들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교육기회나 경제 및 문화활동 등의 참여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한민족 공동체에서 동포청소년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의 홍보, 동포사회의 단합, 동포사회의 발전, 한국 경제와 사회 발전, 남북통일への 기여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은 5점 만점에 평균 2.96점,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3.06점으로 그리 높다고 볼 수 없었다. 또한 한국의 발전이나 남북통일이라는 다소 먼 미래에 할 수 있는 역할보다는 거주 국가에서 한국을 홍보하고 동포사회의 단합과 발전에 기여하는 현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동포사회와 대한민국 사회의 이슈에 대한 공유와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참여기회를 동포청소년들에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민족공동체의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 속에서 역할을 찾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청소년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은 거주 국가에서 열리는 캠프나 연수의 경우에는 50% 이상이 참여하였으나, 한국에서 열리는 재외동포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약 20% 정도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류 욕구를 살펴보면,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 공통적으로 한국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브라질 평균 3.88점, 아르헨티나 평균 3.68점)와 다양한 한국 문화의 경험(브라질 평균 3.69점, 아르헨티나 평균 3.36점)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미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방문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으나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0%정도에 불과하여 많은 동포청소년들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 및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재외동포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한국 방문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남미지역의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고 한민족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은 공통적으로 한류(한국 드라마, K-Pop 등)가 1순위(아르헨티나-57.2%, 브라질-43.4%)였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아르헨티나-42.3%, 브라질-40.7%), 개인적 한국 방문(아르헨티나-34.0%, 브라질-32.1%) 등이었다. 남미지역에서 한류가 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가장 큰 수단이 되고 있으며,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교육, 그리고 한국방문 등 동포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체험경험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남미지역에서 한국을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한류의 보급 활동과 함께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한국방문 체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서의 교육 및 취업 등 진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교육 및 취업 정보 부족(41.9%)이 가장 큰 요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어능력 부족(41.4%), 한국조직문화 적응에 대한 자신감 부족(30.7%), 기타(22.3%), 군복무 문제(21.9%) 등의 순이었다.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어능력 부족(40.7%)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한국조직문화 적응에 대한 자신감 부족(29.0%),

한국에서의 교육 및 취업기회 부족(25.3%), 한국에서의 교육 및 취업 정보 부족(24.1%), 경제적 어려움(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미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로 한국에서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 교육이나 취업, 그리고 조직문화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으로의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의 확대와 한국조직문화에 대한 적응 교육, 그리고 진학 및 취업 정보 및 기회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민족정체성-의식의 경우에는 미래인재역량 중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이, 한민족정체성-실천의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 및 욕구가 두 국가에 공통적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의 형성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수준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한민족정체성-의식 형성을 위해서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 한글학교와 가정에서의 한국 문화 체험, 그리고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민족정체성-실천에서는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한글학교 경험, 한국 관련 부모의 기대, 교류 경험, 그리고 창의적 사고와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이, 그리고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에게는 문제해결력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브라질 동포청소년들과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요인과 차별적인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교류 및 참여 욕구, 세계시민의식은 두 국가에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포청소년 교류와 한국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세계시민의식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특별히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에게는 한민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동포청소년 교류 및 한국 방문 프로그램 참여 등 직접적인 체험 기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브라질 동포청소년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 한국어 교육 실태와 한민족정체성, 교류 및 프로그램 참여 욕구, 그리고 정책적 지원 요구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은 브라질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브라질 사람들의 특성을 닮게 되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라든가 현재를 즐기는 삶의 태도 등 긍정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걱정을 하지 않고 특별한 꿈도 없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동포청소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다시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히 진로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동포청소년들이 브라질 사회에서 주류사회에 진출하고 미래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으로의 진출 확대와 함께 한민족 발전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나 활동들이 필요할 것이다.

브라질 동포사회는 대부분 맞벌이 가정으로 자녀들을 돌볼 여유가 없으며, 가정에서 브라질 가정부를 두게 되어 자녀들이 포르투갈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녀들의 한국교육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어서 멀지 않아서 많은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포청소년들의 한글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게 하는 것이 개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미래 진로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들이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도 필요하다.

브라질 한국학교는 2016년 말에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글학교는 차세대 교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향후 한글학교 운영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운영상의 문제는 향후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 유지에 매우 심각한 것으로 동포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청된다. 특히, 동포사회에서는 1세대를 이어갈 차세대들의 양성과 진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 한글학교에서 한글교육을 위한 다양한 보조교재와 역사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가 크다.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 기존 교재와 교육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 수준이 낮고 전문성 있는 교사도 부재해서 역사문화 교육을 하기가 어렵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한글학교에서 운영한 경험으로는 역사문화교육을 통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어 상호 보완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더욱이 브라질에서 태어나서 자란 동포청소년들에게서는 한민족의식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한다.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함께 역사문화교육을 통해서 한민족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동포청소년들에게 한민족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동포청소년들은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한민족정체성도 쉽게 형성된다고 한다. 하지만 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 방문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라서 다양한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재외동포재단에서 한국에 초청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한글학교 단위로 모국 방문을 기획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정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동포청소년들의 각종 프로그램과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다. 한국으로의 진로를 계획하는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남미지역 동포청소년들의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진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동포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토픽(TOPIK)시험이나 연수 및 교육 기회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주재원 자녀의 경우에는 각종 프로그램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의 부당함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이 있다. 재외동포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포청소년의 특성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교류 및 프로그램 참여 욕구, 그리고 정책적 지원 요구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다소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과거에 한 때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경험이 국민들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남미 국가 중에서 한류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도 낮은 편이다. 또한 아르헨티나 사회는 타민족에 대해 배타적인 성격이 강하여 동양인들의 전문직으로의 진출을 쉽게 허용하고 있지 않다. 즉, 재외동포청소년들은 전문직의 꿈을 갖고 도전을 해보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서 전문직으로서의 진로를 포기하고 부모의 직업을 물려받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동포청소년들이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주류사회로 진출하고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동포청소년들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동포청소년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동포사회의 노력과 부모들의 지속적인 지지가 요청된다.

동포청소년들에게 부모들은 일차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하게 하는 주요한 통로가 된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자녀들을 한국학교나 한글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의 경우에도 교육에 대한 관심보다는 단지 자녀들을 학교에 맡긴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포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물질 중심의 가치관은 자녀들에게 다양한 가치와 비전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리고 동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들의 생각이 바뀔 필요가 있다. 돈보다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기꺼이 기여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자녀 교육에서의 부모의 역할 등에 관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부모가 되어 있는 1.5세대 중에서도 상당수는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현지어에 능통하여 1세대 학부모들과 달리 자녀를 현지학교에 보내면서 학교당국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으며, 현지의 명문 사립 초중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더욱이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나서 자란 청소년들은 한국어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어를 모르더라도 한인들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가족 내 또는 한인사회 내에서의 생활문화 등이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민세대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한국말을 잃어갈 가능성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이 한민족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 또는 동포사회 내에 한민족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는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의 위치와 시설, 교재, 교사 등 동포청소년들의 한글교육을 위한 여건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가 집에서 거리가 멀거나 위험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등하굣길의 안전이 불안하고, 열악한 학교시설과 다양한 교재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교육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세대를 대신할 차세대 교사의 확보가 어려워

학교 운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미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동포사회 내에서 먼저 자구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동포사회에서의 한국학교와 한글학교의 존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에서의 맞춤형 교재의 개발·보급과 차세대교사의 양성, 그리고 학교 운영비 지원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 한글학교협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 역사교육의 대안으로 골든벨대회와 역사문화캠프를 운영하고 그 성과를 동포사회에 알림으로써 동포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글학교협의회에서도 재외동포재단의 지원과 동포사회의 호응을 토대로 향후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한글학교협의회 및 동포사회가 밀접히 연계되어 동포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력과 지원이 요청된다.

아르헨티나에는 교회나 한글학교 이외에 동포청소년들이 방과 후나 주말에 특별히 갈만한 활동시설이나 공간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한인사회 내에 개인적으로 독서실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관심을 받고 있다. 동포청소년들 간에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포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동안 남미지역에서의 청소년활동시설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를 계기로 동포사회 내에서 청소년활동 공간의 확보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즉, 동포청소년들을 동포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동포사회 내에서 한글교육과 청소년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사회의 보수적인 특성은 한인동포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동안 한인동포사회는 아르헨티나에서 경제적 기여를 해왔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아르헨티나 국민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보기가 힘든 상황이다.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동포사회가 인정받고 주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개선 노력도 필요하지만 한국 정부에서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되고 있다. 즉, 한국 정부와 아르헨티나 정부 간에 다양한 사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동포사회와 아르헨티나 정부를 이어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줌으로써 동포사회만의 노력으로 얻기 힘든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 VI 장

고려인 재외동포 청소년 조사결과 분석

1. 고려인 재외동포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분석
2.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분석
3. 소결

제 VI 장

고려인 재외동포 청소년 조사결과 분석*

제VI장에서는 고려인 재외동포 청소년의 현황과 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개괄해보고자 한다. 고려인 재외동포 청소년과 관련하여 첫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둘째, 고려인 재외동포청소년 관련 분야의 종사자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의 생활실태, 한국인 또는 한국관련 인식, 한민족정체성, 미래인재역량, 동포사회를 위한 역할 기여, 교류에 대한 욕구, 장래 희망, 한국어와 한글 교육 현황 및 개선 방안, 모국의 지원과 기대 등이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나누어 그 결과를 차례로 제시하였다.

1. 고려인 재외동포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대상인 고려인 재외동포 청소년은 설문 조사 국가를 기준으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청소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간략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4장 조사개요에도 기술되었으나 본장에서는 국가별 설문 응답자를 성별로 나누고 연령 구간에 따른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조사 대상 중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7.89세였고 208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카자흐스탄 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8.36세였고 174명,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5.30세였고 83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 연령이 조사대상인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전체인

* 이장의 1절은 정은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2절은 남부현 교수(선문대학교)가 집필한 원고를 정은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요약·정리하였음. 3절은 정은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3-2절의 일부 단락은 남부현 교수(선문대학교)가 집필한 원고를 수정·요약하였음.

465명의 평균 연령은 17.60세였고, 전체 여자 청소년의 비율은 62.4%로 남자 청소년(37.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설문 참여자 비율 중 19-24세 연령구간의 참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는 16-18세 연령구간의 청소년 참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16-18세와 19-24세 연령구간의 여학생의 참여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경우는 19-24세가 16-18세 연령구간의 참여자보다 배 정도가 많았다. 전체 조사 대상 중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참여수가 가장 적었고, 다른 집단에 비해 19-24세 참여율이 낮고 9-12세 또는 16-18세 연령구간의 참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1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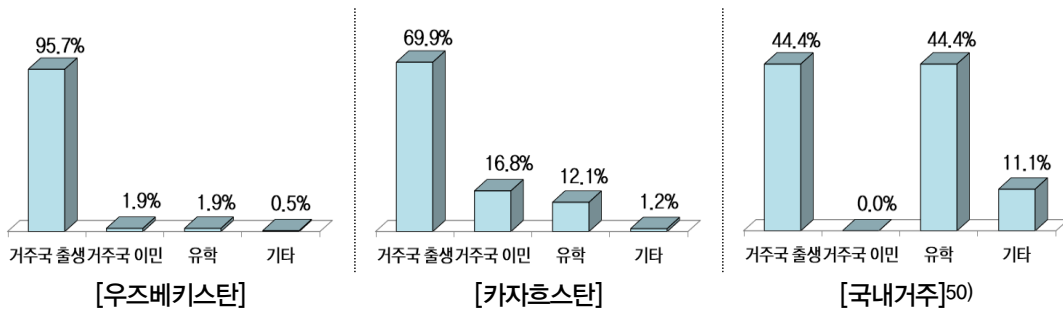
구분		합계		9-12세		13-15세		16-18세		19-24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우즈베키스탄	남자	91	100.0	6	6.6	20	22.0	21	23.1	44	48.4
	여자	117	100.0	3	2.6	24	20.5	42	35.9	48	41.0
	전체	208	100.0	9	4.3	44	21.2	63	30.3	92	44.2
	평균연령	17.89세 (SD = 3.20)									
카자흐스탄	남자	49	100.0	0	0.0	7	14.3	14	28.6	28	57.1
	여자	125	100.0	0	0.0	19	15.2	54	43.2	52	41.6
	전체	174	100.0	0	0.0	26	14.9	68	39.1	80	46.0
	평균연령	18.36세 (SD = 2.76)									
국내거주	남자	35	100.0	2	5.7	10	28.6	14	40.0	9	25.7
	여자	48	100.0	16	33.3	11	22.9	19	39.6	2	4.2
	전체	83	100.0	18	21.7	21	25.3	33	39.8	11	13.3
	평균연령	15.30세 (SD = 2.92)									
합계	남자	175	100.0	8	4.6	37	21.1	49	28.0	81	46.3
	여자	290	100.0	19	6.6	54	18.6	115	39.7	102	35.2
	전체	465	100.0	27	5.8	91	19.6	164	35.3	183	39.4
	평균연령	17.60세 (SD = 3.18)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거주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각 국가별로 빈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95.7%가 현재 거주국에서 출생한 고려인 청소년이었고 일부만 현재 거주국으로 이민 또는 유학 등의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역시 현재 거주국에서 출생한 이유가 가장 많았지만(69.9%), 이민으로 거주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16.8%로 나타났다. 또한 유학으로 거주하게 되었다는 비율도 12.1%로 우즈베키스탄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는 현재 거주국에서 출생한 경우와 유학의 비율이 높았으나, 무응답이 많아서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VI-2 거주국 거주 주요 이유의 국가별 차이

구분	합계		현재 거주국에서 출생		현재 거주국으로 이민		유학		기타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우즈베키스탄	208	100.0	199	95.7	4	1.9	4	1.9	1	0.5	94.29***
카자흐스탄	173	100.0	121	69.9	29	16.8	21	12.1	2	1.2	
국내거주	18	100.0	8	44.4	0	0.0	8	44.4	2	11.1	
전체	399	100.0	328	82.2	33	8.3	33	8.3	5	1.3	

주: *** $\alpha < .001$; ** $\alpha < .01$; * $\alpha < .05$



[그림 VI-1] 거주국 거주 주요 이유

우즈베키스탄 동포 청소년의 거주국 거주 주요 이유를 성별과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본

50)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전체 응답자수는 83명이나, 본 설문 항목의 경우 미응답이 많아 해석에 주의를 요함

결과는 설문 응답자 전체가 보여준 양상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현재 거주국에서 출생한 이유로 거주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모든 구분 단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학생 응답자 중 97.8%, 여학생 응답자 중 94.0%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출생하였으며, 그 이유로 거주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연령 단위별로 살펴보면, 13-15세 구간 응답자 중 95.5%, 16-18세 구간 응답자 중 95.2%, 19세-24세 구간 응답자 중 96.7%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이 현재 거주국에서 출생하여 거주하게 되었다고 조사되었다.

표 VI-3 거주국 거주 이유 - 우즈베키스탄

구분	합계		현재 거주국에서 출생		현재 거주국으로 이민		유학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91	100.0	89	97.8	1	1.1	1	1.1	0	0.0
	여자	117	100.0	110	94.0	3	2.6	3	2.6	1	0.9
	전체	208	100.0	199	95.7	4	1.9	4	1.9	1	0.5
연령별	9-12세	9	100.0	8	88.9	0	0.0	1	11.1	0	0.0
	13-15세	44	100.0	42	95.5	1	2.3	1	2.3	0	0.0
	16-18세	63	100.0	60	95.2	2	3.2	1	1.6	0	0.0
	19-24세	92	100.0	89	96.7	1	1.1	1	1.1	1	1.1
	전체	208	100.0	199	95.7	4	1.9	4	1.9	1	0.5

카자흐스탄 동포 청소년의 경우도 응답자 전체가 보여준 양상과 비슷한 결과가 성별과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연령별 단위 모두에서 카자흐스탄에서 출생해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I-4 거주국 거주 주요 이유 - 카자흐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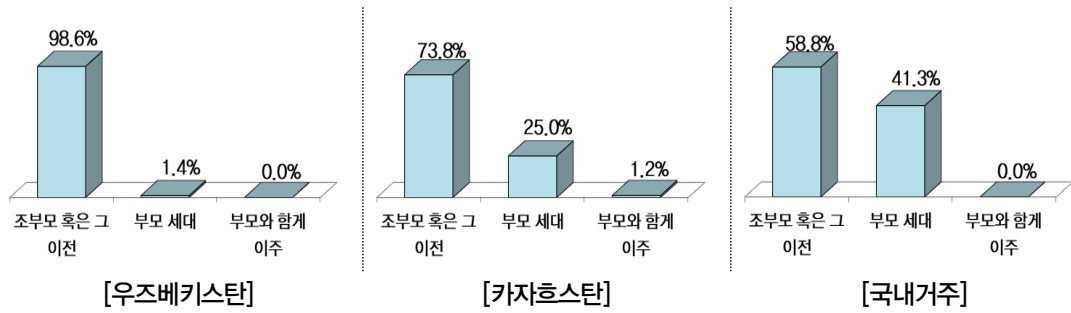
구분	합계		현재 거주국에서 출생		현재 거주국으로 이민		유학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48	100.0	36	75.0	6	12.5	6	12.5	0	0.0
	여자	125	100.0	85	68.0	23	18.4	15	12.0	2	1.6
	전체	173	100.0	121	69.9	29	16.8	21	12.1	2	1.2
연령	9-12세	0	0.0	0	0.0	0	0.0	0	0.0	0	0.0
	13-15세	26	100.0	22	84.6	4	15.4	0	0.0	0	0.0
	16-18세	67	100.0	48	71.6	13	19.4	5	7.5	1	1.5
	19-24세	80	100.0	51	63.8	12	15.0	16	20.0	1	1.3
	전체	173	100.0	121	69.9	29	16.8	21	12.1	2	1.2

최초로 이주한 세대에 대한 국가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조부모 혹은 그 이전 세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조부모 혹은 그 이전 세대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하였다는 비율이 9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조부모 혹은 그 이전 세대의 비율이 73.8%로 가장 높았지만 부모 세대에 이주하였다는 비율도 25.5%로 나타났다.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 조부모 혹은 그 이전 세대가 한국으로 이주하였다는 비율이 58.8%, 부모세대 이주의 경우는 41.3%로 나타났다.

표 VI-5 최초로 이주한 세대에 대한 국가별 차이

구분	합계		조부모 혹은 그 이전 세대		부모 세대		부모님과 함께 이주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우즈베키스탄	208	100.0	205	98.6	3	1.4	0	0.0	80.01***
카자흐스탄	172	100.0	127	73.8	43	25.0	2	1.2	
국내거주	80	100.0	47	58.8	33	41.3	0	0.0	
전체	460	100.0	379	82.4	79	17.2	2	0.4	

주: *** α .001; ** α .01; * α .05



[그림 VI-2] 최초로 이주한 세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성별과 연령별 모든 구분에서 조부모 혹은 그 이전 세대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하였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I-6 최초로 이주한 세대 - 우즈베키스탄

구분	합계		조부모 혹은 그 이전 세대		부모 세대		부모님과 함께 이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91	100.0	90	98.9	1	1.1	0	0.0
	여자	117	100.0	115	98.3	2	1.7	0	0.0
	전체	208	100.0	205	98.6	3	1.4	0	0.0
연령별	9-12세	9	100.0	9	100.0	0	0.0	0	0.0
	13-15세	44	100.0	42	95.5	2	4.5	0	0.0
	16-18세	63	100.0	63	100.0	0	0.0	0	0.0
	19-24세	92	100.0	91	98.9	1	1.1	0	0.0
	전체	208	100.0	205	98.6	3	1.4	0	0.0

카자흐스탄의 경우, 성별과 연령별 모든 구분에서 조부모 혹은 그 이전 세대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였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세대가 이주하였다는 응답이 다음이었다.

표 VI-7 최초로 이주한 세대 - 카자흐스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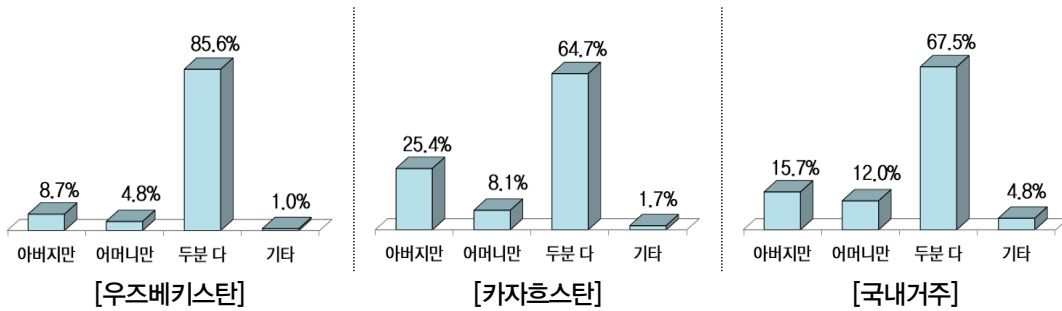
구분		합계		조부모 혹은 그 이전 세대		부모 세대		부모님과 함께 이주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48	100.0	38	79.2	9	18.8	1	2.1
	여자	124	100.0	89	71.8	34	27.4	1	0.8
	전체	172	100.0	127	73.8	43	25.0	2	1.2
연령별	9-12세	0	0.0	0	0.0	0	0.0	0	0.0
	13-15세	26	100.0	21	80.8	5	19.2	0	0.0
	16-18세	68	100.0	48	70.6	20	29.4	0	0.0
	19-24세	78	100.0	58	74.4	18	23.1	2	2.6
	전체	172	100.0	127	73.8	43	25.0	2	1.2

부모 국적에 대한 국가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부모 모두가 한국인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만 한국인, 어머니만 한국인 순이었다. 두 분 다 한국인이라는 비율에서 우즈베키스탄은 85.6%, 카자흐스탄은 64.7%, 국내거주는 67.5%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아버지만 한국인이라는 비율이 25.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VI-8 부모 국적에 대한 국가별 차이

구분	합계		아버지만 한국인		어머니만 한국인		두 분 다 한국인		기타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우즈베키스탄	208	100.0	18	8.7	10	4.8	178	85.6	2	1.0	31.73***
카자흐스탄	173	100.0	44	25.4	14	8.1	112	64.7	3	1.7	
국내거주	83	100.0	13	15.7	10	12.0	56	67.5	4	4.8	
전체	464	100.0	75	16.2	34	7.3	346	74.6	9	1.9	

주: *** α .001; ** α .01; * α .05



【그림 VI-3】 부모의 국적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남녀, 연령 단위 모두에서 부모님 모두 다 한인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아버지만 한인이라는 비율이 높았고, 어머니만 한인이라는 비율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표 VI-9 부모의 국적 - 우즈베키스탄

구분	합계		아버지만 한인		어머니만 한인		두 분 다 한인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91	100.0	7	7.7	4	4.4	79	86.8	1	1.1
	여자	117	100.0	11	9.4	6	5.1	99	84.6	1	0.9
	전체	208	100.0	18	8.7	10	4.8	178	85.6	2	1.0
연령별	9-12세	9	100.0	0	0.0	0	0.0	9	100.0	0	0.0
	13-15세	44	100.0	5	11.4	3	6.8	36	81.8	0	0.0
	16-18세	63	100.0	4	6.3	4	6.3	54	85.7	1	1.6
	19-24세	92	100.0	9	9.8	3	3.3	79	85.9	1	1.1
	전체	208	100.0	18	8.7	10	4.8	178	85.6	2	1.0

카자흐스탄과 국내거주 고려인의 경우도 두 분 모두 한인이라는 비율이 남녀, 연령 구분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버지만 한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VI-10 부모의 국적 - 카자흐스탄

구분	합계		아버지만 한인		어머니만 한인		두 분 다 한인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48	100.0	13	27.1	2	4.2	31	64.6	2	4.2
	여자	125	100.0	31	24.8	12	9.6	81	64.8	1	0.8
	전체	173	100.0	44	25.4	14	8.1	112	64.7	3	1.7
연령별	9-12세	0	0.0	0	0.0	0	0.0	0	0.0	0	0.0
	13-15세	26	100.0	9	34.6	3	11.5	14	53.8	0	0.0
	16-18세	67	100.0	12	17.9	4	6.0	51	76.1	0	0.0
	19-24세	80	100.0	23	28.8	7	8.8	47	58.8	3	3.8
	전체	173	100.0	44	25.4	14	8.1	112	64.7	3	1.7

표 VI-11 부모의 국적 - 국내거주

구분	합계		아버지만 한인		어머니만 한인		두 분 다 한인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35	100.0	5	14.3	3	8.6	24	68.6	3	8.6
	여자	48	100.0	8	16.7	7	14.6	32	66.7	1	2.1
	전체	83	100.0	13	15.7	10	12.0	56	67.5	4	4.8
연령별	9-12세	18	100.0	2	11.1	5	27.8	11	61.1	0	0.0
	13-15세	21	100.0	4	19.0	1	4.8	14	66.7	2	9.5
	16-18세	33	100.0	6	18.2	3	9.1	23	69.7	1	3.0
	19-24세	11	100.0	1	9.1	1	9.1	8	72.7	1	9.1
	전체	83	100.0	13	15.7	10	12.0	56	67.5	4	4.8

설문에 응답한 고려인 청소년의 국적을 묻는 항목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모두는 시민권자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경우는 외국국적자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는 국내 이주 이전 국가의 시민권자인 경우가 65.4%였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취득한 고려인 청소년도 11.5%로 나타났다.

표 VI-12 동포청소년의 국적에 대한 국가별 차이

구분	합계		시민권자		이중국적		대한민국		기타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우즈베키스탄	208	100.0	208	100.0	0	0.0	0	0.0	0	0.0	140.48***
카자흐스탄	174	100.0	174	100.0	0	0.0	0	0.0	0	0.0	
국내거주	78	100.0	51	65.4	0	0.0	9	11.5	18	23.1	
전체	460	100.0	433	94.1	0	0.0	9	2.0	18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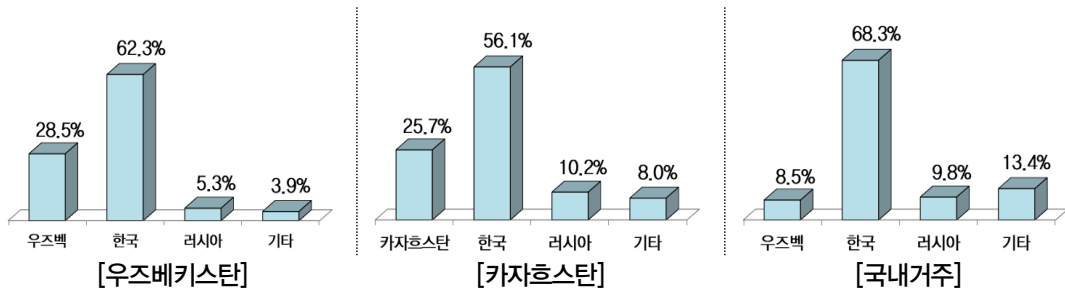
주: *** $\alpha.001$; ** $\alpha.01$; * $\alpha.05$

미래에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해 묻는 문항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 모두에게서 한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한국이 62.3%, 우즈베키스탄 28.5%, 러시아 5.3% 순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한국이 56.1%, 카자흐스탄 25.7%, 러시아 10.2%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 한국이 68.3%, 러시아 9.8%, 우즈베키스탄 8.5%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기타를 제외하면 고려인 청소년은 자신의 본국 다음으로 러시아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의 경우 미국, 영국 등의 소수 응답이 있었다.

표 VI-13 미래에 살고 싶은 나라에 대한 국가별 차이

구분	합계 ⁵¹⁾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한국		러시아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우즈베키스탄	207	100.0	59	28.5	0	0.0	129	62.3	11	5.3	8	3.9
카자흐스탄	187	100.0	0	0.0	48	25.7	105	56.1	19	10.2	15	8.0
국내거주	82	100.0	7	8.5	0	0.0	56	68.3	8	9.8	11	13.4
전체	476	100.0	66	13.9	48	10.1	290	60.9	38	8.0	34	7.1

51) 복수응답 가능한 질문



【그림 VI-4】 미래에 살고 싶은 나라

2) 고려인 재외동포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1) 한글학교 재학 경험과 기간

한글학교에 재학 경험 여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다닌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5.0%로 없는 청소년 25.0%보다 많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77.0%, 카자흐스탄은 72.1%, 국내거주⁵²⁾ 청소년은 76.3%로 나타났다.

표 VI-14 한국·한글학교 재학 경험에 대한 국가별 차이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x ²
		빈도	%	빈도	%	
우즈베키스탄	204	157	77.0	47	23.0	1.26
카자흐스탄	172	124	72.1	48	27.9	
국내거주	80	61	76.3	19	23.8	
전체	456	342	75.0	114	25.0	

주: ***p<.001; **p<.01; *p<.05

한글학교 재학 경험 유무를 성별과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여학생의 경우 한글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경우가 83.6%로 남학생 6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비율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연령 구간은 19-24세, 16-18세 구간으로 나타났다.

52) 본 결과는 설문조사 대상의 제한으로 전체 동포청소년의 한글학교 재학 경험의 비율을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VI-15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국·한글학교를 재학 경험의 차이 - 우즈베키스탄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χ^2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88	60	68.2	28	31.8	6.73*
	여자	116	97	83.6	19	16.4	
	전체	204	157	77.0	47	23.0	
연령별	9-12세	9	3	33.3	6	66.7	15.93***
	13-15세	44	29	65.9	15	34.1	
	16-18세	61	49	80.3	12	19.7	
	19-24세	90	76	84.4	14	15.6	
	전체	204	157	77.0	47	23.0	

주: *** α .001; ** α .01; * α .05

카자흐스탄의 경우, 여학생의 경우 한글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경우가 78.0%로 남학생 57.1%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비율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연령 구간은 16-18세, 13-15세 구간으로 나타났다. 한글학교 재학 경험이 있다 경우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6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국·한글학교를 재학 경험의 차이 - 카자흐스탄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χ^2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49	28	57.1	21	42.9	7.61**
	여자	123	96	78.0	27	22.0	
	전체	172	124	72.1	48	27.9	
연령별	9-12세	0	0	0.0	0	0.0	4.59
	13-15세	26	20	76.9	6	23.1	
	16-18세	68	54	79.4	14	20.6	
	19-24세	78	50	64.1	28	35.9	
	전체	172	124	72.1	48	27.9	

주: *** α .001; ** α .01; * α .05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 응답자 중 남학생의 경우 84.8%, 여학생의 경우 70.2%가 한글학교 재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글학교 재학 경험이 있는 경우, 전 연령 구간에서 70%이상의 청소년이 재학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VI-17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국·한글학교를 재학 경험의 차이 - 국내거주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χ^2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33	28	84.8	5	15.2	2.29
	여자	47	33	70.2	14	29.8	
	전체	80	61	76.3	19	23.8	
연령별	9-12세	17	12	70.6	5	29.4	1.25
	13-15세	20	17	85.0	3	15.0	
	16-18세	32	24	75.0	8	25.0	
	19-24세	11	8	72.7	3	27.3	
	전체	80	61	76.3	19	23.8	

주: *** α .001; ** α .01; * α .05

재학 기간에 대한 평균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1.06년으로 나타났다. 재학 기간의 평균의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0.59, p>.10$).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이 0.99년, 카자흐스탄이 1.10년,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은 1.15년을 재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18 한국과 한국어 교육관련 과정 재학 기간의 국가별 차이

구분	사례수	재학기간(년)		F	사후검증
		평균	표준편차		
우즈베키스탄	208	0.99	1.16	0.59	-
카자흐스탄	174	1.10	1.34		
국내거주	83	1.15	1.28		
전체	465	1.06	1.25		

주: *** α .001; ** α .01; * α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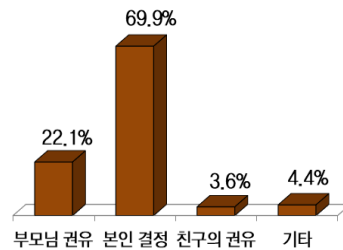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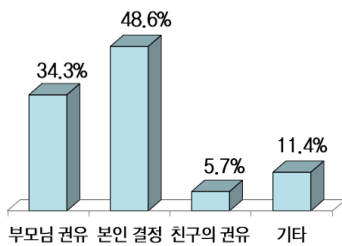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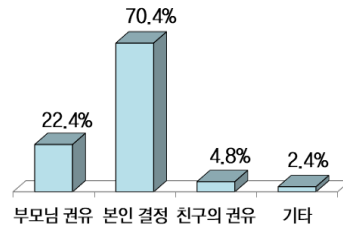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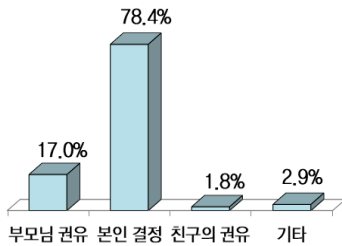
(2) 한글학교 또는 한국어 교육 과정에 다니게 된 이유

한국 관련 교육 과정에 다니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본인 결정이 6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모님 권유가 22.1%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본인 결정이 78.4%, 카자흐스탄은 본인 결정이 7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내거주 청소년의 경우 본인 결정이 48.6%, 부모님 권유도 34.3%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19 한글학교 또는 한국어 교육 과정에 다니게 된 이유에 대한 국가별 차이

구분	사례수	부모님 권유		본인 결정		친구의 권유		기타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우즈베키스탄	171	29	17.0	134	78.4	3	1.8	5	2.9	25.98***
카자흐스탄	125	28	22.4	88	70.4	6	4.8	3	2.4	
국내거주	70	24	34.3	34	48.6	4	5.7	8	11.4	
전체	366	81	22.1	256	69.9	13	3.6	16	4.4	

주: *** α .001; ** α .01; * α .05



[그림 VI-5] 한국/한글 관련 학교에 다니게 된 이유

(3)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학습 욕구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4.05점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59, p>.10$).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이 4.04점, 카자흐스탄이 4.14점,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은 3.89점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은 5점이 최대인 척도로 4점 이상의 평균을 나타내었다.

표 VI-20 한국어 관심에 대한 국가별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우즈베키스탄	201	4.04	1.15	1.59	-
카자흐스탄	169	4.14	0.95		
국내거주	83	3.89	0.99		
전체	453	4.05	1.05		

주: *** $\alpha.001$; ** $\alpha.01$; * $\alpha.05$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4.27점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0.08, p>.10$).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이 4.27점, 카자흐스탄이 4.28점,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은 4.23점으로 나타났다. 5점이 최대인 척도로 4.2점 이상의 평균을 나타내어 한국어 학습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표 VI-21 한국어 학습에 대한 국가별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우즈베키스탄	195	4.27	1.14	0.08	-
카자흐스탄	170	4.28	0.94		
국내거주	83	4.23	0.86		
전체	448	4.27	1.01		

주: *** $\alpha.001$; ** $\alpha.01$; * $\alpha.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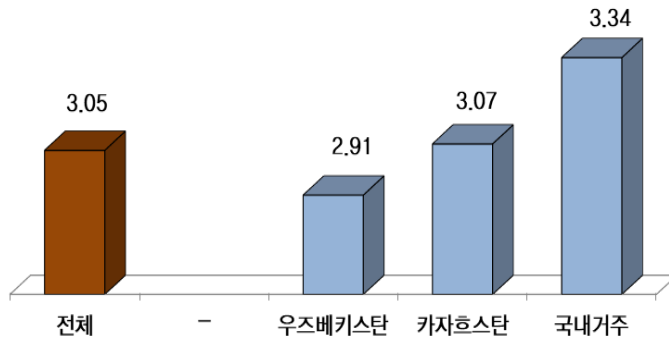
(4)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3.05점이었고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5.12, p<.01$).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이 3.3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카자흐스탄 3.07점, 우즈베키스탄 2.91점으로 나타났다.

표 VI-22 한국어 능력에 대한 국가별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우즈베키스탄	196	2.91	1.07	5.12**	국내>우즈
카자흐스탄	170	3.07	1.04		
국내거주	83	3.34	0.98		
전체	449	3.05	1.05		

주: *** $p<.001$; ** $p<.01$; * $p<.05$



【그림 VI-6】 한국어 능력에 대한 국가별 차이

한국어 능력을 말하기, 듣고 이해하기, 읽고 쓰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읽고 쓰기의 전체 평균이 3.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말하기의 평균은 2.78점이었다. 항목을 국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말하기의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87, p<.001$). 국내거주 또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말하기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듣고 이해하기의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6.04, p<.01$).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

의 평균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듣고 이해하기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읽고 쓰기의 평균에서는 국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68, p>.10$). 전반적으로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점수가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23 한국어 능력 대한 국가별 차이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전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F	사후검증
	N	M (SD)	N	M (SD)	N	M (SD)	N	M (SD)		
말하기	447	2.78 (1.14)	194	2.54 (1.12)	170	2.88 (1.12)	83	3.12 (1.13)	8.87***	국내, 카자)우즈
듣고 이해하기	447	2.91 (1.16)	194	2.73 (1.19)	170	2.95 (1.13)	83	3.24 (1.10)	6.04**	국내)우즈
읽고 쓰기	448	3.46 (1.24)	196	3.44 (1.29)	170	3.38 (1.23)	82	3.68 (1.13)	1.68	-

주: *** $\alpha.001$; ** $\alpha.01$; * $\alpha.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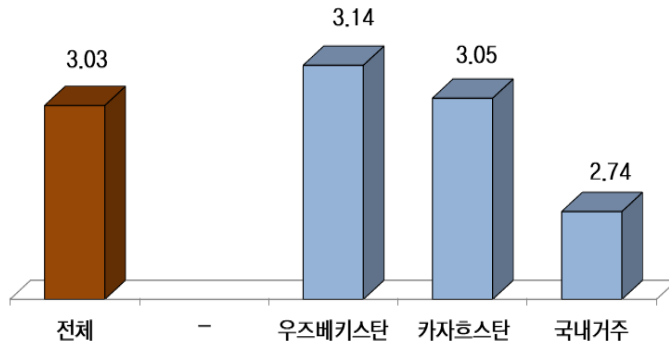
(5) 부모관련 가정생활

부모와의 가정생활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3.03점이었고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7.29, p<.001$). 우즈베키스탄은 3.14점, 카자흐스탄은 3.05점으로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2.7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이 높다는 의미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부모와 대화 시 한국어를 사용하거나 음식을 만들어 먹는 등의 활동이 많다는 의미이다. 흥미롭게도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거주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 생활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청소년들이 시간의 부족함에 대해 응답하였을 수도 있고, 부모와 생활하는 중에 가정에서 한국어 대화하는 것보다 러시아어나 현지어로 대화하는 등의 실제 가정 내 한국과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표 VI-24 부모관련 가정생활에 대한 국가별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우즈베키스탄	207	3.14	0.82	7.29***	우즈, 카자)국내
카자흐스탄	173	3.05	0.79		
국내거주	82	2.74	0.78		
전체	462	3.03	0.81		

주: *** $p < .001$; ** $p < .01$; * $p < .05$



[그림 VI-7] 부모관련 가정생활에 대한 국가별 차이

문항별로 국가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한국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는다는 항목의 국가별 평균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6.43, p<.001$). 사후검증 결과, 우즈베키스탄 4.39점, 카자흐스탄 4.19점, 국내거주 3.07점 순으로 평균이 나타나났다.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자주 보거나 한국 노래를 듣는다는 항목도 평균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35, p<.001$). 사후검증 결과, 우즈베키스탄(3.36점)이 카자흐스탄(3.02점)과 국내거주(2.71점) 고려인 청소년보다 항목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항목의 결과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청소년이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보다 부모님과 한국 관련 활동을 실제로 많이 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 절대적으로 부모님과 생활하는 시간이 적어서 시간 상 부모와 활동하는 비율이 낮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즉, 국내거주 청소년은 한국 관련 활동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모와 대화하거나 활동할 시간이 적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표 VI-25 부모관련 가정생활에 대한 국가별 차이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⁵³⁾	전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F	사후검증
	N	M (SD)	N	M (SD)	N	M (SD)	N	M (SD)		
Q14_1	453	1.96 (1.03)	199	1.96 (1.03)	172	1.99 (1.08)	82	1.88 (0.92)	0.32	-
Q14_2	460	4.08 (1.08)	205	4.39 (0.85)	173	4.19 (1.00)	82	3.07 (1.14)	56.43***	우즈>카자>국내
Q14_3	458	3.12 (1.31)	203	3.36 (1.28)	173	3.02 (1.32)	82	2.71 (1.25)	8.35***	우즈 >카자, 국내
Q14_4	454	3.10 (1.32)	200	3.27 (1.36)	173	3.13 (1.20)	81	2.59 (1.34)	7.99***	우즈, 카자 >국내
Q14_5	458	3.70 (1.25)	205	3.67 (1.31)	173	3.71 (1.14)	80	3.75 (1.32)	0.12	-
Q14_6	456	3.23 (1.31)	205	3.26 (1.39)	171	3.39 (1.21)	80	2.80 (1.23)	5.71**	우즈, 카자 >국내

주: *** α .001; ** α .01; * α .05

3)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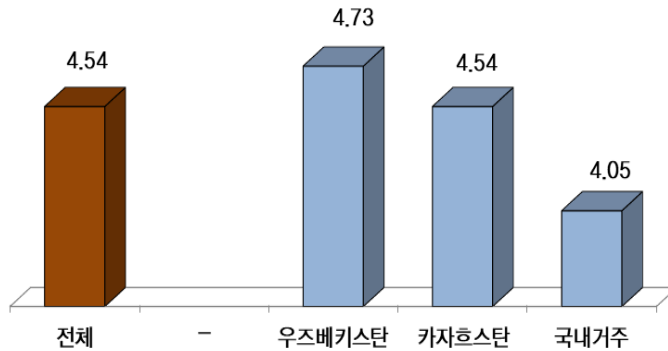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을 요인분석에 기초하여 의식과 실천의 부분으로 나누어 국가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민족정체성-의식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4.54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7.12, p<.001$). 사후검증 결과 우즈베키스탄은 4.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카자흐스탄은 4.54점,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 4.05점 순으로 나타났다. CIS 지역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의 평균이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 보다 높은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53) Q14_1 '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Q14_2 '나는 부모님과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Q14_3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자주 보거나 한국 노래를 듣는다'
 Q14_4 '부모님 내가 거주국/태어난 국가에서 한국과 관련 있는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
 Q14_5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서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
 Q14_6 '부모님은 내가 한국인 또는 고려인과 결혼하기 원한다'

표 VI-26 한민족정체성-의식에 대한 국가별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우즈베키스탄	208	4.73	0.60	27.12***	우즈>카자>국내
카자흐스탄	174	4.54	0.68		
국내거주	83	4.05	0.98		
전체	465	4.54	0.75		

주: *** α .001; ** α .01; * α .05



【그림 VI-8】 한민족정체성-의식에 대한 국가별 차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의 평균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성별과 연령별 모두에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2.72, p>.10; F=0.19, p>.10$).

표 VI-27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민족정체성-의식의 차이 - 우즈베키스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91	4.65	2.72	-
	여자	117	4.79		
	전체	208	4.73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연령별	9-12세	9	4.78	0.19	-
	13-15세	44	4.76		
	16-18세	63	4.75		
	19-24세	92	4.70		
	전체	208	4.73		

주: *** α .001; ** α .01; * α .05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의 평균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성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26, p<.05$).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평균의 4.62점으로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95, p>.10$).

표 VI-28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민족정체성-의식의 차이 - 카자흐스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49	4.36	5.26*	여>남
	여자	125	4.62		
	전체	174	4.54		
연령별	9-12세	0	0.00	1.95	-
	13-15세	26	4.46		
	16-18세	68	4.67		
	19-24세	80	4.46		
	전체	174	4.54		

주: *** α .001; ** α .01; * α .05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의 평균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성별과 연령별 모두에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0.29, p>.10$; $F=1.00, p>.10$).

표 VI-29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민족정체성-의식의 차이 - 국내거주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35	3.99	0.29	-
	여자	48	4.10		
	전체	83	4.05		
연령별	9-12세	18	4.00	1.00	-
	13-15세	21	3.88		
	16-18세	33	4.05		
	19-24세	11	4.50		
	전체	83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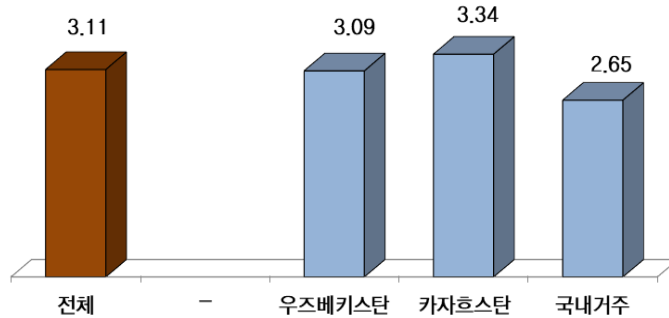
주: *** α .001; ** α .01; * α .05

한민족정체성-실천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3.11점이었으며,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3.42, p<.001$). 사후검증 결과 카자흐스탄이 3.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우즈베키스탄 3.09점,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 2.65점 순으로 나타났다. CIS 지역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의 평균이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 보다 높은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VI-30 한민족정체성-실천에 대한 국가별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우즈베키스탄	205	3.09	1.00	13.42***	카자>우즈>국내
카자흐스탄	174	3.34	0.98		
국내거주	82	2.65	1.00		
전체	461	3.11	1.02		

주: *** α .001; ** α .01; * α .05



【그림 VI-9】 한민족정체성-실천에 대한 국가별 차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의 평균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F=0.02, p>.10$)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80, p<.05$). 사후검증 결과 19-24세 연령 구간의 청소년의 평균이 13-15세의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1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민족정체성-실천의 차이 - 우즈베키스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90	3.10	1.02	0.02	-
	여자	115	3.08	1.00		
	전체	205	3.09	1.00		
연령별	9-12세	9	3.00	1.39	2.80*	19-24세 > 13-15세
	13-15세	43	2.71	1.16		
	16-18세	63	3.14	0.93		
	19-24세	90	3.24	0.90		
	전체	205	3.09	1.00		

주: *** $\alpha.001$; ** $\alpha.01$; * $\alpha.05$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의 평균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F=0.09, p>.10$)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80, p<.05$). 사후검증 결과 19-24세 연령 구간의 청소년의 평균이 13-15세의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2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민족정체성-실천의 차이 - 카자흐스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49	3.31	0.09	-
	여자	125	3.35		
	전체	174	3.34		
연령별	9-12세	0	0.00	4.47*	19-24세 > 13-15세
	13-15세	26	2.86		
	16-18세	68	3.33		
	19-24세	80	3.51		
	전체	174	3.34		

주: *** α .001; ** α .01; * α .05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의 평균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F=0.35, p>.10$)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49, p<.01$). 사후검증 결과 16-18세 연령 구간의 청소년의 평균이 9-12세 또는 13-15세의 평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3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민족정체성-실천의 차이 - 국내거주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34	2.73	0.35	-
	여자	48	2.60		
	전체	82	2.65		
연령별	9-12세	18	2.08	5.49**	16-18세 > 9-12세, 13-15세
	13-15세	21	2.37		
	16-18세	32	3.08		
	19-24세	11	2.88		
	전체	82	2.65		

주: *** α .001; ** α .01; * α .05

한민족정체성 요인의 내용을 문항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섯 문항 모두에서 국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과 관련한 두 문항에서 평균 점수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고려인 순으로 나타났다. 실천과 관련한 세 문항에서는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 점수가 우즈베키스탄이나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려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점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점수가 높고, 고려인의 역사를 알고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등의 실천과 관련하여서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 점수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34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국가별 차이 - 측정문항별 평균

문항 ⁵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F	사후 검증	
	N	M (SD)	N	M (SD)	N	M (SD)			
의식	Q15_1	205	4.77(0.63)	174	4.56(0.76)	83	4.08(1.16)	22.08***	우즈>카자>국내
	Q15_2	205	4.71(0.67)	173	4.53(0.73)	82	4.06(0.96)	21.82***	우즈>카자>국내
실천	Q15_3	202	3.27(1.06)	174	3.50(1.13)	81	2.93(1.21)	7.49***	카자>우즈>국내
	Q15_4	202	2.62(1.23)	174	3.13(1.18)	81	2.43(1.26)	11.99***	카자>우즈, 국내
	Q15_5	203	3.33(1.23)	174	3.40(1.10)	81	2.63(1.21)	12.93***	카자, 우즈>국내

주: *** $p<.001$; ** $p<.01$; * $p<.05$

4) 고려인 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

미래인재역량을 여섯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든 요인에서 국가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민의식 국가별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2.82, p<.001$).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평균이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창의적사고의 국가별 평균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33, p<.05$). 카자흐스탄의 평균이 국내거주 청소년의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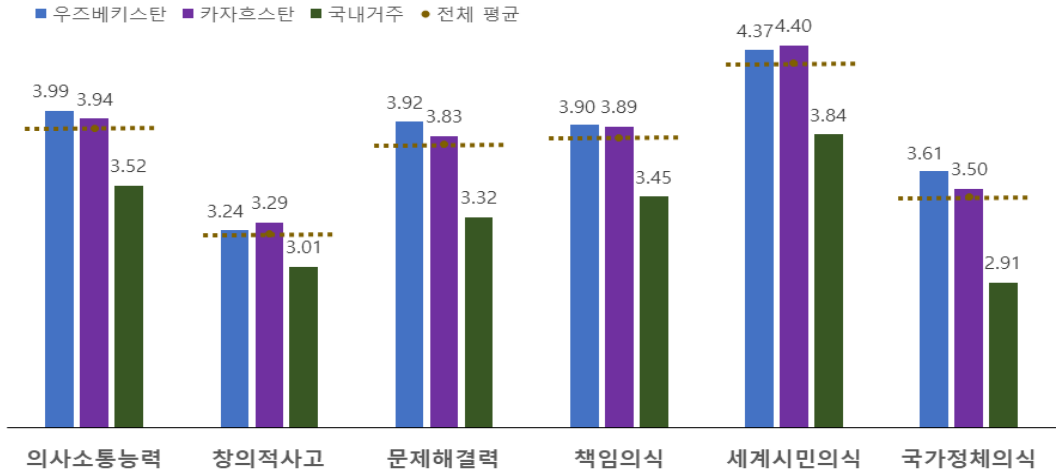
54) Q15_1 '고려인이라고 생각한다'

Q15_2 '나는 고려인인 것이 자랑스럽다'

Q15_3 '나는 고려인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Q15_4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고려인의 사건이나 문제를 이야기 한다'

Q15_5 '나는 고려인의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VI-10】 미래인재역량의 국가별 차이

의사소통능력의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3번 문항을 제외하고 국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문항의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의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6 고려인 청소년의 의사소통능력 - 측정문항별 평균에 대한 국가별 차이

문항 ⁵⁵⁾	전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F	사후검증
	N	M (SD)	N	M (SD)	N	M (SD)	N	M (SD)		
Q16_1	458	4.04 (0.94)	202	4.21 (0.91)	174	4.01 (0.93)	82	3.67 (0.94)	10.24***	우즈, 카자 > 국내
Q16_2	458	3.79 (1.02)	202	3.84 (1.01)	174	3.83 (0.99)	82	3.59 (1.09)	2.03	-
Q16_3	458	3.60 (1.06)	202	3.66 (1.10)	174	3.66 (1.02)	82	3.33 (1.04)	3.33*	우즈 > 국내
Q16_4	458	4.12 (0.92)	202	4.23 (0.87)	174	4.25 (0.85)	82	3.61 (1.02)	16.38***	카자, 우즈 > 국내

주: *** $\alpha < .001$; ** $\alpha < .01$; * $\alpha < .05$

55) Q16_1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Q16_2 '나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에도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Q16_3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Q16_4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창의적사고의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3번 문항만 국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33, p<.05$),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7 고려인 청소년의 창의적사고 - 측정문항별 평균에 대한 국가별 차이

문항 ⁵⁶⁾	전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F	사후검증
	N	M (SD)	N	M (SD)	N	M (SD)	N	M (SD)		
Q17_1	455	3.48 (1.07)	201	3.56 (1.13)	172	3.49 (1.01)	82	3.28 (1.03)	2.02	-
Q17_2	455	2.96 (1.01)	201	2.94 (1.03)	172	3.07 (0.98)	82	2.80 (1.00)	2.04	-
Q17_3	455	3.19 (1.06)	201	3.17 (1.02)	172	3.31 (1.11)	82	2.95 (0.99)	3.33*	카자)국내

주: *** $\alpha<.001$; ** $\alpha<.01$; * $\alpha<.05$

문제해결력의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서 국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의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38 고려인 청소년의 문제해결력 - 측정문항별 평균에 대한 국가별 차이

문항 ⁵⁷⁾	전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F	사후검증
	N	M (SD)	N	M (SD)	N	M (SD)	N	M (SD)		
Q17_4	456	3.67 (1.02)	203	3.74 (0.99)	172	3.80 (1.03)	81	3.25 (0.96)	9.12***	카자, 우즈)국내
Q17_5	456	3.88 (0.99)	203	4.06 (0.94)	172	3.91 (0.94)	81	3.36 (1.04)	15.92***	우즈, 카자)국내
Q17_6	456	3.76 (0.99)	203	3.93 (0.97)	172	3.80 (0.92)	81	3.27 (1.04)	13.78***	우즈, 카자)국내

주: *** $\alpha<.001$; ** $\alpha<.01$; * $\alpha<.05$

56) Q17_1 '나는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을 잘 한다'

Q17_2 '나는 부분적인 내용만 듣고도 전체 내용을 상상할 수 있다'

Q17_3 '나는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도 잘 연결 지어 생각한다'

57) Q17_4 '나는 과제가 어렵거나 중요한 정도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Q17_5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Q17_6 '나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할 때 지난 번 방법이 좋았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사용할지 결정한다'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의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서 국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이 대체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는 ‘나는 지역사회 또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로 4.28점이었으며, 다음은 ‘나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로 4.25점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는 ‘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환경, 평화, 기아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로 3.20점이었으며, 그 다음 낮은 점수는 ‘나는 사회가 좋아지도록 무언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45점이었다.

표 VI-39 고려인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 측정문항별 평균에 대한 국가별 차이

문항 ⁵⁸⁾	전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F	사후검증
	N	M (SD)	N	M (SD)	N	M (SD)	N	M (SD)		
Q18_1	452	3.45 (1.04)	202	3.49 (1.00)	171	3.56 (1.06)	79	3.11 (1.05)	5.31**	카자, 우즈 >국내
Q18_2	452	4.25 (0.83)	202	4.33 (0.81)	171	4.26 (0.75)	79	4.00 (0.99)	4.66**	우즈>국내
Q18_3	452	3.78 (1.00)	202	3.86 (1.07)	171	3.89 (0.84)	79	3.33 (1.00)	10.78***	카자, 우즈 >국내
Q19_1	452	3.20 (1.09)	202	3.17 (1.02)	171	3.37 (1.12)	79	2.92 (1.12)	4.73**	카자>국내
Q19_2	452	3.50 (1.05)	202	3.50 (1.07)	171	3.62 (0.97)	79	3.22 (1.09)	4.11*	카자>국내
Q19_3	452	4.16 (0.90)	202	4.35 (0.78)	171	4.18 (0.87)	79	3.62 (1.03)	20.13***	우즈, 카자 >국내
Q19_4	452	4.28 (0.86)	202	4.42 (0.78)	171	4.26 (0.86)	79	3.95 (0.95)	8.95***	우즈, 카자 >국내

58) Q18_1 ‘나는 사회가 좋아지도록 무언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18_2 ‘나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18_3 ‘나는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19_1 ‘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환경, 평화, 기아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Q19_2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19_3 ‘나는 양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19_4 ‘나는 지역사회 또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19_5 ‘나는 사회적 평등 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항	전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F	사후검증
	N	M (SD)	N	M (SD)	N	M (SD)	N	M (SD)		
Q19_5	452	3.95 (0.95)	202	4.10 (0.91)	171	4.00 (0.90)	79	3.47 (1.02)	13.63***	우즈, 카자 >국내

주: *** α .001; ** α .01; * α .05

세계시민의식의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서 국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는 '나는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로 4.42점이었다.

표 VI-40 고려인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 측정문항별 평균에 대한 국가별 차이

문항 ⁵⁹⁾	전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F	사후검증
	N	M (SD)	N	M (SD)	N	M (SD)	N	M (SD)		
Q20_1	458	4.35 (0.81)	203	4.43 (0.72)	173	4.48 (0.74)	82	3.85 (1.00)	20.12***	카자, 우즈 >국내
Q20_2	458	4.18 (0.88)	203	4.26 (0.86)	173	4.32 (0.78)	82	3.72 (0.95)	15.12***	카자, 우즈 >국내
Q20_3	458	4.42 (0.75)	203	4.55 (0.68)	173	4.47 (0.72)	82	3.99 (0.82)	18.37***	우즈, 카자 >국내
Q20_4	458	4.21 (0.90)	203	4.26 (0.86)	173	4.34 (0.86)	82	3.79 (0.95)	11.52***	카자, 우즈 >국내

주: *** α .001; ** α .01; * α .05

국가정체의식의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모든 문항에서 국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점수가 높은 문항은 '나는 거주국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키려고 한다'로 3.57점이었다.

59) Q20_1 '나는 다른 국가들에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Q20_2 '나는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Q20_3 '나는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Q20_4 '나는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

표 VI-41 고려인 청소년의 국가정체의식 - 측정문항별 평균에 대한 국가별 차이

문항 ⁶⁰⁾	전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F	사후검증
	N	M (SD)	N	M (SD)	N	M (SD)	N	M (SD)		
Q21_1	455	3.55 (1.01)	202	3.78 (0.99)	171	3.52 (0.88)	82	3.04 (1.12)	10.24***	우즈)카자) 국내
Q21_2	455	3.19 (0.96)	202	3.26 (1.00)	171	3.29 (0.84)	82	2.82 (1.01)	7.89***	카자, 우즈)국내
Q21_3	455	3.48 (1.02)	202	3.60 (1.03)	171	3.53 (0.97)	82	3.07 (1.00)	8.51***	우즈, 카자)국내
Q21_4	455	3.57 (1.09)	202	3.84 (1.08)	171	3.67 (0.93)	82	2.72 (1.01)	36.77***	카자, 우즈)국내

주: *** α .001; ** α .01; * α .05

5)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에 관한 인식

한국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4.16점이었고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2.56, p<.001$). 사후검증 결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비해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42 한국에 관한 인식 조사의 국가별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우즈베키스탄	206	4.25	0.59	22.56***	우즈, 카자)국내
카자흐스탄	173	4.24	0.58		
국내거주	82	3.75	0.70		
전체	461	4.16	0.64		

주: *** α .001; ** α .01; * α .05

60) Q21_1 '나는 거주국의 문화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Q21_2 '나는 거주국의 이민역사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Q21_3 '나는 거주국의 국민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Q21_4 '나는 거주국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키려고 한다'

우즈베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에 관한 인식의 평균의 성별, 연령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43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국에 관한 인식의 차이 - 우즈베키스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89	4.23	0.58	0.22	-
	여자	117	4.27	0.61		
	전체	206	4.25	0.59		
연령별	9-12세	9	4.25	0.95	0.36	-
	13-15세	42	4.27	0.70		
	16-18세	63	4.30	0.48		
	19-24세	92	4.20	0.58		
	전체	206	4.25	0.59		

주: *** α .001; ** α .01; * α .05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에 관한 인식의 평균의 성별, 연령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44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국에 관한 인식의 차이 - 카자흐스탄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48	4.15	0.62	1.80	-
	여자	125	4.28	0.57		
	전체	173	4.24	0.58		
연령별	9-12세	0	0.00	0.00	0.64	-
	13-15세	25	4.35	0.64		
	16-18세	68	4.25	0.53		
	19-24세	80	4.20	0.61		
	전체	173	4.24	0.58		

주: *** α .001; ** α .01; * α .05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에 관한 인식의 평균의 성별, 연령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I-45 개인의 주요변인에 따른 한국에 관한 인식의 차이 - 국내거주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성별	남자	34	3.87	0.68	1.78	-
	여자	48	3.66	0.71		
	전체	82	3.75	0.70		
연령별	9-12세	18	3.44	0.67	1.68	-
	13-15세	21	3.77	0.73		
	16-18세	32	3.88	0.72		
	19-24세	11	3.84	0.52		
	전체	82	3.75	0.70		

주: *** α .001; ** α .01; * α .05

한국에 관한 인식의 문항별 평균을 살펴보면, 2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국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에 비해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는 '나는 한국/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로 4.41점이었다. 그다음은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다'로 4.40점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는 '한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와 '한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로 3.70점이었다.

표 VI-46 한국에 관한 인식 - 측정문항별 평균의 국가별 차이

문항 ⁶¹⁾	전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F	사후검증
	N	M (SD)	N	M (SD)	N	M (SD)	N	M (SD)		
Q22_1	453	4.41 (0.78)	201	4.57 (0.65)	173	4.51 (0.72)	79	3.81 (0.92)	32.78***	우즈, 카자 >국내
Q22_2	453	3.70 (0.93)	201	3.64 (1.02)	173	3.81 (0.86)	79	3.59 (0.82)	2.17***	-

문항 ⁶¹⁾	전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F	사후검증
	N	M (SD)	N	M (SD)	N	M (SD)	N	M (SD)		
Q22_3	453	4.40 (0.76)	201	4.57 (0.68)	173	4.43 (0.69)	79	3.89 (0.88)	25.67***	우즈, 카자)국내
Q22_4	453	4.12 (1.07)	201	4.21 (1.09)	173	4.21 (0.97)	79	3.66 (1.14)	9.05***	우즈, 카자)국내
Q22_5 ⁶²⁾	453	3.70 (1.22)	201	3.80 (1.20)	173	3.79 (1.16)	79	3.24 (1.32)	6.87***	우즈, 카자)국내

주: *** $p < .001$; ** $p < .01$; * $p < .05$

6) 고려인 청소년의 교류 경험 및 욕구 조사 결과

동포청소년 간 교류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평상시 동포 청소년들과 만나거나 연락한다’는 평균이 3.42점, ‘나는 동포 청소년단체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다’의 평균의 2.62점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우보다 단체를 통해 연락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문항에서 국가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카자흐스탄 청소년의 평균의 우즈베키스탄 청소년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I-47 동포청소년 간 교류 경험의 국가별 차이

문항 ⁶³⁾	전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F	사후검증
	N	M (SD)	N	M (SD)	N	M (SD)	N	M (SD)		
Q23_1	452	3.42 (1.23)	200	3.48 (1.29)	173	3.41 (1.14)	79	3.28 (1.25)	0.73	-

61) Q22_1 ‘나는 한국/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Q22_2 ‘한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Q22_3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다’

Q22_4 ‘한국문화(K-Pop 등)는 매력적이다’

Q22_5 ‘나는 남북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62) Q22_5는 요인분석 결과와 문항신뢰도 분석을 통해 ‘한국에 관한 인식’ 요인 평균 계산과 회귀분석에 활용된 요인에서 제외되었음.

63) Q23_1 ‘나는 평상시 동포 청소년들과 만나거나 연락한다’

Q23_2 ‘나는 동포 청소년단체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다’

문항	전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F	사후검증
	N	M (SD)	N	M (SD)	N	M (SD)	N	M (SD)		
Q23_2	452	2.62 (1.45)	200	2.41 (1.44)	173	2.89 (1.46)	79	2.57 (1.36)	5.38**	카자)우즈

주: *** α .001; ** α .01; * α .05

거주국 주최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없음'이 전체 평균 69.1%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우즈베키스탄이 77.2%, 카자흐스탄 61.3%, 국내거주 65.4%의 청소년이 연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참석한 빈도를 살펴보면 1회 참석이 가장 많았다. 1회 참석하였다는 응답에서 카자흐스탄 17.9%, 국내거주 13.6%, 우즈베키스탄 11.2%로 나타났다. 4회 이상 참석하였다고 응답한 고려인 청소년의 비율도 카자흐스탄 5.2%, 우즈베키스탄 5.3%, 국내거주 7.4%로 나타났다.

표 VI-48 거주국 주최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경험의 국가별 차이

구분	사례수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우즈베키스탄	206	159	77.2	23	11.2	10	4.9	3	1.5	11	5.3	18.97*
카자흐스탄	173	106	61.3	31	17.9	15	8.7	12	6.9	9	5.2	
국내거주	81	53	65.4	11	13.6	9	11.1	2	2.5	6	7.4	
전체	460	318	69.1	65	14.1	34	7.4	17	3.7	26	5.7	

주: *** α .001; ** α .01; * α .05

한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캠프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없음'이 전체 평균 76.0%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우즈베키스탄이 85.2%, 카자흐스탄 75.7%, 국내거주 53.7%의 청소년이 한국에서 열리는 캠프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참석한 빈도를 살펴보면 1회 참석이 가장 많았다. 1회 참석하였다는 응답에서 카자흐스탄 12.7%, 국내거주 11.0%, 우즈베키스탄 9.4%로 나타났다. 4회 이상 참석하였다고 응답한 고려인 청소년의 비율에서 국내거주 8.5%, 카자흐스탄 5.8%, 우즈베키스탄 1.5%로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4회 이상'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I-49 한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캠프 경험의 국가별 차이

구분	사례수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우즈베키스탄	203	173	85.2	19	9.4	5	2.5	3	1.5	3	1.5	56.81***
카자흐스탄	173	131	75.7	22	12.7	5	2.9	5	2.9	10	5.8	
국내거주	82	44	53.7	9	11.0	16	19.5	6	7.3	7	8.5	
전체	458	348	76.0	50	10.9	26	5.7	14	3.1	20	4.4	

주: *** α .001; ** α .01; * α .05

동포청소년과 교류하는 장소를 살펴보면, 한글학교라고 응답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이 42.8%,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는 정규학교라고 응답한 빈도가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I-50 동포청소년 만남의 장소

구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빈도 ⁶⁴⁾	% ⁶⁵⁾	빈도	%	빈도	%
정규학교	45	21.6	42	24.1	29	34.9
한글학교	89	42.8	75	43.1	9	10.8
교회	35	16.8	29	16.7	9	10.8
학교 밖 여가활동	39	18.8	61	35.1	17	20.5
기타	50	24.0	21	12.1	15	18.1

한국 관련 교류 욕구를 문항별로 국가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한국에서 또래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 ‘한국에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거주국에서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거주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한국의 다양한 문화(역사 유적지, K-Pop 공연 등)를 경험하고 싶다’의 국가별 평균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다’와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의 국가별 평균차이는

64) 복수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전체 합이 총 사례수보다 높을 수 있음.

65) 비율은 항목 응답자/전체 사례수에 대한 백분율.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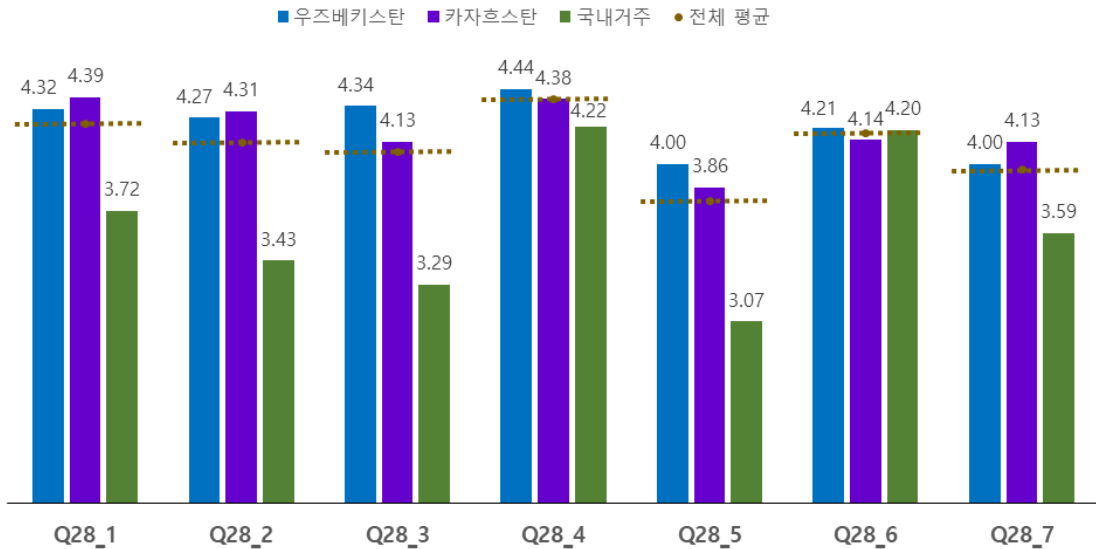
문항 중 가장 높은 전체 평균은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다' 4.38점, '한국에서 또래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 4.24점으로 교류 욕구가 높았다. 전체 평균 중 '거주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3.78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VI-51 한국 관련 교류 욕구의 국가별 차이

문항 ⁶⁶⁾	전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F	사후 검증
	N	M (SD)	N	M (SD)	N	M (SD)	N	M (SD)		
Q28_1	455	4.24 (0.93)	201	4.32 (0.96)	172	4.39 (0.78)	82	3.72 (0.95)	17.08***	카자, 우즈 >국내
Q28_2	455	4.13 (1.04)	201	4.27 (1.05)	172	4.31 (0.83)	82	3.43 (1.12)	25.60***	카자, 우즈 >국내
Q28_3	455	4.07 (1.03)	201	4.34 (0.96)	172	4.13 (0.87)	82	3.29 (1.11)	35.34***	우즈, 카자 >국내
Q28_4	455	4.38 (0.92)	201	4.44 (0.96)	172	4.38 (0.84)	82	4.22 (0.99)	1.71	-
Q28_5	455	3.78 (1.10)	201	4.00 (1.04)	172	3.86 (0.96)	82	3.07 (1.20)	23.94***	우즈, 카자 >국내
Q28_6	455	4.18 (1.00)	201	4.21 (1.03)	172	4.14 (0.94)	82	4.20 (1.02)	0.27	-
Q28_7	455	3.97 (1.11)	201	4.00 (1.16)	172	4.13 (1.02)	82	3.59 (1.09)	6.92***	카자, 우즈 >국내

주: *** α .001; ** α .01; * α .05

- 66) Q28_1 '한국에서 또래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
 Q28_2 '한국에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Q28_3 '거주국에서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Q28_4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다'
 Q28_5 '거주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Q28_6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Q28_7 '한국의 다양한 문화(역사 유적지, K-Pop 공연 등)를 경험하고 싶다'



【그림 VI-11】 한국 관련 교류 욕구의 국가별 차이

7) 고려인 청소년의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기여와 지원에 관한 조사 결과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기여의 전체 평균은 3.40점이고,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0.47, p<.001$). 사후검증 결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 순으로 평균 점수가 나타났다.

표 VI-52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기여의 국가별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우즈베키스탄	208	3.38	0.83	20.47***	카자>우즈>국내
카자흐스탄	174	3.63	0.76		
국내거주	81	2.94	0.79		
전체	463	3.40	0.83		

주: *** $\alpha<.001$; ** $\alpha<.01$; * $\alpha<.05$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기여 요인의 모든 문항에서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대체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문항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는 '거주국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로 3.57점이었고, 낮은 점수는 '국제사회에서 다리 역할을 통해서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로 나타났다.

표 VI-53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기여- 문항별 평균의 국가별 차이

문항 ⁶⁷⁾	전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F	사후검증
	N	M (SD)	N	M (SD)	N	M (SD)	N	M (SD)		
Q26_1	452	3.47 (1.01)	201	3.54 (1.00)	172	3.69 (0.91)	79	2.84 (0.98)	22.15***	카자, 우즈 >국내
Q26_2	452	3.57 (1.04)	201	3.62 (1.03)	172	3.76 (0.94)	79	3.04 (1.10)	14.20***	카자, 우즈 >국내
Q26_3	452	3.42 (1.01)	201	3.43 (1.05)	172	3.62 (0.93)	79	2.99 (0.93)	11.27***	카자, 우즈 >국내
Q26_4	452	3.39 (1.03)	201	3.32 (1.07)	172	3.65 (0.98)	79	3.00 (0.92)	11.84***	카자, 우즈 >국내
Q26_5	452	3.10 (1.12)	201	2.94 (1.16)	172	3.44 (1.03)	79	2.78 (1.03)	14.04***	카자) 우즈, 국내

주: *** α .001; ** α .01; * α .05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요구의 전체 평균은 4.07점이고,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51.29, p<.001$). 사후검증 결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 순으로 평균 점수가 나타났다.

67) Q26_1 '거주국에서 성공하여 동포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Q26_2 '거주국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

Q26_3 '다른 동포사회와 교류하여 거주국 고려인 사회를 단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Q26_4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나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Q26_5 '국제사회에서 다리 역할을 통해서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표 VI-54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요구의 국가별 차이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사후검증
우즈베키스탄	208	4.21	0.74	51.29***	카자, 우즈)국내
카자흐스탄	174	4.24	0.61		
국내거주	81	3.35	0.79		
전체	463	4.07	0.78		

주: *** α .001; ** α .01; * α .05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요구의 모든 문항에서 국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후검증 결과 대체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한민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민족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로 4.22점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는 '거주국에 살고 있는 동포청소년들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로 3.91점이었다.

표 VI-55 동포청소년을 위한 지원 요구- 문항별 평균의 국가별 차이

문항 ⁶⁸⁾	전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F	사후검증
	N	M (SD)	N	M (SD)	N	M (SD)	N	M (SD)		
Q27_1	456	4.07 (0.92)	202	4.19 (0.91)	174	4.28 (0.75)	80	3.31 (0.94)	38.50***	카자, 우즈)국내
Q27_2	456	3.91 (0.97)	202	4.05 (0.92)	174	4.10 (0.85)	80	3.11 (0.94)	37.98***	카자, 우즈)국내
Q27_3	456	4.06 (0.92)	202	4.17 (0.91)	174	4.25 (0.77)	80	3.36 (0.94)	31.85***	카자, 우즈)국내
Q27_4	456	4.22 (0.84)	202	4.36 (0.82)	174	4.32 (0.74)	80	3.66 (0.91)	23.49***	우즈, 카자)국내

주: *** α .001; ** α .01; * α .05

68) Q27_1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Q27_2 '거주국에 살고 있는 동포청소년들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Q27_3 '한국의 청소년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Q27_4 '한민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민족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8) 고려인 청소년의 미래 선택과 기타 항목에 관한 조사 결과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빈도로 살펴보았다. 각 국가별로 요인별 순위가 달랐으나 높은 빈도를 나타낸 요인 중 한글학교 등의 한국어 교육과 개인적 한국 방문이 공통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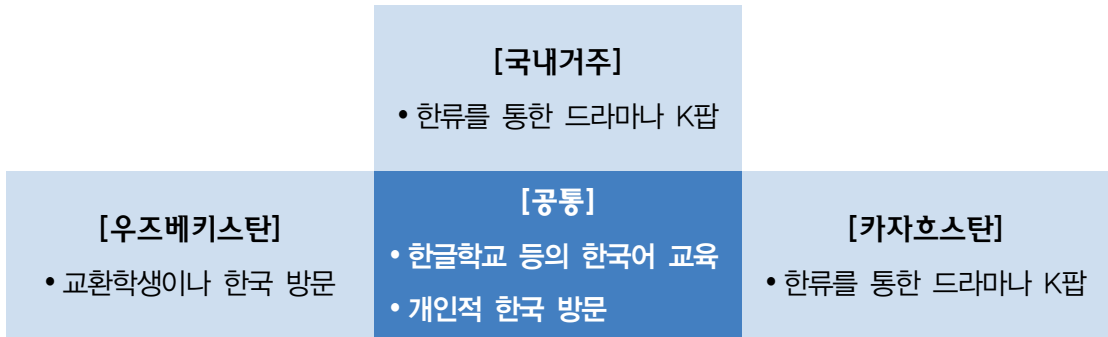
표 VI-56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빈도 ⁶⁹⁾	% ⁷⁰⁾	빈도	%	빈도	%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	51	24.5	57	32.8	13	15.7
주변 친구들의 관심과 대화	49	23.6	47	27.0	17	20.5
한류를 통한 드라마나 K-Pop 등	83	39.9	82	47.1	23	27.7
인터넷사이트 방문이나 SNS 활동	17	8.2	32	18.4	6	7.2
한글학교 등의 한국어 교육	105	50.5	85	48.9	45	54.2
개인적 한국 방문	85	40.9	66	37.9	31	37.3
교환학생이나 한국방문 프로그램	85	40.9	55	31.6	7	8.4
한민족 캠프나 축제	65	31.3	38	21.8	11	13.3
기타	30	14.4	16	9.2	14	16.9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이 응답한 상위 3개 항목은 한글학교 등의 한국어 교육, 개인적 한국 방문, 교환학생이나 한국 방문이었고, 카자흐스탄은 한글학교 등의 한국어 교육, 개인적 한국 방문, 한류를 통한 드라마나 K-Pop, 국내거주는 한글학교 등의 한국어 교육, 개인적 한국 방문, 한류를 통한 드라마나 K-Pop이었다. 카자흐스탄과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이 응답한 상위 3개는 같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69) 복수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전체 합이 총 사례수보다 높을 수 있음.

70) 비율은 항목 응답자/전체 사례수에 대한 백분율.



【그림 VI-12】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 중 국가별 상위 3개 항목

한국에서의 학업 또는 취업의 방해 요인을 빈도로 살펴보았다. 각 국가별로 요인별 순위가 달랐으나 높은 빈도를 나타낸 요인 중 한국국적이 없는 것,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것이 공통항목으로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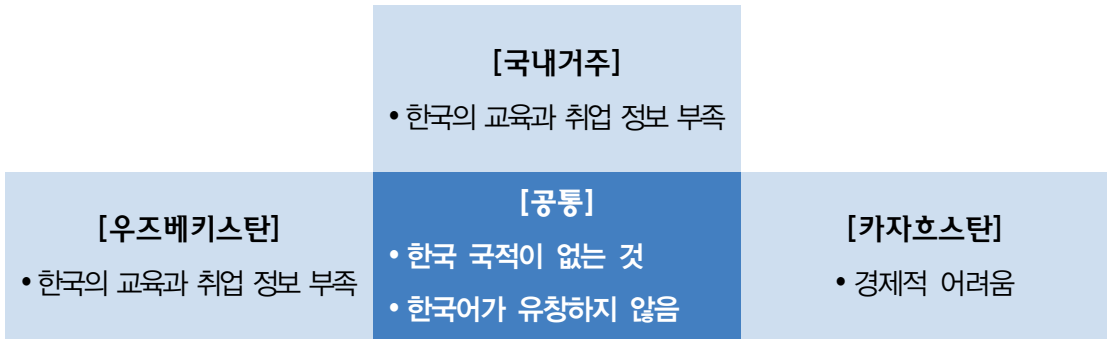
표 VI-57 한국에서의 학업 또는 취업의 방해 요인

구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빈도 ⁷¹⁾	% ⁷²⁾	빈도	%	빈도	%
한국 국적이 없는 것	86	41.3	81	46.6	33	39.8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음	146	70.2	100	57.5	47	56.6
군복무를 하지 않음	15	7.2	16	9.2	7	8.4
한국의 교육과 취업에 대한 정보 부족	37	17.8	46	26.4	17	20.5
한국에서 교육받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부족	30	14.4	35	20.1	13	15.7
경제적 어려움	0	0.0	54	31.0	11	13.3
한국의 조직 및 기업 문화 적응에 자신이 없음	15	7.2	16	9.2	7	8.4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생활할 자신이 없음	22	10.6	18	10.3	6	7.2
기타	20	9.6	14	8.0	11	13.3

71) 복수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전체 합이 총 사례수보다 높을 수 있음.

72) 비율은 항목 응답자/전체 사례수에 대한 백분율.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이 응답한 상위 3개 항목에는 공통 항목과 한국의 교육과 취업 정보 부족이 있었고, 카자흐스탄은 공통항목과 경제적 어려움, 국내 거주는 공통항목과 한국의 교육과 취업 정보 부족이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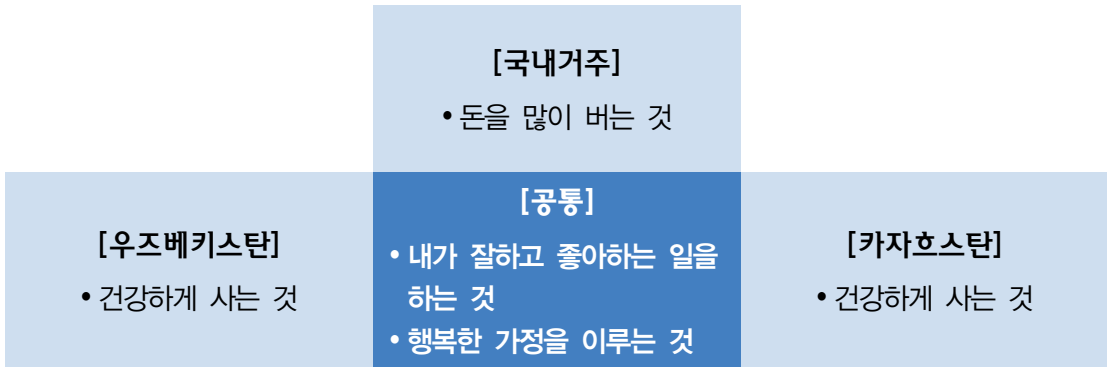
[그림 VI-13] 한국에서의 학업 또는 취업 방해 요인 중 국가별 상위 3개 항목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빈도로 살펴보았다. 각 국가별로 요인별 순위가 달랐으나 높은 빈도를 나타낸 요인 중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공통항목으로 포함되었다.

표 VI-58 인생에서 중요한 것

구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빈도 ⁷³⁾	% ⁷⁴⁾	빈도	%	빈도	%
돈을 많이 버는 것	80	38.5	74	42.5	34	41.0
명예를 얻는 것	38	18.3	35	20.1	9	10.8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80	38.5	77	44.3	10	12.0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75	36.1	56	32.2	23	27.7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132	63.5	112	64.4	39	47.0
건강하게 사는 것	113	54.3	89	51.1	29	34.9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152	73.1	115	66.1	47	56.6
종교생활을 잘 하는 것	22	10.6	21	12.1	10	12.0
기타	1	0.5	3	1.7	6	7.2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이 응답한 상위 3개 항목은 일치였다. 항목들은 공통 항목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있었고, 국내 거주는 공통항목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포함되었다.



【그림 VI-14】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국가별 상위 3개 항목

국가별로 장래 희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청소년의 장래 희망 중 상위 3위는 전문경영인, 회사원, 디자이너였고, 카자흐스탄은 기타 응답과, 전문경영인, 의사,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는 기타 응답과 의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순이었다. 기타 응답의 경우 주관식 응답을 하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청소년이 기타에 표기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고려인 청소년은 전문경영인, 의사, 디자이너와 같은 전문직을 장래 희망이나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59 장래 희망(직업)

순 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직업	빈도	%	직업	빈도	%	직업	빈도	%
1	전문경영인	28	13.5	기타	21	12.1	기타	11	13.3
2	회사원	27	13.0	전문경영인	19	10.9	의사	9	10.8

73) 복수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전체 합이 총 사례수보다 높을 수 있음.

74) 비율은 항목 응답자/전체 사례수에 대한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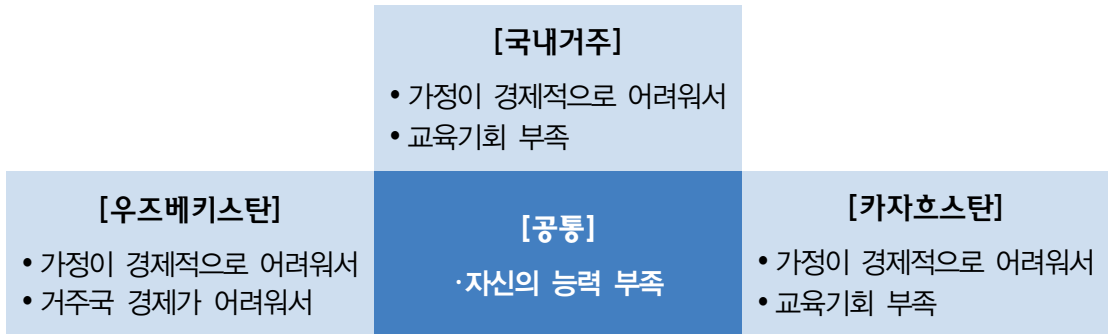
순 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직업	빈도	%	직업	빈도	%	직업	빈도	%
3	디자이너	22	10.6	의사	15	8.6	컴퓨터 프로그래머	8	9.6
4	기타	22	10.6	회사원	15	8.6	전문경영인	7	8.4
5	컴퓨터 프로그래머	17	8.2	디자이너	13	7.5	교사	7	8.4
6	의사	17	8.2	엔지니어	12	6.9	디자이너	7	8.4
7	연예인	14	6.8	연예인	11	6.3	회사원	6	7.2
8	교사	10	4.8	법조인	10	5.7	음악가	4	4.8
9	법조인	8	3.9	컴퓨터 프로그래머	10	5.7	특별히없음	4	4.8
10	요리사	6	2.9	회계사	7	4.0	법조인	3	3.6

장래 희망을 이루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질문한 항목에서 고려인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능력부족을 상위 3개 항목 중 하나로 응답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거주국 경제가 어려워져 리는 응답도 14.9%로 높았고, 카자흐스탄과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 교육기회의 부족이 19.0%로 높게 나타났다.

표 VI-60 장래 희망을 이루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구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국내거주	
	빈도 ⁷⁵⁾	% ⁷⁶⁾	빈도	%	빈도	%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67	32.2	79	45.4	14	16.9
자신의 능력 부족	83	39.9	41	23.6	29	34.9
교육기회 부족	25	12.0	33	19.0	16	19.3
부모님의 관심 부족	4	1.9	5	2.9	3	3.6
거주국 사회의 관심과 지원 부족	23	11.1	15	8.6	4	4.8
거주국 사회 차별	12	5.8	7	4.0	7	8.4
거주국 경제가 어려워서	31	14.9	23	13.2	7	8.4
기타	50	24.0	37	21.3	24	28.9

국가별로 살펴보면 카자흐스탄과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이 응답한 상위 항목들이 일치하였다. 공통항목과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와 교육 기회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는 자신의 능력부족,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거주국 경제의 어려움을 꼽았다.



【그림 VI-15】 장래희망을 이루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중 국가별 상위 3개 항목⁷⁷⁾

9) 한민족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민족정체성은 의식과 실천의 두 요인으로 구분하여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인구통계학적 특성, 생활과 인식과 관련된 요인, 미래인재역량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1단계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을 변수로 투입하였다. 2단계에는 독립변인으로 한국어능력, 가정생활, 한국관련 인식, 교류 및 참여욕구, 자극 프로그램과 한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한국관련 교육과정 참여 경험을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미래인재역량인 의사소통능력, 창의적사고, 문제해결력,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세계시민의식, 국가정체의식을 투입하였다.

(1)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5) 복수응답이 가능한 문항으로 전체 합이 총 사례수보다 높을 수 있음.

76) 비율은 항목 응답자/전체 사례수에 대한 백분율.

77) 기타를 제외한 상위 3개 항목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회귀모형 Model2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변화량=6.48, $p<.001$).

각 변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한국관련 인식($\beta=0.31$, $p<.001$)이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한국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을수록 한민족정체성-인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VI-61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성별 (남=0, 여=1)	0.15	0.09	0.13	0.06	0.09	0.05	0.06	0.09	0.05
연령	-0.01	0.01	-0.03	0.00	0.01	-0.01	0.00	0.01	-0.02
한국어능력				0.05	0.04	0.09	0.03	0.05	0.05
가정생활				0.03	0.06	0.03	-0.01	0.06	-0.01
한국관련인식				0.31	0.09	0.31***	0.23	0.09	0.23*
교류및참여욕구				0.10	0.07	0.12	0.08	0.07	0.11
자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0, 있음=1)				-0.03	0.11	-0.02	0.02	0.11	0.01
한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0, 있음=1)				-0.12	0.12	-0.07	-0.14	0.12	-0.08
한국관련 교육과정 참여※ (없음=0, 있음=1)				0.02	0.11	0.01	0.01	0.11	0.01
의사소통							0.13	0.07	0.14
창의적사고							-0.07	0.05	-0.10
문제해결력							-0.01	0.07	-0.01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0.06	0.08	0.06
세계시민의식							0.10	0.08	0.10
국가정체의식							0.03	0.05	0.04
R ²	.01			.18			.19		
F 변화량	1.717			6.48***			1.52		

주: *** $\alpha<.001$; ** $\alpha<.01$; * $\alpha<.05$; ※한국관련 교육과정은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한국어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 경험 여부임.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회귀모형 Model3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변화량=2.15, $p<.05$).

각 변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한국관련 교육과정 참여 경험($\beta=0.11, p<.05$)이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련 교육과정은 한글학교, 한국관련 교육 과정에 다닌 적이 있는지와 관련한 문항으로 한글교육 또는 한국 관련 교육 과정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 한민족정체성-의식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미래인재역량 중 세계시민의식($\beta=0.09, p<.05$)이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분석에도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시민의식이 높은 경우 즉, 다른 국가에 대한 개방적 태도나 친근감이 높은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의 경우 한민족정체성-의식도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VI-62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성별 (남=0, 여=1)	0.25	0.12	0.17*	0.09	0.11	0.06	0.81	0.08	0.11
연령	-0.02	0.02	-0.08	-0.01	0.02	-0.03	-0.43	-0.01	0.02
한국어능력				0.05	0.06	0.07	0.83	0.05	0.06
가정생활				0.06	0.08	0.06	0.73	0.04	0.08
한국관련인식				0.23	0.09	0.20*	2.49	0.13	0.10
교류및참여욕구				0.21	0.09	0.20*	2.40	0.13	0.09
자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0, 있음=1)				-0.07	0.11	-0.05	-0.58	-0.06	0.11
한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0, 있음=1)				-0.05	0.15	-0.03	-0.34	-0.07	0.15
한국관련 교육과정 참여※ (없음=0, 있음=1)				0.34	0.11	0.23**	3.00	0.29	0.11*
의사소통								-0.06	0.08
창의적사고								-0.05	0.07
문제해결력								0.00	0.08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0.20	0.12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세계시민의식							0.19	0.09*	
국가정체의식							0.00	0.07	
R ²	.03			.23			.26		
F 변화량	3.29*			7.09***			2.15*		

주: *** $p < .001$; ** $p < .01$; * $p < .05$; ※한국관련 교육과정은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한국어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 경험 여부임.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회귀모형 Model2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변화량=2.07, $p < .05$). 그러나 각 요인별 영향력에서 한국관련인식이 ($\beta = 0.24$, $p = .076$)이 유일하게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로 한국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을수록 한민족정체성-인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VI-63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성별 (남=0, 여=1)	0.22	0.24	0.11	0.19	0.24	0.09	0.15	0.24	0.07
연령	0.05	0.04	0.16	0.04	0.05	0.11	0.01	0.05	0.04
한국어능력				-0.24	0.14	-0.24	-0.25	0.15	-0.24
가정생활				0.16	0.17	0.12	0.12	0.17	0.09
한국관련인식				0.33	0.18	0.24†	0.15	0.20	0.11
교류및참여욕구				0.22	0.19	0.16	0.20	0.20	0.15
자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0, 있음=1)				0.06	0.27	0.03	-0.04	0.27	-0.02
한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0, 있음=1)				0.22	0.26	0.11	0.22	0.26	0.11
한국관련 교육과정 참여※ (없음=0, 있음=1)				-0.28	0.28	-0.12	-0.40	0.29	-0.18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의사소통							0.28	0.20	0.25
창의적사고							0.01	0.17	0.00
문제해결력							0.01	0.18	0.01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0.11	0.23	0.08
세계시민의식							0.10	0.23	0.08
국가정체의식							-0.02	0.16	-0.02
R ²	.00			.09			.12		
F 변화량	.98			2.07*			1.43		

주: *** α .001; ** α .01; * α .05;

†유의확률 0.76. *한국관련 교육과정은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한국어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 경험 여부임.

(2)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회귀모형 Model3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변화량=6.36, p <.001).

각 변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성별(β =0.11, p <.05)이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한민족정체성-실천 평균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능력(β =0.16, p <.05), 가정생활(β =0.22, p <.01)이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능력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한민족정체성-실천 평균도 높아지고, 가정에서 부모와 같이 한국과 관련한 활동을 많이 할수록 한민족정체성-실천 평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표 VI-64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성별 (남=0, 여=1)	0.04	0.14	0.02	-0.22	0.13	-0.11	-0.27	0.12	-0.13*
연령	0.05	0.02	0.17*	0.04	0.02	0.13*	0.03	0.02	0.09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한국어능력				0.22	0.07	0.24***	0.14	0.07	0.16*
가정생활				0.32	0.09	0.26***	0.28	0.09	0.22**
한국관련인식				0.14	0.13	0.09	-0.02	0.13	-0.01
교류및참여욕구				0.18	0.11	0.14	0.11	0.11	0.08
자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0, 있음=1)				0.12	0.17	0.05	0.18	0.16	0.07
한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0, 있음=1)				0.29	0.19	0.10	0.22	0.18	0.08
한국관련 교육과정 참여※ (없음=0, 있음=1)				-0.06	0.17	-0.03	0.00	0.15	0.00
의사소통							0.15	0.11	0.10
창의적사고							0.26	0.07	0.21***
문제해결력							-0.08	0.09	-0.06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0.44	0.12	0.29***
세계시민의식							-0.10	0.12	-0.06
국가정체의식							0.01	0.08	0.01
R ²		.02			.30			.41	
F 변화량		2.92			11.95***			6.36***	

주: *** α .001; ** α .01; * α .05; ※한국관련 교육과정은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한국어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 경험 여부임.

미래인재역량 중 창의적사고($\beta=0.21, p<.001$)와 개인적·사회적책임의식($\beta=0.29, p<.001$)이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의적사고가 높고, 책임의식이 높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 한민족정체성-실천 의지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회귀모형 Model3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변화량=2.52, $p<.001$).

각 변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한국어능력($\beta=0.22, p<.05$), 교류및참여욕구($\beta=0.20, p<.05$)가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능력이 높은 경우 한민족정체성-실천에 대한 생각이 높으며, 동포청소년과의 교류와 참여 욕구가 강할수록 한민족정체성-실천 평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미래인재역량 중 개인적·사회적책임의식($\beta=0.28, p<.01$)이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책임의식이 강할수록 한민족정체성-실천 의지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계시민의식($\beta=-0.18, p<.05$)이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로 보았을 때는 세계시민의식이 낮을수록 한민족정체성-실천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p 값이 0.37점으로 높지는 않지만, 미래인재역량 중 세계시민의식의 부적 영향에 대한 해석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65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성별 (남=0, 여=1)	0.10	0.17	0.05	-0.02	0.15	-0.01	0.08	0.15	0.04
연령	0.06	0.03	0.16*	0.05	0.03	0.13	0.04	0.03	0.12
한국어능력				0.26	0.08	0.27***	0.21	0.08	0.22**
가정생활				0.22	0.10	0.17*	0.17	0.10	0.14
한국관련인식				0.07	0.12	0.04	0.07	0.13	0.04
교류및참여욕구				0.39	0.12	0.25***	0.30	0.12	0.20*
자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0, 있음=1)				0.16	0.15	0.08	0.18	0.15	0.09
한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0, 있음=1)				0.12	0.20	0.05	0.10	0.20	0.04
한국관련 교육과정 참여※ (없음=0, 있음=1)				-0.12	0.15	-0.06	-0.08	0.15	-0.04
의사소통							0.05	0.11	0.04
창의적사고							0.02	0.09	0.02
문제해결력							-0.01	0.11	-0.01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0.43	0.16	0.28**
세계시민의식							-0.26	0.13	-0.18*
국가정체의식							0.07	0.10	0.05
R ²		.03			.38			.44	
F 변화량		2.22			12.61***			2.52*	

주: *** $\alpha<.001$; ** $\alpha<.01$; * $\alpha<.05$; ※한국관련 교육과정은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한국어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 경험 여부임.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회귀모형 Model3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변화량=3.81, $p<.01$).

각 변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정생활($\beta=0.36$, $p<.001$)이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 중 가정에서 부모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과 연관된 활동 들을 자주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신을 더욱 한민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한민족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관련 교육과정 참여 경험($\beta=0.25$, $p<.05$)이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관련 교육과정은 한글학교, 한국관련 교육 과정에 다닌 적이 있는지와 관련한 문항으로 한글교육 또는 한국 관련 교육 과정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 한민족정체성-실천도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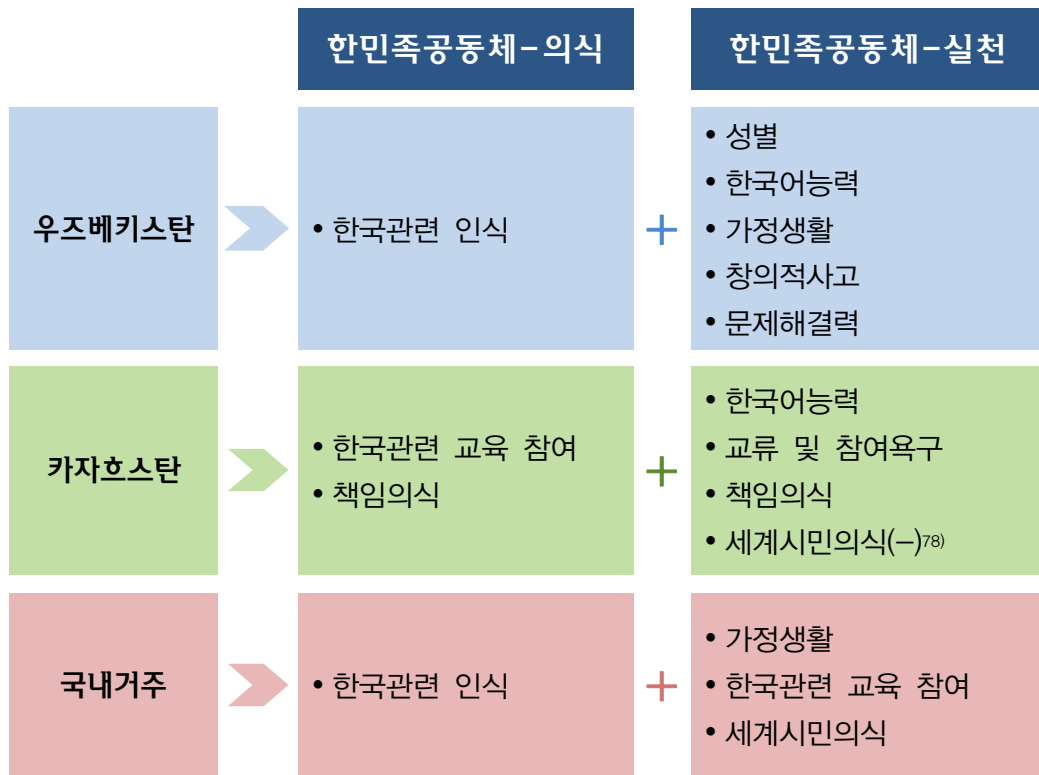
미래인재역량 중 세계시민의식($\beta=0.32$, $p<.05$)이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민의식이 높을수록 한민족정체성-실천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66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성별 (남=0, 여=1)	.10	.24	.05	-.04	.21	-.02	-.07	.20	-.03
연령	.13	.04	.37**	.07	.04	.20	.05	.04	.16
한국어능력				.04	.13	.04	-.06	.12	-.05
가정생활				.50	.15	.39***	.47	.13	.36***
한국관련인식				.15	.16	.11	-.05	.17	-.04
교류및참여욕구				.18	.17	.13	.10	.16	.07
자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0, 있음=1)				.06	.24	.03	-.08	.22	-.04
한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0, 있음=1)				.41	.23	.20	.51	.21	.25*
한국관련 교육과정 참여※ (없음=0, 있음=1)				-.26	.24	-.11	-.38	.23	-.16
의사소통							.13	.18	.11
창의적사고							.12	.14	.10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문제해결력							.00	.14	.00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01	.18	.00
세계시민의식							.42	.19	.32*
국가정체의식							.05	.12	.04
R ²	.13			.33			.47		
F 변화량	5.54**			4.64***			3.81**		

주: *** α .001; ** α .01; * α .05; ※한국관련 교육과정은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한국어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 경험 여부임.



【그림 VI-16】 한민족정체성의 영향 요인에 대한 국가별 비교

78) 카자흐스탄의 경우 한민족공동체-실천에 세계시민의식은 부적 영향을 미쳐 해석에 주의를 요함

10)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과 관련된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주요 요인을 분석하였다.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인구통계학적 특성, 생활과 인식과 관련된 요인, 미래인재역량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서 1단계에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과 연령을 변수로 투입하였다. 2단계에는 독립변인으로 한국어능력, 가정생활, 한국관련 인식, 교류 및 참여욕구, 자극 프로그램과 한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한국관련 교육과정 참여 경험을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미래인재역량인 의사소통능력, 창의적사고, 문제해결력, 개인적사회적책임의식, 세계시민의식, 국가정체의를 투입하였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회귀모형 Model3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변화량=4.18, $p<.01$).

각 변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교류 및 참여 욕구($\beta=0.23$, $p<.01$), 한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beta=0.23$, $p<.01$)가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포들과 교류하고 한국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 다른 청소년에 비해 동포사회를 위해 역할을 하고자 하는 기대도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또는 한국 관련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관련 교육 경험($\beta=-0.16$, $p<.05$)는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글학교나 한국 관련 교육 과정에 다닌 경험이 있는 동포 청소년의 역할 기대가 낮은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어 추가 분석을 통한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

미래인재역량 중 책임의식($\beta=0.20$, $p<.01$)이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67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성별 (남=0, 여=1)	0.10	0.12	0.06	-0.11	0.11	-0.07	-0.13	0.10	-0.08
연령	0.03	0.02	0.10	0.02	0.02	0.09	0.02	0.02	0.08
한국어능력				0.14	0.06	0.19**	0.07	0.05	0.09
가정생활				0.09	0.07	0.08	0.06	0.07	0.05
한국관련인식				0.31	0.11	0.23**	0.14	0.11	0.10
교류및참여욕구				0.32	0.09	0.30***	0.25	0.09	0.23**
자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0, 있음=1)				-0.13	0.14	-0.06	-0.11	0.14	-0.05
한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0, 있음=1)				0.39	0.15	0.17*	0.34	0.15	0.14*
한국관련 교육과정 참여※ (없음=0, 있음=1)				-0.34	0.14	-0.17*	-0.31	0.13	-0.16*
의사소통							0.05	0.09	0.04
창의적사고							0.06	0.06	0.06
문제해결력							0.08	0.08	0.08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0.25	0.10	0.20**
세계시민의식							0.06	0.10	0.05
국가정체의식							0.09	0.07	0.09
R ²	.00			.33			.39		
F 변화량	1.26			14.21***			4.18**		

주: *** α .001; ** α .01; * α .05; ※한국관련 교육과정은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한국어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 경험 여부임.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회귀모형 Model3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변화량=8.00, $p < .001$).

각 변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교류 및 참여 욕구 ($\beta = 0.22$, $p < .01$), 한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beta = 0.20$, $p < .01$)가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결과의 비슷한 결과로, 동포들과 교류하고 한국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동포청소년의 경우 다른 청소년에

비해 동포사회를 위해 역할을 하고자 하는 기대도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미래인재역량 중 책임의식($\beta=0.19, p<.05$)과 국가정체의식($\beta=0.30, p<.001$)이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의 경우 자국 문화나 역사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정체성이 높을수록 우리 한민족을 위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기대 또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표 VI-68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성별 (남=0, 여=1)	-0.07	0.13	-0.04	-0.12	0.11	-0.07	0.01	0.10	0.01
연령	0.03	0.02	0.10	0.01	0.02	0.03	0.00	0.02	0.01
한국어능력				0.05	0.06	0.07	-0.04	0.05	-0.05
가정생활				0.10	0.08	0.10	0.06	0.07	0.06
한국관련인식				0.15	0.10	0.11	0.03	0.10	0.02
교류및참여욕구				0.41	0.09	0.35 ^{***}	0.26	0.09	0.22 ^{**}
자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0, 있음=1)				0.04	0.12	0.02	0.13	0.11	0.08
한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0, 있음=1)				0.39	0.16	0.22 [*]	0.36	0.14	0.20 ^{**}
한국관련 교육과정 참여※ (없음=0, 있음=1)				-0.07	0.12	-0.04	-0.02	0.11	-0.01
의사소통							0.14	0.08	0.13
창의적사고							0.03	0.06	0.04
문제해결력							0.04	0.08	0.04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0.22	0.11	0.19 [*]
세계시민의식							-0.12	0.09	-0.11
국가정체의식							0.31	0.07	0.30 ^{***}
R ²	.00			.32			.46		
F 변화량	1.02			11.83 ^{***}			8.00 ^{***}		

주: *** $\alpha<.001$; ** $\alpha<.01$; * $\alpha<.05$; ※한국관련 교육과정은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한국어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 경험 여부임.

국내거주 청소년의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회귀모형 Model3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변화량=4.68, $p<.001$).

각 변인별 영향력을 살펴보면, 성별($\beta=-0.27, p<.01$)이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능력($\beta=0.32, p<.01$), 교류 및 참여 욕구($\beta=0.25, p<.05$)가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결과의 비슷한 결과로, 동포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동포청소년의 경우 다른 청소년에 비해 동포사회를 위해 역할을 하고자 하는 기대도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어능력 또한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들의 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다.

미래인재역량 중 문제해결력($\beta=0.23, p<.05$), 국가정체의식($\beta=0.42, p<.01$)이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기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창의적능력 중 문제해결력 평균이 높은 동포청소년의 경우 우리 한민족을 위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기대 또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의 경우와 비슷하게 자국 문화나 역사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정체성이 높을수록 우리 한민족을 위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기대 또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또는 한국 관련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beta=-0.38, p<.01$)는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사소통 능력 평균이 높은 동포청소년이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역할 기대가 낮은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어 추가 분석을 통한 주의 깊은 해석이 필요하다.

표 VI-69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성별 (남=0, 여=1)	-0.46	0.19	-0.29*	-0.53	0.17	-0.33**	-0.43	0.15	-0.27**
연령	-0.03	0.03	-0.12	-0.12	0.03	-0.43***	-0.04	0.03	-0.13
한국어능력				0.32	0.10	0.39**	0.26	0.09	0.32**
가정생활				0.11	0.12	0.11	0.15	0.10	0.15
한국관련인식				-0.19	0.13	-0.17	-0.07	0.13	-0.06
교류및참여욕구				0.43	0.14	0.40**	0.27	0.12	0.25*
자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0, 있음=1)				0.20	0.19	0.12	0.12	0.17	0.07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β	B	SE B	β	B	SE B	β
한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없음=0, 있음=1)				0.06	0.18	0.04	0.02	0.16	0.01
한국관련 교육과정 참여※ (없음=0, 있음=1)				-0.17	0.19	-0.09	-0.03	0.18	-0.01
의사소통							-0.33	0.13	-0.38**
창의적사고							0.13	0.11	0.14
문제해결력							0.23	0.11	0.23*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							0.19	0.14	0.17
세계시민의식							-0.24	0.14	-0.24
국가정체의식							0.39	0.10	0.42***
R ²	.05			.31			.48		
F 변화량	2.88			5.10***			4.68***		

주: *** α .001; ** α .01; * α .05; ※한국관련 교육과정은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한국어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 경험 여부임.



【그림 VI-17】 한민족공동체 발전의 영향 요인에 대한 국가별 비교

2.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분석

1) 우즈베키스탄 교육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본 절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거나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거주 중인 현지 전문가들의 면접 조사를 통하여 현지 고려인 청소년의 특성과 실태, 교육 현황, 이들의 진로와 고민 등을 파악하고 질적 분석 방법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다음 표에는 면접조사 결과는 범주, 대주제, 소주제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표 VI-70 우즈베키스탄 교육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의 범주

범주	대주제	소주제
고려인	민족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교육을 통한 한국문화 관심 증대 • 서로 도와주는 고려인 • 고려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 • 체면을 중시하는 고려인
	지역사회 교육과 문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육원 참여 증대 • 미흡한 고려문화협회 활동 • 문화적 활동 공간 부족
고려인 청소년	가정 환경과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부모 돌봄과 남겨진 아이들 • 물질적으로 풍족한 아이들 • 부모와 한국으로 떠나는 아이들
	목표 없는 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선택의 한계 • 준비 없이 받아들이는 삶
	진학과 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진학을 희망 • 한국에서 취업이나 유학 선호 • IT업계 취업 선호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은 보수로 인한 어려움 • 수적으로 부족한 한국인 한국어 교사

79)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이 역할 기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해석에 주의를 요함

범주	대주제	소주제
정책제안 및 지원 요청	교육 시스템의 한계	•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교재와 콘텐츠 부족
		•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 연수 기회 부족
	교육·인적 자원 및 교류 확대	• 한국인 원어민 교사 및 학생 교류
		• 교사 연수 및 교육 기회 확대 요청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한국 문화와 역사교육 콘텐츠 제공
		• 취업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다양한 문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경제적·물질적 지원	• 장학금 및 교육 기자재 지원
	교육·문화적 공간 마련	• 고려인을 위한 공간 또는 기관 마련
		• 한국학교, 한국유치원 설립

(1) 고려인

① 민족 정체성

가. 한국어 교육을 통한 한국문화 관심 증대

강제이주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정착한 고려인 후손인 청소년들은 한글교육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인물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갖는다. 한국에 취업한 부모들 대부분이 자녀들에게 한국어 공부를 강조하고 있고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한국노래를 배우는 것은 한국어 사용 능력에 도움이 되고 역사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으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7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일은 어렵지만 K-Pop을 잘 부르기 위해 정확히 발음하기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기도 한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열정을 칭찬하였다. 그리고 이는 언어학습과 문화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나 역사를 아는 것이 그 한국어 사용 능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말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역사도 알고 문화도 알고요...(중략)...7학년부터 역사를

조금 조금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한국에 나가 계신 학생들은 말해요. 제 부모님은 한국에 있다고.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 거기 있으면서 돈을 벌면서 항상 아이한테 말해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라고...그리고 앞으로 한국으로 올 수 있다며, 그래서 아이들은 한국문화와 역사에 대해 조금 조금 이렇게 관심이 생겨요. (참여자 3)

한국어 문화도 있어요. 이런 명절 설날 이런 것도 있고. 한국어 역사는 뭐 세종대왕도 알고 관심이 생겨요. (참여자 6)

한국어 배울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한국 노래 이제는 듣다 보니까 이제는 읽을 줄 알아야 그 발음이 이제는 제대로 나오는데 어떤 학생 그 발음 때문에도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해요. (참여자 7)

나. 서로 도와주는 고려인

참여자들은 공적인 상황에서는 고려인이라고 특별히 더 도와주지 못하지만 개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고려인이라는 민족 뿌리를 가지고 있고 민족 역사를 기억하며 살고 있다고 말한다. 고려인 3~4세대인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한국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하며 열심히 살아가려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왜냐면 같은 민족이니까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또 여기는 자기 역사적인 그 자리도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낳아 어떻게 여기서 와서 살고 있는지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항상 도와주고 항상 기억하고 있는지. 또 이것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항상 되요. (참여자 1)

여기는 개인 도움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면 국립 기관에서 일하니까 이렇게 고려인만 이렇게 돕고 도와주는 거 할 수 없죠.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그거는 반드시 도와줄 거지. 그런데 학교나 대학교나 일할 때는 여러 민족을 똑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참여자 2)

다. 고려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

참여자들의 설명을 통해 고려인 조부모들이 자손들에게 고국은 한국이므로 한국어를 배우도록 안내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격려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고려인 후손들도 자신들이 고려인이기에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자녀들이 더 노력해서 자랑스러운 고려인으로 성공해 주길 바라는 심정을 표출하였다. 참여자 7은 청춘을 구소련 시대에서 보낸 할아버지는 러시아와 한국의 축구 경기 관람 시 러시아를 응원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자란 손자는 고려인이라는 정체성 교육으로 인해 한국을 응원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참여자들의 설명은 이들이 타국에서 한국을 그리워하며 한민족으로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집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속 “너는 고려인이다.” 그러니까 공부 못 했을 때에는 항상 그 사실을 강조해요. 부모님은 “네가 그냥 거기 공부하지 못하는 애들과 같이 그냥 밭에 나가서 노동일을 해볼래? 아니면 정신 차려서 공부 할래?” 라고 물어요. 동포들 중에는 이렇게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참여자 4)

우리 고려인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한국어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심어 주니...(중략)...우리 애들은 자기가 고려인이라고 생각하니깐. 고국은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자기가 고려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겨요. (참여자 5)

3세대 한 곳에서 이제는 생활을 하는데 할아버지 손자와 같이 이제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경기, 스포츠를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 축구할 때. 축구할 때는 이젠 주로 러시아 팀을 많이 응원을 해요. 근데, 한국 팀이 나오면 두 사람 이제는 의견이 조금 달라집니다. 할아버지가 자기 이제는 청춘을 사실 소련 시대 때 보냈기 때문에 소련에, 러시아 쪽에 마음이 더 큼니다. 우즈베크에서 자랐지만 동포로서 제가 특히 이제 많이 교육을 시키니까 우리 아이는 항상 한국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 팀 무조건 이제는 어디 있나. 한국 노래나 한국 음식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제 어디가나 한국과 관련이 있는 이런 정보를 보기만 하면 눈이 반짝 반짝 거립니다. (참여자 7)

라. 체면을 중시하는 고려인

참여자들은 고려인들이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힘든 부분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부끄러워한다고 설명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은 개인적인 자존심 때문에 몰라도 표현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면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이러한 고려인의 체면을 중시하는 태도와 인식은 과거 우리의 유교사상의 양반들의 체면중시 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해석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로 인해 고려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 손해를 보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기 지방에 고려인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좀 부끄러워서 이거 보여주는 거 좀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막 내놓고 요구하고 이런 게 부족해요. (참여자 6)

동포들 자존심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잘 보여주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진로문제도 그냥 '한국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창피한 일입니다. 차라리 스스로 어디선가 찾아서 하면 되는데 그건 어려운 일이고... 내놓고 "내가 모른다. 도와 달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 습성인거죠. (참여자 7)

② 지역사회 교육과 문화 환경 미흡

가. 한국교육원 참여 증대

참여자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의 문화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고려인들이 함께 할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모임도 없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대회에서 고려인들이 많이 참가하고 열심히 하며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여기는 교육원 통해서 많은 대회나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고려인들이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아주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인들 말고 그냥 다른 민족도 이렇게 여기는 주말에 아주 열심히 해서 보람이 있어요. 하하... 보람을 위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참여자 1)

따로따로 학교에서 이런 그 프로그램이나 모임 없어요. 그냥 고려인들이 알아서 다 합쳐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데 여기는 한국 교육원에서 많은 고려인들이 도움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참여자 2)

나. 미흡한 고려문화협회 활동

참여자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는 단체는 고려문화협회이지만, 문화 쪽으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명절 때 노인들을 위한 모임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젊은이들을 위한 단체로 청소년 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 활동이나 모임은 소극적이며 미흡하고 말하며 활성화되길 기대하였다.

우리 고려문화협회도 있어요. 두 달에 한번 만 만나요. 너무 적어요. (참여자 1)

거기는 여기 이제 고려문화협회 사실은 문화 쪽으로 이제는 많이 활동을 하는데, 해야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잘 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주로 거기는 어른들 이제는 노인들 많이 모여서 이제는 거기 명절 앞둔 날에 아니면 명절을 같이 보내거나.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지금 거기 이제 청소년위원회가 생겼어요...(중략)...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활동을 안했다가 지금은 이제는 조금씩 하려고 그런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참여자 7)

다. 문화적 활동 공간 부족

참여자들이 지켜 본 고려인 청소년들은 문화적 활동 공간이 부족하여 공원에서 놀거나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과거에는 문화원이 적절한 기능을 하여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운동을 하며 공동체 문화를 간직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현재 우즈베키스탄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문화공간이 없음을 아쉬워하였다. 참여자들은 그동안 국가에서 운영하는 문화원이 있었으나 없어져 모든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할 공간이 부족하고 문화적인 환경이 척박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동네에서 무리지어 놀면서 적절한 프로그램 없이 자기들끼리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보통 주말에 부모님들 같이 놀러 다니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여기 바로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해요. 컴퓨터 게임을. 그게 지금 우리 여기 그 문제가 있어요. (참여자 3)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큰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문화원이 거기 다양한 동아리가 있었어요. 체육도 스포츠 무용, 음악과 관련한 이런 동아리들이 있어서 거기서는 주로 이제는 일주일에 몇 번씩 모여서 잘 했었는데 이거 지금 없어졌어요... (중략)... 여기는 점점 이제는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 애는 물론 그렇기는 해요. 이제 놀 때는 동네 애들과 동포들이 같이 놀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우즈베크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인데, 이제 고려인을 만나면 되게 반갑게 하려고 그래요. (참여자 4)

우리 애는 집에서 책을 보거나 또는 컴퓨터 게임을 해요...(중략)...그냥 밖에서, 거기 농구장이 크니까. 체육관에 가서 운동 할 수 있는데,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그냥 밖에서 공기도 좋고 거기 기타를 치면서 막 떠들어요. 전에 문화원 같은 거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문화생활 같은 거를 못하니 사실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참여자 7)

(2) 고려인 청소년들

① 가정환경과 현실

가. 조부모 돌봄과 남겨진 아이들

참여자들은 한국에 취업한 부모를 둔 자녀들 대부분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만 조부모 밑에 자라 교육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참여자 6은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부모가 없어 부모를 그리워하고 외로워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조부모들은 아이들의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며 잘 먹이고 입히면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 인해 가정 내 부모의 부재로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의 교육적 환경이 미흡하고 약화됨을 걱정하였다. 따라서 부모와 떨어져 살아가는 고려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과 정서를 담당 할 사회적 기관의 지원과 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를 잘 입히고 잘 먹이고 그래서 돈 벌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부모님들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돈 벌겠다고 많이 나갔죠. 그런데 아이들은 여기다 두고 나가서 문제가 있어요. (참여자 1)

왜냐면 할머니도 힘이 없고. 그냥 먹이고. 여기 할머니들은 관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 먹이고 옷 잘 입고 끝이에요. 애들이 중요한데 이런 부모님들이 많지 않아요. (참여자 4)

부모님들은 일하러 가고 아이들은 혼자 있으니까 그것도 걱정이예요. 대부분 다 여기 그 한국에 많이 갔어요. 고려인 중에서 어려워서 한국에 어머니들이 취업하고 여기 할머니들이 봐줘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어쨌든 부모랑 떨어져 있어서 정서적으로 좀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요, 부모님 없이 살아가니 아이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참여자 6)

나. 물질적으로 풍족한 아이들

참여자들은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일을 많이 하는 반면 한국에 취업한 부모를 둔 고려인 아이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생활한다고 한다. 한글학교에서 대회에 입상하면 좋은 상품을 준다고 해도 물질적으로 풍요한 고려인 아이들은 별반 관심이 없고, 한글공부를 위한 경쟁심을 발휘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우리 우즈베크 아이들과 차이라면 우리 고려인 아이들이 바쁘게 생활을 보내는 아이들이나 힘들게 사는 아이들은 별로 없어요. (참여자 2)

부모님들이 다 한국에 가서 돈만 보내고 아이들이 알아서 다 하니까 이것도 나빠요...(중략)...애들이 이해 못하고, 공부 잘하고 있다고 부모님한테 거짓말해요. 막 계속 돈 보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참여자 4)

경제도 요즘 아마 한국 덕분에 그 경제는 그래도 그 지난해들 보다 더 나아요. 왜냐면 부모들이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 보내니까 애들도 좀 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중략)... 예를 들어, 그 제가 글짓기를 맡고 있어요. 지난번에 1등은 핸드폰을 준다고 하니, 우즈베크인들은 와아.. 그거 1등 하겠다고 막, 그 노력하고 있는데, 고려인들은 핸드폰?

내가 그거 갖고 있는데...(참여자 5)

다. 부모와 한국으로 떠나는 아이들

참여자들은 고려인 부모가 한국에 취업하고 정착 후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였다. 부모들과 아이들은 여건이 허락된다면 한국으로 아이들을 데려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이들의 소망인 것이다. 이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당분간 고려인들의 수적인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다.

오랫동안 이렇게 애들을 안 맡겨요. 일 년. 제일 이렇게 길어야. 거기에 가서 한국에는 보고 어떻게 살 수 있는 거 자리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는 데리고 가요...(중략)...젊은 사람들이 보통 한국에 가서 관심이 있어요. 어떤 그 나라는 사는 거. 다음에는 거기에도 그냥 어떻게 돈도 벌고 그리고 앞으로 제 생활을 더 좋게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국에 나간 거예요. (참여자 1)

공부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한국에서 입학하고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젊은 고려인들은 한국에 나갈 때 바로 자기 아이들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고려인들이 별로 작년부터 많지 않아요. (참여자 2)

② 목표 없는 삶

가. 직업 선택의 한계

참여자들은 청년들이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면 대학에 갈 수 없는 어려운 가정 형편인 경우는 바로 취업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자 5는 가정 경제사정이 어려워 취업을 한 청년들 중에는 동생들을 돌보는 경우가 많지만 우즈베키스탄 내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대부분 식당이나 시장에서 단순 노동일을 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청년들은 몇 년 전까지는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등지에서 식당 일을 많이 했으나, 요즘은 한국에 단순 일자리 수요가 많아지며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대학에 가지 못하면 전공이 없으니까 식당가서 일하고, 시장에 가게 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판매하는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중략)...졸업하면 뭐 사람에 따라서 그 똑똑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사장님이 키워주면 그거는 승진도 할 수 있는데, 주로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 그렇게 시장이나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중략)...어떤 식구들은 아이들 세·네 명 되는 식구들은 음...첫째 아이가 대학에 못가고 가서 식당 일하면서 자기 동생들 도와줘요. (참여자 5)

대부분 대학으로 입학 하는 생각들이 많긴 많지만 근데 좀 돈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래 대학으로 입학 못해요...그래서 단순 노동을 하며 돈 벌어요. 그냥 식당이나 뭐 이런 거 많이 가요. (참여자 6)

그 한 몇 년 전까지 한국에 이제 오픈하기 전까지는 주로 카자흐로 러시아로 많이 가서 거기서 이제는 식당에서 많이 일을 했어요. 왜냐면 카자흐나 러시아 보면 거긴 이제 동양 쪽으로...이제는 한국 가 보려고... 이제는 음식 식당이 제일 많이 이제 수요가 있더라고요. (참여자 7)

나. 준비 없이 받아들이는 삶

참여자들은 고려인 자녀들이 한국에서 취업한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 줌으로 목표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자 4와 5는 이들이 앞날에 대한 목표나 설계도 없이 일상생활에서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고 살다보니 나쁜 쪽으로 빠지는 경향도 있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토로하였다. 참여자들은 청소년들이 막연히 좋은 대학 진학이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지만 실제 노력은 하지 않고 있음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한국에 떨어져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지만 자녀가 스스로 삶을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음으로서 문제가 발생함으로 부모의 정신적인 안내자로서 역할이 요구되어지는 바이다.

지금 애들이 보통은 꿈이 없어요...(중략)... 그냥 꿈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휴대폰 갖고 싶고... 컴퓨터 하고 싶고, 앞을 안 봐요. 앞날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고 지식이 없어요. (참여자 4)

우리 청소년들은 문제점은 아마 그 애들이 그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위해 모든 거 다 해주니까 애들이 좀 목표가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계속 목표의식 없이 살면, 나쁜 쪽, 나쁜 쪽으로 바뀌지요...(중략)...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대학 좋은 대학 가야 돼. 아니면 “나는 좋은 직장을 얻어야 돼.” 이런 식의 아이들이 희망이나 진로 같은 거 관련해서 희망은 있는데 그 희망을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는 학생들이 예전보다 별로 없어요. (참여자 5)

③ 진학과 진로

가. 대학 진학을 희망

참여자들은 고려인 부모와 자녀들이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학구열이 있어 대학교의 진학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고려인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고 대학 진학의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늘 주지시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달리 국가에서 성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등록금과 생활비까지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국에 비해 후세대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는 그 있잖아요. 조금 점수 모자라면 자기가 등록금 내야 돼요. 그런데 국가에서도 생활비 같은 거. 달마다 줘요. 거기에도 점수에 따라 생활비 줘요. (참여자 2)

고려인 부모님들이 될 수만 있으면 아이를 대학에 보내려고 하고, 학구열도 있고, 부모님들 마음엔 아마 꼭 대학에 애가 대학을 꼭 졸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5)

여기 지금 소련시대 때부터 우리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사실 교육에 대해서는 고려인들이 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 자녀들도 여기 대학을 꼭 나와야 된다고 이런 것 교육을 시키거든요. (참여자 7)

나. 한국에서 취업이나 유학 선호

참여자들은 우즈베키스탄의 많은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으로 취업이나 공부를 위한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 후에도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참여자 7은 25세 이상 젊은 청년들은 취업비자를 받아 한국에 많이 나가서 일하고 있다며 그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로 인해, 참여자 5는 우즈베키스탄 대학교와 한국 대학교 의 MOU를 통하여 한국 대학 진학에 도움을 주거나 한국 유학생, 취업을 원하는 학생을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에도 한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한국회사와 연계한 사업을 하거나 번역 회사 등을 열어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참여자 7은 한국사회 경험을 가진 학생은 한국사회 내 필요한 정보를 갖고 문화적인 적응도 빨리 할 수 있어서 우즈베키스탄에서만 생활한 학생들보다는 양국의 이해도가 높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국어 문화, 한국어 역사 이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앞으로 그 답에는 우리는 한국 대학교에 입학시켜요. 네. 많은 한국 대학교와 MOU 맺었어요. (참여자 4)

에들은 다들 유학을 가고 싶어 해요.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애들 들도 많아요. 우리 교육원 학생들을 보면. 다들 한국에 가고 싶어 해요. 미국에도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 있지만은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거 같아요...(중략)...한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우즈베크에 돌아온 학생들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한국에 남아서 거기서 일도 하고 아니면 계속 공부도 할 수 있고, 돌아온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 회사에 들어가서 통역, 번역 사무실 열어 일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5)

이제는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겼으니까 25살까지는 사실은 좀 어렵긴 한데. 그 이후에는 취업비자 받아서 많이 나가요. 한국 어떤 경험이 있으면 사실 교육으로 보면 성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국 경험을 해 본 애와 여기 그냥 우즈베크 국내만 생활 한 애들과 나중에 보니까 좀 지식 문제도 있고 상식도 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중략)...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이도 자기 이제 한국에 가서 다른 나라가 아니라 꼭 한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싶어요. (참여자 7)

다. IT업계 취업 선호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전자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IT 분야의 성장이 뚜렷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자들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IT 업계 전문가는 부족하고, 타 업종에 비해 월급이 많고 대우가 좋아 IT업계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교육원에서는 IT 무료과정을 개설하고 졸업 후 취업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는 2009년 5월11일 ‘한-우즈벡 동반성장 포럼’과 ‘한-우즈벡 양국 경제인들이 21세기 신(新) 실크로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그 IT 교육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⁸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 기업과의 MOU 체결을 통해 IT산업이 부상되길 바라며, 이에 따라 한국어의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는 11년 동안 공부하니깐 거기에서 직업을 받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하면 자기 직업은 받았는데 그런데 여기 어디 공장에 이렇게 가면 월급이 엄청 작아요. 그 때문에 지금 생활이 이렇게 돼서 다 여기는 고려인들이 월급을 잘 받으려고 IT회사 가서 교육 받고 이렇게 일 하고 있어요. (참여자 1)

IT전문가들이 여기는 부족해요. 한국어 IT쪽으로 아주 발전해서 그 때문에 우리는 한국어 진행했어요. 왜냐면 거기서 선생님들이 와서 강의하려해도 학생들이 의사소통이 안돼서 그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참여자 4)

(3) 한국어 교육

① 한국어 교사

80) 시사포커스(2009. 05. 12). 이 대통령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하자”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23> 에서 2017년 8월22일 인출

가. 적은 보수로 인한 어려움

참여자들은 한국어 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한국어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교사는 사회적 지위가 낮고, 급여가 적고, 복잡한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도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교사를 하다가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참여자 7은 한국어 교사들이 낮은 보수로 인해 학교 밖에서 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여기 대학교에 한국어과가 많아요. 사범대도 많아요. 그런데 대학을 한국어과를 졸업 하고 나서 안 가르치고 회사에 가서 일해요. 돈이 적어서 월급이 적어서 안가요. 한 달에 100불 이고, 어떤 학교는 100불도 안돼요...(중략)...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어 선생님들이 너무 부족해요. 어떤 학교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중략)...선생님, 의사, 간호사, 월급이 제일 적어요. 앞으로 아마 높이겠지요. (참여자 3)

좀 실력 있는 유능한 교사들이 국가에서 주는 보수가 너무나 적어서 그만두려고 해요. 나가서 그분들이 이제는 주로 하는 일은 학원이나 과외해요. 사실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아요. 행정과 관련이 있는 의무가 너무나 복잡해서 그 분들이 이거는 좀 보수에 비해서 는 너무나 많은 노력이 힘이 들어서 나가서 과외를 많이 해요. (참여자 7)

나. 수적으로 부족한 한국인 한국어 교사

참여자들은 한국정부에서 파견하는 코이카 교사파견 시스템 변경으로 코이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교사 수가 줄어들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구조상 한국인 한국어교사를 학교로는 파견하지만 고려인이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원에는 한국에서 온 교사를 파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한국어 교사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와서 한국어 교사로서 적절한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도 지적하였다.

많은 교장님들이 자기 학교에서 한국어를 진행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한국어 선생님이 부족한 것이 문제예요. 코이카 지금 시스템 아시죠? 거기에 봉사활동 2년 동안 이렇게

선생님들을 보내는데 모자라요...(중략)...여기 학교에서도 한국어는 제 2의 한국어예요. 코이카 선생. 봉사활동 하는 그 직원들이 받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참여자 2)

② 교육 시스템의 한계

가.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교재와 콘텐츠 부족

참여자들은 한글학교 교사들이 한국의 역사, 경제, 상징물 등에 대한 교재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수준만을 다루며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자 4는 자신도 교사로서 한국 전래동화, 우즈베키스탄에는 없는 돌잔치, 백일 등의 한국문화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답해 줄 수 없음에 당황하기도 하였다고 말한다. 교사들이 고려인이기에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막상 교사들은 한국어 교사로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고백하였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교사로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고려인들에 대한 한국의 역사, 문화, 전통에 대한 교육과 체험 기회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어진다고 말하였다.

한국의 역사는, 우리 그 역사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도 잘 모르니까. 그냥 명절... 추석하고 설날, 경제 그리고 태극기, 무궁화 그 쪽으로 좀 알고. 별로 역사 같은 건 많이 깊이 몰라요...(중략)...그래서 가르칠 수 없어요. 시간도 부족하니까. 우리 교재에 역사 같은 게 별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참여자 3)

우리는 직접 잘 못 알아서, 어떻게 학생들 가르쳐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책에만 교과서만 가르쳐요. 가르치고 있는데 나한테 어떤 학생 물어봤어요. 한국 전통 동화, 제일 유명한 거 얘기해 달라는데 그런데 막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참여자 4)

역사는 세종대왕 정도...한국어를 배워 가면서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에서라도 찾고 선생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 “돌잔치, 백일은 무슨 뜻이에요?” 고려인들은 갖고 있는데 우즈베크인들은 모르니까요...(중략)...우리 고려인들은 또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데 그 돌잔치 같은 게 나오면 몰라요. (참여자 5)

나. 교육 프로그램과 교수 연수 기회 부족

한국어 교육 또는 한국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교육할 때 필요한 교육 연수나 교수 프로그램의 기회가 거의 없어서 교수법과 교육 내용에 매우 제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연수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받으면 아마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작년에 연수 프로그램 갔다 왔는데 거기 역사적으로 문화 많이 알게 돼서 제가 학생들한테 알릴 수 있었어요...(중략)...우리한테. 그런데 영어 문법 한국어 문법 달라요. 가르치는 것도 달라요. 그 때문에 교수법 엄청 힘들어요. 우리한테 그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4)

(4) 정부 지원 요청 및 정책 제언

① 교육 인적 자원 및 교류 확대

가. 한국인 원어민 교사 및 학생 교류

참여자들은 한국 교육을 위한 한국인 원어민 교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고려인 자녀들이 한글학교에서 문법과 읽기를 배우지만 한국어를 사용할 대상이 부족하고, 현지 교사들이 사투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실제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은 원어민 교사를 더 늘리거나 한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한국어 실습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한국어 가르칠 때 여기에 사는 선생님 말고 한국에서 선생님 보내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항상 이렇게 옛날부터 한국어를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문법 같은 거 다 알긴 이는데 말하는 거 못해요. 그 다음에는 한국에는 사투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만약에 사투리 딱 만나면 이해도 못해요. 당황스러워요. (참여자 1)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은데 학교마다 원어민 선생님 필요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우리 학교 와서 가르칠 수 있는가. 그것 좀 알아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코이카 알아봤는데, 처음에 교장선생님이 코이카한테 신청서 보내야 된다고 말했어

요. 그런데 지금 코이카 선생님들이 타슈켄트는 도시니까 별로 없어요...(중략)...아이들도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 문법하고 읽기해서 그쪽은 다 잘해요. 그러나 말은 못해요. 왜냐면 우리는 그 말을 여기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 있으면 그 말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더 재밌어 해요. 아니면 원어민 선생 아니라도 그 여기 한국 학생들 많잖아요. 아니면 한국국립학교에서 초청해도 좋아요. (참여자 3)

지금 그 교류하는 대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그 아이들이 만약에 되면 서로 서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도 좋고. 한국 학생들이 러시아어를 배우니까. 또 문화...그런데 여기는 한국어 실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4)

나. 교사 연수 및 교육 기회 확대 요청

참여자들은 한국정부의 지원을 통해 한국어 교사와 학생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길 바라고 있다. 참여자 4는 한국에서의 연수경험으로 역사나 문화적 지식이 쌓여 학생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한국어 교수법과 문법 설명의 어려움으로 이 분야의 교육을 제공 받기를 원하였다. 다른 의견으로는 성공한 사람의 강연, 고려인을 위한 세미나, 강연, 연수 등을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교육기관과 MOU를 통한 교류 및 온라인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는 MOU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다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부탁이 있어요. 여기는 초등, 중학교 관리하는 교육부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어떤 기관이 같이 MOU 지금 내면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어떤 연수 프로그램은 여기 교육부에서 사람이 한국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거. 어떤 거? 선생님들이 그 있잖아요. 항상 그 교육부 못 나오는 선생님들 있고. 집에서 앉아서 컴퓨터 통해서 이런 연수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 갔는데 끝까지 못 배웠어요. 그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연결이 안돼서 제가 잘 모르고 근데 여기는 이 교육부는 지금 이런 시스템 다시 만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참여자 2)

우리는 연수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작년에 연수 프로그램 갔다 왔는데 거기 역사적으로 문화 많이 알게 돼서 제가 학생들한테 알릴 수 있었어요...(중략)...그리고 영어 문법 한국어 문법 달라요. 가르치는 것도 달라요. 그 때문에 교수법

엄청 힘들어요. 우리한테 그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4)

②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가. 한국 문화와 역사교육 콘텐츠 제공

참여자들은 고려인 아이들이 한국의 문화나 한국어를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현지에 한국 전래동화, 시, 시조 등의 책이나 자료 등이 부족한 현실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교사들도 한국어 단어나 시조 등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도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화책이나 동영상 등을 활용한 다양한 한국 교육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준다면 어린 학생들에게 민족 정체성과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한국 문화 등을 접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쉽게 익히고 간접적으로 한국의 역사를 배울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역사나 문화 예절 같은 거 여기에서는 고려인들한테 많이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 만약에 우리 젊은 고려인들이 많이 한국에 가는데 거기에 어떤 예절, 전통모르면 거기서도 아마 “예의 없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 우리도 듣는 것도 좀 안 좋겠어요. 여기 고려인들이 한국에 가면 차이 없이 이렇게 “아...거기에도 예의 있는 고려인이 있네요.” 하는 말 들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1)

어.. 그게 보통 쉽게 아이들한테 문화, 영화 같은 거나 그 있잖아요. 짧은 이야기. 그 다음에는 동화...동화 같은 거. 이거는 우리도 몰라요. 왜냐면 이거는 애들이 읽으면 거기에도 문화 나오죠. 단어도 배울 수도 있고. 이런 책이 없어요. 그리고 시 배우면 단어도 빨리 외울 수 있잖아요. 왜냐면 쉬우니까. 우리도 그냥 “거북이 거북아 머리를 내노라...” 그 다음에 노래는 뜻이 알게 돼서, 어머니 우리는 뭐 가르치고 있는지... (참여자 4)

영화 같은 거 그렇게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나이가 제일 적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한국어로 하면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한국어 아이들 한국어를 보여주면서 그 언어도 알게 되고, 우리는 통역해야죠. 통역하면서 보여주면서 역사를 좀 쉽게 어떻게 아이들한테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3)

나. 취업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참여자들은 학생들이 학교 졸업 후에 안정적 직업을 얻기 위한 실습과 직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을 하고 있으나 아직 미약한 부분이 많으므로 한국으로부터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길 원하고 있다고 한다. 참여교사들의 이러한 요청은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학교와 직장이 연계한 실습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으로 개인의 사회적 안정 및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고려인 청소년으로 성장시키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여기서 졸업하고 자기 직업을 얻기 어려워요. 또 거기에 가서 그 직업을 더 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해요. 거기에 가서 실습이나 직업을 잘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참여자 1)

모든 젊은 사람들이 여기를 졸업하면 자기 일을 못 얻어요. 직장이 제한적이예요. 학교랑 직장이랑 연계하는 실습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4)

이젠 이 나라도 진로교육에 자녀들 앞으로 자기 직업 선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이제는 능력을 테스트도 해보고, 자기 취향을 자기 성격에 맞는 이런 직업을 이제는 선택할 수 있게...(중략)...진로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육이 발달했으니까 한국 진로프로그램 지원을 해줘서 우리 아이들도 도움을 받았으면 해요. (참여자 7)

다. 다양한 문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참여교사들은 고려인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캠프 프로그램이 우즈베키스탄 현지와 한국에서 개설되기를 희망하였다. 참여자 7은 캠프의 큰 효과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자신이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여름에도 그 캠프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면 여름에 학생들이 한국어를 잊어버려요. 중학생들 캠프 있으면 다 같이 한국에서도 아니더라도 여기라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게임도 하고 한국어들도 가르치고요. (참여자 6)

예전에 했었는데...여기나 한국 가서 일단은 애들이 한 곳에서 똑같이 생긴 애들이 모여서 되게 신기해해요. 여기도 다른 민족들 우리 캠프 할 때는 사실 야외 휴양소 임대를 해서 했는데, 거기 우즈벱 사람들 이제는 신기해서 우리 문화, 무용 같이 사물놀이, 음식, 애들 즐겁게 놀아서...우리 이제는 동포들 위해서 캠프를 하는데 “참 대단하다.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거는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있으면 애들 같이 한 곳에서 모여서 하면은 좋을 거 같습니다. (참여자 7)

③ 경제적·물질적 지원

가. 장학금 및 교육 기자재 지원

참여자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최첨단 전자제품과 기자재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면 아이들에게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고, 교사들에게는 수업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교사들은 한국의 교육용 전자제품, 교육 기자재 등의 제공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고려인 학생들이 한국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지원받고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고려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DVD를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만든 거 있어요. 그 비디오 있잖아요. 비디오카세트로 쓰는 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가르칠 때 그 필요한 건 전통 문화, 역사 그런 거 CD, DVD로 만들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업그레이드도 필요 하구요. (참여자 3)

한국 전자제품 선물들을 학교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열심히 더 잘해라. 그런 거. 우리가 지금 학교에 가면 원장님의 지시로 노트북이나 스크린빔 프로 같은 거 사줘요. 그런 거 사주면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애들도 공부를 더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요...(중략)...아마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장학금 같은 거. 청소년들이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애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대학 교육도 그렇고요. 아니면 그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업 같은 거 하고 싶은데 그 아이디어도 있는데 돈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참여자 5)

대학 교육 지원.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장학금 같은 거를 지원하면 될까요? 갈 수 있도록? 또 다른 거는 사업자금? 벤처기업 같은 경우 지원해주고 이런 경우들이...그 일 시작하려고 하는 데들에 사업자금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참여자 7)

④ 교육·문화적 공간 마련

가. 고려인을 위한 공간 또는 기관 마련

참여자들은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이 함께 모여 문화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한국어학당은 많아지나 비용이 비싸서 고려인은 배우고자 하여도 배울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에 참여자 4는 고려인을 위한 공간이나 기관이 마련된다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고, 한국어 배움의 갈증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여자 1의 설명처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며 고려인들도 주말을 즐기며 가족이 함께 할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는 고려인들이 어떻게 열심히 일만 하고 주말에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만 앉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사람들은 한국처럼 주말에 다 애들을 데리고 공원에 나가고 식당에도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말에는 막 이렇게 그 놀러도 가고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참여자 1)

여기는 고려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노래 잘 불러요. 노래 같은 거, 뭐 댄스 같은 거. 이런 공간 만들면 모이니까. 그런 공간이 있어야 거기에 모일 수 있을 거예요. 고려인들은 여기는 아직까지 고려인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이런 기관이 있으면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지낼 수 있으니까요...(중략)...한국어도 가르치고, 왜냐면 지금 한국어 학당 엄청 많아져요. 그런데 엄청 비싸요. 어떤 고려인들이 못 배워요. 그 때문에 좀 이런 공간 만들면 거기에 고려인들이 함께 배울 수 있어요. (참여자 4)

나. 한국학교, 한국유치원 설립

참여자들은 우즈베키스탄에는 한국 학교나 유치원이 없어 고려인 자녀들 중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우기가 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살다 온 고려인 자녀들의 경우 우즈베크어나 러시아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데, 한국 학교나 유치원이 없어서 일반 우즈베키스탄 공립학교에 진학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 경우 언어소통이 잘 되지 않아 친구관계나 학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참여자 4는 현재 외국인 유치원은 있으나 교사 월급의 두 배나 되는 교육비로 인해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은 고려인 자녀들이 13살이 되어야 입학 할 수 있는 한국교육원이 있지만, 나이 어린 고려인 자녀를 위한 한글학교나 유치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유치원 만들어야 돼요. 고려인 애들이 유치원에 거기에 맡기고 교육은 한국말로 다 진행하고 왜냐면 여기 유치원 있는데 여기는 외국 애들만. 제가 한번 여기는 맡기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그답에 또 다른 유치원 찾았는데 거긴 너무 비싸가지고. 거기 한 달에 200불이 예요. 제가 월급 100불 어떻게 애들 맡길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 때문에 유치원 안 다녔어요. 저희 애들이. 그냥 집에서 있었어요. (참여자 4)

제 친구가 자기 아이들을 한국에 데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지금 비자가 끝나서 들어왔어요. 애들이 한국어도 별로 잘하지 않지만은 러시아어는 전혀 못해요. 왜냐면 거기서 한국학교에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일반 학교에 가는데 음...애들이 좀. 왕따는 아니지만 애들이 좀. 놀아주지 않아요. 왜냐면 언어가 잘 안되니까. 한국어로 되는 학교가 한 개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5)

한국 학교는 없어요. 그런데 유치원도 왜 안 만들어요. 우리는 보통 고려인들이 다 보내고 싶어 해요...(중략)...또 한국 가서 한국 유치원 다니고 여기 들어와서 다시 그 저 학생들한테 좀 한국어를 그 수업이 가능 하느냐. 그런 사람이 많이 왔었어요. 왜냐면 여기 교육원 13살부터 받아서 어린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곳이 없어요. (참여자 6)

2) 카자흐스탄 교육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본 절은 카자흐스탄 고려인 중 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참여자를 통해 현지 거주 고려인 청소년들의 특성과 실태, 교육 현황, 그리고 진로 등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삶을 면밀히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들

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안 요청 사항을 기술하였다. 다음 표에는 면접조사 결과는 범주, 대주제, 소주제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표 VI-71 카자흐스탄 교육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의 범주

범주	대주제	소주제
고려인 정체성	고려인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인 유배민족의 설음 • 민족애를 잃는 고려인 자손들 • 경제적 중상류층에 속하는 고려인 • 이야기로 전하는 고려인 이주 역사
	정체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높은 교육열 • 이주역사 교육으로 한민족 정체성 지속 • 한국어교육을 통해 한민족 정체성 회복
한국 문화와 언어 교육	한국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은 한국어 교육시간 • 중도 포기하는 한국어 공부 • 한국교육원 학비 부담 • 잘사는 고려인은 한국어 교육에 무관심
	한류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와 함께 한국어 인기
진로와 한국어	진로와 한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대신 미국, 캐나다로 취업 희망 • 한국으로 대학진학 희망
정책 제언 및 지원 요청	한국어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한국어 교사 처우 개선 • 한국어 교육과 역사 알리기 위한 노력
	한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학교 재원투자 및 교육 프로그램 연계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상담 필요 • 이주역사 교육자료 제공 요청
	국가 간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관련 정보 공유 및 제공

(1) 민족 정체성

① 고려인 정체성

가. 고려인 유배민족의 설움

참여자들은 고려인의 이주와 정착과정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카자흐스탄에 최초로 정착한 고려인들은 주로 우쉬토베로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과거 조상들의 강제이주로 인한 슬픈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우스토베. 우스토베리는 거는 1937년에 이렇게 강제 이주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버려진 곳이거든요. 거기서 고려인들이 살아남았어요.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참여자 1)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때 강제 이주로 여기 카자흐스탄으로 오셨어요. 올해는 고려인 이주 80주년이에요.(참여자 2)

나. 민족어를 잃는 고려인 자손들

참여자들은 강제이주 사건 이후 고려인들은 절반 이상이 농촌의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에 배치되었고 강제노역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구소련의 정책변화로 1939년부터 전면적인 러시아어 교육이 강요되어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를 말하고 러시아어로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러시아어는 고려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생활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고, 고려인들은 차츰 모국어는 서툰 언어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특히, 모든 소수민족이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구사할 수 있어야만 국가와 사회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고려인들은 한국어는 잃어버리고 열심히 러시아어를 학습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이주 됐잖아요. 이제 먹고 살기가 바빴고, 전혀 말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이제 러시아어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보다는 러시아어를 쓰게 됐고... 러시아어를 쓰고, 제 친구들이나 이런 고려인들 보면 어른들은 말은 하는데 아이들은 말 못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전 되게 불만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 말 하는데), 근데 우리사람들은 왜 못해. 이제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강제이주 됐잖아요. 그래서 유배민족은 (자기민족) 말을 못 쓰게 했어요. (참여자 1)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전혀 한국어를 못하세요. 그냥 옛날 고려 말 쓰고 계세요. (참여자 2)

다. 경제적 중상류층에 속하는 고려인

참여자들은 강제이주 당한 고려인들은 불운의 역사를 안고 살고 있지만 경제적 수준이 매우 낮은 계층은 거의 없으며 중상위층 이상의 부유한 고려인이 많은 편이라고 이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소수민족 중에서 중상위층 이상의 삶을 유지 하는 민족이 고려인이라고 하였다.

근데 학교에서 보면 고려인들은 주로 다 약간 좁 사는 집 아이들이고 아주 못사는 집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중산층이니까...우리 전반적으로 그 경제 수준 상태가 그 중상층 사람들 많은 거 같아요. (참여자 3)

일반적으로 우리 여기 소수민족 중에서는 그래도 중상층 이상 삶을 유지하는 그런 민족이예요. 잘 못 사는 고려인은 없습니다. 저게 쓰레기통 가지고 뭐 찾고 하는 거 고려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여자 5)

그래도 여기 우리. 우리 고려인 동포 분들이 그래도 중상층 이상의 부유한 분들이 꽤 많아요. (참여자 1)

라. 이야기로 전하는 고려인 이주 역사

참여자들은 한반도를 넘어 러시아 영토로 강제이주 당하며 고려인들이 소비에트 혁명과 소련 체제, 소련의 해체, 독립 국가로 이어지는 격변의 세월을 거쳐 살아남은 역사를 자손들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한다. 고려인들은 이렇게 힘겨운 삶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소수민족으로 공식적인 역사적 기록도 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참여자 3의 사례는 살아남은 조부모들이 개인적인 기억에 의존하여 자손들에게 조상의 역사를 전하고 고려인의 존재를 찾고자 하는 욕구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구전으로 전달되는 고려인의 이주역사는 자손들에게 망각되어 가는 자신의 험난한 여정을 알리고 싶은 조부모님들의 욕구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건 그냥 입에서 입으로 그것만...(중략)...우리 사촌 할머니 할아버지 사촌 누나 되시는 분, 아 그 동생 되시는 분이 아직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일부러 초청을 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아이들 앉혀 놓고 그래서 그 재미있는 일화를 얘기 좀 해달라고. 그분이 북한에서도 사셨고 하얼빈에서도 사셨고, 하튼 근데 그건 정말 몇 사람 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가족들이요. (참여자 3)

강제이주에 관한 역사라든지... 아니요. 그냥 할머니 얘기를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참여자 2)

② 고려인 정체성 교육

가. 다른 소수민족에 비해 높은 교육열

참여자들은 한국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을 이야기하며 고려인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자녀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함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고려인 부모세대들이 자녀들을 대학에 보냈고 타민족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3은 한국인의 교육열이 카자흐스탄에 사는 고려인에게서도 나타나며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부모들이 경제적인 투자도 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제가 듣기로는 근데 지금 또 고려인들이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열이 강해가지고...(중략)...고려인들 그러면 진짜 교육열이 높고 아주 막 열심히 하고 그렇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아는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고려인들 보면 어떤 공부에 대한 그런 학업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강하다고 전 느껴져요. (참여자 1)

한글. 한민족은 어딜 가나 같은 거 같아요. 교육이 켈 중요하다. 고등교육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때. 그래도 여기도 좋은 대학. 서열이 있습니다. 거길 보내려고 과외 시키고 학원 보내고 하는 거 있습니다. (참여자 3)

네. 다 하구, 한국에는 학원 데려 가구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여긴 학원 그런 것도 못하고. 고려인들은 대학은 잘 못 살아도 대학은 꼭 졸업해야 한다. 그런 거는 있습니다. (참여자 5)

나. 이주역사 교육으로 한민족 정체성 지속

모든 참여자들은 고려인 이주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 3은 고려인 자녀들이 민족정체성이 약해지는 부분을 걱정하였다. 이러한 교사들의 염려와 걱정과 함께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은 내면의 기대를 표현하며 자녀들에게 고려인 이주역사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한국민족 역사는 중요하죠. 그것도 재미있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공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고려인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고려인 역사를 공부를 해야 돼요...(중략)... 우리 아이들 좀 의식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몇 번 세미나 같은 거 했었어요. 역사학자 뭐 강교르기 선생님을 모시고. 하튼 이렇게 시도를 조금씩 하는데 그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정체성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여기 고려인들 아이들이 정체성을 세우려면 역사. 고려인 역사를 가르쳐 줘야 돼요.(참여자 3)

그리고 문화 역사를 꼭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한국 문화. 한국 역사 그리고 전체 고려인들 역사도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고려인 이주 80주년.(참여자 2)

다. 한국어교육을 통해 한민족 정체성 회복

참여자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 학생들 중 중/고등학생들이 더 한국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자 4는 이들은 빠지지 않고 수업도 열심히 듣고 북한이나 고려인의 이주역사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지며 정체성을 확인하고자하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한다. 이와 함께 참여자 2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며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어교육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스스로 찾는 정체성 형성과정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고려인이라서 자기 그 문화 역사 그 언어를 꼭 알아야. 그거는 자기를. 뭐랄까. 정체성 예.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어서요...(중략)... 우리 조선인들이 한국에서. 우리 뿌리 그 한국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한국어. 한국어 문화를 고려인들이 알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공부했을 때 여기 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배우기 시작했구요. 그래서 그때는 고려인이라서 한국어를 좀 배워야 된다고 ...(중략)...그래서 제가 한국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 2)

사실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뭐를 많이 질문 하나면 북한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왜 나라가 다를까... 근데 아이들이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그리고 왜 다르냐. 그리고 사실 그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 역사에.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약간 관심이 생겼어요. (참여자 3)

주로 한국교육원은 대학생들도 오고 주로 고등학생들 중학교 학생들도 많이 오잖아요. 대학교 학생들이 오는데 주로 중학교 고등학생 학생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수업도 안 빠지고 그리고 아주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중략) ... 여기서 좀 한국어를 심어주면 좋을 거 같아서. 그러면 한국 역사에 대하여, 한국 문화에 대하여 저절로 관심이 들어와요. 여기서 조금 주잖아요.(한국어 교육을 하며 정체성을 한 번 더 심어주잖아요) (참여자 4)

(2) 한국 문화와 언어 교육

① 한국어 교육

가. 짧은 한국어 교육시간

참여교사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어 교육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였다. 참여자 5는 한국어 교육은

일주일에 한 시간 반씩 두 번 수업하기 때문에 언어를 습득하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고, 또한 주위의 생활환경이 모두 러시아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이 배운 내용을 활용하거나 학습할 환경이 아니라고 하였다. 자녀가 있는 교사들은 자녀들의 더딘 한국어 실력을 매우 아쉬워하며 한글학교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카자흐어가 카자흐스탄의 공식 국가언어로 채택되면서 한인들은 민족 간 소통 언어인 러시아어와 민족 언어인 한국어 외에 카자흐스탄어까지 삼중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짧은 한국어 교육시간으로만은 충분히 교육할 수 없음을 토로하였다.

들어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별로 그 역사 문화에 대하여 이렇게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거기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한국어 수업이 일주일에 두 번만 했잖아요. 한 시간 반씩. 여기 와서 언어를 배우면서 문화 역사를 조금씩 그냥 듣고 있는데 그거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스스로 에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 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참여자 4)

1년 2년 다닌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 학교가 필요 있는가. 필요 없다. 뭐 아이들 벌써 1년, 2년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 집에 와서 “밥 주세요.” 말 하나 밖에 못한다. 일주일에 한번 다녀가지고 집에 가면 고려말 러시아말 카자크말 그럼 영어 다 잊어버리잖아요. (참여자 5)

나. 중도 포기하는 한국어 공부

참여자들은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생활이 정착되면서 현지 언어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한국어는 공식적인 언어가 아니므로 제도적으로 교육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참여자 4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도 학생들이 한국어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지만 막상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면 쉽게 포기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였다. 참여자 3은 학생들이 포기 하는 경우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 자립심과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관심 있지만 대학생들은요. 자기 공부가 어려워서 시작했다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면...(중략)...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 와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와서 좀 어려우면 이상하게 고려인들이 제일 먼저 포기하더라구요. (참여자 4)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면 도중에 그냥 가버려요. 쓸 일이 없으니까요. (참여자 5)

근데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잘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자립심도 없고 생활력이 약해요. 경쟁력이 없고, 그리고 뭘 노력하지는 않아요. 근데 카자크 사람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참여자 3)

다. 한국어 교육원 학비부담

참여 교사들은 한국교육원 학비가 올라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음에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참여자 4와 5는 비싼 교육비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한국교육원에 보내지 못한다고 말하며,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냥 밖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그 현실을 설명하였다. 이에 참여자 4는 만약 학비를 낮추면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교육원을 찾아 올 것이라며 희망적으로 말하였다.

여기요 학비가 있거든요. 비싸요. 학비가 있으니까 생활이 어려운 부모님들은 못 다녀요. 왜냐면 지금 소개해 드리거든요(한글학교에 대해 소개) 그 부모님들한테. 여기 따르릉 전화 해 드리면 비싸서 못 보낸 데요. 그래서 애들은 토요일에 그냥 땡땡 치고 있어요. 밖에서 2만5천. 금년에는 2만5천텐게 이쪽에다가 좀 그 학비를 좀 낮춰줄 수 있도록 해주 시면 그런 학생들 많이 참여할 거예요. (참여자 4)

아아.. 그전까지 2만 땡계였는데 금년에는 아휴.. (한숨) 학비가 비쌌니다. 우리 비싸니까 못 와요. 고려인들은. 주로 고려인들 여기 온 고려인은... 교육원에서는 고려인들 주로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네요. (참여자 5)

라. 잘사는 고려인은 한국어 교육에 무관심

참여교사들은 카자흐스탄에서 언어교육도 가정 형편에 따라 차이가 나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참여자 1과 4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고려인들은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더 선호한다고 말하며

한국어를 꼭 알아야 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한다. 고려인들은 한국어를 통해 어떤 비전을 찾지 못하므로 부유한 고려인의 경우는 사회 경제적인 가치 때문에 영어에 더 많은 관심 갖고 자녀들에게 영어교육을 시킨다고 한다. 참여자 5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영어교육을 시키며 영어권 국가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

근데 조금 잘 사는 사람들하고 약간 좀 떨어지는 사람들하고 조금 경제적으로 그런 차이는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 1)

고려인들은요. 보세요. 주로 도시에서 산 고려인들은요 영어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잘 사는 가족들은 주로 영어 중심으로 돼 있는 학교를 보내거든요. 거기선 하루 종일 공부해요. 그래서 기회가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부자들은 이쪽으로 쳐다 보지도 않고, 한국어 알아서 뭐하냐고... (참여자 4)

한국은 뭐. 한국어 알아서 뭐하느냐. 외국으로 보내면 된다. (참여자 5)

② 한류 문화

가. 한류와 함께 한국어 인기

참여자들은 젊은이들이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한류의 영향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참여자 2는 카자흐스탄에 한국 드라마와 K-Pop 등이 유명해지며 청년층이 한국어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자 4와 참여자 5는 이러한 한류의 영향으로 한글을 배우려는 고려인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로는 발전한 한국어로 취직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은 한류를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갖게 되며 한국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어~ 지금은 그 K팝하고 한국드라마 여기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유명해요. 그래서 조금씩 한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고려인들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 하는 거 같습니다. 많이 들어와요... 옛날보다는요. (참여자 2)

나는 고려인이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한국도 있잖아요. 발전한 한국어. 그리고 거기에 많이 일하러 간 사람들. 그리고 한류 덕분에. 지금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첫째 한류예요. 저는 고려인이 아니라 한류. 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공부도 덜하고 거기선 돈 벌수 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일단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참여자 4)

한국에 가든지. 뭘 가든지. 그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네. 한국어를 알아야겠다. 뭐 한류를 통해서 알든지. 뭐 영화를 보고 알든지. 그 무슨 생각이 있어요. (참여자 5)

(3) 진로와 언어교육

① 진로와 언어교육

가. 한국 대신 북미로 취업 희망

참여교사들은 경제적으로 잘사는 고려인들의 경우 한국어를 배운다거나 한국으로의 취업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자녀들에게 영어교육을 시키며 영어권 국가로 보내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영국과 교류가 많음으로 자녀들을 영국과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학교로 진학시키고 있는 현상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참여자 5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려인 가정은 한국어나 한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녀를 어려서부터 외국으로 보내거나 국제 학교에서 교육받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여기서 큰 중상층들은 여기 카작이 영국이랑 좀 교류가 많거든요. 영국 유학을 많이 보내더라고요...(중략)...국제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 형편이 되면 국제학교로 많이 가요 (참여자 1)

10살, 8살... 어렸을 때부터 런던에 많이 가 있어요. (참여자 4)

한국으로 가서 일을 해야겠다는 건...제 생각에는 아닌 거 같아요. 근데 하더라도 약간 고등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를 해서 그 다음에 석사까지 마치고

들어가고 사실 여유 있는 사람들이고. 유럽 쪽이나 요즘에는 최근에는 뭐 중국이라든가 약간 그쪽으로도 많이 가진 해요.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도 많이 들어 가구요. 주로 런던에 보냅니다. (참여자 3)

런던에 많이 갑니다. 유럽, 미국 캐나다도 이젠 아주 유행이 됐고요. 대학교 우리 고려인 진학률은 약 80% 정도 꽤 많은 우리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데 돈 있는 분들은 해외로 보내고... 돈 아주 많은 집은 외국에 다 보냅니다. 돈 있는 집은 어렸을 때부터 보냅니다. (참여자 5)

나. 한국으로 대학 진학 희망

참여자들은 많은 고려인들은 한류와 한국 방문을 통해 자녀들이 한국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일부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은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지만, 대부분 보통의 고려인 자녀들은 한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2도 자신의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한국으로 대학교를 입학시킬 것이라고 말하였다. 참여자들은 고려인 자녀들이 한국어를 잘 해서 한국 대학에 입학하고 향후 한국 내 취업까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뭐 한류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제 가끔씩 방학 때 애들이 한국 가잖아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중략)... 여기 살다 보니깐 한국으로 나중에는 대학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가는 애들이 제가 아까 얘기 했잖아요. 70~80%이고, 또 다른 애들은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영국이나 이렇게 흩어진 애들도 있는데 뭐 달러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한국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거의 한국으로 많이 가구요...(중략)... 딴 나라로 가는 애들이 있는데 거의 한 60%는 한국으로 대학을 많이 가더라고요. (참여자 1)

중고등학교 학생 주로 공부하면서. 대학 갈려고 공부하고...그리고 좋은 취직...(중략)... 내 아이가 네 살인데 내 아이도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그리고 한국에서 대학교에 입학하면 좋겠어요. (참여자 2)

(4) 정부 지원 요청 및 정책 제언

① 한국어 교사

가. 열악한 한국어 교사 처우 개선

참여교사들은 현재의 지원금으로 학교는 교사들의 급여를 주기에도 매우 부족하며 매번 빚을 진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교사들도 적은 보수로 인해 점차 한국어 선생님이 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하였다. 참여자 1과 3은 한국어 교사들이 나이 들어 할 수 있는 일로 한국어 교육을 선택하였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해도 학교는 많이 나아지는 것이 없고 교사들은 너무나 작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함으로 카자흐스탄에서 교사 역할을 하기는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교사 경비나 이런 거 재원을 마련하시는데 그래도 좀 힘들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주년이거든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역사 탐방이다 이러면 또 지원도 받고요. 그냥 또 선생님들도 봉사 개념이니까 조금씩 뭐 그냥 차비 정도 받고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참여자 1)

물론 요즘은 보면 저희 동기들도 그렇고 선배 후배들 바로 후배들 가르치려고 하는 약간 나이들이 되니까 가르칠 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데 근데 환경이 허락되지 않는니까. 사실 우리 학교도 교사 그 한국 교수, 지금 21명밖에 안 되니까 더 많이 채용할 수도 없고 봉급도 낮고, 하튼 그렇게 환경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여자 3)

지원하는 게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하는 게 2만 인가 만 이천 달러가 나옵니다. 만 이천 달러. 옛날에는 4천 달런데 옛날 아니고 지금은 선생님들도 숫자가 많고 학생들도 늘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지원금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 오면 어. 만 이천 달러. 어유, 돈 많다. 그래도 그걸 전년에 우리 빚 내가지구서 교사님들한테 봉급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원장님 벌써 6천 달러를 빌려 받았습니다. 그거 다 내면은 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돈 문제예요. (참여자 5)

나. 한국어 교육과 역사 알리기 노력

참여교사들은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민족 정체성과 한국어를 배우고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며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참여자 4는 학생들이 어려운 한국어를 따라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하며 학생들이 좀 더 한국어와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며 교육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참여자 1은 어린 학생들보다는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고려인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해주면서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문화탐방 등을 통해 고려인 학생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강화시킨다고 설명하였다.

고려인 마을도 이루고 많이 있긴 한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죠. 수업시간에 얘기를 해주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부는 아직 어리니까 중등부 고등부 애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떤 역사의식 고취라든가 또 우리 고려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우스토베를 이렇게 탐방을 기획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낯설지 않고 갔을 때 국어가 좀 떨어지지 않게끔, 뭐 그런 식으로 그 답에 또 뭐 역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뭐랄까 어떤 핵심적으로는 한국인의 정체성적인 그런 면들을 많이 이제 저희들이 중점으로 하고 있고, 국어 수업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죠. (참여자 1)

관심을 첫 시간에서부터 항상 이렇게 만들고 싶으시면 항상 재미있게 한국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심어주면 도망치지 않아요. 제가 숙제도 안줘요. 좀 시간이 남으면 우리 교실에서 숙제도 해요. 그리고 점수 같은 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주거든요.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는 고등학생들이 더(잘) 따라가요... 고등학생들은 끝까지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참여자 4)

② 한글학교

가. 한글학교 재원투자 및 교육 프로그램 연계

참여교사들은 한국정부가 한글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길 요청하였다. 참여자 2는 한국에서 제공되는 전문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여기서도 제공해 주길 기대하였고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참여자 4는 가정경제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여 중산층인 고려인 어린 학생들에게도 학비를 지원해 주고 아이들이 더 많이 한국어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즉, 장학금 지원을 받은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한국어를 학습하게 되고 한국어를 더 잘 해서 공부도 더 잘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청소년한테 하는 교류 프로그램 지금 해주시고. 그런 장학금 프로그램. 한국에서 전문 프로그램 같은 거. 지식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여기 들어와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 아니면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참여자 2)

어떻게 좀 조절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고요. 이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학비가 이렇게 적어지면 고려인들이 여기 많이 올 수 있어요... (중략)... 그런 부자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중간 사는 사람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런 학생들은 초등학생들부터 여기서 공부 시작하게 되면 공부도 더 잘되고 한국어 이해도 더 잘 될 거예요. (참여자 4)

③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가. 한국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상담 필요

참여자들은 고려인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역사문화 탐방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자 1은 고려인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중요한 기관과 역사 유적지 등에 직접 가서 체험을 통해 한국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어린 학생들에게 책이나 TV로만 한국을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을 직접 체험하고 학습하는 것은 자부심을 갖게 하고 한국인 그리고 한민족으로 정체성 확립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참여자 2는 캠프와 교육상담 프로그램도 필요하며 한국에서의 봉사활동 등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길 요청하였다.

이거는 뭐 너무 큰 거지만은 청와대에 한번 우리 애들이 가서 본다든가 이러면 조금 더 그리고 또 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가서 이제 좀 한국을 느낄 수 있게 역사 탐방도 괜찮고 뭐 경주에 가서 가이드와 함께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거.

이런 거 하면서 애들이 되게 목말라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니까 나는 맨 날 책으로도 보고 TV 로도 봤지만은 그런 걸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 따라서 갔을 때는 부모님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중략)...나라에서 조금 도와 주신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한국인이라는 자부심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여자 1)

그리고 뭐 교육 관련된 상담. 교육상담 프로그램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름 캠프, 같은 거 한국에서 봉사활동 하는 거. 그것도 효과 있는 거 같습니다. (참여자 2)

나. 이주역사 교육자료 요청

참여자들은 고려인에 대한 역사를 공식적인 역사 책 속에서는 찾을 수 없으며, 한국문화나 역사에 관한 자료도 매우 드물다고 말하였다. 참여자 1은 11년 전까지 고려인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고 한다. 과거 교육에서는 고려인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역사책은 없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자 3은 학교 교재에는 한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은 되어 있지만 고려인들에 대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교재는 없다고 한다. 다행인 것은 최근 단행본으로 고려인 역사에 대한 책이 나온다고 한다. 참여자 4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러시아어로 쓰여진 한국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료는 조금 있으나 참고할 만한 교재는 없다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료제공을 요청하였다.

11년 전에 오기 전에는 고려인이 뭐 줄 몰랐어요. 고려인이라는 그 자체를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국사책에도 고려인이 없었고. 근데 오니까 이제 고려인이 있고요. (참여자 1)

학교에서도 뭐 그런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역사 시간에는 한국, 북한에 대해서는 약간의 언급은 있지만 근데 그건 세계 역사 배울 때 근데 고려인들이 역사를 배울 환경도 안 되어 있고, 물론 지금 뭐 교재. 교재는 아니지만 단행본으로 뭐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는 그런 책들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교재는 없어요. (참여자 3)

러시아 말로 돼 있는 한국역사에 대하여 한국문화에 대하여 자료들 같은 거 책들 교과서들 같은 거 아주 적습니다. (참여자 4)

④ 국가 간 네트워크

가. 한국관련 정보 공유 및 제공

참여자들은 한국관련 정보와 자료는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모든 고려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자 5는 카자흐스탄에서 기관 간 정보의 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한국과 관련된 정보는 공식적인 루트나 채널을 통해 홍보하거나 공지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신문이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말하였다. 특히, 참여자 4는 한국에 관한 정보도 대부분의 언어가 영어나 터키어로 되어있고 러시아어로도 나오지 않으므로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여기 뭐 고려일보라든가요. (참여자 3)

지금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유튜브 같은데 클릭만 하게 오픈을 해 놓으면, 있을 거 같은 한데. 자료들이. 거기는 주로 영어로 돼 있고 아니면 비엔나어도 돼 있는데 러시아 말은 없어요. 이상하게. 제가 항상 여러 가지 좋은 역사의 문화에 대한 정보가...(중략)... 찾아보면 영어, 터키어, 뭐 등등 여러 세계어 있는데 러시아 말은 없어요. 이상하게. 너무 안타까워요. (참여자 4)

한국 정부에서 뭘 지원을 해도 여기에 있는 협회가 협조를 해야 혜택이 돌아가는데. 협회에서 딱 잡고 있으니까 혜택을 많이 못 보죠. 그런 식의 홍보 활동들을 이제 공식적인 한국의 관련된 공식적인 루트나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공지를 하고 그런 방법들을 더 강구를 해야 되요. (참여자 5)

3)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 분야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본 절에서는 국내 거주 중인 고려인 청소년 분야 전문가의 면접 조사를 통하여 고려인 청소년의 특성과 실태, 교육 현황, 이들의 진로와 고민 등을 파악하고 질적 분석 방법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다음 표에는 면접조사 결과는 범주, 대주제, 소주제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표 VI-72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 분야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의 범주

범주	대주제	소주제
한국 정착	학교생활	•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소외감
		• 학교 규칙에서 자유로운 아이들
		• 위탁형 대안학교 재학
		• 따라가기 어려운 한국 학교
	언어와 학습 그리고 진로	• 학교에서는 한국어, 집에서는 러시아어
		• 대학 진학을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
		• 러시아 졸업장을 선호하는 아이들
	가정 문화와 환경	•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가정
		• 바쁜 부모와 돌봄이 안 되는 아이들
• 생일축하 문화와 친구		
정체성 협상과정	법적 제도와 정착	• 비자 문제로 한국 거주가 불안한 아이들
		• 다문화정책에서 배재된 고려인 청소년
		• 한국국적 취득 희망
	정체성 갈등	• 나의 정체성 찾기
		• 노력해도 안 되는 여전한 이방인
		• 자꾸 잊어버리는 러시아어
	민족정체성 강화	• 똑같은 얼굴에서 오는 동질감
		• 한민족 공동체 의식
		• 한국인이 되어가는 아이들
정책 제언 및 지원 요청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	• 교육 제도와 시스템 변화
		• 다양한 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바꾸기
		• 고려인 멘토를 활용한 지속적인 멘토링
	교사와 학교 운영	• 러시아어 소통이 가능한 교사 활용
		• 성공한 고려인 롤모델 만들어주기
		• 고려인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범주	대주제	소주제
		• 공감하고 인정해주기
	지역별 맞춤 지원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 고려인 수요에 맞는 지역별 지원하기

(1) 한국 정착

① 학교생활

가.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소외감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한국에 이주한지 오래 되지 않은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 정규학교의 수업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려인 청소년들의 문화나 학습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교사들에 의해 고려인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려인 청소년 중에 이슬람교를 믿는 학생들은 음식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를 잘 이해 못하는 교사들은 적절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인문계 고등학교는 입시위주 고등학교 학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거기 가봤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실제로 대학을 가서도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참여자 2)

학교에서는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도 그렇지만 이 학교를 좀 빛낼 아이들 위주로 학습을 진행하다보니까 이 아이들은 거의 투명인간이거나 선생님들의 어떤 관심에서 배제되거나 아님 귀찮거나 이런 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들하고 얘기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언어도 안 되면서 한국학교 들어 오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참여자 3)

나. 학교 규칙에서 자유로운 아이들

교사들은 CIS 지역 청소년들이 출생국가의 학교 규율과 한국 학교의 규율이 달라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참여자 1은 학생들이 지각과 결석을 빈번하게 하거나 학교의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참여자 2는 고려인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을 진행하거나 한국어 보충학습을 진행하려고 하여도 학교에 오래 머무는 것을 어려워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로 인해 이들의 한국어 능력은 더디게 발전하고 학교 적응에 더욱 어려움을 경험하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고려인 쪽 애들은 시도 때도 없이 지각이고 결석을 해요. 학교를 안 오진 않은데 맨날 아프대요. 맨날, 맨날 늦게 일어나서 맨날 너 저녁에 일찍 자고 일찍 와. 막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 자체는 출결을 별로, 그 우즈베크 출결을 별로 중요하게 안하고 시험보고 졸업만 하면 된다 그러네요. (참여자 1)

화목은 4시고 월수금은 3시예요. 그런데 그 이상 잡으면은 애네들 다 도망가요. 어차피 그담에 아무리 좋은 것도 방과 후에 하자 그러는데 해보니까 중도입국 애들하고 고려인하고 방과 후는 아니예요. (참여자 2)

다. 위탁형 대안학교 재학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경우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이 학생들은 원적학교인 공립학교에 학적을 두고 위탁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1년 동안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수업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익히고 다시 원적교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참여자 1은 대부분 중도입국학생들은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공립학교로 돌아간 후에 적응의 어려움으로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원적학교로 옮긴 후 학습의 겹으로 인해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우울을 경험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로 인해, 중도입국 학생들의 사례관리 및 한국어주 후 사후 교육적 관리가 절실하며, 원적학교와 대안형 위탁학교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말은 하나도 못해요. 저희학교 온 애들은 다 처음부터 기억, 니은부터 배워요. 중도입국아이들은 다 한국어를 못하고 와서 저희가 한국어하고 6개월 지나면 반으로 배치해서 담임 선생님과 배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은 일반학교는 안가요. 두려워해요. 중도입국아이들 중퇴율이 굉장히 높아요. 고등학교는 막 85% 달할 정도로 중퇴율이 높고 중학교는 75% 초등학교는 50% 이렇게 되는데 저희학교는 아이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기다려 주면서 가르치고 다른 아이들도 자기하고 다 똑같은 아이들이니까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1)

원적학교로 진입했을 때는 아주 한국어 잘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자존감이 없어지고 적응을 못하고 어제는 뭐 아주 잘하고 굉장히 밝았고 이랬던 친구가 와가지고 막 울고 갔어요. (참여자 2)

② 언어와 학습 그리고 진로

가. 따라가기 어려운 한국 학교

참여자들은 중도입국학생들은 한국어 학습 및 다양한 교과목을 배워야하는 어려움과 한국학생들과 비교하여 성적이 낮은 현실에 놓여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국학교의 교육과정을 따라가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중도입국 청소년을 한국학교에 적응시키기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애들은 일반학교는 안가요. 두려워해요. 중도입국애들이고 고려인 애들이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공부하는 젤 세다는 걸 다 알고 와요. 다 알고 오기 때문에 한국학교 문턱 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참여자 1)

원적학교서 요구하는 과학시간이 백 시간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백 시간 다 못하니까 교육청에서 인제 가령 70%라든지 하고 나머지 30%는 한국어 쪽으로 해서 우리 대안교과를 실시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 애들이 우리 나름대로 대안교과를 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서 하지만 뭐가 또 브레이크가 되나면 이제 실제 1년을 배우고 그 학교에 원적을 복귀했을 때 그 뭐야 학습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참여자 4)

나. 학교에서는 한국어, 집에서는 러시아어

참여자들은 고려인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한국어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선 러시아어를 사용하므로 한국어가 쉽게 늘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고려인 학생들은 대부분 대화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어 가정과 학교가 연계한 한국어 교육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말 배우고 하는 거 하지만 집에 가면 도로 러시아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참여자 4)

한국어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하지만 생각보다 늘진 않아요. 집에서 전혀 부모랑 한국어를 쓰지 않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참여자 5)

다. 대학 진학을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 준비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중 34%가 전혀 한국어를 알지 못한다(재외동포재단,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교사들은 한국에 입국한 많은 중도입국학생들은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길 원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로 인해, 고려인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학생들을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고려인 중도입국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돕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외국인 애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조건이 고등학교 졸업장과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 되면 특별전형으로 대학가기 쉬워요. 그래서 대학을 잘 가고 있어요. 한국어를 잘 배우면 완벽한 이중 언어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언어 쪽으로 저희는 그래 다른 기술은 안 가르쳐요. 저희학교에서는 언어를 제일 중점으로 해요...(중략)... 언어를 해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굳이 다른 과 가는 애들도 있는데 중국아이는 중국어과, 러시아 아이는 러시아어과 이렇게 가라고 해요. 통역을 하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가면은 낙오자 없이 졸업 잘해요. (참여자 1)

고등학교 애들 스무 살, 열아홉 있어요. 그 애들 대학교 가있어야 될 애들이잖아요. 여기서

이런 눈치로 다 알아들어요. 눈치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걸 특히나 우리 애들이 한국어 능력시험 4급만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잖아요. (참여자 4)

라. 러시아 졸업장을 선호하는 아이들

참여자 5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안학교는 러시아학원으로 인가를 받고 러시아에 있는 학교와 자매결연하여 학생들에게 러시아학교 졸업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고려인 학생들이 러시아학교 졸업장을 선호하는 것은 이들의 진로에 활용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학생들이 러시아 졸업장을 취득하면 한국은 물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더 나아가 미국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한다.

학교가 지금 러시아 대사관 산하에 학교가 있고요. 러시아학위를 수여 하는 게 저희는 러시아에서 교과서를 사다가 러시아 선생님들이 고국에서 교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러시아어, 영어, 수학, 생물, 화학, 지리, 체육, 음악까지 전 과정을 다해요. 그리고 러시아대사관에서 학위를 받아요. 학생들은 러시아졸업장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걸 갖고 있으면 우즈베크에서도 통하고 어디를 가도 미국가도 통하고 한국에서 대학갈 때 통하고 다 통하는 거죠. 또한 저희는 토요학교가 있어요. 토요학교가 뭐냐면 평상시 한국학교를 다니다가 토요일만 와서 공부하고 러시아 졸업장을 받는 거예요. 토요일만 해서 방학 없이 계속하면 한국과 러시아 두 개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고 이 아이들은 대부분 실력이 좋더라고요. (참여자 5)

③ 가정 문화와 환경

가.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가정

참여자 5는 중도입국 학생들은 대부분 엄마가 한국으로 결혼 이주하여 들어왔지만 고려인 청소년들은 러시 아권에 살던 고려인들이 가족단위로 한국에 이주한 가정이 많다고 한다. 또한 고려인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부모가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게 되어 자녀들도 부모로

인해 나타나는 부적응이나 갈등은 보이지 않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편이라고 설명한다. 문제는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늦게까지 일하다보니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적은 것이다. 이로 인해, 자녀들도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알고 부모를 도우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한다.

고려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친엄마, 친아버지죠. 다행히 엄마아빠가 같이 오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도 애가 사촌이요 딸이에요 다 한 가족 다 같이 오세요. 그니까 고려인 마을에 사는데 이모, 고모, 삼촌 다 있어요. (참여자 1)

고려인들한테 장점이라 하면 온 가족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인제 그게 지금 내가 계산했을 때 1940년 이전 세대들이니까 애들 어찌면 할아버지 더 깊게 올라가면 증조 그 할아버지 그니까 4대 된 아이들이 지금 4대 된 아이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3대된 아버지 세대는 그 재정적으로 말하자면 나라가 너무 열악하니까 여기 와서 좀 돈 좀 벌어서 오는 그런 한국이란 꿈을 안고 온 세대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인제 이 애들을 교육한다. (참여자 4)

나. 바쁜 부모와 돌봄이 안 되는 아이들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요인이 대부분이라고 한다(김재기, 2014).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부모들이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자녀들의 양육이나 교육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고 한다. 참여자 4는 부모들은 주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거나 쉬는 날도 자녀와 함께 하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이 혼자 집에 있거나 방치되는 상황에 이르고 게임에 빠지거나 밖으로 떠도는 후속적인 문제들을 지적하였다.

집에 가면은 어쨌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 애들이 더 돌아다녀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그게 좀 문제예요. 큰 애들이 집은 다 비어 있고... (참여자 1)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고 연결된다면 분위기는 좋지만 막상 집에 이 애들이 4시나 5시에 하교해서 집에 돌아가면... 엄마가 뭐 어떤 엄마는 11시, 12시에 들어오고, 아빠는 뭐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고...(중략)... 자기들이 또래집단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놀고 자기들끼리 하다보니까 부모간섭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라던 지 이런 것에 몰입을 하게 되고 몰입해요. (참여자 4)

새벽에 부모님들이 나가시고 애가 학교에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이 안 되고, 또 그러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방학은 3개월 동안 방치되거든요. 부모들이 다 일 나가고 학교는 방학이고 갈 곳이 없는 거죠. (참여자 5).

다. 생일축하 문화와 친구

참여자교사들은 고려인 청소년들의 문화는 한국문화와는 달리 청소년들이 생일축하나 이성을 사귄 때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자유롭게 허락함으로 교사들은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참여교사 1은 고려인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 아이들과 다르게 생일 문화가 성대하여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생일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사는 등 많은 돈을 쓴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자유로운 성문화 속에서 살아 온 고려인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도 이성에게 자유로운 스킨십을 하는 등 한국학생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생일을 막 크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요. 생일을 일 년 굶었다가 먹는 식으로 생일을 해요. 부모님도 막 오십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생일 그렇게 크게 하는 거 아니다. (참여자 1)

거기는 다 자유로워요. 막 강당에서 우리 사귀기로 했어, 그러면 둘이서 뽀뽀를 안 하나 뽀뽀가 아니라 키스를 하고 그래갖고 불러다 놓고 야단을 치고 스킨십이 너무 심해갖고 부모를 부르면 그 엄마 하는 말이 나도 열여섯 살 때 애 낳는데 우리아들 사랑하는데 어떻겠냐고 그래서 저희 맨날 연애감시 하느라 바빠요. (참여자 3)

④ 법적 제도와 정착

가. 비자 문제로 한국 거주가 불안한 가정

참여자들은 고려인 청소년들은 부모들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하였지만 불안한 부모들의 삶이 자녀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고 말하였다. 자녀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를 따라 왔지만

한국에서 이들의 학교생활이나 삶은 이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다. 즉, 부모들이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한국사회에서 안정되지 못하였고 불안정한 지위와 비자 문제로 인해 자녀양육이나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녀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은 여기서 살겠다. 살고 싶다 그러는데 비자문제 얘기하면은 애들이 좀 당황해 하죠. (참여자 3)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비자) 없는 상태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인제 한국사회에 적응력이 현저히 떨어진 거잖아요. 현저히가 아니라 아예 적응력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건데 그걸 고스란히 아이들이 학교 가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 같아요. (참여자 2)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지 못 하는 건 공장에서 갑자기 이런 비자 문제 생기면 갑자기 다 자르요. (참여자 4)

한국도 일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H2비자가 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H2도 정규직이 다 돼야 된다고. 알바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참여자 5)

나. 다문화 지원정책에서 배제된 고려인 청소년

참여자들은 고려인 청소년들은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도 해당이 되지 않다보니 이들 교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부모들의 몫으로 남는다고 말하였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고려인 4세로서 한국에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문화 대상도, 재외동포 대상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다양한 정책에서 배제된 고려인 청소년들은 학교 밖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고려인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교사들은 이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제도권에서 도움을 주고자 해도 방법이 없다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이러한 고려인 청소년들을 돌봄의 대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법이 재외동포법과 외국인으로 인정받는 법이 있어서 좀 복잡한거봐요. 재외동포가 그니까는 이게 영주권은 여러 가지로 소련이나 여러 가지 나라들 우리가 주고 싶어도 주질 못하나 봐요. 시민권을요. 그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시민권을 거기서도 포기를 안 시켜주고 여기서는 그걸 또 하질 못한대요. 그래 갖고서는 우리나라 법이 특히 고려인 저쪽 사람들이 시민권을 못 받게 돼 있대요. (참여자 1)

다문화 대상으로 한국어 방문 지도 같은걸 하는데 고려인 청소년들은 다문화에서 배제가 돼있다 보니까 신청자체가 안돼요. 대학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중,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기 때문에 외국인 특례도 해당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부문에 있어서 경쟁이 안 되거든요. (참여자 3)

다. 한국국적 취득 희망

참여자들은 대부분의 고려인 청소년들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길 싫어한다고 말하였다. 다음 사례들처럼 이들 청소년은 경제 성장한 한국에서 거주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길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재기(2014)에 따르면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 하는 의견이 90%에 달한다고 하였다. 참여자 2는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 국적을 준다면 군대도 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참여자 5도 우즈베키스탄은 고려인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돌아갈 곳은 없으며 한국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많은 고려인들과 이들의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정착을 희망하므로 우리사회는 이들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적을 준다 그러면 군대도 가겠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어디 사람인지 모르는 이 상태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서 생활을 하지만 고려인이 갖는 정체성이나 언어에 대한 부분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이런 민간단체가 고민하고 풀기에는 한계는 많은 거 같아요. (참여자 2)

우즈벡이 자기네들이 정착할 수 없다는 생각을, 우즈벡은. 중국은 이제 돌아갈 데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용기를 안내는지도 모르겠네요. 우즈벡은 이제 거의 메리트가 없는 거죠. 우리아이들에게... (참여자 5)

(2) 정체성 협상과정

① 정체성 갈등

가. 나의 정체성 찾기

고려인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왜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자신이 한국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고려인 청소년들이 CIS 지역에 거주할 때는 지역 원주인과 다른 외모로 인한 차별과 배제, 이로 인한 자신의 정체성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사회 적응하고 정착해서 살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향 같은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재이주도 고민하는 등의 고민이 많다고 이야기한다.

남자아이들은 조금 사춘기가 늦긴 하는데 사춘기 시작하면서 인제 굉장히 많이 방황도 많이 하고 어려워하고 이러한 여자아이들은 그게 주기로 계속 와요. 오기는 오는데 한계에 부딪힌다는 자기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굉장히 좌절감을 많이 경험 하더라고요. (참여자 2)

돈 벌어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그냥 국적 취득해서 살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자기들이 자라온 그쪽 환경에 쫓 그리움이 있는 거 같아요. (참여자 4)

나. 노력해도 안 되는 여전한 이방인

참여자들은 한국생활에 적응한 고려인 청소년들도 학교와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기에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특히, 학업에 뒤처지는 경우와 고려인 또는 이방인으로 치부하는 교사와 친구들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좌절을 경험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들 고려인 학생들은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인식할 때 다시 상실감에 빠진다고 한다. 참여자 5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고려인이라 차별을 받으며 성장하였는데 한국에 와도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여겨지는 현실이 너무도 힘들다고 이야기 한다고 전하였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이중적 차별을 경험하면서 고려인이라는 정체성과 이방인으로 여겨질 때 느끼는 아픔을 동시에 경험하며, 이에 대한 한국사회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문화 학교라 하더라도 선생님의 관심 정도에 따라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지원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교사가 관심이 없으면 오히려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냥 그냥 무난하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이탈하는 경우를 저희가 몇 번 봤거든요. 너무 심하게 대하는 거죠. 이 아이에 대해서 (참여자 3)

자기는 고려인이니까 차별이 없을 줄 알았는데, 러시아에서는 어쨌든 차별이 있잖아요. 백인사회에서. 네. 근데 여기는 또 다른 차별이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4세대까지 어떻게 한국 사람으로 해주겠니. 그냥 여권은 우즈벡. 넌 외국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애는 여기 있기가 힘들어요. (참여자 5)

다. 자꾸 잊어버리는 러시아어

참여자들은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자연스럽게 러시아어를 잊어버리는 상황을 걱정하였다. 입국초기에 이들은 한국학교와 러시아학교 사이에서 학업에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한국어와 러시아어 사이에서 갈등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해 걱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참여교사들은 점차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자연스럽게 러시아어를 잊어가며 한국인화 되는 정체성을 확립함으로 문제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지금 우리아들이 러시아어가 어렵잖아요. 한국에 와서 계속 한국어만 쓰고 하니까 어릴 때 썼던 러시아어를 많이 잊어버린다고 해요. (참여자 1)

한국이란 나라를 조금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니까 하다못해 러시아어도 자라면서 다 잊어버리고 러시아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어린나이나 유치원 나이 때 와서 지금 한 5~6년 지나며는 아이들이 러시아어를 모르더라고요. (참여자 3)

② 민족정체성 강화

가. 똑같은 얼굴에서 오는 동질감

참여자들은 고려인 청소년은 주로 CIS 지역에서 중도입국 한 청소년들이지만 고려인들이 대부분 고려인끼리 결혼하기 때문에 한국인과 유사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 입국초기에는 자신도 한국인이라는 동질의식을 가진다고 한다. 참여자 3은 고려인 청소년들이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 지역에서는 항상 다른 외모와 생김새 때문에 차별을 경험하였으나 한국에서 유사한 자신들의 모습으로 정서적으로 애착을 느끼며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느끼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고려인은 고려인끼리 결혼은 했나 봐요. 얼굴은 다 한국 얼굴을 갖고 있어요. 유난히 섞이지 않았더라고 고려인들이요. (참여자 1)

일단은 보통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얼굴색, 피부, 머리 색깔 똑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한 동질감과 그 애착 애정 어쨌든 이 땅에 대한 어쨌든 그런 동질감 이런 걸 느끼는 거 같아요. 똑같다는 거에 대한 예전에는 애들이 눈 쪼그만 아이 이렇게 부르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 다 똑같으니까. (참여자 3)

나. 한민족 공동체의식

참여자교사들은 고려인들은 자신들이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한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공동체 의식도 강함을 설명하였다. 이로 인해 고려인들은 이름은 러시아 이름이지만 한국인들과 같은 김, 박 씨 등의 성씨를 사용하며 민족정체성을 강화하고 심리적으로 하나임을 느끼며 한국 내 공동체 마을을 형성하며 살아간다고 한다. 이로 인해, 참여교사들은 이들은 고려인이라는 의식이 더 강하며 문화, 역사, 언어도 함께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 왔지만 우즈베키스탄보다는 고려인이라는 게 더 민족으로 뭉쳐져 있는 게 더 커요. 고려 사람이라는 게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매일 자기가 살았던 국가 이런 거에 대한 게 더 크지만 고려인이라는 의식들이 더 큰 거 같아요. 고려인이라는 공동체의식이 고려인이라는 범주에 묶여 있는 거 같은 느낌. 그걸로 문화를 같이하고

역사를 같이 하고 언어를 같이 한다는 거죠. (참여자 2)

박, 김 이런 게 다 남아 있거든요. 고려인들은 여권에. 그럴 때 아마 자기들이 아. 한국사람. 그리고 뭐 독립운동을 하러 갔다거나 고려인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갔기 때문에 그 가신 분들 1세대가 함구를 한 거예요. 일체 입을 열지 않으셨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참여자 5)

다. 한국인이 되어가는 아이들

참여자교사들은 한국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발견하는 시기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들이 한국음식을 한국사람 보다 더 잘 먹고 한국인 같이 행동할 때 자신들이 한국 사람이 다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고 한다. 참여자 2는 한국생활에 적응한 고려인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사는데 무리가 없다고 인식하며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에도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급식 처음에 못 먹다가 애들 전부다 가면 우리는 다른 거 시키는데 스파게티 시키는데, 애들은 김치찌개 시키고 뭐 그런 거 먹고 얼큰한 거 먹고 싶다. 그러면서 맨날 육개장 시켜먹고 이러거든요. (참여자 2)

음식이 저쪽 음식은 밀가루음식 이잖아요. 이런 음식 같은 것들, 비빔밥 같은 것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 주면 이제는 비빔밥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거예요. (참여자 4)

(3) 정책 제언 및 지원 요청

①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

가. 교육제도와 시스템 변화

참여자들은 위탁학교와 원적 학교 간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학생을 학교에 입학시키는 문제로 인해 위탁학교 교사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적이 있다고 한다. 대부분 고려인 청소년은 물론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 공립학교에서 원적을 두지만 원적학교에 가 보지도 않은 채 위탁학교로 바로 인계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위탁학교에서 자신들이 맡은 1년만 잘 데리고 한국어 실력을 높여 보내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을 교육시켜 보내지만 원적학교 돌아간 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원적학교에서 고려인 학생의 입학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이 시스템적인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제도의 변화가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

협업이 안 되면 서로 힘들어요. 원적학교 집어넣고 거기서 위탁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적학교 넣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막 무릎 꿇고 빌었 다닌깐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래되니까... 고등학교는 지금 안 받아서 몇 학교 정해진 학교 밖에 못가요. 고등학교는 절대로 안받아주죠. (참여자 1)

1년 있다가 자기 원적학교로 가는데 처음에는 안 가려고 울고불고 하는데 또 적응하더라 고요. 처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갈 때 못 온다고 거의 못을 박고 보내요. 이렇게 하는데 초등 애들은 거기서 또 하더라고요. 초등이나 중학교 애들은 그래도 또 다니더라고 요. 근데 그중에도 못 다니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원적학교에서 데리고 있고 저희는 4, 5, 6학년 이에요. 조금씩 협의하죠. (참여자 4)

나. 다양한 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입국초기 중도입국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어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기관의 신체 활동과 관련한 학습이 효과적일 수 있다. 즉, 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같은 민족끼리 동아리 활동을 통해 협력하는 게임을 하면서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역시 교사들의 역할일 것이다.

처음에 왔을 때 인제 제일 힘든 게 언어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인제 동아리 프로그램 들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청소년 농구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거든요. 고거 그런 것들이나

그 안에서 거기는 온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니까 언어가 잘 안돼요. 그래도 자기들끼리 체육활동이나 이런 문화 활동. (참여자 2)

저희가 학기 초에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는데 처음 온 학생인 경우 프로그램을 그룹으로 만들어 진행해요. (참여자 3)

다.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바꾸기

참여교사들은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교육정책이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되어야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국내거주 고려인 학생들에게도 대학입학 장학금 혜택을 주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외에서 오는 학생들은 혜택을 받는데, 이곳에 정착한 고려인 청소년들은 오히려 추천도 어렵고 서류 준비도 복잡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한국 거주 고려인 청소년들이 대학 가는데 필요한 등록금 지원을 해주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다 풀리면 풀려야죠. 법이 풀리면 풀리겠죠. 그죠? 근데 이제 동포 간에서 안타까웠던 게 지난번에도 장학제도 같은 경우도 국외로 많이 해당되고 이런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인제 여기 와서 유학 온 아이들도 해당은 되더라고요. 그쪽에서 학교를 나와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선정이 되더라고요. 아예 추천 자체를 여기서 올려서 받으면 되는데 이번에 한번 해보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학적부나 행정서류를 떼어서 그 공관에 보내고 그 공관에서 받아서 다시 여기로 오는, 거기서 접수가 되요. 그니까 그게 시스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참여자 2)

아이들에 대해서 대학을 가는 것에 대해서 대학이나 대학등록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인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이 아이들이 교육받고 할 수 있는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재외동포 장학제도도 재외동포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는 그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보육지원도 이제 단지 외국인이기 때문에 전혀 없어요. (참여자 3)

라. 고려인 멘토를 활용한 지속적인 멘토링

참여자들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킨 경험을 나누었다. 초기 경험이 많은 멘토가 경험이 부족한 멘티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학습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멘토링은 고려인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한국생활에 익숙한 고려인 청소년들을 활용하여 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사회 적응에 많은 도움을 받는 사례를 설명하였다.

너희들이 이렇게 배웠던 걸 아이들한테 또 다시 가르쳐 주거나 친구들한테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해라. 그렇긴 한데 그게 인제 일정정도 지나면 한계가 있으니까 잘 가르쳐 주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배웠던 걸 학교에서 다문화학교나 이런데서 배웠던 걸 여기와 있는 아이들 중에 한국어가 좀 되고 이러면 이런 멘토를 해라 라고 해 볼래? 하기도 하고 그러고 인제 친구들이 와서 그런 수업하는 거 옆에서 보고 나도 가르칠래요. 나도 하고 싶어요. (참여자 2)

만약에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는 수준이면 기존 그룹에 맞춰서 보내고 전혀 모르면 고려인 아이들 멘토로 좀 매칭해줘요. 고려인 아이들 시간하고 확인해서 멘토 매칭해서 그 시간에 오도록 하는거. (참여자 3)

② 교사와 학교운영

가. 러시아어 소통이 가능한 교사 활용

고려인 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서는 대부분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교사가 채용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입국초기 고려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언어 소통이 가능한 교사를 활용하여 케어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선생님과 다르게 러시아 선생님과 상담하며 러시아어 소통이 가능하므로 정서적인 안정도 되고 학생들은 더 많이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참여교사는 러시아어 소통이 가능한 교사로 인해 한국어가 늦어지는 단점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 소통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거나 자원봉사자로 이용하는 것은 고려인 청소년들의 초기 한국 정착에 매우 필요한 일임을 알

수 있다.

고려인 선생님들이 와서 하니까 말이 편하고 따라가기가 쉽고 언어가 조금 늦더라도 그런 데 이제 해소도 해야 되잖아요. 문화적으로 그런 자기들이 했던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그런 선생님들을 파견해서 해요. 그 선생님들이 교통비 정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교통비가 없을 때에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참여자 2)

우리는 러시아선생님이 계세요. 러시아선생님이 한 몫을 단단히 하죠. 우리한테 말 못할 것을 러시아선생님한테 말해서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게 만들고 학습중간에 꼭 막히는 그 어떤 그 상황 같은 것을 그 선생님이 와서 이렇게 풀어주고.... (참여자 3)

이런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습 전 단계도 좋고 학습이 끝난 그 다음단계도 좋고 생활터전이 한국어하고 러시아어를 아주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러시아선생님이 계신 다든지 한국선생님이 그냥 러시아말을 능통해가지고 거기에 계신다든지 그런다면 교육에서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인제 이것은 아주 이상적인 것인데... (참여자 4)

나. 성공한 고려인 롤 모델 만들어주기

참여자교사들은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고려인을 롤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자 4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학교는 고려인 롤 모델을 찾아 이들이 어떻게 한국사회에서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참여자 3은 고려인 청소년들은 롤 모델을 만나고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달하였다.

한분이 본인이 인제 사업체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려인들을 다 고용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분 그 사람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을 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안정적으로 가족들을 돌볼 수 있게. 가족들을 같이 가족단위 돌봄을 해주는 형태로 운영하시는 사업가 분이 한 분 있어요. 모델이 되면서 아이들한테 동기부여가 좀 되잖아요. (참여자 3)

리더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소개도 받고 그 리더를 통해서 그 근로할 수 있는 제일 우리 한국사람 싫어하는 3D업종에 가서 일할 수 있고 또 아프면 그 뭐야 보험료 없는데 가서 그 종합 의료센터하고 이렇게 맺어진 그런 있고 그런 혜택을 받고 또 특히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자 4)

다. 고려인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참여자들은 고려인 청소년은 물론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특수성에 맞추어 한국어 교육도 직업교육도 맞춤형으로 교육해야 함을 설명한다. 특히 고려인 청소년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할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하며 한국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자신의 대학진학은 물론 취업에까지 자신들의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참여교사들은 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학생별 수준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갈 때 고민 많이 해요. 학교를 어디 갈 것인가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답에 고등학교 가서도 그래서 선택을 대부분 학비가 싸니까, 학비가 없으니까 저희가 특성화고를 많이 안내를 하고 그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게 낫지 않겠냐하는... (참여자 2)

오히려 청소년도 우리 재외동포로 삼고 아이들에 맞는 그 제도에 맞는 그것도 한 축으로 들어가겠지만 일정정도 맞춤형 교육들이 제공이 되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죠. (참여자 4)

라. 공감하고 인정해주기

한국에 이주한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인들의 굽지 않은 시선에 놓여있다. 특히 참여자 2는 같은 한민족으로 재외동포임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였다. 같은 한민족으로 고려인의 역사성에 대해 공감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교사들은 강조하였다. 한국사회가 이들의 청소년들의 교육과 보육지원부터 대학진학에 이르기까지 품고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참여교사들은 고려인 청소년들이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고 있었다고 이들의 기대와 희망을 대신 전달하였다.

우리 재외동포를 보면 인제 근데 이제 역사성에 대해서도 공감 하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동안 우리는 그 역사에 대해서 너무 외면하고 살았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 당위적인 서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문제들은 그리고 아동에 대한 문제들은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품어줄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느냐. 특히나 동포에 문제인 경우에는 더 그 부분으로 가지고 가야지. (참여자 2)

이제 아이들이 4세대, 고려인 4세대 정도 되는데 비자, 한국에 거주 비자가 이제 안 나와요. 외국인이 됐어요. 애네 들은 더 이상 동포로 인정을 안 해요. 그렇게 돼서 지금 이 아이들이 계속 지금 법적으로 이거 해 달라. (참여자 5)

③ 지역별 맞춤지원

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고령인 청소년을 포함한 중도입국 청소년을 교육시키는 기관들은 지역사회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도 하고 기관의 경제적인 측면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 참여자 2와 3은 그 지원 사례를 설명하며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봉사자들을 활용하며 지역사회 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등하교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지역사회에다 얘기를 하고 아마 경기도가 주로 지원을 경기도가 조례안이 있어서 조례안에 근거해서 이런 방과 후 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준 거죠. 그래서 주로 방과 후 교실은 취학아동, 그것도 초등학교 이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들까지도 했었는데 워낙 저학년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저학년 아이들 중심으로도 하고 이제 고학년, 온 지 얼마 안 되거나 이런 아이들은 저학년들하고 아무리 똑같이 수업을 못하더라도 같이 가서 1, 2학년들하고 할 수도 없고 또 학교 끝나는 시간도 다르고 이래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멘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참여자 2)

이 사람들이 의료보험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교회 같은데서 의료봉사단이 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상담 받고 하고 또 저희가 어려우니까 동장님이 저를 데리고 막 다니시면서 어디서 후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참여자 5)

나. 고려인 수요에 맞는 지역별 지원하기

참여자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출신의 고려인들이 밀집하여 사는 한국 내 지역에는 고려인 학생 등이 학교에 많이 재학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참여자 3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도 한 반에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언어도 안 되는 학생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며 지역의 거주 이주민들이 많은 지역적 특수성에 맞추어 학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변화되어야 한다고 교사들은 한 목소리도 제안하였다.

지역별로 수요가 많은 지역이 딱 있어요. 이분들이 모여살기 때문에 거기만 몇 개만 딱 지정해서 도와주면 될 거 같은데요. 한 학교에 한반 뭐 정원은 한 이십 여명 뭐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전혀 언어가 제대로 안 되는 아이들도 그 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참여자 3)

정책 세워서 하는 사람들은 좀 더 넓게 생각해서. 넓게 생각해서 정말 인류애적인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는 거 그런 것들이 돼야 좋은 결과가 생겨나는 거지. 왜냐, 우리는 늙어 가고 있고 아이들은 이제 미래의 인재로 자라가고 있는데 줄 수 있는 것들을 아끼지 않고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5)

4)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국내외 종합적 지원 방안 제안

한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2000년대 이후 한류문화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인기는 상승하였다. 이는 해외 거주하는 한국인 동포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많은 고려인들은 한민족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문화를 지키고 살아가는 고려인 동포들은 한국과의 연계 하에 상생과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인적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미래세대인 고려인 청소년의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교사들과 국내 고려인 청소년 지도교사들의 경험연구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주요 사항을 7개 영역으로 나누어 그 제언사항을 정리한다.

첫째, 교사들은 한국학교 교사의 급여문제와 열악한 학교 환경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 관리와 인적자원 육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국외 한국학교에 질 좋은 교사를 확보하고 교사의 급여의 수준을 향상시켜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류문화와 한국어 학습 열풍에 부응해야 한다.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한국어 교육 봉사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교육하고 세금이나 기타 혜택을 줄 수 있는 조건으로 교사를 파견하여 이 지역 동포와 사람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고 그 인적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내 인구감소에 대한 대비와 노동력 부족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고려인 학교와 기타 한글학교 등과 한국 대학들이 MOU체결을 통해 한국으로 대학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의 대학교와 MOU 맺은 국외 한국어 학교는 현장실습의 장으로 한국 대학생을 현지에 파견하여 문화적 역량도 키우고 한국문화와 한국어 교육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학과 기관간의 연계 시스템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의 한글학교를 통해 한국 대학에 입학한 고려인 청소년 중에 졸업한 학생들은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한국 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특별 지원과 관리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장기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어 교사들은 교사 연수를 원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교육받은 고려인 한국어 교사들은 한국어 문법과 단어 활용 그리고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으로 정기적인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교사연수는 현지에 올바른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보급 그리고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넷째, 고려인 청소년들에게는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문화와 유적지 등을 탐방하며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한민족으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캠프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고려인 청소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지속적인 한국어 교육과 진로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와 다양한 한국 문화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고려인에 대한 이주역사나 삶을 담은 교재나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자료 수집을 통해 고려인의 역사를 한국인들과 고려인 후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고려인 청소년들에게는 민족 정체성과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에게는 타국에 사는 한민족 동포인 고려인들의 역사를 새롭게 알고 이들의 존재를 재발견하며 상생 공존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국내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요청된다.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국내 복지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함으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는 문제가 빠른 시일 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직업상 바쁜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시설과 복지 체계를 갖추고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이주시기, 한국어 습득 정도, 이중 언어 능력, 그리고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 등의 맞춤형 교육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일곱째, 한국사회 내 모든 일반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주민과 고려인 청소년들의 문화적응과 정착을 돕는 것은 일반인의 타인에 대한 문화적 수용성과 다문화적 감수성 정도에 달려있다. 지역사회 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청소년 시기에 한국에 이주한 고려인 청소년이나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심리·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정규학교에서 학업을 할 수 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내 이들을 위한 교육도 분리되지 않고 함께 학습하며 성장할 수 있는 학교 환경과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3. 소결

1) 고려인 재외동포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재외동포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는 CIS 지역과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재외동포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한민족 정체성, 한민족에 대한 관심과 이해, 미래인재역량, 재외동포 청소년과의 교류 경험과 욕구, 한민족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역할 기대,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요인이며 설문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지역은 CIS 지역 중 재외동포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이었고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을 조사를 위하여 안산시와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외 조사는 해당 지역 한국교육원과 한글학교의 협조로 2017년 5월~8월 사이에 실시하였고, 국내 조사는 연구진이 해당 지역 또는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단체의 협조를 얻어 2017년 6월~8월 사이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은 최종 465부로 우즈베키스탄 208부, 카자흐스탄 174부, 국내거주 83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은 총 208명 중에서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43.87%, 여자 청소년이 56.3%였고, 연령별로는 9~12세가 4.3%, 13~15세가 21.2%, 16~18세가 30.3%, 19~24세가 44.2%였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은 총 174명 중에서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28.2%, 여자 청소년이 71.8%였고, 연령별로는 9~12세가 0.0%, 13~15세가 14.9%, 16~18세가 39.1%, 19~24세가 46.0%였다.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은 총 83명 중에서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이 42.2%, 여자 청소년이 57.8%였고, 연령별로는 9~12세가 21.7%, 13~15세가 25.3%, 16~18세가 39.8%, 19~24세가 13.3%였다.

한글학교 재학 경험을 살펴본 결과, 세 지역의 재학 경험 여부의 비율을 비슷하게 나타났다.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우즈베키스탄-77.0%, 카자흐스탄-72.1%, 국내 거주-76.3%로 나타났다. 한국어능력을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한국어능력보다는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어능력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우즈베키스탄-2.91점, 카자흐스탄-3.07점, 국내거주-3.34점). 국외에 거주하며 러시아어나 거주 국가의 공용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고려인 청소년의 보다는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어능력의 평균이 높은 것은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정생활과 관련한 요인의 평균 점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평균 점수가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 점수보다 높았다(우즈베키스탄-3.14점, 카자흐스탄-3.05점, 국내거주-2.74점). 문항별로 국가별 평균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을 살펴보면, 첫째, 부모님과 한국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는다는 항목에서 우즈베키스탄 4.39점, 카자흐스탄 4.19점, 국내거주 3.07점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자주 보거나 한국 노래를 듣는다는 항목에서는 우즈베키스탄(3.36점)이 카자흐스탄(3.02점)과 국내거주(2.71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실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이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보다 한국음식을 자주 만들어 먹고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자주 보기 때문에 평균이 높게 나올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 절대적으로 부모님과 생활하는 시간이 적어서 시간 상 부모와 활동하는 비율이 낮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즉, 국내거주 청소년은 한국 관련 활동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모와 대화하거나 활동할 시간이 적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한민족정체성 중 자신이 고려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와 관련한 요인의 평균 점수는 우즈베키스탄(4.73점), 카자흐스탄(4.54점), 국내거주(4.05점) 고려인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려인의 역사와 전통을 잘 알고, 사건이나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가와 관련한 요인에서는 카자흐스탄(3.34점), 우즈베키스탄(3.09점), 국내거주(2.65점) 고려인 청소년 순으로 나타났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에게는 한민족정체성 중 실천적 행위를 강화시키는 지원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에게는 지식 또는 의식과 관련한 내용을 보완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에게는 한민족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반적인 측면의 교육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인재역량 중에서는 세계시민의식(4.29점)의 전체 평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의사소통 능력(3.88점),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3.82점), 문제해결력(3.78점), 국가정체의식(3.45점) 순으로 나타났고, 창의적사고(3.22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 평균 점수가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평균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의 미래인재역량 중 개별 요인에서 두 국가의 평균 점수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에 관한 인식에서 한국인 또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항목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4.41점). 다음으로 높은 점수는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다는 항목으로 4.40점이었다. 고려인 청소년들의 한국인과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와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라고 생각하는 정도에서 국내거주 청소년의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국가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점수가 낮은 항목은 남북통일에 대한 항목으로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고려인 청소년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포청소년 간 교류 경험을 살펴보면, 카자흐스탄(2.89점) 고려인 청소년이 우즈베키스탄(2.41점) 고려인 청소년들보다 동포청소년이나 단체들과 자주 연락하고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거주국 주최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에 참가한 경험도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은 38.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은 22.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한 청소년들의 동포청소년과의 교류에 대한 관심도와 함께 실제 거주국에서 고려인 동포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캠프가 얼마나 제공되는지의 여부가 참가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동포청소년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과 활동의 제공과 함께 고려인 동포 청소년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과의 교류 욕구 중 가장 평균 점수가 높은 항목은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다 4.38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한국에서 또래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 4.24점이었다. 가장 낮은 평균 점수는 거주국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3.7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경험할 수 있는 유학, 취업, 또래와 교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인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주로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은 한글학교 등의 한국어 교육과 개인적 한국 방문이었다. 각 국가별로 상위 3개 항목을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은 한글학교 등의 한국어 교육 50.5%, 개인적 한국 방문 40.9%, 교환학생이나 한국방문 40.9%였고 카자흐스탄은 한글학교 등의 한국어 교육 48.9%, 한류를 통한 드라마나 K팝 47.1% 개인적 한국 방문 37.9%,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은 한글학교 등의 한국어 교육 54.2%, 개인적 한국 방문 37.3%, 한류를 통한 드라마나 K팝 27.7%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살펴보면 고려인 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글이라 한국 관련 교육, 문화, 한국 방문 등으로 통해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고려인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서의 학업 및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공통 요인은 한국 국적이 없는 것과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가별로 상위 3개 항목을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것 70.2%, 한국 국적이 없는 것 41.3%, 한국의 교육과 취업 정보 부족 17.8%이었고, 카자흐스탄은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것 57.5%, 한국 국적이 없는 것 46.6%, 경제적 어려움 31.0% 순이었다.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은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것 56.6%, 한국 국적이 없는 것 39.8%, 한국의 교육과 취업 정보 부족 20.5%순으로 방해 요인을 꼽았다. 이는 고려인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서의 학업과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교육 제도와 취업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민족정체성-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관련 인식, 카자흐스탄은 한국관련 교육 참여, 미래인재역량 중 책임의식,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은 한국관련 인식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다. 고려인 청소년이 자신이 고려인 또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돕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한국관련 인식을 강화하고 한국 관련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어능력, 가정생활, 미래인재역량 중 창의적사고와 문제해결력이 있었고, 카자흐스탄은 한국어능력, 교류 및 참여욕구, 미래인재역량 중 책임의식이 있었다.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정생활, 한국관련 교육 참여, 세계시민의식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민족공동체-의식과는 다르게 한민족공동체-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한국어능력이나 가정생활, 교류 및 참여 욕구 등 지식과 실천적인 활동과 관련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은 교류 및 참여욕구, 한국 프로그램 참여경험, 책임의식, 카자흐스탄은 교류 및 참여 욕구, 한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책임의식, 국가정체의식,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은 한국어 능력, 교류 및 참여욕구, 문제해결력, 국가정체의식으로 나타났다.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은 교류 및 참여 욕구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 프로그램 참여 경험 등 역할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한민족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고려인 청소년의 기대는 한민족 동포 또는 청소년들과 교류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류 욕구가 있는 고려인 청소년들에게는 적극적인 교류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이러한 욕구가 부족한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1) 우즈베키스탄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우즈베키스탄 전문가 면접조사는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거나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거주 중인 현지 전문가들의 면접을 통해 현지 고려인 청소년의 특성과 실태, 교육 현황, 이들의 진로와 고민 등을 파악하고 질적 분석 방법론에 근거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전문가 면접 조사 결과 고려인, 고려인 청소년, 한국어 교육, 정책제안 이라는 범주 아래 대주제와 소주제를 나누어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 정착한 고려인 후손인 청소년들은 한글 교육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인물에 대해 배울 기회를 갖는다. 최근 들어 한류 열풍으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한국어 교육 기회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한다. 고려인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즈베키스탄 현지 경제 사정이 어려워 청소년들에게 우즈베키스탄 공립교육 이외에 한국어나 역사를 별도로 교육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다.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려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또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 한국 교육을 위한 한국인 원어민 교사의 확보, 교사들을 위한 연수와 교수법 강좌 제공, 한국 대학 또는 기관을 연계한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한다.

최근 들어 한국교육원과 한글학교를 통해 한국어 강좌를 수강하는 고려인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고려인문화협회를 통해 동포청소년이 교류하는 활동도 있지만 강좌나 활동이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한국어와 한국 관련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관과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적 차원을 넘어 취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려인 청소년들이 안정적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관에서 직업 프로그램과 실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을 하고 있으나 아직 미약한 부분이 많으므로 한국으로부터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길 원하고 있다고 한다.

(2) 카자흐스탄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카자흐스탄 고려인들도 강제이주 이후 전면적인 러시아어 교육의 강요로 러시아어를 말하고 러시아어로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러시아어는 고려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생활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고, 고려인들에게 한국어는 차츰 서툰 언어가 되어버렸다

고 한다. 특히, 모든 소수민족이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구사할 수 있어야만 국가와 사회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주한 고려인들은 한국어는 잃어버리고 열심히 러시아어를 학습하게 되었다고 한다. 러시아어 습득과 우리 민족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중상위층 이상으로 생활하는 부유한 고려인이 많은 편이라고 한다.

고려인 부모역시 자녀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한 편이어서 타민족에 비해 고려인은 자녀들은 대학에 많이 입학하는 편이라고 한다. 그 결과로 전문직과 고위직에 있는 고려인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더욱 고려인의 이주 역사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고려인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민족 발전과 개인 발전에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어 교육을 통해 자신의 뿌리를 스스로 찾는 정체성 형성과정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카자흐어가 카자흐스탄의 공식 국가언어로 채택되면서 한인들은 민족 간 소통 언어인 러시아어와 민족 언어인 한국어 외에 카자흐스탄어까지 삼중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고려인 청소년들이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한류의 영향이라고 한다. 일부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으로 취직하기를 희망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은 한류를 통해 민족적 자부심을 갖게 되며 한국에 취업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지원과 관련한 사항에서 카자흐스탄도 우즈베키스탄과 유사하게 한국어 교사들의 처우 개선과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한국어 교육은 큰 틀에서 제도와 프로그램 개선, 교사의 질 향상이 같이 이루어져야 발전할 수 있고 결국 고려인 청소년들의 민족교육을 위한 밑거름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적인 문제로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못하는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고려와 지역적으로 학습 기회가 박탈된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 프로그램 제공이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고려인 역사와 문화 등에 관한 내용을 교재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가능하다면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관련 교육 교재, 교육 활동물, 한국 관련 정보 등은 모든 고려인 교사나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국내 전문가 면접조사 결과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 분야 전문가 또는 현장 활동가들의 경험을 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출생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 가장 많았지만 그 이외에 러시아 등 타 CIS 지역 국가로 다양하였고 중도입국 한 청소년이 대부분이었다.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은 출생국가에서 생활하다가 부모가 한국으로 취업하기 위해 이주해서 한국에서 생활하게 된 경우였고, 그로 인해 새로운 문화와 학습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놓여 있다. 특히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한국의 정규 학교 과정에서 더욱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적학교를 두고 약1년 간 대안형 위탁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원적학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원적학교와 대안형 위탁학교 간 연계 문제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고려인 부모가 대부분이어서 부모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고려인 청소년들은 가정 내 부모의 돌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는 직계 가족 단위가 이주를 한 경우가 있어서 비록 부모의 돌봄은 부족하지만 주변에 삼촌, 이모 등 친척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거나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한국 대학 입학에 희망하는 고려인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어 능력시험을 치러야 하여서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 공교육과의 연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출생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 러시아 고등학교 졸업장을 선호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러시아 학교 졸업장이 거주국과 러시아 본국 또는 북미 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여 일부 고려인 부모들은 러시아 학교 졸업장을 위해 사립 학원을 보내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인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 거주 기간이 늘수록 공교육 과정에 있는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어능력은 분명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의 거주국 언어, 많은 경우 러시아어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비자 형태상 고려인 청소년들 중 출생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어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인재가 있다면 분명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 언어를 동시에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 제안 범주에서 살펴보면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교육 체계와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고려인 청소년은 다른 다문화 청소년과 다른 민족 역사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교육 뿐 아니라 이들이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활동, 멘토링 제도 등이 요구된다. CIS 지역의 공통언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어를 구사 할 수 있는 교사를 학교 구역 단위로 채용하여 이들의 정착과 지원을 돕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이주 역사가 오래되면서 성공한 고려인 리더로 여겨지는 인물들을 청소년들에게 롤 모델로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리더 양성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 VII 장



정책제언

1. 재외동포청소년의 현황과 문제점
2.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지원 방안

제 VII 장

정책제언*

1. 재외동포청소년의 현황과 문제점

국가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동포청소년의 특성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성장 환경 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동포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와 전문가 대상의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미(브라질, 아르헨티나), CIS(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각 국가의 동포청소년의 특성과 욕구, 청소년 가정 및 교육 환경, 그리고 동포사회와 거주 국가 및 대한민국 정부의 동포청소년 지원 환경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가별로 특징적인 현안문제와 대륙별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안 문제를 분리하여 살펴봄으로써 국가별, 대륙별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기초를 삼고자 하였다.

1) 남미 동포청소년 현안 문제

(1) 브라질 동포청소년 현안 문제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이 동포사회와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개인적 특성과 가정, 학교, 동포사회 등의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브라질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미래에 대해서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나 교류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스트레스 없이 일상생활이나 각종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낙천적이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을 하지 않는 태도는 미래의 개인적인 삶이나 한민족 공동체의

* 이 장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과 정은주 연구위원이 공동집필하였음.

구성원으로서의 삶에 대한 비전을 결여하게 한다. 따라서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기초한 미래 진로의 개발이나 동포사회 및 대한민국에 대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즉,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에게 미래의 도전적인 삶과 한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삶의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이나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요청된다.

최근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이나 부모들의 경우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한국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브라질 동포청소년 대상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어능력 부족(40.7%)나 한국조직 문화 적응에 대한 자신감 부족(29.0%), 교육·취업 기회 부족(25.4%), 교육·취업 정보 부족(24.1%) 등이 한국으로의 진로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포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에게 한국어와 한민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제로 많은 동포청소년들이 한국 관련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 세계 한인동포사회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가 차세대 육성을 통한 동포사회 유지·발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브라질 동포사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주로 60, 70대 연령대인 1세대가 주도하고 있고, 차세대 단체의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세대의 차세대에 대한 신뢰 부족과 차세대들의 단체나 모임에의 참여 의지 부족 등이 동시에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브라질 동포사회도 세대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차세대단체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브라질에서 한국학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그동안 많은 동포청소년들이 한국학교를 통해서 한민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을 갖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말에 운영상의 문제로 갑자기 학교 운영이 중단되어 현재까지도 그 처리방향이 막연한 상태에 있어서 동포청소년들의 교육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브라질 사회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교육기관이 되고 있는 한글학교의 경우에도 다양한 교재의 부족과 차세대 교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운영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위해서 한국학교의 정상화와 한글학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최근 동포청소년들 사이에서 K-Pop 등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으며, 한국 방문 및 한국 관련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에게 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참여 기회가 부족하여 소수의 청소년들만이 참여기회를 갖고 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청소년들이 교육이나 토픽(TOPIK)기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현안 문제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이 동포사회와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개인적 특성과 가정, 학교, 동포사회 등의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남미 국가 중에서 한류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보수적이며 폐쇄적인 특성 등이 타문화 수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동포청소년 대상의 미래인재 역량 조사 결과에서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에 비해서 개인 및 사회적 책임의식과 세계시민의식 등이 낮고, 국가정체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이러한 특성은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동포청소년 교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다문화 수용과 대인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이나 활동 등이 요구된다.

가정에서 부모들의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녀들의 한국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도 관심이 적은 편이다. 한국학교나 한글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경우에도 자녀 교육보다는 자녀를 돌보는 데에 그 의미를 많이 두고 있다. 또한 동포청소년 대상의 조사결과에서는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부모들의 경우에 브라질 동포청소년의 부모들에 비해서 자녀들의 한국 관련 진로에 대한 희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거주 국가에서의 한국 관련 직업 선택과 한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대한 희망도가 낮았다. 최근 브라질 동포사회에서 한국으로의 진로 선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의 부모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민족정체성의 실천적인 영역에서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이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가 간 동포청소년의 비교 조사 결과에서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이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에 비해서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지식이 적고 다른 사람에게 한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이 내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막연한 의식에 벗어나서

한민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체화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관련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에 비해서 재외동포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과 참여 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에 비해서 거주 국가에서 열리는 캠프나 연수에 대한 참여 경험이 적었으며, 거주 국가의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프로그램, 한국에서의 유학, 한국 관련 일자리 체험, 한국 문화 체험에 대한 욕구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체험과 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한민족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위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르헨티나 사회의 보수적인 특성은 한인동포들의 주류사회로의 진출을 저해하고 있다. 즉, 아르헨티나인들은 동양인들에 대한 배타성이 강해서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한인동포들이 전문직으로서 성공을 거두기가 어렵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동포청소년들이 전문직으로서의 꿈을 접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모들의 직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다. 아르헨티나와 동포사회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포청소년들이 주류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동포사회와 한국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3)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청소년 공통의 현안 문제

브라질 동포청소년들과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 비해서 동포사회와 부모들의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한국학교나 한글학교에서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나 시설, 교사 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미래의 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 교육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와 역사·문화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재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즉, 한국어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재,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태의 다양한 매체의 교재, 역사 및 문화 교육을 위한 교재, 역사 및 문화 교육을 위한 활동기회, 그리고 역사문화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들이 부족하다. 그동안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 수준이 낮다고 판단하여 그에 맞게 낮은 단계의 한국어 교육을 위주로 실시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셋째, 동포청소년들이 방과 후나 주말에 특별히 갈만한 활동시설이나 공간이 없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에 교회나 한글학교에 가거나 카페 등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에 머물고 있다. 그동안 거주 국가에서 동포사회의 위상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동포사회 내에서 동포청소년들을 위한 일상적인 활동공간에 대한 고려를 하기가 힘들었으나 동포사회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현재에 와서는 동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넷째,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한민족정체성 의식에 있어서 다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의식은 부족하다. 즉,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막연한 의식이고, 한민족의 역사나 문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한민족과 관련한 이벤트 등을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고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한민족정체성 의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한민족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교육과 한민족 관련한 다양한 활동 참여기회 제공 등을 통해서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의식을 심화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동포사회 내에서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을 교육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지만, 열정이나 물질적인 지원 등의 측면에서 과거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재외동포청소년들이 거주 국가에 점차적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고, 동포사회 혹은 한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지고 있다. 동포사회는 동포청소년 육성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여섯째, 동포청소년 대상의 조사 결과에서 교류 및 참여 욕구, 세계시민의식이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공동체 발전에 대한 역할 기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공동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의식의 함양과 한국에 대한 관심 및 교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동포청소년들을 한민족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동포청소년 교류와 한국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세계시민의식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고려인 동포청소년 현안문제

(1)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동포청소년 현안문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동포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 가정, 학교, 동포사회 등의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러시아의 영향권을 벗어나 독립한 이후, 우즈베키스탄 현지인 중심으로 국가 질서가 재편되고 민족주의가 발로되어 소수민족인 고려인의 위치는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즈베크 민족을 우선시하는 분위기로 인하여 주류사회 편입이 그 이전보다 어려워지고 있고,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한 세대들에게 국가 공식 언어인 우즈베키스탄 언어를 별도로 배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는 고려인 청소년들은 혈연적으로는 한민족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조부모와 부모세대를 통한 한민족 문화, 러시아 문화, 우즈베키스탄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환경에 놓여 있어 민족과 문화 다중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카자흐스탄과 비교하여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현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은 직업을 찾아 러시아,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들, 한국으로 이주하는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진로와 장래에 관한 문제였다. 국가 경제상황의 영향으로 직업 선택의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고 학교를 통한 진로 지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민족주의 강화로 소수민족인 고려인의 주류사회 진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 장벽이 고려인 청소년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와 취업 지도는 고등학교 졸업 후 목표 없이 학업도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지도와 기능 직종에 대한 실습 및 직업 프로그램이 지원될 필요가 있고, 가능하면 진로 지도는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적일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 중 일부는 한국으로의 취업을 희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단순 노동으로 미래가 불확실한 경우가 대부분인 직업군인 경우가 많아서, 이들 청소년에게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와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향후 한국의 산업현장과 연계하여 한국 내 안정적인 정착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 중 일부는 자신이 한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한류의 열풍으로 최근 많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청소년들에게도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고려인 청소년들은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한국 문화(K-Pop, 영화, 드라마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문화에 제한되어 있어, 고려인 청소년들은 서로가 만나 공유하고 교제하는 문화 공간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고 조부모 또는 친척과 생활하는 고려인 청소년의 비율이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보다 높다. 한국에서 부모가 보내준 생활비로 생활하는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 물질적 지원은 충족될 수 있겠지만 교육과 정서적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우즈베키스탄에 머물고 있지만, 많은 경우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과 교육적 지원과 함께 한국으로 중도입국 할 경우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 전문기관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2)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청소년 현안문제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 가정, 학교, 동포사회 등의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카자흐스탄도 우즈베키스탄과 비슷하게 구 소련연방 체제가 무너지며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했지만 카자흐스탄 공식 언어를 새롭게 배워야 하는 등의 새로운 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타 소수민족에 비해 주류 사회 진출에 성공적인 편이고 경제적 수준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성공이 가능했던 이유는 초기 카자흐스탄 정부가 우즈베키스탄과는 달리 다민족 화합정책을 중요시한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은 자녀를 유럽이나 북미 등으로 해외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으나, 고려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한국 문화나 한국어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고려인들은 청소년들이 한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자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들은 K-Pop, 한국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한류의 긍정적 영향으로

이전에 비해 더욱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가 높아졌다. 그러나 러시아어를 주로 사용하고 카자흐스탄어를 추가로 배워야 하는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해 오랜 기간 별도로 학습해야 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적 제약 없이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한민족정체성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어려운 점은 짧은 교육 시간과 사용 빈도가 낮은 주변 환경 등의 영향으로 중도에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의 일부 고려인 청소년들은 카자흐스탄 현지 한국 기업에 취직 또는 한국에 취직, 대학 진학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어 학습을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어 학습을 할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국어 학습이 꼭 필요한 대상을 위한 선택과 집중 과정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우선 순위는 한국어 교육, 개인적 한국 방문, 한류를 통한 드라마나 K-Pop이다. 이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한국을 보고, 한국에 대해 듣고, 한국에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예산 문제가 큰 걸림돌이기는 하지만 정부, 기업체, 기타 기관들이 연계하여 이들을 위한 한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보다 경제적 상황이 좋기는 하지만 카자흐스탄 고려인 청소년 역시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와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지도와 기능 직종에 대한 실습 및 직업 프로그램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3) 국내거주 고려인 동포청소년 현안문제

국내거주 고려인 동포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 가정, 학교, 동포사회 등의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 거주 고려인 청소년은 중도 입국한 청소년이 대부분으로 한국 이주 후 새로운 문화와 언어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 문화 적응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과 교육환경은 적응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이주 초기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으로 한국의 공립학교 시스템에 바로 입학하여 정규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거주지 소속 공립학교인 원적학교에 학적을 두고 교육부 인가 대안형

위탁학교에 위탁받아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대안형 위탁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어서 원적학교로 돌아가야 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 언어와 문화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고려인 청소년들에게는 공립학교 교육은 큰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다. 실제 학교 교육을 따라가기 어렵고 한국 교사들은 고려인 청소년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문화적 차이에 의한 교사와 학생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와 중도입국 학생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이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의 고려가 필요하다.

가정 문화와 부모와의 교류 측면에서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대부분은 바쁜 부모로 인해 돌봄이 부족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려움이 있다.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습 속도가 느릴 가능성이 있고 학교생활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학습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이 같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방과 후 활동, 동아리, 또래 모임, 멘토-멘티 제도와 같은 활동과 정서적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부 고려인 청소년들 중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만, 비자 문제 등 향후 거취 문제로 한국 대학보다는 러시아나 다른 국가의 대학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 거주 고려인의 경우 한국에 이주해 정착하는 경우와 출생한 국가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이민 등의 여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고려인 청소년을 다양한 형태의 미래 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으로 교육하는 방법과 함께 다양한 대안적 교육 형태의 고려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중도 입국 고려인 청소년들의 어려움 중 하나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점차 러시아어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적자원 활용의 관점에서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고려인 청소년의 능력은 가치 있는 재원이다. 따라서 이들이 이중 언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들은 이주 초기에는 한민족으로 자신과 비슷한 모습의 동료들에게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지만 한국 생활을 통해 정체성 갈등과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느끼며 갈등하기도 한다. 연구 결과에서도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중앙아시아 거주 고려인 청소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인 갈등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사회 부적응이라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정서적 지원과 함께 한국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 고려인,

조선족 등에 대한 이해 교육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거주 고려인 청소년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한국 내 정착한 고려인들의 공동체와 연계한 활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고려인 지역 사회 지도자를 양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려인 청소년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지원 방안

1)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방향

중남미 및 고려인 동포청소년은 재외동포청소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성과 더불어 개별 국가별, 그리고 대륙별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반영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중남미·CIS 동포청소년 정책은 다양한 차원에서 한민족공동체의 미래 인재를 개발한다는 목표의 지향, 국가별 동포청소년의 상황과 요구에 따른 맞춤형 정책 개발, 중남미·CIS 지역 내 국가 간에 긴밀한 협력과 공동사업의 추진, 거주국과 대한민국 간 연계 및 조정 기능 강화, 동포사회와의 협력과 참여 유도 방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VII-1】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방향

첫째, 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미래에 한민족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겠다는 미래 인재 개발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재외동포사회의 차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고, 한민족에 대해서 지지하고 자신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점차적으로 재외동포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거주국가나 국제사회에서 동포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포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향후 한민족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을 확보하는 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가별 동포청소년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동포청소년들이 각기 다른 거주 국가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거주 국가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들의 특성도 영향을 받게 되고, 가정이나 사회의 교육, 문화 등의 여건의 차이에 따른 주요 이슈나 요구사항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인접 국가이면서 국가 시스템이나 국민들의 특성이 매우 다름으로 인해서 동포청소년들의 특성이나 생활여건,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적 요구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를 반영하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중남미·CIS 등 대륙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개별 국가별로는 청소년교육이나 활동을 위한 자원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개별 국가 내 사업 이외에 지역 내 국가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개별 국가별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 대륙 내 한국교육원, 대륙 내 한글학교협의회 등을 통한 공동사업 개발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거주국과 대한민국을 긴밀하게 연계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주국 동포청소년과 대한민국 청소년 간의 교류나 교육 및 문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서 이를 연결할 수 있는 모국 내 교육 및 문화 관련 기관, 청소년기관 등의 파트너 발굴과 협력이 필요하며, 또한 전체적으로 동포청소년 사업을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외동포청소년 사업은 동포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해야 그 의미가 있으며 사업의 효과 또한 크다. 한국 정부에서 동포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동포사회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노력 없이는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동포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동포청소년 사업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필요하다. 국가별로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동포사회의 청소년교육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만, 동포청소년과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동포청소년들의 미래 인재 능력을 개발하고 동포사회의 차세대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한 동포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2)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지원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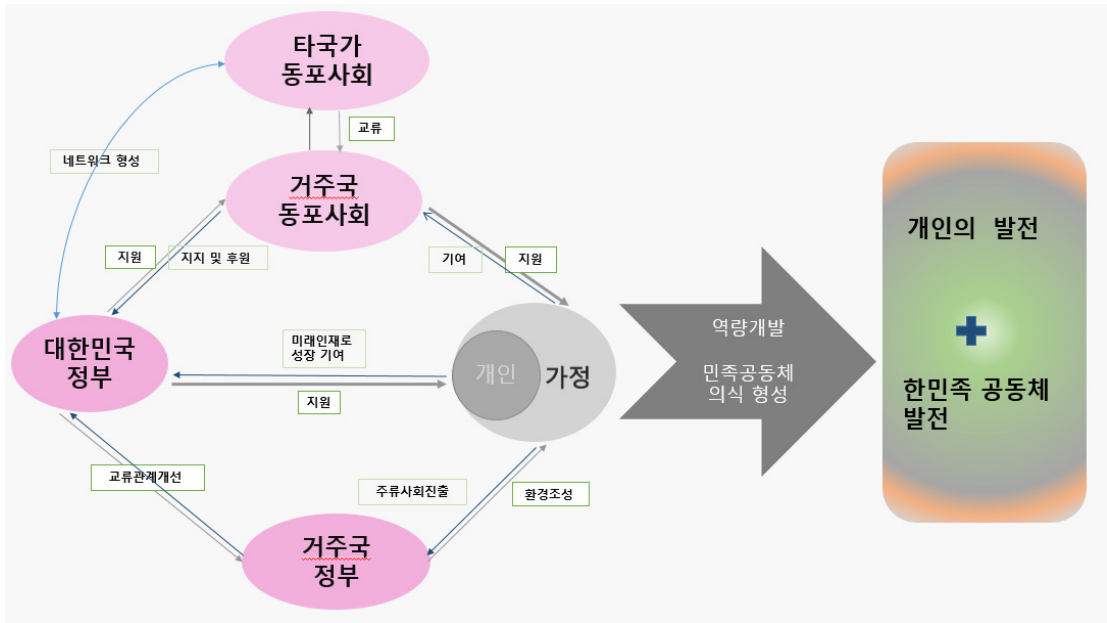
재외동포청소년 정책은 재외동포청소년 개인의 발전과 한민족공동체에 대한 기여라는 목표 속에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개인적인 삶과 한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삶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재외동포청소년들의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의 역량 개발 노력과 청소년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거주국에서의 동포사회의 이미지나 영향력, 그리고 거주국의 동포청소년 성장을 위한 제도적 환경과 거주국의 동포사회에 대한 수용 정도 등이 중요하다. 즉, 거주 국가 내에서 청소년 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청소년 가정과 동포사회, 그리고 거주 국가에서의 성장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민족공동체는 개인적인 발전의 기회인 동시에 한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한민족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재외동포청소년은 거주국 내 동포사회만의 구성원이 아니라 대륙 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한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기도 한다. 따라서 거주국 내 동포사회 뿐만 아니라 대륙 내 동포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며, 공동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위해서 협동적인 활동과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을 매개로 대륙 내 또는 세계 한민족 동포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개별 동포사회 단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동포사회와 동포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물론 거주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 노력을 통하여 동포사회가 거주국 내에서 위상을 확보하고 동포청소년들이 주류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결국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거주국 내 재외동포청소년 개인과 동포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거주국 정부, 그리고 타 동포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 등 다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재외동포청소년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한민족정체성 형성과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갖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인의 발전과 동시에 한민족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게 할 수 있다.



【그림 Ⅶ-2】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전략

3) 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정책과제

(1) 브라질·아르헨티나 공통의 정책과제

공통 1	다양한 교재 개발 보급 및 토픽(TOPIK) 개선
-------------	------------------------------------

1-1. 현지 맞춤형 한글학교 교재 개발·보급

■ 제안배경 : 현재 한글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한국어 교재는 초급 수준의 교재로 되어 있어서 초급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재가 없어서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글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교재는 현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보완되거나 보충교재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주요내용** : 기존에 개발된 한국어 교재를 현지 상황에 맞게 개발하는 작업을 통해서 중급, 고급 과정의 한국어 교재의 개발과 함께 기존 교재의 내용 보완과 보조교재의 개발 등의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지 경험이 있는 관련 학자와 현지 교사 등이 참여하는 교재 개발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재의 현지화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현지 상황을 반영하는 교재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교재를 개발할 수도 있지만 한국교육원 등을 통해서 현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재 개발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남미 지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한글학교에서의 교재 개발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교재개발과 보급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에서 개발할 경우에는 교재개발 전문가와 교재 개발에 따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1-2. 교재 활용 지침서 개발·보급

- **제안배경** : 한글학교에서는 한국으로부터 한국어 교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나 교재사용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청소년 특성을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교재의 내용도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과의 구분 등이 없어서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주요내용** : 교재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하여 한글학교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성별, 연령별 등 집단 특성별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교재 내용 중에서도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과 선택적으로 가르쳐야 할 내용 등을 구분하여 한글학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교재 개발 시 지침을 추가하거나 별도로 교재활용 지침서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방법 등이 있어서 예산 등을 고려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1-3. 역사교재 또는 역사·문화 내용을 반영한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 **제안배경** : 역사는 역사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한인청소년들에게 한국이나 한민족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하여 한글학교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브라질 한글학교에는 한국어 교재만 있고, 한인 청소년을 위한 역사교재가 개발·보급되어 있지 않다. 한국어 교육만 실시하고 있는 브라질 한글학교는 한인청소년들의

역사나 문화 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한글학교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를 위해 일부 한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공식적인 역사교재가 없어서 역사교육을 원하는 교사나 학생들의 경우에 교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주요내용 :

1안) 한인청소년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근현대사, 브라질 한인 이주사 등 한민족 역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교재 개발은 브라질 현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현지 상황을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지 학자나 한글학교 교사 등을 교재개발이나 자문위원 등으로 반드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2안) 한글학교의 한국어 교재에 한국의 문화, 경제, 역사, 역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 현안사항 : 한글학교 중에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 수준이 낮아서 역사교육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한글학교 교사 중에서도 당장 역사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률적으로 모든 한글학교에 역사교재를 보급하여 역사교육을 실시하기 보다는 학교와 교사, 학생들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4. 자랑스러운 한민족 위인 교재 개발 및 교육(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양 프로그램 개발)

- 제안배경 : 한인청소년들이 한글학교나 한민족 관련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부모들의 영향이나 한류의 영향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민족의 일원이 됨으로써 갖게 되는 자긍심의 여부가 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한민족적 자긍심이 높게 되면 누가 뭐라 해도 자발적으로 한글학교나 한민족 관련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 주요내용 : 한인으로서 한민족 역사 및 세계역사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인물들의 업적을 흥미롭게 소개하는 자료를 개발하여 한인청소년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개발한다. 문헌교재 뿐만 아니라 만화, 영상물 등 청소년들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안사항** : 한인청소년들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현지 교사 등이 자문진 또는 개발진 등으로 참여하여 교재를 개발하고 현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1-5. 주니어 단계의 토픽(TOPIK) 개발 및 활용도 제고

- **제안배경** : 현재 시행되고 외국인 한국어능력시험인 토픽(TOPIK)은 “성인학습자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는 성인 위주의 시험”으로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정희, 2002; 김선정, 장근영, 2011 : 260에서 재인용). 실제로 한글학교 교사나 학생들의 경우에도 토픽(TOPIK)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다. 또한 토픽(TOPIK)은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서 토픽(TOPIK) 준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성인들과 차별화되어 청소년들의 상황을 반영한 토픽(TOPIK)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게 한다. 이를 위해 기존 토픽(TOPIK)의 주제와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여 청소년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주제와 내용을 삭제하고 청소년들과 밀접히 연관된 주제와 내용으로 대체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유학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도 토픽(TOPIK)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 있는 한국기업에의 취업 등에 토픽(TOPIK) 점수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현안사항** : 주니어 토픽(TOPIK) 개발과 국가별 번역 및 보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에 상주해 있는 한국 기업에 우수한 토픽(TOPIK) 점수를 보유한 동포청소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서 연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통 2 교사 연수 및 양성제도 개발

2-1. 한글학교 교사 대상 역사·문화교육 연수 실시

- **제안배경** : 브라질 한인청소년들의 한민족의 역사나 문화 교육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으나 교재도 없고 가르칠만한 교사도 거의 없다. 한글학교 교사들은 대부분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국어 교육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일부 교사들을 제외하고는 한민족의

역사나 문화를 가르칠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역사나 문화 관련 과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

- **주요내용** : 역사, 문화 과목 교재 개발과 함께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새롭게 개발될 역사, 문화 교재의 수준이 한국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정도의 심도 깊은 수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박 2일이나 2박 3일의 단기적인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역사, 문화 과목 교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연수를 위한 예산의 지원과 연수 강사의 확보가 필요하다. 퇴직교사 활용 등을 통하여 전문적인 연수 강사를 파견하고 현지 한글학교 교사들이 대학·대학원 과정과 연수과정에 참여할 때 연수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2. 차세대교사 대상의 연수프로그램 개발 지원

- **제안배경** : 최근 한글학교에 20대 이하의 청소년들이 한글학교 교사나 보조교사로 활동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동포사회에서 차세대교사의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차세대교사 대상의 연수프로그램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차세대 교사로서의 성장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 기존의 교사연수 프로그램은 성인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차세대 교사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실제로 20대 이하 차세대 교사들이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 **주요내용** : 현재 한글학교 교사나 보조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차세대 교사와 향후 한글학교 교사로 활동할 가능성이 큰 20대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차세대들의 한글학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교사로서의 소양과 지식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교류 및 연수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연수에 참여하는 차세대 교사 예비 교사들에 대한 한국 방문 기회 제공, 한국 유학에서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참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거주 국가에서 차세대교사 연수에 대한 수요 조사와 함께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수에 따른 경비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3. 차세대 교사 양성을 위한 봉사활동인증 및 마일리지제도 도입

- 제안배경 : 한글학교에서 재외동포청소년의 교육을 담당했던 1세대들과는 달리 그 이후의 세대들의 경우에는 한민족정체성이 낮아서 자발적으로 한글학교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향후 한글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확보가 어려워 한글학교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글학교연합회 등이 주최하는 활동 참여를 통해서 차세대들이 자연스럽게 한글학교 교사로서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차세대 청소년들이 한글학교 또는 한글학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인증해주고, 그 활동 내역을 마일리지로 적립해서 한국방문 등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차세대 지도자 연수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차세대들이 연수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교육부,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봉사활동인증 실적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봉사활동 인증 점수를 누적하여 한국 방문 등의 기회에 선발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4. 현지 대학에 한국어과 신설 및 현지 대학과 한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교사 양성

- 제안배경 : 현지에서 필요한 한국어 교사를 한국에서 파견하는 인력으로 충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주 국가 내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국, 미국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현재 대학 내 한국어과를 설치하여 거주국 내 한국어 교육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에도 2014년 3월 상파울루 주립대에 중남미 국가 최초로 한국어과가 개설되었다⁸¹⁾. 또한 울산대학교 상파울루 주 캠퍼스 시에 있는 캠퍼스 주립대와 MOU를 체결하여 세종학당을 개원하는 등 현지 대학 내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⁸²⁾.

81) 문화일보(2014년 8월 7일자), 중남미는 한류열풍, 브라질은 전초기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807010325300690002>에서 2017년 10월 24일 인출.

82) 연합뉴스(2015년 9월 3일자) 브라질서 3호 세종학당 개원—— 한국어 교육 저변 확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3/0200000000AKR20150903064900094.HTML?input=1179m>에서 2017년 10월 24일 인출.

- **주요내용** : 현지 대학 중에서 한국어과 설치를 희망하는 대학과 교육부와 MOU를 체결하여 한국어과를 설치하고, 한국 대학과 현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어 교사의 양성을 추진한다. 현지 대학 내 한국어과를 졸업한 사람들이나 대학 간 공동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한글학교 교사로서 일정 기간 봉사하게 하면, 이를 한국 유학 시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현지 대학에서 한국어 설치를 위한 강사, 교재 등의 지원과 대학 간 연계를 위한 교류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장학생 선발제도 등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2-5. 예·체능 교사 연수 및 전문교사 배치 지원

- **제안배경** : 동포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청소년들이 흥미있게 생각하는 체육활동이나 예술활동 등을 통해서 다양한 재능을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활동과 연계해서 한국어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한국학교의 경우에는 예·체능 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배치가 어려운 한글학교 등의 경우에는 예체능 전문 강사의 초빙이나 교사연수를 통해서 예·체능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안사항** : 교육부에서 교사 배치 시 예체능교사의 우선적 고려와 함께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예체능 강사 및 교사 연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립국악원 등에서 전문인 파견 공연과 강연 등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공통 3	학부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

3-1. 학부모 대상 세미나 및 교육 실시

- **제안배경** :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 및 한민족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진로에 대한 결정은 부모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대체로 1세대 부모들에 비해서 1.5세대, 2세대 부모들은 한민족 정체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이나 한민족 관련 활동에 소홀해지기 쉽다. 또한 대부분 브라질 한인 자녀들의 경우에 졸업 후에 전공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기보다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부모의 뒤를 이어 의류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이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개인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한인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이민자 부모, 주재원 부모, 2세대 부모 등 다양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들의 진로, 한민족 정체성과 한인청소년의 미래, 국내 대학입학설명회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및 교육을 실시한다. 한글학교 행사나 한인의 날, 축제, 각종 기념일 등을 이용하여 세미나나 교육을 기획함으로써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게 할뿐만 아니라 차세대 한인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 **현안사항** : 학부모들의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생업에 보다 중요성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로서는 지속적인 교육 참여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교육 참여를 많이 한 학부모의 자녀들에게 한국방문 기회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3-2. 부모학교의 개설·운영

- **제안배경** : 1.5세대 또는 2세대 부모들은 진로 정보에 대한 부족으로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부모 개인의 경험이나 선호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녀의 진로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부모들의 자녀 특성에 대한 파악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진로 선택을 위한 교육과 부모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정기적으로 부모학교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부모들이 자녀들의 특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한인회관이나 한글학교 중에서 상시적으로 모임을 갖기 좋은 곳을 선정하여 학교를 운영한다.
- **현안사항** :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강사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부모학교에 참여하여는 부모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3.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 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제안배경** : 한인 부모들의 경우에 거주국가의 언어를 잘 몰라서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운 경우도 있고, 부모들이 한국어를 모르는데 자녀들은 한글학교 등에서 한국어를 배워서 알고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에 한국어나 한국문화 이해 등에서 서로 간에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 간에 언어나 문화적 교류의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한국교육원 등에서 부모들 대상으로 거주 국가 언어 교육이나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거나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통의 기회를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언어 소통이나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모와 자녀들 간에 공유하게 함으로써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한국교육원 등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거주 국가 언어나 한국어 강사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 그리고 세대 간 프로그램 운영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3-4.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제안배경** : 최근 한인사회에서 한인들이 외국인들과 결혼하여 다문화가정을 형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경우에 한인행사에 상대적으로 소원해지기 쉽고,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습득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 여건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한민족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미래에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 **주요내용** : 다문화가정 부모들에게 자녀교육을 위한 안내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도 한민족의 구성원이라는 인식과 함께 한민족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 **현안사항** : 다문화가정의 부모 중에서 특히 한인 부/모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 한인 부/모가 한민족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진 후에 외국인 부/모를 설득해서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인사회의 포용과 지원이 필요하다.

공통 4	동포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체험 및 교류프로그램 개발
-------------	-------------------------------------

4-1. 한국 알기 놀이 프로그램 개발

- **제안배경** : 전통적인 강의 수업을 통해서 한국이나 한민족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통해서 한국이나 한민족을

배우는 과정이 있으면 청소년들이 보다 흥미를 갖고 열심히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내용** : 놀이를 통한 학습프로그램인 (가칭) 한국 알기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수업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청소년들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함으로써 학교나 학급 상황에 보다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안사항** : (가칭) 한국 알기 놀이 프로그램의 보급에 앞서서 교사 대상으로 놀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4.2. 다양한 역사퀴즈대회의 개최

- **제안배경** :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과 같은 동포청소년들과의 잦은 만남과 함께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특히, 활동의 결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내용** : 재외동포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한 퀴즈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한민족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 조선편, 현대사편 등 역사 주제별로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역사적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각 지역별, 국가별로 예선대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결선대회를 개최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 동포청소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청소년축제의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퀴즈대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동포청소년들의 다양한 경연이나 행사를 개최하여 동포청소년 종합 축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많은 동포청소년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내의 다양한 단체의 지원뿐만 아니라 거주국가의 지역사회와 단체의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4.3 한글학교연합 등 다양한 단위의 역사문화캠프 추진

- **제안배경** :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한민족 역사 교재도 없고 특별히 한인청소년들이 한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다. 하지만 최근 아르헨티나 한글학교협의회가 주최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2박 3일의 역사문화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위대한 왕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제2회 역사문화캠프를 개최하여

학생 93명이 위대한 왕의 역사에 대한 강의, 태극기, 족자, 한복 등 만들기, 윷놀이, 팽이 등의 놀이 체험 등을 통해서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⁸³⁾, 참가한 학생과 교사들의 반응이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향후 보다 많은 한인청소년들이 한민족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역사문화 캠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한글학교별, 지역 내 한글학교 연합별, 국가 내 한글학교 연합, 그리고 중남미 한글학교 연합 등 다양한 단위별로 역사문화캠프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이 한민족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포청소년들 간의 교류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개별 한글학교 또는 한글학교연합회를 통하여 다양한 역사 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전문 강사, 그리고 소요경비 등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4. 한민족 및 글로벌 공동체 마인드 개발 프로그램 운영

- **제안배경** :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 졸업 후에 부모의 일을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진로를 찾는 데 소홀히 하는 편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일 수 있지만 개인의 발전이나 한인커뮤니티의 성장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꿈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청소년들이 한민족 공동체 및 글로벌 공동체의 인재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청소년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청소년들에게 한민족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고, 한민족 및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참여방안 등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동포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한글학교 행사나 캠프 등의 시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우수한 강사 풀 확보가 중요하며,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청소년과 학부모들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하다.

83) 아르헨티나 한글학교협의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EC%95%84%EB%A5%B4%ED%97%A8%ED%8B%B0%EB%82%98-%ED%95%9C%EA%B8%80%ED%95%99%EA%B5%90-%ED%98%91%EC%9D%98%ED%9A%8C-327874870669437>에서 2017년 10월 13일 인출

4.5. 주재원 자녀에 대한 모국 연수기회 부여

- 제안배경 : 재외동포청소년 초청 연수 등의 많은 프로그램에서는 거주국적자, 영주권자, 해외입양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거주국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주재원 자녀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있다. 주재원 자녀들도 한민족을 이끌어갈 차세대로서 여러 국가의 동포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재외동포청소년 모국 연수 대상에 주재원 자녀를 포함함으로써 모국 연수를 원하는 주재원 자녀들의 경우에도 동등하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일정 정도의 비용을 주재원 자녀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모국 연수 참가자 대상을 주재원 자녀를 포함하도록 하고, 모집인원의 규모도 현재보다 확대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의 긴밀한 협조와 민간기업의 후원 등을 통하여 그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4.6. 정부초청 재외동포 장학생 선발 기회 확대

- 제안배경 :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초청장학사업을 통하여 매년 재외동포 차세대 우수 인재에게 모국 수행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원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선발 기회가 적어서 이를 준비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도 그동안 외국인 대상으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2018년부터는 외국국적자인 재외동포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국가에 1명씩 할당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⁸⁴⁾.
- 주요내용 : 재외동포재단의 초청장학사업의 확대와 함께 국립국제교육원의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사업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외동포 할당제의 대상 국가나 할당 폭을 보다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 2018년 학부과정의 경우에 중남미 지역은 브라질과 멕시코가 각각 1명씩 재외동포가 할당되어 있으며, CIS 지역의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투르트메니스탄에 재외동포가 각각 1명씩 할당되어 있다⁸⁵⁾. 이를 통해서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84) StudyinKorea. <http://www.studyinkorea.go.kr/ko/sub/gks/selectBoardArticle.do>에서 2017년 10월 25일 인출

85) StudyinKorea. <http://www.studyinkorea.go.kr/ko/sub/gks/selectBoardArticle.do>에서 2017년 10월 25일 인출

제공하여 이들이 한민족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정부로부터 재외동포청소년 장학사업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 확보 및 추가 대상 국가에 따른 해당 국가 및 공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4.7. 동포청소년들이 흥미롭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공모전 개발

- **제안배경** :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모국에 대한 관심과 모국어, 모국의 역사 등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글짓기대회, 노래대회 등이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창의력을 발휘할만한 공모전은 찾아보기 힘들어 이와 관련한 공모전이 개발되어 많은 동포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한민족의 문화와 역사 등을 주제로 한 UCC 공모전, 뮤직비디오 공모전(가곡, K-Pop 등), 스크립트 공모전(고전소설, 단편소설 등) 등을 개최하여 동포청소년들이 한민족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다양한 재능을 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많은 동포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공모전에 대한 홍보를 다각화 할 필요가 있으며, 공모전에 참가한 청소년들에 대한 시상 내용도 의미있게 하여 참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8. 진로정보 제공 및 진로상담 멘토 제공

- **제안배경** : 한인사회의 자녀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진로를 찾아서 진출하기보다는 부모들이 하는 의류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녀들의 진로 선택은 장기적으로 개인이나 한인사회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한인사회의 정체 또는 퇴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주요내용** :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상담 멘토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위해서 거주국의 진로상황에 적합한 진로정보자료집을 개발하고, 동포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진로를 개척한 사람들을 멘토로 선정하여 진로상담 멘토풀을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현안사항** : 개별 한글학교 단위에서 멘토를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글학교협의회나 한국교육원 등을 통해서 청소년과 멘토를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멘토링 운영에는 많은 업무가 따르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인력 지원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5-1. 청소년회관 또는 청소년문화공간 마련

- 제안배경 : 청소년들이 방과 후나 주말에 특별히 갈만한 곳이 없어서 대부분 커피숍이나 피씨방, 노래방 등을 가는 경우가 많다. 종교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주말에 종교시설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갖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동포청소년들의 여가문화생활과 동포청소년들 간의 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회관 또는 청소년문화공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 주요내용 : 동포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문화활동을 하고 동포청소년들 간에 일상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인 청소년회관 또는 청소년문화공간 건립을 지원한다. 동포청소년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도자 배치가 필요하다. 국내 청소년시설과 같이 동포사회에서 청소년회관 설립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공간과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도 일정정도 지원하는 매칭펀드 형식의 투자가 필요하다.
- 현안사항 : 청소년시설 건립에 대한 동포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청소년시설과의 연계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과 지도자 배치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5-2 청소년 진로상담 및 비전 센터 운영

- 제안배경 : 주변에 동포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부모나 아는 사람들에 의지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하게 될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진로에 대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청소년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청소년들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진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청소년 진로상담 및 비전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가칭) 청소년회관 등이 설립될 경우에 센터를 함께 설치하면 비용이나 이용자 확대의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별도의 시설로 센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학교 등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한글학교협의회 등의 사업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동포사회의 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협조가 선결되어야 하며, 거주국 정부와 한국정부와의 진로 정보에 대한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비전과 진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

공통 6	동포청소년 교육 및 문화 교류 네트워크 구축
-------------	---------------------------------

6-1. 차세대 지역 커뮤니티 조직 및 지원

- **제안배경** : 1세대에 비해서 2, 3세대들의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동포청소년들이 미래의 동포사회를 이끌어 갈 차세대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부터 동포사회 내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동포사회 내에 청소년조직을 구성하여 동포청소년들이 수시로 만날 수 있게 하고 자연스럽게 청소년들과 동포사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며 문제해결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지역별 구성을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해 나간다. 정부에서는 청소년단체나 청소년동아리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동포사회의 문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차세대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국내 청소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단체나 청소년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외동포재단,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류프로그램에서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6-2. 소규모 공동체를 위한 온라인교류네트워크 구축

- **제안배경** : 최근 한류 등의 영향으로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국청소년과의 교류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청소년들과 오프라인 상에서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그 기회는 더욱 적다고 할 수 있다. 동포청소년들과 한국청소년들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을 통한 교류 네트워크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동포청소년들과 한국청소년들 간에 온라인상의 만남을 추진하는 한민족청소년

친구맺기 사이트를 구축하고 앱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재외동포재단이나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한다. 해외에서는 한국교육원이나 한국학교, 한글학교를 통해서 동포청소년들에게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한국의 지역교육청과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 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교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온라인 사이트 및 앱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각종 사업을 개발하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6-3. 재외동포청소년 모국방문단 지원 체계 구축

- 제안배경 : 국가별, 지역별,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청소년들을 모집하여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국방문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등에 관해서 자문과 정보 제공, 현지 기관과의 연계 등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주요내용 : 재외동포재단 등 기존에 재외동포청소년 연수 및 교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모국방문단 연수 프로그램을 공식적인 업무로 채택하여 모국방문단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모국방문단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뿐만 아니라 모국방문단 프로그램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모국방문단 프로그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배치에 대한 지원과 교육청, 청소년시설, 지자체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 유사사례 : 브라질한글학교연합회와 참사랑한글학교가 대전교육청의 협조를 얻어서 2017년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문화를 탐방하는 기회를 가졌다⁸⁶⁾.

6-4. 한국 내 학교에서의 교육체험 기회 제공

- 제안배경 : 브라질 한인청소년들의 한국학교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인청소년들이 한국 학교에 진학하기에 앞서서 한국 학교에서 교육적 체험을 하고 싶으나 그러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한 요구가 크다. 한국학교에서의 교육적 체험을 원하는 재외동포청소년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한인청소년들이 한국학교 진학 시에 실패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필요가

86) 국제뉴스(2017년 7월 12일자). 브라질 재외동포 한글학교 청소년 모국방문.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5129>에서 2017년 10월 13일에 인출.

있다.

- **주요내용** : 방학이나 학기 중에 재외동포청소년들이 한국 학교에서 한국어 학습 또는 학교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15일 내외의 단기 프로그램에서부터 1~2개월, 6개월, 1년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지역별로 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신청 받아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안사항** :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서 수요 파악이 선결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재외동포청소년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일정 정도의 경비를 지원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유사사례** :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히브리어 학습 프로그램과 함께 고등학교 졸업 후 이스라엘에서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자원봉사, 인턴, 유학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마사(Masa)프로그램이 있으며, 또한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에 필요한 과목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이 있다(이진영 외, 2015: 178~179).

6-5. 차세대 전문직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제안배경** : 한국과 거주국에서의 직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국에서 전문직 자격증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수한 차세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한국에서 직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차세대 전문직 종사자들이 한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거주국가의 차세대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인턴 등의 직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우수한 차세대 전문직 인력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직업기회를 제공하고 점차적으로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 **현안사항** :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전문직 종사자의 유형과 참가 범위 등을 정하고 직업체험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유사사례** : 이스라엘의 체험프로그램 중에서는 컴퓨터 관한 산업 분야에서의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이스라엘 테크 챌린지(Israel Tech Challenge) 프로그램이 있고, 의대생, 음악가, 금융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인 니쉬(niche)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이진영 외, 2015: 174~177).

(2) 브라질 동포청소년에 특성화된 정책과제

브라질 1

동포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단체의 육성 지원

- 제안배경 : 브라질 동포사회가 1세대에서 1.5세대, 2세대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포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들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현재까지 주로 1세대들이 동포사회를 주도하고 있고 차세대들 간에는 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근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가하는 브라질 차세대들이 차세대리더 모임인 ACP-FLC Brasil(Associacao de Cooperacao de Participantes do Future Leaders Conference Brasil)⁸⁷⁾을 결성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 주요내용 : 브라질 내 지역별로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1세대와 차세대 동포들 간의 교류 및 차세대 단체 결성의 지원, 브라질 내 차세대 네트워크 형성 지원, 브라질 차세대와 세계한인차세대와의 네트워크 강화 등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차세대 동포들 간의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현안사항 : 차세대단체 육성을 위한 동포 1세대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포 1세대들을 대상으로 다른 국가의 차세대 육성 사례에 대한 소개 등 차세대 단체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브라질 2

한국학교 정상화를 위한 지원

- 제안배경 :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어 교육의 중추 기관이었던 한국학교가 2016년 하반기에 운영이 중단된 이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학교의 처리 문제가 방치되어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경우에 한국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학교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주요내용 : 브라질 한국학교의 운영 중단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87) 월드코리아(2017. 8. 25일자). 브라질 한인차세대 리더 모임 발족 “제1회 한국외교관상 수여식 열 것”(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9840)에서 2017년 10월 13일 인출

바탕으로 한국학교의 향후 처리방향을 정한 후에 현실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학교이사회 및 동포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과 행·재정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 **현안사항** : 한국학교 처리 과정에서 학교이사회 의사결정이 중요하지만 처리에 지지부진한 현재까지의 상황을 볼 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와 증재 노력이 필요하다.

브라질 3	지방 거주 청소년의 토픽(TOPIK) 시험 지원
--------------	-----------------------------------

- **제안배경** : 국가별로 토픽(TOPIK) 시험 장소가 제한되어 있어서 지방에 살고 있는 한인청소년들의 경우에 토픽(TOPIK)을 보기 위해서는 대도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험을 관리하는 한국교육원에서도 인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별적으로 시험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 **주요내용** : 토픽(TOPIK)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일정한 인원 이상인 경우에 지방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에서 실시하는 시험 운영을 위한 필요 인력에 대한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토픽 관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한국정부에서 토픽(TOPIK) 운영인력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인력을 지원하며, 자기적으로 온라인 실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 4	지방 순회 교사연수 실시
--------------	----------------------

- **제안배경** : 교사연수에 참여하고 싶으나 시간과 예산 등의 문제로 연수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방의 한글학교 교사들이 있다. 이들 한글학교 교사들에게 연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 순회 교사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교사연수 장소와 시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순회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1년에 한번 또는 2~3년에 한번 정도씩 지방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한국에

서현지 파견을 원하는 퇴직교원을 활용하여 일정기간 순회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 현안사항 : 한글학교협의회 및 한글학교간의 동의와 지방 순회 교사연수에 따른 추가적인 경비를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브라질 5	한국 진학 및 취업 정보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
--------------	------------------------------------

- 제안배경 : 최근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한국으로의 진학 및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진학 및 취업 정보의 부족 혹은 잘못된 정보 수집으로 인해서 한국으로의 진로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주요내용 : 동포청소년들이 한국으로의 진학 및 취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센터 등을 지정 또는 설치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한국교육원 내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 현안사항 : 진학 및 취업 정보의 정확한 제공을 위하여 한국의 지역교육청이나 대학 관련기관, 그리고 한국 내 관련 고용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학부모와의 간담회 실시 등 센터 사업의 홍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에 특성화된 정책과제

아르헨티나 1	타문화 및 공동체 이해 등 미래인재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	--

- 제안배경 :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거주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소 폐쇄적이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 능력 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동포청소년 대상의 조사 결과에서도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창의적 사고(평균 2.93점), 문제해결력(평균 3.28점), 개인적·사회적 책임의식(3.41점), 세계시민의식(3.38점) 등 미래인재 역량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고, 브라질 동포청소년들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민족에 대한 이해나 동포청소년 간 교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 글로벌 공동체 및 한민족 공동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책임감 형성 등을 위한 교육이나 체험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인재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글학교협의회 단위에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행사시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 **현안사항** : 전문강사의 발굴을 지원하고 한글학교협의회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 2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꿈과 비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

- **제안배경** :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은 남미 국가 중에서 한류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있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한민족정체성 의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포청소년들이 미래에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삶에 대한 목표나 희망을 갖기가 힘들다. 브라질의 경우에는 2015년에 주상파울루한국교육원과 나의꿈국제재단이 상호업무협정을 체결하여 동포청소년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청소년꿈발표제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 **주요내용** :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 의식을 강화하고 꿈과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특강이나 발표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원이나 한글학교협의회 등의 공식 행사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특강을 실시하거나 청소년들의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 대하여 포상하고, 관련 멘토를 연결하여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나의꿈국제재단과의 상호업무협정을 통한 청소년꿈발표제전의 개최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정기적인 강연과 동포청소년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강연자 및 멘토 풀을 구성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꿈발표제전의 추진을 위한 나의꿈국제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 3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와 한국 내 학교 간 교류 활성화 지원

- 제안배경 :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의 경우에 학생들에게 정기적인 한국 방문을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한국 학교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교류 비용 등의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요내용 : 아르헨티나 한인청소년들의 한국 교육 및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 내 교육청 및 학교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안사항 : 아르헨티나 한국교육원과 한국 내 교육청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조, 그리고 교류 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아르헨티나 4 전문교원 자격증 취득 지원 및 현지 전문교원실습(양성)기관 설치

- 제안배경 :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원자격 취득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일부 한글학교 교사들의 경우에 전문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대학과정을 다니는 경우가 있다. 또한 한국대학에서는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이론적인 교육과정 이수와 함께 실습 이수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론적인 교육과정은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실습과정은 한국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이 한국에서 실습과정을 이수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등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커서 거주국에서 실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한글학교 교사 중에서 전문적인 교원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학업지원과 현지 교원실습기관에 대한 인증을 통하여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교육부 및 사이버대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현지 교원실습기관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한다.
- 현안사항 : 전문교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자격증 취득 지원과 교원실습기관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 5 아르헨티나와 한국 정부 간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 제안배경 : 아르헨티나 사회의 보수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한인 동포사회가 아르헨티나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동포청소년들이 주류사회로 진출하는 데에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한국인 혹은 한인동포사회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데, 한인동포사회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제안내용 : 아르헨티나 정부와 한국 정부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아르헨티나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최근 남미 지역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는 K-Pop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 교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간 교류,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청소년 국제교류 상대국으로 포함하여 청소년 국제교류를 실시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교류를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한인동포사회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차세대 동포들이 주류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국가 간 교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정부 부처와의 협력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의 교류협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17년 10월 말 현재, 대한민국 교육부와 아르헨티나 교육부간 교육교류 기본협력 MOU 서명 완료 되었으며, 여성가족부-아르헨티나 사회개발부 간 청소년 교류협력 MOU도 연말까지는 서명이 완료될 예정이다.

표 VII-1 브라질·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정책과제

구분	정책과제	기간	관련 부처
브라질·아르헨티나	1-1 현지 맞춤형 한글학교 교재 개발·보급	단기	교육부 문화부
	다양한 교재 개발 보급 및 토픽 개선 1-2 교재활용 지침서 개발·보급	단기	교육부 문화부
	1-3 역사교재 및 역사교재 또는 역사·문화 내용을 반영한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단기	교육부 문화부
	1-4 자랑스런 한민족 위인 교재 개발 및 교육 실시	단기	교육부 문화부

구분	정책과제	기간	관련 부처	
동포청소년 공통과제	1-5 주니어단계의 토픽(TOPIK) 개발 및 활용도 제고	중장기	교육부	
	교사 연수 및 양성제도 개발	2-1 한글학교 교사 대상 역사·문화교육 연수 실시	단기	외교부 교육부
		2-2 차세대 교사 대상의 연수프로그램 개발·지원	중장기	외교부 교육부
		2-3 차세대 교사 양성을 위한 봉사활동 인증 및 마일리지제도 도입	단기	외교부 교육부
		2-4. 현지 대학에 한국어과 신설 및 현지 대학과 한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교사 양성	중장기	교육부
		2-5 예·체능 교사 연수 및 전문교사 배치 지원	중장기	교육부 외교부
	학부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1 학부모 대상 세미나 및 교육 실시	단기	교육부 외교부
		3-2 부모학교의 개설·운영	중장기	교육부 외교부
		3-3.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 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단기	교육부
		3-4 다문화가정 부모 및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단기	교육부 외교부
	동포청소 년 대상의 다양한 체험 및 교류프로 그램 개발	4-1 한국 알기 놀이 프로그램 개발	중장기	교육부 여가부
		4-2 다양한 역사퀴즈대회 개최	단기	외교부 교육부
		4-3 한글학교연합 등 다양한 단위의 역사문화캠프 추진	중장기	외교부 교육부
		4-4 한민족 및 글로벌 공동체 마인드 개발 프로그램 운영	단기	외교부 교육부
		4-5 주재원 자녀에 대한 모국 연수기회 부여	단기	외교부
4-6. 정부초청 재외동포 장학생 선발 기회 확대		단기	교육부 외교부	
4-7 동포청소년들이 흥미롭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공모전 개발		단기	외교부 교육부	
4-8 진로정보 제공 및 진로상담 멘토 제공		단기	교육부 외교부	

구분	정책과제	기간	관련 부처
청소년 활동 및 진로시설 설치·건립 지원	5-1 청소년회관 또는 청소년문화공간 마련	중장기	외교부 교육부 여가부
	5-2 청소년 진로상담 및 비전센터 운영	중장기	교육부 외교부
동포청소 년 교육 및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6-1 차세대 지역 커뮤니티 조직 및 지원	중장기	외교부 교육부 여가부
	6-2 소규모 공동체를 위한 온라인교류네트워크 구축	중장기	외교부 교육부
	6-3 재외동포청소년 모국방문단 지원체계 구축	단기	외교부 교육부 여가부
	6-4 한국 내 학교에서의 교육체험 기회 제공	단기	교육부 외교부
	6-5 차세대 전문직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중장기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브라질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	1. 동포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단체의 육성 지원	중장기	외교부 교육부
	2. 한국학교의 정상화를 위한 지원	중장기	교육부 외교부
	3. 지방 거주 청소년의 토픽(TOPIK) 시험 지원	단기	교육부 외교부
	4. 지방 순회 교사 연수 실시	중장기	교육부 외교부
	5. 한국 진학 및 취업 정보센터 설치 및 지정 운영	중장기	교육부 외교부
아르헨티나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	1. 타문화 및 공동체 이해 등 미래인재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단기	외교부 교육부
	2.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꿈과 비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단기	외교부 교육부
	3. 아르헨티나 한국학교와 한국 내 학교 간 교류 활성화 지원	중장기	교육부 외교부 여가부

구분	정책과제	기간	관련 부처
	4. 전문교원 자격증 취득 지원 및 현지 전문교원실습기관 설치 지원	중장기	교육부 외교부
	6. 아르헨티나와 한국 정부 간 교류 프로그램 개발	중장기	외교부 문화부 교육부 여가부 지자체

4) 고려인 동포청소년 정책과제

고려인 동포청소년 대상 정책과제는 양적 및 질적 연구결과, 전문가자문회의, 정책 발굴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근거로 중앙아시아 지역인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청소년 대상 공통 정책과제와 국내 거주 동포 청소년 대상 정책과제로 구분하였고,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정책과제의 제안배경, 주요내용, 현안사항을 제시하였다.

(1) 고려인 동포청소년 공통의 정책과제

공통 1	한국어·한국사 교육과 학습 지원
-------------	--------------------------

1-1. 시대 및 지역별 상황에 맞춘 한국어 교재 개발과 보급

- 제안배경 : 다양한 한국어 교재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실제로 정부 기관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가 배포되고 있다. 한국어 교재의 기본 틀은 유지되어야겠지만 중앙아시아의 지역적,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한국어 교재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 주요내용 : 한국 정부를 통해 배포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는 한국에서 개발되어 배포된 교재이다. 교재를 제작하는 정부 기관은 한국어 교육의 기본 틀을 유지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현지에서 국가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사례나 내용을 반영 할 수 있는 교재로 보완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제작 관련 절차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각 국가에서 현지화하여 한국어 교재를 제작할 수 있다는 유연성은 있으나 한국어 교육의 기본 목적과 취지를 벗어난 교재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재의 현지화 작업에는 한국과 현지 전문가의 협업이 중요할 것이다.

1-2. 역사 교재 개발·보급과 러시아어 번역

- 제안배경 : 역사 교육은 고려인 청소년의 정체성 함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는 한국사와 함께 고려인 이주와 관련한 고려인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다룬 종합적 역사 교재가 필요하고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러시아어 번역본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주요내용 : 고려인 청소년들의 한민족정체성 향상을 위한 한국사와 함께 각 국가의 고려인 이주 역사를 다룬 교재가 별도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 교재는 기존 한국에서 개발된 교재 중 현지전문가와 관련 부처의 자문을 통해 교재를 선정하고 번역 작업을 거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인 역사와 관련한 부분은 기존 각 국가의 고려인 전문가에 의해 집필이 완료된 교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기존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집필하는 방법 모두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재에는 각 국가별 현지 상황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의 이해에 어려움이 없는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학자와 한국어 교사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가 필요하다.
- 현안사항 : 고려인 역사와 관련한 내용은 기본 형태는 제공하되 모든 국가에 내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현지화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역사 교재의 개발에는 반드시 관련 기관, 현지 전문가, 교육 전문가, 학생, 교사 등의 의견과 역량을 고려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1-3. 러시아어 버전 한국어 문법 교재 개발

- 제안배경 : 한국어에 능숙하기는 하지만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려인 교사는 한국어 문법에 대한 러시아 버전 교재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또한 러시아어 버전 한국어 문법 교재는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인의 이해도 도울 것이다.
- 주요내용 : 한국어 문법 교재의 러시아어 번역과 제작 이후에는 이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안내서와 홍보 작업이 필요하다. 필요시 동영상 교재 형태로 문법 교재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

- **현안사항** : 교재의 번역은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1-4. 다양한 형태의 교재 개발(DVD, 인터넷, 게임 교재 등)

- **제안배경** : 한국어 또는 한국사 교육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어 교사들이 인터넷 조희를 통해 유튜브 동영상을 활용하여 시청각 교재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 내용과 연계한 전문적인 멀티미디어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주요 교과 내용과 연계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DVD 형태로 교재의 부록으로 배포할 수 있을 것이다. DVD를 분실했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는 대체 경로 등을 교재에 포함하여 배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어 단어를 활용한 교육용 게임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방법 등 다양한 형태의 교재 개발의 고려가 필요하다.
- **현안사항** : 멀티미디어 교재나 게임 개발을 위해서는 실제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방법에 대한 계획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1-5. 중학교 이전 연령의 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제안배경** : 초등학교와 유치원 연령대의 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에서는 대부분 중학교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 개설하고 있다. 어린 고려인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주요내용** : 현지 정부 기관의 어린이반 한국어 강좌 개설이 필요하다.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지역의 고려인협회와 연계하여 어린이반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어 강좌에 대한 교육 정보를 가진 기관에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운영은 지역의 고려인의 협조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현안사항** : 한국어 강좌를 진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확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2-1. 한국어 교사 대상 역사·문화 연수 실시

- 제안배경 :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대학과 중고등학교의 한국어 강좌에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는 대부분의 고려인 한국어 교사들은 한국어 교육은 가능하지만 관련한 한국 역사나 문화의 이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역사나 문화의 이해가 있다면 좀 더 현실적이고 흥미로운 한국어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역량을 강화시킬 연수나 교육기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주요내용 : 한국어 교육과 연계한 한국사와 문화를 다룬 내용의 교재와 함께 교사 활용 지침서, 이를 위한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 한국사 같은 경우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에서 활용법을 교육할 수 있고, 문화와 관련해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연수에 포함하여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인 단기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고 인터넷 강좌 등을 활용한 교육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한국어 교재와 연계한 역사와 문화 과목 교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연수에는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2-2. 한국어 교사 처우 개선

- 제안배경 : 한국어 교사의 급여가 높지가 않아서 실제로 한국어에 능숙한 고려인은 한국어 교사보다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한다. 한국어 교사 중 사명감을 갖고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교사들도 있지만, 현실은 낮은 급여와 처우로 한국어 교사 활동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 교사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한민족공동체의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한국어 학교 교사의 처우 개선에서 즉각적인 해결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관련 부처와 교육 기관의 상황과 예산 현황을 반영하여 우수 한국어 교사 추천과 포상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 재외동포재단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교사 연수 지원, 한국 방문과 기회 제공, 또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지원 등의 지원 방안이 있을 것이다.

- 현안사항 : 재정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차별화된 지원 제도를 통한 처우 개선에 대한 다양한 방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2-3. 교사를 위한 교재 활용 지침서 개발·보급

- 제안배경 : 한국어 교재가 제공되고 있지만 교재 활용에 대한 지침서가 없어서 교재의 활용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주요내용 : 효과적인 교재 활용을 위한 교사 활용 지침서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양한 집단 특성별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교육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필수와 선택적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등의 다양한 활용 지침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한국어 교재 개발에는 교사가 활용 할 수 있는 지침을 같이 개발하는 방법을 계획하여야 하고 각 국가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4. 지역 내 한국어학과 고려인 학생 활용

- 제안배경 : 한국어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교사 월급이 적기 때문이라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에 능통한 고려인은 급여 수준이 높은 한국 현지 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어 교사 처우 개선 문제가 같이 해결되어야겠지만 한국어학과를 졸업한 고려인을 한국어 강좌 교사로 활용할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고려인 동포가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일 경우 이들에게 장학금 또는 한국 방문과 같은 지원을 하고 향후 한국어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동안 한국어 교사로 활동하도록 하는 제도 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현안사항 : 제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지원 내용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2-5.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화를 위한 자격 제도 지원

- 제안배경 :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교사들의 대부분은 한국어학과 출신이거나 관련 교육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많다. 그러나 한글학교 교사의 경우는 전문적인 교사로서의 경력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한글학교

교사 자격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서야 제기되고 있다⁸⁸⁾. 외교부의 재외동포재단과 교육부의 한국교육원을 통해 일부 한글학교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 교사는 매우 제한적이다.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주요내용** : 한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단계적으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세미나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사 인증과정을 거친 교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현안사항** : 해외에서 한글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외교부의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스터디코리아, study.korean.net’⁸⁹⁾을 통해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고 있다. 한글학교 교사 인증과정은 2단계의 과정으로 각 단계별로 정규과정반과 단축과정반으로 나누어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교사 인증제를 통한 교육을 통해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통 3 동포청소년 대상 활동 활성화

3-1. 청소년 진로캠프 개발 및 운영

- **제안배경** : 고려인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 의하면 진로 캠프나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고려인 동포청소년을 미래 인재로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 **주요내용** : 청소년 연령에 따른 다양한 진로 캠프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직업 소개와 진로 로드맵 등에 대한 교육과 설명 또는 간단한 직업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제 직종과 연계한 인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캠프를 개발하고 운영 할 필요가 있다.

88) 연합뉴스(2016.10.13). 한글학교 교사 10명중 7명 교원자격증 없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3/0200000000AKR20161013055200371.HTML>에서 2017년 10월 26일 인출
 89) 스터디코리아, 교사 인증과정. http://study.korean.net/servlet/action.critic.CriticStudyAction?p_process=intro&p_menuCd=m701 에서 2017년 10월 26일 인출

- **현안사항** : 현지 한국 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고민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한 기업에게는 정부에서는 인센티브를 제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3-2. 한 뿌리 찾기-한민족공동체 캠프의 운영

- **제안배경** : 모국 방문 캠프의 효과는 연구와 청소년들의 수기를 통해 여러 차례 입증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외의 동포청소년들이 모국 방문 캠프에 참여할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모국 방문 캠프를 대체하면서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이 필요하다. 유대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유대인 청소년 캠프를 다양한 형태로 미국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 동포청소년을 위한 캠프 개발과 운영에 유대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내용** : 고려인 동포청소년 캠프는 이들의 한민족과 고려인 정체성 함양에 목적을 두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캠프를 통해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세계시민의식과 리더십과 같은 미래 인적자원으로 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인 청소년 캠프는 현지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지 한국교육원이나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캠프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지원하는 방법과 새로운 캠프를 개발하여 가능한 많은 고려인 청소년이 캠프에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현안사항** : 캠프 개발과 운영에는 인원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 필요시 전액 무료가 아닌 일부 참가자 부담 형태로 캠프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대인 청소년 캠프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단체 혹은 운영기관의 상설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해외사례** : 미국 내 유대인 청소년을 위한 캠프⁹⁰⁾

Jewish Camp - One happy camper⁹¹⁾

Jewish Camp는 미국 내 유대인 청소년을 위한 캠프와 관련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며, 캠프 프로그램 개발과 캠프 및 캠프 운영 및 지원을 하고 있다. 특별히 이 사이트는 부모들을 위해 미국 전역의 각종 유대인 캠프 정보, 캠프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관련 기사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단체는 유대인 캠프가 유대인 정신과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와 동포청소년들과 교류 할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유대인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 단체의 미션이라고 설명한다.

UJA Federation of New York 지원 유대인 여름캠프 (Jewish Summer Camps)⁹²⁾
 비영리 단체인 UJA Federation of New York은 매년 유대인 청소년의 여름 캠프를 지원하고 있다. 유대인 여름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은 새로운 유대인 친구들과 생활하며 유대인의 가치를 배우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여러 활동을 경험한다. 캠프가 열린 이후 현재까지 약 7,000여명의 뉴욕지역 유대인 청소년이 전폭적인 지원으로 캠프에 참가하였다.

3-3. 흥미롭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공모전과 대회 개발

- 제안배경 : 고려인 청소년이 문화 체험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민족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이 과정 속에서 한민족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고려인 청소년들의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대회 형식의 공모전으로 운영될 수 있다.
- 주요내용 : 대회나 공모전 운영의 목적은 개인적 성취감 경험과 한민족정체성을 함양하는 기회 제공일 것이다. 대회의 구성과 기획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연령층의 청소년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 현안사항 : 많은 동포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실 있는 공모전의 기획과 함께 다양한 홍보 방안을 기획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한 청소년에 대한 시상과 방식에 있어서도 친편일률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의미 있고 다음 대회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4. 한국 방문 및 연수 기회 확대

- 제안배경 : 고려인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한국 방문’이었다. 모국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경준, 김태기, 2015). 해외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한민족정체성 향상과 미래 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국 방문과 연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90) 김경준, 정은주(2016).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 p. 339 인용

91) Jewish Camp, <http://www.jewishcamp.org/>, 2016년 10월 24일 내용 인출.

92) UJA Federation of New York, <http://www.ujatedny.org/what-we-do/inspire-jewish-life/jewish-summer-camps/>, 2016년 10월 24일 내용 인출.

- **주요내용** : 해외 동포청소년의 모국 방문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은 재외동포재단이다. 재외동포재단은 매년 전 세계의 재외동포청소년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포청소년과의 교류를 돕고, 모국의 문화, 역사, 사회에 대해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상이하기는 하지만 약 800여명의 청소년들이 초청되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청소년의 수요에 비해 재외동포재단에서 초청할 수 있는 인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모국 방문의 욕구가 있는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재외동포청소년 교류와 모국 방문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부처와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외교부의 재외동포재단은 많은 재외동포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활동 관련 주요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협업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 하거나 지자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질은 높이되 모국 연수에 참여하는 재외동포청소년에게 일정 부분 참가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공통 4 동포청소년 활동시설 제공

4-1. 주변 시설 활용 및 활동 프로그램 지원

- **제안배경** : 고려인 동포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동포와의 교류 및 참여 욕구가 높은 고려인 청소년이 한민족공동체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이나 고려인이 많지 않은 지역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동포청소년과의 교류 욕구가 더 강할 것이다. 따라서 고려인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민족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고려인 공동체와 정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 **주요내용** : 고려인 청소년을 위해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변 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고려인 청소년들이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려인협회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건물(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이나,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등의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만남의 공간 제공과 함께 이들이 같이 활동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도 필요하다.

- **현안사항** : 고려인협회, 지역사회 고려인 공동체, 지역의 정부 기관의 협조로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에 노력이 필요하며 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공통 5	청소년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

5-1. 고려인 청소년 단체 조직 및 지원

- **제안배경** : 국가별로 고려인 청년 협회 혹은 고려인 청소년 협회 등이 조직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조직 단위가 크지 않고 활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려인 이주 후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청소년들의 동포사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인 청소년들을 미래 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래 동포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동포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고려인 청년 조직의 대부분이 대학생 이상의 성인 연령 고려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고등학생 또는 초등학생 연령의 고려인 청소년들이 또래 동포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고려인 청년 조직과 별도로 청소년 조직을 구성하여 낮은 연령의 청소년들도 활동 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 고려인 청소년 단체는 또래 청소년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세부 모임(취미활동 동아리 등)을 조직할 수도 있고 동포사회의 다른 단체와 연계한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현안사항** : 지역 내 고려인협회와 연계한 활동과 더 나아가서는 국내 청소년단체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내 고려인협회와 고려인 관련 행사를 공동 기획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나 재외동포재단과 연계하여 국내 청소년 단체와 각종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5-2. 직접 참여가 어려운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모임 망 구축

- **제안배경** :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청소년들에게 각 국가 수도권 중심의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여 동포청소년들과 교류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비록 중앙아시아 지역의 인터넷 네트워크 환경이나 통신환경이 한국보다 안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온라인 교류를 통해 동포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또한 공간의 제약이 적은 온라인 교류의 장점을 활용해 고려인 동포청소년과 국내 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모임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고려인 동포청소년들과 온라인에서 교류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통신기기를 활용한 교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남미 동포청소년 정책과제에서 제안된 내용과 비슷하게 한민족청소년 친구 맺기 사이트 구축과 앱 개발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안사항** : 온라인 모임을 위한 공간은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부처가 직접 제공할 수도 있으나, 현지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사이트 개발과 운영에 대한 내용은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 사업비를 제공할 수 있다.

5-3. 한국 내 학교와 MOU 체결과 교류

- **제안배경** : 고려인 동포뿐만 아니라 일부 중, 고, 대학교들은 한국 학교와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 학교 차원 MOU 체결을 통해 청소년들은 양국을 문화와 교육 환경을 경험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요내용** : 중,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류 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양국을 직접 방문하여 또래 청소년과 교류하고 각국의 문화와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방학을 이용한 단기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시작으로 학기 단위, 1년 단위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현안사항** :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부담 문제에 MOU 체결 당사자의 협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지 학교와의 MOU 체결이기 때문에 현지인의 신청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정원의 일정 부분은 고려인 동포를 우선한다는 등의 동포 우선 지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공통 6

한국 유학 및 취업 프로그램 개발·운영

6-1. 전문직 직업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제안배경** : 고려인 청소년 모두를 위한 직업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모두에게 교육 혜택을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우수한 고려인 청소년을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을 양성하여 거주국과 한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고려인 청소년 중 전문직 종사를 희망하는 경우 이들에게 정보와 직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교육이 필요할 경우는 교육 기회 제공과 함께 우수한 인재들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안사항** : 전문직 직업군에 대한 정의와 선호하는 전문직 직업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고려인 청소년의 진로를 컨설팅 할 수 있는 진로 로드맵과 함께 우수한 고려인 청소년을 선발하는 절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과 연계하여 직업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와 관련한 세부 내역에 대한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6-2. 진로 정보와 진로 상담 멘토 제공

- **제안배경** : 주류사회 진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과 제한적인 진로 정보로 인하여 고려인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 고민마저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장래 희망이 없거나 직업군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려인 사회의 발전과 이들의 장래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 **주요내용** : 거주국의 다양한 진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출 가능한 직종과 분야를 선정하여 정보를 구축하고 가능하다면 해당 분야에서 성공한 고려인을 찾아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풀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안사항** : 한국교육원과 지역사회의 고려인협의회가 연계하여 정보와 인력풀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인력과 자원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6-3. 한국 유학과 취업 정보 제공

- **제안배경** : 한국 유학과 취업에 대한 고려인 청소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 유학, 취업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다. 유학과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필요성과 어느 곳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늘고 있다.
- **주요내용** : 한국 유학과 관련한 정보는 한국대사관이나 한국교육원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고려인 청소년이 원하는 정보를 모두 다 제공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보에 접속해도 제한된 한국어 실력으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어려움도 있다. 우선, 정보 제공 주체인 대학, 기관, 회사들의 홈페이지를 모아서 정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인력의 지원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고려인 청소년들이 자주 정보를 접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장소에 유학과 진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고려인협회와 연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현안사항** : 영사관,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지역사회 고려인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게시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의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알릴 필요가 있다. 기관의 직접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고려인 청소년들에게는 주말 한글학교나 온라인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기관들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6.4. 한국 입국 준비 중인 청소년을 위한 사전 교육

- **제안배경** : 고려인 부모가 한국에 먼저 이주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자녀를 한국으로 이주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준비 없이 한국으로 이주한 고려인 청소년은 문화적 충격, 언어적 문제, 적응의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경험한다. 한국 이주 후 이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주요내용** : 한국 이주 후 고려인 청소년들의 어려움 중 하나는 언어적 문제와 학교 적응의 문제일 것이다.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들을 한국교육원이나 한글학교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이주 청소년을 위한 사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한국의 문화, 예절, 학교생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 미리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접한 좋은 점만 있는 한국이 아니라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이들을 준비시키고 한국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현안사항** : 사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운영에는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

(2) 우즈베키스탄 동포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정책과제

우즈베키스탄 1	특성화 진로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 확대
-----------------	------------------------------

1. 특성화 진로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제안배경 :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려인 청소년들도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직업 선택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여건과 주류사회 진출의 제약이 많아져서 고려인 청소년들은 장래와 관련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진로 교육 또는 직업 찾기와 같은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다양한 직업군과 관련 진로를 연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진로와 직업군에 관련한 정보는 현지 국가에 제한하지 않고 주변국과 한국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 현안사항 : 한국교육원에서는 현재 IT인재 양성을 위해 고려인청소년들을 대상을 IT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직업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IT 직종에 제한하지 않고 특성화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직군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 2	한국에 이주한 부모를 둔 청소년과 가정을 위한 지원
-----------------	-------------------------------------

2. 한국에 이주한 부모를 둔 청소년과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

- 제안배경 : 한국에 이주한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구 중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비율이 가장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우즈베키스탄의 일부 가정에서 부모는 한국에, 자녀는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동거인 자격으로 부모를 따라 자녀들이 한국으로 이주하기는 하지만 부모가 한국으로 먼저 이주한 후, 상황에 따라 자녀는 나중에 한국으로 이주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의 고려인 가정의 일부 청소년들은 한국으로 이주한 부모로 인하여 조부모 또는 주변 친척들의 돌봄 속에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돌봄 부재로 심리적, 정서적 방황을

경험하는 고려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함께 향후 한국 이주를 준비하는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준비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홀로 남겨진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돌봄과 상담 지원과 둘째, 향후 한국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는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 이주와 관련한 이주 준비나 사전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홀로 남겨진 고려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지할 수 있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모임이나 공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을 위해 더 나아가서는 상담 서비스와 같은 전문적 서비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이주와 관련해서 미리 한국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원에 대한 안내와 함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 지지 않는 실제 한국 문화, 예절, 학교, 교육 제도 등을 포함한 사전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홀로 남겨진 고려인 청소년을 파악하여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제한점이 많기 때문에 이들 스스로가 정보에 접근하도록 돕기 위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 설립보다는 한국교육원, 고려인협회와 같은 기존 기관과 지역 공동체 활용을 위해서는 기관과의 협조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 3	한국어 공식 교과목 채택 사업 지원
-----------------	----------------------------

3. 신규 지원 학교 확대와 개설한 학교에 대한 지원 체계 유지

- **제안배경** : 중앙아시아 지역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한국교육원은 한국어 교육 사업과 함께 현지 학교에서 한국어 과목을 교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공립학교에서 한국어를 교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어 교실 개설 지원 사업은 현지에 한국어의 우수성과 우리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고려인 청소년 교육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를 정규 교과목을 채택할 수 있도록 현지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⁹³⁾ 한국어 정규 교과목 채택

사업은 중요한 홍보 및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신규 학교 확보를 위한 노력과 채택한 학교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채택 학교에서 한국어 교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고, 교수법 혹은 교재 등과 관련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여야 한다. 여기에 전략적으로 고려인 청소년이 많은 학교가 있다면 신규 학교 지원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한국어 수업 개설 후 고려인 청소년들이 수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사업에는 교사 수급, 제공, 교재, 교수법에 관련한 내용 모두가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설과 함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 차원의 고민과 함께 이와 관련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3)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과제

카자흐스탄 1 재외국민 자녀를 위한 진학과 취업 정보 제공

1. 재외국민 자녀를 위한 진학과 취업 정보 제공

- **제안배경** :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자녀는 영주권을 가진 경우가 많으나 그 외에도 일반 유학생, 주재원 자녀 등도 있다. 대부분의 부모가 한국에서 이주하였기 때문에 고려인 동포와는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는 재외국민 청소년이 많다. 이들 중 한국 대학 진학을 희망하거나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으나 재외국민 자녀를 위한 진학 및 취업 정보나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다.

- **주요내용** :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 대학 진학과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고 기존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 제공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보다는 대학 입시 정보와 관련한 정보는 어디에 있는지, 한국 취업과 관련한 정보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리는 '정보 찾기'도우미 형태의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93)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세르켈리 산업 클리지 한국어교실 개소식에 참석 (2017.10.17.), <http://tashkec.uz/%ec%84%b8%eb%a5%b4%ea%b2%94%eb%a6%ac-%ec%82%b0%ec%97%85-%ec%bd%9c%eb%a6%ac%ec%a7%80-%ed%95%9c%ea%b5%ad%ec%96%b4-%ea%b5%90%ec%8b%a4-%ea%b0%9c%ec%86%8c%ec%8b%9d%ec%97%90-%ec%b0%b8%ec%84%9d/>, 2017년 10월 26일 인출

웹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방법과 년 1~2회 정도 설명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도 있다. 또한 재외국민 전형의 경우 여러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 **현안사항** : 새로운 형태의 정보제공 형태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정보를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교민과 관련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설명회와 같은 오프라인 행사의 경우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 2 주재원 자녀에 대한 모국 연수 기회 부여

2. 주재원 자녀에 대한 모국 연수 기회 부여

- **제안배경** : 재외동포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국 방문 기회 제공과 초청 연수는 외국국적자 재외동포와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재원 자녀의 경우 재외국민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해외 체류기간은 길고 모국 체류 기간이 오히려 짧아서 모국 연수나 방문 프로그램의 기회가 필요한 대상일 수 있다. 더욱 주재원 자녀들은 해외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자산으로 거주국 동포사회와 모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 자원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모국 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한민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중남미 동포청소년을 위한 정책제언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재외동포청소년 모국 연수 대상에 주재원 자녀 포함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국내에서 초청하는 연수 참가자 대상에 주재원 자녀 포함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모집 인원 확대와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모국 연수 초청 시 비용 중 일부를 참가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방식 등 다양한 초청과 참가 방식의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3. 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특별 강좌 또는 고려인 비율 지정

- 제안배경 :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국어 교육은 ‘세종학당’, ‘한국교육원’, ‘주말 한글학교’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 수요 증가로 ‘세종학당’을 해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 대표기관으로 육성하고 한국교육원의 한국어강좌에도 ‘세종학당’ 브랜드를 통합해 사용한다고 보도하였다⁹⁴⁾. 아스타나 지역의 한국문화원에서 개설되는 세종학당 강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수업료가 있어서⁹⁵⁾ 고려인 동포청소년의 경우 수업료 문제로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교육부 소속 알마티 한국교육원을 통한 한국어 교육 기회도 있다. 이 경우는 현지인의 수요가 많아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국어 강좌 수강을 원하는 고려인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세종학당을 통한 한국어 강좌 수강에는 비용이 소요된다. 이 경우 고려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강을 원하는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일괄적으로 수강료를 할인해 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고려인 청소년들의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해 일단 수강료를 전액 납부하고 수업 종료 시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수강료 중 일부를 돌려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 한국교육원의 한국어 강좌의 경우는 현지인의 많은 수요로 인하여 수강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강좌 당 고려인 청소년 우선 비율을 할당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인 청소년이 있을 경우 우선 할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비율을 현지인에게 돌려주는 방식 등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인 청소년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추가로 강좌를 개설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안사항 :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의 기능과 목적 상 고려인들만을 위한 강좌 개설과 고려인에게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추가 강좌 개설은 추가 예산 확보, 교사 수급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9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6. 11. 4),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첫발 댄다. https://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MenuCD=0302000000&pSeq=15693&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pCurrentPage=1, 2017년 10월 26일 인출

95)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http://kaz.korean-culture.org/ko/496/board/359/read/85897>, 2017년 10월 26일 인출

카자흐스탄 4 문화와 한국어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4. 문화와 한국어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 제안배경 : 중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문화원이 있는 지역이 카자흐스탄이다⁹⁶⁾.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에 한국문화원, 알마티에는 한국교육원⁹⁷⁾이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문화를 홍보·전파하고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은 카자흐스탄 지역의 고려인들을 위한 문화와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한국문화원은 각종 문화 행사를 통하여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고 고려인 행사와 축제를 통하여 한민족 정체성 찾기를⁹⁸⁾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행사와 프로그램을 아스타나 지역에서 알마티 지역 외 고려인 거주 지역으로의 확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교육원과 연계하여 문화 행사를 통한 한국 역사 알리기,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과 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현안사항 :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의 주관 부처가 다르고, 소재 도시의 지역적 거리 때문에 두 기관의 협업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행사나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 책정과 사용에 있어서 주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다.

(4) 국내거주 고려인 동포청소년 공통의 정책과제

국내 거주 1 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교재

1-1. 연령과 난이도에 따른 다양한 한국어 교재 개발과 보급

- 제안배경 : 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서 교재의 난이도가 초급

96) 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 <http://www.kocis.go.kr/koccc.do?searchType=menu0023>, 2017년 10월 26일 인출

97)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koreacenter.kz/>, 2017년 10월 26일 인출

98)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http://kaz.korean-culture.org/ko/494/board/205/read/86727>, 2017년 10월 26일 인출

의 경우에도 너무 어렵고 교재 자체가 흥미롭지 않다는 제한점이 지적되었다. 나이가 어린 고려인 청소년에게 사용하기에 적합한 초급 교재와 흥미로운 교재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주요내용** : 새로운 교재의 개발보다는 기존 교재를 활용하여 나이가 어리고, 초급 수준의 고려인 청소년에게 교육할 수 있는 한국어 보충 교재를 개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 교재에 초등학생용 초급 보충 교재 또는 워크북 등을 제작하여 추가 보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교재는 책자 형태의 교자와 함께 멀티미디어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학습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재의 개발도 고려한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교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보충 교재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1-2. 문화와 역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역사와 한국어 교재 개발과 보급

- **제안배경** : 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은 다문화 청소년과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 이들을 위한 교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주요내용** : 새로운 교과서를 개발 보다는 기존 교과서에 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워크북 형태의 교재를 추가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현안사항** : 교육 전문가 중 고려인에 대한 이해와 고려인 청소년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내 거주 2

원적 학교와 위탁형 대안학교의 연계 강화

2-1. 원적 학교와 위탁형 대안학교의 연계를 통한 학생관리 강화

- **제안배경** : 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능력의 부족과 적응의 어려움으로 우선은 원적학교에 적을 두고 교육부 인가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원적학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위탁형 대안학교와 원적학교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연계의

부족으로 학생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주요내용** : 원적학교와 위탁형 대안학교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는 지방 교육청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에 대한 원적학교 교사의 긍정적 인식이 필요하고 이들 문화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형 대안학교와 원적학교를 연계하는 제도의 유연성도 필요하다. 준비되지 않은 중도입국 고려인 학생을 원적학교로 보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학교를 이탈하는 고려인 청소년이 있기 때문에 위탁형 대안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학생이 준비가 되었을 때 원적학교로 전학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현안사항** : 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지역 교육청과 원적학교의 이해와 위탁형 대안학교와의 밀접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또한 원적학교 교사들의 다문화와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2-2. 러시아어 가능한 상담 교사 지원

- **제안배경** : 중도입국 후 한국어가 서툴러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 청소년의 초기 정착과 학교 적응을 위한 러시아어 가능 상담 교사의 지원이 필요하다.
- **주요내용** : 우선 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의 재학 비율이 높은 학교에 러시아어 가능 상담 교사를 파견하여 이들의 정착과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매일 한 학교에 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 1회 또는 2회 방문으로 한 학교를 방문하고, 교사는 주변 지역의 고려인 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를 순회하면서 상담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적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의 발전이 필요하겠지만, 지원의 초기 단계에서는 고려인 사회와 한국 적응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려인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안사항** : 상담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필요 인력 확보와 예산 확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국내 거주 3

다양한 한국 알기 활동과 프로그램

3-1. 한국 지역 탐방을 통한 역사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 제안배경 : 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은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배우고 싶어 한다. 고려인 청소년의 정착과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방과 후와 주말을 활용하여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활동 프로그램은 주최 측 주관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려인 청소년들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변의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기를 소개하고 장소에 대한 소개와 볼거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고려인 학생 많은 학교는 소그룹 단위로 학생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를 역사나 관련 수업과 연계하여 학습을 돕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안사항 : 고려인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3-2. 고려인 재학 중인 공립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 제안배경 : 중도입국 고려인이 많이 재학 중인 공립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들의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 방과 후 프로그램 중 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특별 강좌,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한 강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안사항 : 학교의 협조와 강좌 개설 시 많은 고려인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국내 거주 4	진로 및 상담 서비스
----------------	--------------------

4-1. 대학 진학을 위한 진학 상담과 진로 상담 서비스 실시

- 제안배경 : 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 중 한국 대학 입학에 대한 진학 상담이 필요할 경우 또는 취업을 준비를 위해 진로 상담이 필요한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주요내용 : 고려인 청소년의 경우 재외동포이지만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대학 진학에서

일반 전형과는 다른 방법과 입학 기회가 있다. 각 대학마다 전형 방법이 달라서 대학 진학을 고민하는 고려인 청소년들에게는 전문적 진학 상담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 또한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취직을 준비하는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진로 상담 서비스도 필요하다. 학교에 재학 중인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각종 상담 서비스를 학교에서 교사나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고려인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의 고려인 단체와 연계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려인을 돕는 NGO 단체와 연계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상담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 현안사항 : 각종 정보의 취합과 이를 관리하고 상담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 역량에 대한 고려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표 VII-2 고려인 동포청소년 정책과제

구분	정책과제	기간	관련 부처	
중앙아시아 지역 동포 청소년 공통 과제	한국어·한국사 교육과 학습 지원	1-1. 시대 및 지역별 상황에 맞춘 한국어 교재 개발·보급	단기	교육부 문체부
		1-2. 역사 교재 개발·보급과 러시아어 번역	단기	교육부 문체부
		1-3. 러시아어 버전 한글 문법 교재 개발	단기	교육부 문체부
		1-4. 다양한 형태의 교재 개발(DVD, 인터넷, 게임 교재 등)	단기	교육부 문체부
		1-5. 중학교 이전 연령의 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단기	교육부 문체부
	교사 양성과 지원	2-1 한국어 교사 대상 역사·문화 연수 실시	단기	외교부 교육부
		2-2 한국어 교사 처우 개선	단기	외교부 교육부
		2-3 교사를 위한 교재 활용 지침서 개발·보급	단기	교육부 문체부
		2-4 지역 내 한국어 학과 고려인 졸업생 활용	단기	교육부 외교부
		2-5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화를 위한 자격제도 지원	단기	교육부

구분	정책과제	기간	관련 부처
			외교부
동포청소년 대상 활동 활성화	3-1 청소년 진로캠프 개발 및 운영	단기	외교부 교육부
	3-2 한 뿌리 찾기-한민족공동체 캠프의 운영	단기	외교부 교육부
	3-3 흥미롭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공모전과 대회 개발	단기	외교부 교육부
	3-4 한국 방문 및 연수 기획 확대	단기	외교부 여가부
청소년 활동 시설 제공	4-1 주변 시설 활용 및 활동 프로그램 지원	중장기	외교부 교육부 여가부
청소년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5-1 고려인 청소년 단체 조직 및 지원	중장기	외교부 교육부 여가부
	5-2 직접 참여가 어려운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모임 망 구축	중장기	외교부 교육부
	5-3 한국 내 학교와 MOU 체결과 교류	중장기	외교부 교육부 여가부
한국 유학 및 취업 프로그램 개발·운영	6-1 전문직 직업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중장기	고용노동부 교육부 외교부
	6-2 진로 정보와 진로 상담 멘토 제공	단기	교육부 외교부
	6-3 한국 유학과 취업 정보 제공	단기	교육부 외교부 노동부
	6-4 한국 입국 준비 중인 청소년을 위한 사전 교육	단기	교육부 외교부
우즈베키스탄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	1. 특성화 진로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 확대	단기	교육부 노동부
	2. 한국에 이주한 부모를 둔 청소년과 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	단기	교육부 외교부
	3. 한국어 공식 교과목 채택사업 지원	중장기	교육부

구분	정책과제	기간	관련 부처
			외교부
카자흐스탄 동포청소년 특성화 정책과제	1. 재외국민 자녀를 위한 진학과 취업 정보 제공	단기	교육부 외교부
	2. 주재원 자녀에 대한 모국 연수 기회 부여	단기	외교부
	3. 고려인을 위한 한국어 특별 강좌 개설	단기	교육부 문체부
	4. 문화와 한국어를 같이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단기	교육부 문체부
국내거주 동포청소년 특성화 과제	1. 중도입국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교재 1-1. 연령과 난이도에 따른 다양한 한글 교재 개발 보급 1-2. 문화와 역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역사와 한국어 교재 개발과 보급	단기	교육부 문체부
	2. 원적학교와 위탁형 대안학교의 연계 강화 2-1. 원적 학교와 위탁형 대안학교의 연계를 통한 학생 관리 강화 2-2. 러시아어 가능한 상담 교사 지원	단기	교육부
	3. 다양한 한국 알기 활동과 프로그램 3-1. 한국 지역 탐방을 통한 역사와 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3-2. 고려인이 재학 중인 공립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단기	교육부 여가부
	4. 진로 및 상담 서비스 4-1. 한국 학교 진학을 위한 진학과 진로 상담 서비스	단기	교육부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국사편찬위원회(2007). **중남미 한인의 역사**. 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국제뉴스(2017년 7월 12일자). 브라질 재외동포 한글학교 청소년 모국방문.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45129>에서 2017년 10월 13일에 인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고려인동포합법적체류자격취득및정착지원을위한특별법시행령&BEF_SUB_NM=고려인동포합법적체류자격취득및정착지원을위한특별법시&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t=false&lawsrchtyp=LAW_NM&subnm=고려인동포합법적체류자격취득및정착지원을위한특별법시행령&befsubnm=고려인동포합법적체류자격취득및정착지원을위한특별법시행령&l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A3351&PROM_NO=11690&PROM_DT=20130323에서 2017년 2월 1일 인출.

교육부(2015). **2015 회계연도 교육부 성과보고서** [http://www.moe.go.kr/boardCnts/](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4&lev=0&statusYN=W&s=moe&m=040103&opType=N&boardSeq=64017)

[view.do?boardID=344&lev=0&statusYN=W&s=moe&m=040103&opType=N&boardSeq=64017](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4&lev=0&statusYN=W&s=moe&m=040103&opType=N&boardSeq=64017)에서 2017년 5월 23일 인출

김경준, 김태기(20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I**(연구보고 15-R15).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정은주(2016).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II**(연구보고 16-R15).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병욱 (2010). 현상학적 교육 연구를 위한 주요 개념의 명확화와 보완점 탐색. **교육사회연구**, 20(1), 25-44.

- 김선정, 장근영(2011). 청소년 대상 한국어 능력 평가 개발 방안, **교육문화연구**, 제17-2호, 259~282.
- 김영철(2016a). 중남미 재외동포 사회와 한류, **한국민족문화**, 58, 75~112.
- 김영철(2016b). 아르헨티나 재외동포 1.5세대의 역이민과 정착 연구. **한국민족문화**, 60, 83~111.
- 김판준(2015). “중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외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연구보고 15-R15-1), 35~65.
- 김호준(2016). **유라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아픈 역사 150년**. 서울: 주류성출판사.
- 남부현 (2015). 한국어교원의 외국인 유학생 지도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1(4), 179-210.
- 문화일보(2014년 8월 7일자). 중남미는 한류열풍, 브라질은 전초기지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80701032530069002>에서 2017년 10월 24일 인출.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6. 11. 4),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첫발 땀다.
https://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MenuCD=0302000000&pSeq=15693&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pCurrentPage=1에서 2017년 10월 26일 인출
-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_체류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 (2016년,2014년,2012년).
<https://www.data.go.kr/dataset/3045188/fileData.do> 2017. 9. 14. 인출
- 서울신문(2017.07.31.).강제이주 80년 세월 홀러도… ‘카레이스키’ 통한의 삶 계속된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731011001#csidxf7207a0699a97209f6f5bc8eca86185>, 2017년 9월 29일 인출.
- 서울신문(2017.07.31.). 김호준-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 특별기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731011001#csidxf7207a0699a97209f6f5bc8eca86185>. 2017년 8월 10일 인출.
- 성광일(2015). “이스라엘 청소년 재외동포정책”, **외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연구보고 15-R15-1), 157~182.
- 스티디코리아, 교사 인증과정, http://study.korean.net/servlet/action.crtfc.CrtfcStudyAction?p_process=intro&p_menuCd=m701 에서 2017년 10월 26일 인출
- 시사포커스(2009. 05. 12). 이 대통령 “21세기 신 실�크로드 구축하자”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23> 에서 2017년 8월22일

- 인출
 신경립, 고명숙, 공병혜, 김경선, 김미영, 김은하, 노승욱, 노영희, 양진향, 조명옥 (2004).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아르헨티나 한글학교협의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EC%95%84%EB%A5%B4%ED%97%A8%ED%8B%B0%EB%82%98-%ED%95%9C%EA%B8%80%ED%95%99%EA%B5%90-%ED%98%91%EC%9D%98%ED%9A%8C-327874870669437>에서 2017년 10월 13일 인출
- 연합뉴스(2015년 9월 3일자) 브라질서 3호 세종학당 개원---- 한국어 교육 저변 확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3/0200000000AKR20150903064900094.HTML?input=1179m>에서 2017년 10월 24일 인출.
- 연합뉴스(2016.10.13.). 한글학교 교사 10명중 7명 교원자격증 없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3/0200000000AKR20161013055200371.HTML>에서 2017년 10월 26일 인출
- 윤인진, 채정민(2007).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연구보고 07-R13-2).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광윤(2011). 브라질 사회에 있어서 한국인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제8권 2호**, 87~120.
- 이병조(2016).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 내 고려인의 주류사회 분포 현황과 과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2016년 재외한인학회·IOM이민정책연구원·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 공동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재외동포의 주류화-거주국 주류사회 진출 현황과 과제.
- 이자경(2006). **멕시코 한인 이민 100년사**. 서울 : 한맥문화출판부.
- 이진영, 강성봉, 김판준, 임영언, 정호원(2013). 재외동포 우수인재 모국귀환정책 비교연구, **2013 재외동포재단 조사연구용역 결과보고서**(서울 : 재외동포재단), 1~285.
- 이진영, 박우(2013). 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의 방향: 한국의 차세대 재외동포 정책, **민족연구 54권 0호**, 22~24.
- 이진영, 장안리, 김판준, 임영언, 정호원, 성일광(2015).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연구보고 15-R15-1).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외교부(2015). **2015 재외동포현황**, 서울: 외교부.
- 원미진, 유현경, 장소원, 조태린(2015). **브라질 등 중남미 동포 언어실태 조사**. 서울 : 국립국어원.

- 월드코리안(2017. 8. 25일자). 브라질 한인차세대 리더 모임 발족 “제1회 한국외교관상 수여 식 열 것”<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984>에서 2017년 10월 13일 인출
- 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연구보고 15-R1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안리(2015). “미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외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연구보고 15-R15-1). 9~35.
- 전소연, 남부현 (2015). 어린이집 교사의 다문화가정 유아경험을 통한 교육적 노력과 실천.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19(4), 617-645.
- 조혜영, 문경숙, 박동성, 양한순, 최진숙 (2007).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 (연구보고 07-R13-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지은림, 선광식 (2007).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인 탐색 및 관련변인 분석. **시민교육연구**, 39(4), 115-134.
- 재외동포재단(2015a). **2015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서울: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재단(2015b). **재외동포재단 연차보고서**. 서울 :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재단(2017). **재외동포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서울: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6차 일부개정 2016.5.29. 법률 14173호) 제2조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SRCH_IN_RESULT=false&LAW_SRCH_TYPE=LAW_NM&SUB_NM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BEF_SUB_NM=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LAW_CHECK=true&ORD_CHECK=true®L_CHECK=true&srchinresul=false&lawsrctype=LAW_NM&subnm=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befsubnm=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lawchk=true&ordchk=true®lchk=true&LAW_ID=A1661&PROM_NO=14173&PROM_DT=20160529&에서 2017년 1월 16일 인출.
- 정기선(2013).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외국인의 취업 및 사회생활**. 서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정영훈(2010). 민족정체성, 그리고 한민족의 민족정체성, **민족학연구**, 9권 0호, pp. 1~30.
- 정호원(2015).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독일의 제도와 선택”, **외국의 재외동포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연구보고 15-R15-1), 129~157.

- 최상덕 (2014).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Ⅱ**(연구보고 RR 2014-1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koreacenter.kz/>에서 2017년 10월 26일 인출
-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http://kaz.korean-culture.org/ko/496/board/359/read/85897>에서 2017년 10월 26일 인출
-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http://kaz.korean-culture.org/ko/494/board/205/read/86727>, 2017년 10월 26일 인출
-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세르겔리 산업 폴리지 한국어교실 개소식에 참석 (2017.10.17.).
<http://tashkec.uz/%ec%84%b8%eb%a5%b4%ea%b2%94%eb%a6%ac-%ec%82%b0%ec%97%85-%ec%bd%9c%eb%a6%ac%ec%a7%80-%ed%95%9c%ea%b5%ad%ec%96%b4-%ea%b5%90%ec%8b%a4-%ea%b0%9c%ec%86%8c%ec%8b%9d%ec%97%90-%ec%b0%b8%ec%84%9d/>에서 2017년 10월 26일 인출
- 학술정보연구서비스(RISS). <http://www.riss.kr/index.do>에서 4월 17일~4월 28일에 인출
- 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 <http://www.kocis.go.kr/kocc.do?searchType=menu0023>에서 2017년 10월 26일 인출
- Jewish Camp. <http://www.jewishcamp.org/>에서 2016년 10월 24일 내용 인출.
- StudyinKorea. <http://www.studyinkorea.go.kr/ko/sub/gks/selectBoardArticle.do>에서 2017년 10월 25일 인출
- UJA Federation of New York. <http://www.ujafedny.org/what-we-do/inspire-jewish-life/jewish-summer-camps/>에서 2016년 10월 24일 내용 인출.

부 록

1. 청소년설문지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용·국문)
2. 청소년설문지 (러시아 번역본)
3. 청소년설문지 (아르헨티나·브라질 용·국문)
4. 청소년설문지 (스페인어 번역본)
5. 청소년설문지 (포르투갈어 번역본)
6. 전문가용 심층면접 조사지

부 록

1. 청소년설문지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용·국문)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 설문 조사**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각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 인재로 논의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요구 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다른 분들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경준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정은주 연구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http://www.nypi.re.kr>

8. 현재 국적(신분) :

- ①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시민권자
- ②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영주권 소유)
- ③ 기타(구체적으로 _____)

9. 부모님은 고려인이신가요?

- ① 아버지만 고려인
- ② 어머니만 고려인
- ③ 두 분 다 고려인
- ④ 두 분 다 고려인 아님

10. 미래에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나요?

- ①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 ② 한국
- ③ 러시아
- ④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II. 재외동포 청소년 실태조사

11.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또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12번으로)
- ② 없다 (☞ 13번으로)

12. 한국과 한국어 교육관련 과정에 다닌 기간은? _____년 _____개월

12-1.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또는 한국어 교육과정에 다니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님 권유
- ② 본인 결정
- ③ 친구의 권유
- ④ 기타 (_____)

13.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능력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한국과 관련된 가정생활은 어떠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와 부모님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자주 보거나 한국 노래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내가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에서 한국과 관련 있는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서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내가 한국인 또는 고려인과 결혼하기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자신의 정체성(고려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고려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고려인인 것이 자랑스롭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고려인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고려인의 사건이나 문제를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고려인의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미래인재역량

16.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에도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부분적인 내용만 듣고도 전체 내용을 상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도 잘 연결 지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과제가 어렵거나 중요한 정도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할 때 지난 번 방법이 좋았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사용할지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회가 좋아지도록 무언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환경, 평화, 기아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양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지역사회 또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사회적 평등 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국가들에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의 문화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의 이민 역사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의 국민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키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IV. 한국/한민족에 대한 인식 및 공동체 참여 욕구

22.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국/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문화(K-Pop 등)는 매력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남북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동포 청소년 및 대한민국 청소년들과 함께 한 경험이 있나요?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자주	매우 자주
1) 나는 평상시 동포 청소년들과 만나거나 연락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동포 청소년단체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동포청소년들은 주로 어디에서 만나나요?

- ① 정규학교(local 학교/국제학교)
- ② 한글학교
- ③ 교회
- ④ 학교 밖 여가활동
- ⑤ 기타

25. 다음과 같은 일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1) 나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한글학교 집중과정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한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동포 사회와 대한민국 사회가 재외동포 청소년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다음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에서 성공하여 동포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동포사회와 교류하여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를 단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나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국제사회에서 다리역할을 통해서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미래에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사회나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동포청소년들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의 청소년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한민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민족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에서 또래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에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에서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한국의 다양한 문화(역사 유적지, K-Pop 공연 등)를 경험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9. 한국에서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하고 싶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 ① 한국 국적이 없는 것
- ②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음
- ③ 군복무를 하지 않음
- ④ 한국의 교육과 취업에 대한 정보 부족
- ⑤ 한국에서 교육받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부족
- ⑥ 경제적 어려움
- ⑦ 한국의 조직 및 기업 문화에 대한 적응에 자신이 없음
- ⑧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생활할 자신이 없음
- ⑨ 기타

30.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 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의 관심과 교육 ② 주변 친구들의 관심과 대화
- ③ 한류를 통한 드라마나 K-Pop등 ④ 인터넷사이트 방문이나 SNS활동
- ⑤ 한글학교 등의 한국어 교육 ⑥ 개인적 한국 방문
- ⑦ 교환학생이나 한국방문 프로그램 ⑧ 한민족 캠프나 축제
- ⑨ 기타

31. 장래 희망(또는 희망하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희망하는 직업의 번호를 하나만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

〈보 기〉			
① 의사	② 법조인	③ 전문경영인	④ 교사
⑤ 회사원	⑥ 공무원	⑦ 정치인	⑧ 간호사
⑨ 경찰	⑩ 요리사	⑪ 연예인	⑫ 운동선수
⑬ 과학자	⑭ 사회복지사	⑮ 외교관	⑯ 엔지니어
⑰ 회계사	⑱ 비행기승무원	⑲ 약사	⑳ 컴퓨터 프로그래머
㉑ 디자이너	㉒ 음악가	㉓ 박사 등 연구원	㉔ 자영업자
㉕ 농업인	㉖ 기타 ()	㉗ 특별히 없음	

32.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 ① 돈을 많이 버는 것 ② 명예를 얻는 것
- ③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 ④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 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⑥ 건강하게 사는 것
- ⑦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⑧ 종교생활을 잘 하는 것
- ⑨ 기타()

33. 장래 희망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복수 응답 가능)

- ①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 ② 자신의 능력 부족
- ③ 교육기회 부족
- ④ 부모님의 관심 부족
- ⑤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사회의 관심과 지원 부족
- ⑥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사회 차별
- ⑦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경제가 어려워서
- ⑧ 기타()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

2. 청소년설문지 (러시아 번역본)

Опрос – подробные интервью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политики поддержки молодых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воспитание их в качестве будущих талантов

Информация, полученная при проведении опроса, будет держаться в строгой тайне, и не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на для целей, иных, нежели статистическая обработк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м о статистик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татьи 13 и 14).

Здравствуйте!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Кореи, созданный в 1989 году, явля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м учреждением пр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е. Со времени своего основания, Институт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Кореи разрабатыва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литику и различные программы в целях оказания поддержки молодежи.

В этом году мы проводим опрос зарубежных молодых корейцев, чтобы определить их реальное состояние и требования. Опрос проводится для выработ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и оказания поддержки молодым корейцам, поскольку они являются будущим и ценным человеческим ресурсом всемирной общины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ся информация, полученная из ваших ответов, будет обработана анонимно, и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только как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материал для разработки политики. Ваша персона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будет содержаться в строгой тайне. Кроме того, работники не увидят полное содержание ваших ответов, а у вопросов нет правильного или неправильного ответа. Просим честно и внимательно ответить на вопросы, чтобы ваше мнение оказало влияние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политику. Искренне благодарим вас за участие в данном опросе.

Апрель 2017 г.

Национ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Кореи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Отвечающий исследователь: тарш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Ким Кёнг Джун.

Со-исследователь: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Джонг Ын Джу.

г. Седжонг, Сичонг-дэро 370, комплекс исследований в обла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Седжонг», павильон обще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http://www.nypi.re.kr>

※ В каждом вопросе отметьте галочкой (√) номер ответа, либо напишите ответ в скобках.

I. Общие сведения

1. Место проживания: город (), страна ()

2. Срок проживания в Узбекистане/Казахстане : _____ год (года, лет) _____ месяц (а, ев)

3. Год вашего рождения : год

4. Ваш пол : ① муж. ② жен.

5. Укажите ваш род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 ① Школьник (1-5 класс) ② Школьник (6-9 класс)
③ Школьник (10-11 класс) ④ Студент
⑤ Аспирант ⑥ Сотрудник компании или организации
⑦ Безработный ⑧ Прочее (укажите конкретно:)

6.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каком классе (курсе) вы учитесь: в _____ классе (курсе)

7. Почему вы живете в Узбекистане/Казахстане?

- ① Родился (лась) здесь ② Иммигрировал (а) сюда
③ Приехал (а) учиться ④ Прочее (укажите конкретно:)

7-1. Кто из членов вашей семьи впервые приехал в Узбекистан/Казахстан?

- ① Дедушка и бабушка, или предыдущие поколения
② Отец и мать до вашего рождения
③ Я родился (лась) в Корее, а потом мы с родителями приехали сюда

8. Ваше гражданство (статус)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 ① Имею гражданство Узбекистана/Казахстана
- ② Имею граждан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мею вид на жительство Узбекистана /Казахстана)
- ③ Прочее (укажите конкретно: _____)

9. Являются ли корейцами ваш отец и мать?

- ① Только отец является корейцем
- ② Только мать является корейкой
- ③ Оба родителя являются корейцами
- ④ Оба родителя не являются корейцами

10. В будущем, где вы хотите жить?

- ① В Узбекистане/Казахстане
- ②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 ③ В России
- ④ Прочее (укажите конкретно: _____)

II. Опрос о нынешнем состоянии зарубежных молодых корейцев

11. Когда-нибудь вы ходили в Корейски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центр, корейскую школу или курс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 ① Ходил(а) (☞ перейдите к вопросу № 12)
- ② Никогда ни ходил(а) (☞ перейдите к вопросу № 13)

12.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вы ходили в курс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л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_____ год (года, лет) _____ месяц (а, ев)

12-1. Почему вы начали ходить в Корейски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центр, корейскую школу или курс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 ① Родители посоветовали
- ② По собственному решению
- ③ Друзья посоветовали
- ④ Прочее (_____)

13. Ваш уровень интереса и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Совсем не так	Не так	Нормально	Так	Именно так
1) Интересуюсь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①	②	③	④	⑤
2) Хочу(продолжать) учитьс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①	②	③	④	⑤
3) Могу говорить на корейском.	①	②	③	④	⑤
4) Могу понимать корейский на слух.	①	②	③	④	⑤
5) Могу писать и читать на корейском.	①	②	③	④	⑤

14. Как вы общаетесь с родителями в семье в связи с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Совсем не так	Не так	Нормально	Так	Именно так
1) Мы разговариваем с родителям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①	②	③	④	⑤
2) Мы с родителями любим готовить и кушать корейские блюда.	①	②	③	④	⑤
3) Мы с родителями часто смотрим корейские телесериалы, слушаем корейские песни.	①	②	③	④	⑤
4) Родители хотят, чтобы я имел(а) профессию в Узбекистане/Казахстане, связанную с Кореей.	①	②	③	④	⑤
5) Родители хотят, чтобы я работал(а) в Корее.	①	②	③	④	⑤
6) Родители хотят, чтобы я создал(а) семью с узбекской(казахстанской) кореялкой (корейцем) или кореялкой (корейцем)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①	②	③	④	⑤



15. Как вы относитесь к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Совсем не так	Не так	Нормально	Так	Именно так
1) Думаю, что я являюсь корейцем(корейкой).	①	②	③	④	⑤
2) Горжусь тем, что я отношусь к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①	②	③	④	⑤
3) Я хорошо знаком(а) с историей и традицией узбекских или казахстанских корейцев.	①	②	③	④	⑤
4) Я говорю другим людям о событиях или проблемах корейцев.	①	②	③	④	⑤
5) Воспринимаю события и проблемы корейцев, как свои.	①	②	③	④	⑤

III. Способности как будущие таланты

16. Что Вы думаете о содержании нижеследующих пунктов?

	Совсем не так	Не так	Нормально	Так	Именно так
1) Когда я не могу точно понять, что говорят другие люди, я задаю вопросы, чтобы уточнить смысл.	①	②	③	④	⑤
2) Я могу хорошо вести разговор с другим человеком, даже когда наши мнения расходятся.	①	②	③	④	⑤
3) Я говорю и поступаю, думая о том, как другие люди будут воспринимать мои слова и поступки.	①	②	③	④	⑤
4) Я уважаю мысли и выбор других людей, даже если их мнение отличается от моего.	①	②	③	④	⑤

17. Что Вы думаете о содержании нижеследующих пунктов?

	Совсем не так	Не так	Нормально	Так	Именно так
1) Мне часто в голову приходят какие-то новые мысли, о которых другие люди не могут подумать.	①	②	③	④	⑤
2) Я могу угадать все содержание истории, услышав лишь ее часть.	①	②	③	④	⑤
3) Я могу хорошо связать то, что кажется не имеющим никакой связи между собой.	①	②	③	④	⑤
4) Я решаю задания различными методам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тепени их сложности или важности.	①	②	③	④	⑤
5) Я детально обдумываю методы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перед тем, как их решать	①	②	③	④	⑤
6) Когда я начинаю решать новые задачи, сначала думаю о том, были ли хороши предыдущие методы, и принимаю решение о том, буду 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их еще раз.	①	②	③	④	⑤

18. Что Вы думаете о содержании нижеследующих пунктов?

	Совсем не так	Не так	Нормально	Так	Именно так
1) Я думаю, что мне нужно что-то делать, чтобы развивать общество.	①	②	③	④	⑤
2) Я думаю, что очень важно соблюдать законы.	①	②	③	④	⑤
3) Я думаю, что очень важ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волонтерских деятельности.	①	②	③	④	⑤

19. Что Вы думаете о содержании нижеследующих пунктов?

	Совсем не так	Не так	Нормально	Так	Именно так
1) Я интересуюсь различными мероприятиями, осуществляемыми в мире (экологическими, миротворными, против голода и т. д.).	①	②	③	④	⑤
2) Я думаю, что мне надо прилагать усилия, чтобы помочь всем людям мира жить лучшей жизнью.	①	②	③	④	⑤
3) Я думаю, что мне надо жить добросовестно вести общественную жизнь	①	②	③	④	⑤
4) Я думаю, что мне нужно заботиться о местном обществе и о близких людях.	①	②	③	④	⑤
5) Я думаю, что важно реализовать социальное равенство.	①	②	③	④	⑤

20. Что Вы думаете о содержании нижеследующих пунктов?

	Совсем не так	Не так	Нормально	Так	Именно так
1) У меня хорошее отношение к другим странам.	①	②	③	④	⑤
2) У меня открытое отношение к миру.	①	②	③	④	⑤
3) У меня дружелюб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людям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①	②	③	④	⑤
4) У меня есть готовность понять и принять культуру других стран.	①	②	③	④	⑤

21. Что Вы думаете о содержании нижеследующих пунктов?

	Совсем не так	Не так	Нормально	Так	Именно так
1) Я думаю, что культура Узбекистана / Казахстана превосходна.	①	②	③	④	⑤
2) Я думаю, что история миграции Узбекистана / Казахстана превосходна.	①	②	③	④	⑤
3) Я думаю, что народ Узбекистана / Казахстана превосходен.	①	②	③	④	⑤
4) Я стараюсь информировать миру о славе Узбекистана/Казахстана и сохранять ее репутацию.	①	②	③	④	⑤

IV. Мнение о Корее и корейском народе, и желание участвовать в сообществе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22. Что Вы думаете о содержании нижеследующих пунктов?

	Совсем не так	Не так	Нормально	Так	Именно так
1) У меня хорошее мнение о Корее/корейском народе.	①	②	③	④	⑤
2) В Корее 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стабильна.	①	②	③	④	⑤
3) В Корее экономика развита.	①	②	③	④	⑤
4)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К-Поп и т. д.) привлекательна.	①	②	③	④	⑤
5) Я думаю, что две Кореи должны объединиться.	①	②	③	④	⑤



23. Вы когда-нибудь общались с корейскими молодыми людьми, проживающими в Вашей стране ил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Совсем не так	Не так	Нормально	Так	Именно так
1) Обычно я часто встречаюсь или связываюсь с ними.	①	②	③	④	⑤
2) Я общался (лась) с членами молоде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и вместе работал (а).	①	②	③	④	⑤

24. Где вы встречаетесь с другими молодыми корейцами?

- ① В школе (местной/международной)
- ② В школ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③ В церкви
- ④ Во время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для отдыха вне школы
- ⑤ Прочее

25. Вы когда-нибудь участвовали в нижеследующих деятельности?

	Никогда не участвовал(а)	1 раз	2 раза	3 раза	более 4-х раз
1) Я участвовал(а) в молодежном лагере или в обучающей программе(интенсивный курс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т. д.)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молоды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ая проводится в Узбекистане/Казахстане.	①	②	③	④	⑤
2) Я участвовал(а) в программе для зарубежных молоды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ая проводится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①	②	③	④	⑤

26. Что Вы думаете о следующих ролях, которых ожидает от Вас сообщество за рубежомных корейцев и обще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всем не так	Не так	Нормально	Так	Именно так
1) Смогу добиться успеха в Узбекистане/Казахстане, а также содей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сообщества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①	②	③	④	⑤
2) Смогу информировать о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в Узбекистане/Казахстане.	①	②	③	④	⑤
3) Смогу помочь добиться единства сообщества корейцев Узбекистана /Казахстана путем общения с сообществами корейцев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①	②	③	④	⑤
4) Смогу содействова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или общественному развитию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спользуя свои творческие идеи и способности.	①	②	③	④	⑤
5) Смогу внести вклад в объединение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выполняя функцию моста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обществе.	①	②	③	④	⑤

27. По вашему мнению, какая поддержка нужна вам, чтобы в будущем вы стали человеком, который может внести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общества Узбекистана/Казахстана ил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овсем не так	Не так	Нормально	Так	Именно так
1)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больше программ для посещения Кореи.	①	②	③	④	⑤
2) Необходимо оказать содействие в том, чтобы я мог (ла) активно общаться с молодыми корейцами, проживающими в Узбекистане/Казахстане.	①	②	③	④	⑤
3) Необходимо оказать помощь в том, чтобы я мог (ла) активно общаться с молодежью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①	②	③	④	⑤
4) Необходимо оказать поддержку для получения 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чтобы я мог (ла) получить хорошие знания о корейском народе.	①	②	③	④	⑤



28. Что вы думаете о следующих вид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всем не так	Не так	Нормально	Так	Именно так
1) Хотел (а) бы общаться с молодежью моего возраста в Корее	①	②	③	④	⑤
2) Хотел (а) бы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ограмме стажировки в Корее.	①	②	③	④	⑤
3) Хотел (а) бы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ограмме обучения или лагере для молодых корейцев в Узбекистане/Казахстане.	①	②	③	④	⑤
4) Хочу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в Корее.	①	②	③	④	⑤
5) Хотел (а) бы работать в 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и, находящейся в Узбекистане / Казахстане.	①	②	③	④	⑤
6) Хотел (а) бы работать в Корее.	①	②	③	④	⑤
7) Хочу приобщиться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стори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К-Поп концерты и т. д.).	①	②	③	④	⑤

29. Что мешает вам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или найти работу в Корее,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желание? (можно выбрать несколько вариантов)

- ① Нет гражданства Кореи
- ② Нет хорошего 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③ Не служил в армии
- ④ Не хватает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разовании и работе в Корее
- ⑤ Мало возможностей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или найти работу в Корее
- ⑥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ложности
- ⑦ Не уверен, что я смогу приспособиться к корейской корпоративной или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й жизни.
- ⑧ Не могу жить один, отдельно от родителей
- ⑨ Прочее

30. Что больше всего влияет на ваш интерес к Корее? (можно выбрать несколько вариантов)

- ① Забота и воспитание родителей 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 ② Интересы и разговоры друзей
- ③ Корейские телесериалы, K-Pop – корейская волна
- ④ Посещение сайтов и активность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 ⑤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школ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 ⑥ Лич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в Корею
- ⑦ Программа обмена студентами и посещение Кореи
- ⑧ Лагерь или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цев со всего мира
- ⑨ Прочее

31. Каковы ваши планы на будущее/желаемая профессия? Из нижеприведенных вариантов выберите однужелаемуюпрофессию. ()

< Варианты >			
① врач	② юрист	③ бизнесмен	④ учитель
⑤ сотрудник компании	⑥ госслужащий	⑦ политик	⑧ медсестра
⑨ полицейский	⑩ повар	⑪ артист или актер	
⑫ спортсмен	⑬ ученый	⑭ социальный работник	
⑮ дипломат	⑯ инженер	⑰ бухгалтер	⑱ бортпроводник
⑲ фармацевт	⑳ программист	㉑ дизайнер	㉒ музыкант
㉓ исследователь/ведущий сотрудник института/доктор наук			
㉔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㉕ фермеры	㉖ прочее ()	㉗ нет особых желаний	

32. Что для вас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важным в жизни? (можно выбрать несколько вариантов)

- ① Заработать много денег
- ② Заработать репутацию
- ③ Внести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общества
- ④ Помочь другим людям
- ⑤ Работать в любимой области, там, где у меня имеются способности
- ⑥ Жить здорово, не страдая от болезни
- ⑦ Создать счастливую семью
- ⑧ Жить праведной религиозной жизнью
- ⑨ Прочее ()



33. Какие сложности мешают вам осуществить вашу мечту? (можно выбрать несколько вариантов)

- ①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ложности в семье
- ② Не хватает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способностей
- ③ Отсутствие возможности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 ④ Недостаток родительской заботы
- ⑤ Недостаток заботы и поддержки в обществе Узбекистана/Казахстана
- ⑥ Дискриминация в обществе Узбекистана/Казахстана
- ⑦ Плох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Узбекистане /Казахстане
- ⑧ Прочее ()

♡ Спасибо за ваши ответы. Пожалуйста, еще раз проверьте, что нет пропущенных вопросов. ♡

3. 청소년설문지 (아르헨티나·브라질 용국문)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청소년 설문 조사**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동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의 각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 인재로 논의되고 있는 재외동포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생활실태와 요구 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다른 분들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경준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정은주 연구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http://www.nypi.re.kr>

※ 다음 각 질문에 대해서 해당하는 번호를 선택해 V표시를 하거나 ()안에 직접 답을 작성해 주세요.

I. 일반적 배경

1. 거주지역 : 도시(city)() 주(state) () <예: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2. 출생년도 : ()년

3. 성별 : ① 남 ② 여

4. 아르헨티나 거주 기간 : _____년 _____개월

5. 현재 신분은? :

- | | |
|-----------------------|----------------------|
| ① 초등학교(fundamental 1) | ② 중학교(fundamental 2) |
| ③ 고등학교(Ensino medio) | ④ 대학교 |
| ⑤ 대학원 | ⑥ 직장인 |
| ⑦ 무직 | ⑧ 기타(구체적으로) |

6. 아르헨티나에서 살게 된 이유 :

- | | |
|------------|--------------|
| ① 아르헨티나 출생 | ② 아르헨티나 이민 |
| ③ 아르헨티나 유학 | ④ 기타(구체적으로) |

6-1. 가족 중 가장 먼저 아르헨티나에 온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 ① 할아버지와 할머니 혹은 그 이전 세대
- ② 내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
- ③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후 부모님과 함께 이주

14.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능력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어를 (계속) 배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어로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어를 듣고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한국과 관련된 가정생활은 어떠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와 부모님은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와 부모님은 한국 드라마나 뉴스를 자주 보거나 한국 노래를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내가 아르헨티나에서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내가 한국에서 직업을 갖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내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자신의 정체성(Korean-Argentine)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Korean-Argentine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Korean-Argentine인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Korean-Argentine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에게 Korea/Korean의 사건이나 문제를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Korean-Argentine의 사건이나 문제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Ⅲ. 미래인재역량

17.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정확하게 알기 위해 질문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 때에도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부분적인 내용만 듣고도 전체 내용을 상상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도 잘 연결 지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과제가 어렵거나 중요한 정도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할 때 지난 번 방법이 좋았는지 생각해보고 다시 사용할지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회가 좋아지도록 무언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들(환경, 평화, 기아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양심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지역사회 또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사회적 평등 실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국가들에 친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세계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다른 국가 사람들에 대해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다음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아르헨티나의 문화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아르헨티나의 이민 역사가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르헨티나의 국민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아르헨티나의 명성을 세계에 알리고 지키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IV. 한국/한민족에 대한 인식 및 공동체 참여 욕구

23.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국/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문화(K-Pop 등)는 매력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남북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동포청소년 및 대한민국 청소년들과 함께 한 경험이 있나요?

	전혀 없음	거의 없음	가끔	자주	매우 자주
1) 나는 평상시 동포 청소년들과 만나거나 연락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동포 청소년단체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동포청소년들은 주로 어디에서 만나나요?

- ① 정규학교(local 학교/국제학교)
- ② 한글학교
- ③ 교회
- ④ 학교 밖 여가활동
- ⑤ 기타

26. 다음과 같은 일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1) 나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한글학교 집중과정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한국에서 열리는 동포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동포사회와 대한민국 사회가 재외동포 청소년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다음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르헨티나에서 성공하여 동포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아르헨티나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동포사회와 교류하여 Korean- Argentine 사회를 단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아이디어와 능력을 활용해서 한국 경제나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국제사회에서 다리역할을 통해서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미래에 Korean- Argentine 사회나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방문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동포청소년들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의 청소년과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한민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민족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다음과 같은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에서 또래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에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아르헨티나에서 동포청소년 캠프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5)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7) 한국의 다양한 문화 (역사 유적지, K-Pop 공연 등)를 경험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0. 한국에서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하고 싶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인가요? (복수 응답 가능)

- ① 한국 국적이 없는 것
- ②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음
- ③ 군복무를 하지 않음
- ④ 한국의 교육과 취업에 대한 정보 부족
- ⑤ 한국에서 교육받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부족
- ⑥ 경제적 어려움
- ⑦ 한국의 조직 및 기업 문화에 대한 적응에 자신이 없음
- ⑧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생활할 자신이 없음
- ⑨ 기타

34. 장래 희망을 이루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복수응답가능)

- | | |
|----------------------------------|----------------|
| ①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 ② 자신의 능력 부족 |
| ③ 교육기회 부족 | ④ 부모님의 관심 부족 |
| ⑤ Korean- Argentine사회의 관심과 지원 부족 | ⑥ 아르헨티나 사회의 차별 |
| ⑦ 아르헨티나 경제가 어려워서 | ⑧ 기타 |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

4. 청소년설문지 (스페인어 번역본)

Políticas de apoyo para jóvenes compatriotas como estrategia de desarrollo de personas talentosas del futuro

Toda la información obtenida a través del presente cuestionario no se puede utilizar sólo para fines estadísticos, cuya confidencialidad se mantendrá de conformidad con el Artículo 33 de la Ley de Estadísticas.

Cordiales saludos a todos.

El Instituto Coreano de Políticas de la Juventud fue creado en el año 1989 como un instituto de investigación nacional afiliado a la Oficina del Primer Ministro. Hasta la fecha, hemos llevado a cabo diversos desarrollos y estudios relacionados con las políticas y programas del gobierno para apoyar a los jóvenes. Este año decidimos investigar las condiciones de vida y las necesidades de los jóvenes compatriotas residentes en el extranjero para formular políticas gubernamentales encaminadas a apoyar a los jóvenes coreanos que viven en el extranjero.

Sus respuestas serán tratadas de forma anónima y utilizadas únicamente como recursos de investigación para la formulación de políticas, así que se garantiza la confidencialidad. Además, sus respuestas no serán compartidas ni accedidas por ninguna otra persona. No hay respuesta correcta o incorrecta a las preguntas del cuestionario. Les solicitamos dar respuestas inceras a las preguntas planteadas para que podamos reflejar con precisión sus opiniones en las políticas de la juventud. ¡Gracias de antemano por su colaboración!

Abril de 2017

Instituto Coreano de Políticas de la Juventud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Jefe de investigación: Gyeongjun Kim
Co-investigador: Eunju Jeong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Corea
<http://www.nypi.re.kr>

13. ¿Durante cuánto tiempo asistió a la escuela de Hangul? _____ años y _____ meses

13-1. ¿Cuál fue el motivo por el cual comenzó a asistir a la escuela de Hangul?

- ① Por recomendación de mis padres ② Por decisión propia
 ③ Por recomendación de un amigo
 ④ Otros (Favor de especificar: _____)

14. Niveles de interés y habilidad del idioma coreano:

	Nada en absoluto	No mucho	Más o menos	Bastante	Muy de acuerdo
1) Tengo mucho interés en el idioma coreano.	①	②	③	④	⑤
2) Quiero aprender (o seguir aprendiendo) coreano.	①	②	③	④	⑤
3) Puedo hablar en coreano.	①	②	③	④	⑤
4) Entiendo coreano.	①	②	③	④	⑤
5) Puedo leer y escribir en coreano.	①	②	③	④	⑤

15. Aspectos de la cultura coreana en su vida familiar:

	Nada en absoluto	No mucho	Más o menos	Bastante	Muy de acuerdo
1) Hablo con mis padres en coreano.	①	②	③	④	⑤
2) Mi familia suele comer comida coreana.	①	②	③	④	⑤
3) En casa vemos con frecuencia telenovelas, noticias de Corea y escuchamos canciones coreanas.	①	②	③	④	⑤
4) Mis padres desean que yo tenga un trabajo que este relacionado con Corea.	①	②	③	④	⑤
5) Mis padres desean que yo trabaje en Corea.	①	②	③	④	⑤
6) Mis padres desean que me case con una persona de nacionalidad coreana.	①	②	③	④	⑤



16. Mi identidad (coreano-argentina):

	Nada en absoluto	No mucho	Más o menos	Bastante	Muy de acuerdo
1) Pienso que soy coreano-argentino.	①	②	③	④	⑤
2) Me siento orgulloso de ser coreano-argentino.	①	②	③	④	⑤
3) Conozco bien la historia y la tradición de los coreano-argentinos.	①	②	③	④	⑤
4) Hablo a menudo con otras personas sobre diversos asuntos o problemas de los coreano-argentinos.	①	②	③	④	⑤
5) Pienso que los asuntos o problemas de los coreano-argentinos forman parte de mí.	①	②	③	④	⑤

III. Capacidades de futuro talentos

17. ¿Qué opina sobre los siguientes puntos?

	Nada en absoluto	No mucho	Más o menos	Bastante	Muy de acuerdo
1) Si no entiendo bien lo que me dicen, hago preguntas para entender con exactitud.	①	②	③	④	⑤
2) Puedo conversar bien con las personas que poseen un pensamiento diferente al mío.	①	②	③	④	⑤
3) Hablo y actúo preguntándome cómo otras personas aceptarían mis palabras o acciones.	①	②	③	④	⑤
4) Respeto los pensamientos o las decisiones de otras personas, aunque sean diferentes a los míos.	①	②	③	④	⑤

18. ¿Qué opina sobre los siguientes puntos?

	Nada en absoluto	No mucho	Más o menos	Bastante	Muy de acuerdo
1) Se me ocurren ideas novedosas que mis amigos no pueden imaginar.	①	②	③	④	⑤
2) Puedo imaginar todo un conjunto escuchando sólo una parte.	①	②	③	④	⑤
3) Soy capaz de correlacionar temas que aparentemente no tengan relación.	①	②	③	④	⑤
4) Busco soluciones alternativas en función de la dificultad o el grado de importancia de las tareas planteadas.	①	②	③	④	⑤
5) Ante cualquier problema que surja, trato de pensar en detalle cómo solucionarlo.	①	②	③	④	⑤
6) Antes de iniciar una nueva tarea, evalúo si el método anterior tuvo buenos resultados y luego decido si vuelvo a aplicar el mismo método o no.					

19. ¿Qué opina sobre los siguientes puntos?

	Nada en absoluto	No mucho	Más o menos	Bastante	Muy de acuerdo
1) Pienso que debo hacer algo positivo para contribuir a la mejora de la sociedad.	①	②	③	④	⑤
2) Pienso que es importante cumplir con la legislación vigente.	①	②	③	④	⑤
3) Pienso que es importante participar en las actividades de servicio comunitario.	①	②	③	④	⑤

20. ¿Qué opina sobre los siguientes puntos?

	Nada en absoluto	No mucho	Más o menos	Bastante	Muy de acuerdo
1) Tengo interés en diversas actividades realizadas en todo el mundo por el medio ambiente, la paz, la lucha contra el hambre, etc.	①	②	③	④	⑤
2) Pienso que debo hacer esfuerzos para ayudar a que todo el mundo tenga una vida mejor.	①	②	③	④	⑤
3) Pienso que debemos tener conciencia moral para llevar una vida social saludable.	①	②	③	④	⑤
4) Pienso que debemos interesarnos en nuestra comunidad o barrio.	①	②	③	④	⑤
5) Pienso que es importante lograr la igualdad social.	①	②	③	④	⑤

21. ¿Qué opina sobre los siguientes puntos?

	Nada en absoluto	No mucho	Más o menos	Bastante	Muy de acuerdo
1) Siento cercanía con otros países.	①	②	③	④	⑤
2) Tengo una mente abierta hacia el mundo.	①	②	③	④	⑤
3) Tengo una actitud amistosa hacia las personas de otros países.	①	②	③	④	⑤
4) Mantengo una postura abierta para entender y aceptar la cultura de otros países.	①	②	③	④	⑤

22. ¿Qué opina sobre los siguientes puntos?

	Nada en absoluto	No mucho	Más o menos	Bastante	Muy de acuerdo
1) Pienso que la cultura argentina es excelente.	①	②	③	④	⑤
2) Pienso que la historia de migrantes en Argentina es excelente.	①	②	③	④	⑤
3) Pienso que el pueblo argentino es excelente.	①	②	③	④	⑤
4) Procuero dar a conocer al mundo y proteger la reputación de Argentina.	①	②	③	④	⑤

IV. Percepción sobre Corea, yelpueblocoreanoyeldeseosdeparticiparenlacomunidadcoreana.

23. ¿Qué opina sobre los siguientes puntos?

	Nada en absoluto	No mucho	Más o menos	Bastante	Muy de acuerdo
1) Tengo una buena impresión de Corea o el pueblo coreano.	①	②	③	④	⑤
2) Corea es un país políticamente estable.	①	②	③	④	⑤
3) Corea es un país económicamente desarrollado.	①	②	③	④	⑤
4) La cultura coreana incluido el K-Pop es atractiva.	①	②	③	④	⑤
5) Es necesario lograr la reunificación de Corea.	①	②	③	④	⑤



24. ¿Ha tenido alguna experiencia con los jóvenes coreanos y los jóvenes migrantes coreanos?

	Nada en absoluto	No mucho	Más o menos	Bastante	Muy de acuerdo
1) Me encuentro a menudo con los jóvenes migrantes coreanos o al menos mantengo contacto con ellos.	①	②	③	④	⑤
2) Tuve contactos con los miembros de una organización de jóvenes migrantes coreanos o realicé algunas actividades con ellos.	①	②	③	④	⑤

25. Por lo general, ¿en dónde se reúnen los jóvenes migrantes?

- ① Escuela (escuela local o internacional)
- ② Escuela de Hangul (escuela de idioma coreano)
- ③ Iglesia
- ④ Actividades recreativas fuera de la escuela
- ⑤ Otros

26. ¿Ha participado alguna vez en las siguientes actividades?

	No	1 vez	2 veces	3 veces	Más de 4 veces
1) He participado en un campamento o capacitación para los jóvenes migrantes coreanos realizado en Argentina (ej. curso intensivo del idioma coreano).	①	②	③	④	⑤
2) He participado en un programa de jóvenes compatriotas realizado en Corea.	①	②	③	④	⑤

27. Según las expectativas de la comunidad de migrantes coreanos y la sociedad coreana, los jóvenes migrantes coreanos deberían desempeñar las siguientes funciones. ¿Qué opina sobre estas funciones?

	Nada en absoluto	No mucho	Más o menos	Bastante	Muy de acuerdo
1) Tener éxito en Argentina para contribuir al desarrollo de la comunidad de migrantes coreanos.	①	②	③	④	⑤
2) Dar a conocer la cultura coreana en Argentina.	①	②	③	④	⑤
3) Contribuir a unificar la comunidad de coreano-argentinos mediante el intercambio con otras comunidades de migrantes coreanos.	①	②	③	④	⑤
4) Contribuir con mis ideas y capacidades al crecimiento de la economía coreana al desarrollo social de Corea.	①	②	③	④	⑤
5) Contribuir a la reunificación de la Península Coreana, asumiendo un papel depuente en la sociedad internacional.	①	②	③	④	⑤

28. ¿Qué tipo de apoyo necesita usted para contribuir en el futuro al desarrollo de la comunidad de coreano-argentinos o la sociedad coreana?

	Nada en absoluto	No mucho	Más o menos	Bastante	Muy de acuerdo
1) Ofrecer más oportunidades de visitar Corea.	①	②	③	④	⑤
2) Promover el intercambio entre los jóvenes compatriotas que viven en Argentina.	①	②	③	④	⑤
3) Promover e intensificar el intercambio con los jóvenes de Corea.	①	②	③	④	⑤
4) Apoyar la educación relacionada con el pueblo coreano para el mejor entendimiento de Corea.	①	②	③	④	⑤



29. ¿Qué opina sobre las siguientes actividades?

	Nada en absoluto	No mucho	Más o menos	Bastante	Muy de acuerdo
1) Quiero conocer jóvenes coreanos de mi edad.	①	②	③	④	⑤
2) Quiero participar en los programas de entrenamiento o capacitación realizados en Corea.	①	②	③	④	⑤
3) Quiero participar en los programas de capacitación para los jóvenes coreano-argentinos realizados en Argentina.	①	②	③	④	⑤
4) Quiero estudiar en Corea.	①	②	③	④	⑤
5) Quiero trabajar en una empresa coreana establecida en Argentina.	①	②	③	④	⑤
6) Quiero trabajar en Corea.	①	②	③	④	⑤
7) Quiero experimentar diversos aspectos culturales de Corea (sitios históricos, conciertos de K-Pop, etc.)	①	②	③	④	⑤

30. ¿Cuáles son los impedimentos que usted tiene para estudiar en Corea o para tener trabajo en Corea? (Pueden escogerse varias)

- ① No tengo la nacionalidad coreana.
- ② Mi coreano no es muy bueno.
- ③ No hice servicio militar.
- ④ Me falta mucha información sobre el sistema educativo coreano y los empleos ofrecidos en Corea.
- ⑤ Existen escasas oportunidades para estudiar o trabajar en Corea.
- ⑥ Dificultad económica.
- ⑦ No estoy seguro de que pueda adaptarme bien a la cultura corporativa de las empresas coreanas.
- ⑧ No siento seguridad de que yo pueda vivir solo sin mis padres.
- ⑨ Otros

31. ¿Qué factores influyeron más en su interés por Corea? (Pueden escogerse varias)

- ① Educación y atención por parte de mis padres y otros adultos conocidos.
- ② Interés y conversación con mis amigos.
- ③ Telenovelas, K-Pop, etc.
- ④ Navegación por internet o actividades de SNS
- ⑤ Educación del idioma coreano impartida en la escuela de Hangul.
- ⑥ Visita personal a Corea
- ⑦ Programas de intercambio de estudiantes u otros programas que permitan visitar a Corea.
- ⑧ Campamento o festival del pueblo coreano.
- ⑨ Otros.

32. ¿Cuál es su profesión deseada? Por favor escoja solo una de las siguientes opciones. ()

① Médico	② Funcionario judicial	③ Administrador de empresa
④ Profesor	⑤ Empleado	⑥ Funcionario público
⑦ Político	⑧ Enfermero	⑨ Policía
⑩ Chef	⑪ Artista	⑫ Atleta
⑬ Científico	⑭ Trabajador social	⑮ Diplomático
⑯ Ingeniero	⑰ Contador	⑱ Azafata
⑲ Farmacéutico	⑳ Programador informático	㉑ Diseñador de moda
㉒ Investigador	㉓ Investigador (doctor, etc.)	㉔ Trabajador autónomo
㉕ Agricultor	㉖ Otros	㉗ Nada en particular

33. ¿Qué cree que es lo más importante en la vida? (Pueden escogerse varias)

- ① Ganar mucho dinero.
- ② Ganar reputación.
- ③ Contribuir al desarrollo social.
- ④ Servir a los demás.
- ⑤ Hacer lo que me gusta y lo que puedo hacer bien.
- ⑥ Vivir sano.
- ⑦ Tener una vida familiar feliz.
- ⑧ Dedicarme a la vida religiosa.
- ⑨ Encontrar un buen cónyuge.
- ⑩ Otros

34. ¿Cuáles son los impedimentos o dificultades para alcanzar la profesión que desead?

(Pueden escogerse varias)

- ① Dificil situación económica de la familia
- ② Capacidad insuficiente
- ③ Falta de oportunidades en educación
- ④ Falta de atención de los padres
- ⑤ Falta de apoyo y atención por parte de la comunidad de los coreano-argentinos
- ⑥ Discriminación por parte de la sociedad argentina
- ⑦ Dificil situación económica de Argentina
- ⑧ Otros

♡ *¡Muchas gracias por completar el cuestionario!Favor de revisar el cuestionario para comprobar que no queden puntos sin contestar.* ♡

5. 청소년설문지 (포르투갈어 번역본)

Pesquisa com adolescentes para estabelecer a política de apoio aos jovens coreanos no exterior com a estratégia do desenvolvimento de homens competentes para o futuro.

Todos os conteúdos obtidos na pesquisa devem ser usados somente, para o propósito de estatísticas. De acordo com a lei de estatísticas No33, (INFORMARPROJETODELEIEANO) estipulaqueas informações sejam protegidas

Olá?

O Instituto de Política de Juventude Coreano que foi estabelecido em 1989 é uma instituição de pesquisa nacional sob o escritório do primeiro-ministro. Durante todo este período, o Instituto tem realizado os seus deveres, tais como, os desenvolvimentos de políticas do governo e programas para vários tipos de apoios a adolescentes. Neste ano, gostaríamos de pesquisar condições de vida e demandas dos adolescentes coreanos no exterior considerados como homens competentes do futuro da comunidade coreana afim de preparar os planos de políticas do governo para apoio a eles.

Lidaremos com as respostas dos senhores de forma anônima e as aproveitaremos como material de pesquisa para o estabelecimento das políticas, por essa razão garantimos a sua confidencialidade completa. Além disso, ninguém pode ver os conteúdos das suas respostas e não há respostas certas nem erradas em todas as perguntas. Por favor, respondam francamente e sinceramente de maneira que as suas opiniões estejam refletidas exatamente nas políticas.

Agradeço antecipadamente por sua colaboração com as respostas à pesquisa.

Abril de 2017

Instituto de Política de Juventude Coreano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Diretor de pesquisa:
Pesquisador Senhor Kim Gyeong-Jun
Co-pesquisador:
Pesquisador Jeong Eun-ju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Endereço: Política social-Dong, Conjunto de pesquisa nacional de Sejong,
Av. Prefeitura municipal, 370, Cidade de Sejong, Coreia do Sul)
<http://www.nypi.re.kr>

※ Sobre cada pergunta seguinte, escolham o número correspondente e marquem V ou escrevam as suas respostas diretamente em ().

I. Contexto Geral

1. Local de Estadia: Cidade(city) () Estado(state) ()

<Exemplo: a Cidade de São Paulo, o Estado de São Paulo>

2. Ano de Nascimento: ()

3. Gênero(Sexo): ① Masculino(Homem) ② Feminino(Mulher)

4. Período de Estadia no Brasil: _____ Ano(s) _____ Mês(es)

5. Qual é a sua posição social atualmente? :

- ① Fundamental 1 (1o~5o Ano) ② Fundamental 2 (6o~9o Ano)
③ Ensino médio (Escola de 2o Grau) ④ Graduação (Universidade)
⑤ Pós-graduação (Já possui diploma de Graduação) ⑥ Empregado
⑦ Desempregado ⑧ Outro (Detalhadamente)

6. Por que você mora no Brasil?

- ① Nascido no Brasil ② Imigrante para o Brasil
③ Estudos(Intercâmbio) no Brasil ④ Outro (Detalhadamente)

6-1. Quem veio primeiro para ao Brasil dentro da sua família?

- ① Avós ou a geração anterior
② Pais(Pai e Mãe) antes do meu nascimento
③ Imigração com os pais depois do meu nascimento na Coreia do Sul

7. Nacionalidade atual :

- ① Cidadão/dã brasileiro/a
- ② Dupla nacionalidade (Brasil + Coreia do Sul)
- ③ Coreia do Sul (Possessão do Visto Permanente do Brasil)
- ④ Outro (Detalhadamente)

8. Os pais(Pai e Mãe) são coreanos?

- ① Só pai é coreano.
- ② Só mãe é coreana.
- ③ Ambos são coreanos.
- ④ Nenhum dos pais são coreanos.

9. Onde quer morar no futuro?

- ① Brasil
- ② Coreia do Sul
- ③ Estados Unidos
- ④ Outro

II . Pesquisa de Condições de Vida dos Adolescentes Coreanos no Exterior

10. Já foi à escola coreana?

- ① Sim. (☞ para o número 11)
- ② Não. (☞ para o número 12)
- ③ Não há escola coreana. (☞ para o número 12)

11. Quanto tempo foi à escola coreana? _____Ano(s) _____Mês(es)

11-1. Por que foi à escola coreana?

- ① Recomendação dos pais
- ② Minha decisão
- ③ Recomendação de amigo/a(s)
- ④ Outro

12. Já foi à escola de Hangul(Caráter coreano)?

- ① Sim. (☞ para o número 13)
- ② Não. (☞ para o número 14)
- ③ Não há escola de Hangul. (☞ para o número 14)

16. O que você acha da sua identidade(Coreano-Brasileiro)?

	Discordo Total mente	Discordo Parcialmente	Indiferente	Concordo Parcialmente	Concordo Totalmente
1) Penso que sou coreano/a-brasileiro/a.	①	②	③	④	⑤
2) Tenho orgulho de ser coreano / a-brasileiro/a.	①	②	③	④	⑤
3) Sei bem sobre a história e a tradição de coreana-brasileira.	①	②	③	④	⑤
4) Conto assuntos ou problemas relacionados aos coreano-brasileiro para outra pessoa.	①	②	③	④	⑤
5) Penso que assuntos ou problemas de coreanos-brasileiros são meus.	①	②	③	④	⑤

III. Competência do futuro talento

17. Qual a sua opinião em relação as afirmações abaixo?

	Discordo Total mente	Discordo Parcialmente	Indiferente	Concordo Parcialmente	Concordo Totalmente
1) Se não entendo o que outra pessoa diz, pergunto para saber precisamente.	①	②	③	④	⑤
2) Posso conduzir a conversa mesmo que outra pessoa discorde de mim.	①	②	③	④	⑤
3) Digo e ajo pensando em como outra pessoa vai aceitar as minhas palavras e ações.	①	②	③	④	⑤
4) Mesmo que outras pessoas discordem de mim, eu respeito a opinião e escolha delas.	①	②	③	④	⑤

18. Qual a sua opinião em relação as afirmações abaixo?

	Discordo Totalmente	Discordo Parcialmente	Indiferente	Concordo Parcialmente	Concordo Totalmente
1) Sou criativo do que os outros amigos	①	②	③	④	⑤
2) Posso imaginar o conteúdo total somente escutando o conteúdo parcial.	①	②	③	④	⑤
3) Associo bem os conteúdos que parecem ser irrelevantes.	①	②	③	④	⑤
4) Resolvo de diferentes formas dependendo do nível de dificuldade ou importância das tarefas.	①	②	③	④	⑤
5) Antes de resolver problemas, penso detalhadamente o que fazer.	①	②	③	④	⑤
6) Quando eu começar as novas tarefas, penso primeiro se a maneira anterior foi ou não eficaz e decido se continuo usando.					

19 Qual a sua opinião em relação as afirmações abaixo?

	Discordo Totalmente	Discordo Parcialmente	Indiferente	Concordo Parcialmente	Concordo Totalmente
1) Penso que preciso fazer algo para a melhoria da sociedade.	①	②	③	④	⑤
2) Penso que é importante obedecer as leis	①	②	③	④	⑤
3) Penso que é importante participar em trabalhos voluntários e sociais é importante.	①	②	③	④	⑤

20. Qual a sua opinião em relação as afirmações abaixo?

	Discordo Totalmente	Discordo Parcialmente	Indiferente	Concordo Parcialmente	Concordo Totalmente
1) Tenho interesse nos temas (meio ambiente, paz, fome etc.) que acontecem no mundo.	①	②	③	④	⑤
2) Penso que preciso me esforçar para que todas as pessoas do mundo tenham uma vida melhor.	①	②	③	④	⑤
3) Penso que as pessoas devem ter consciência para conviver na sociedade.	①	②	③	④	⑤
4) Penso que as pessoas devem possuir interesse em sociedade local ou vizinhos.	①	②	③	④	⑤
5) Penso que é importante a realização da igualdade social.	①	②	③	④	⑤

21. Qual a sua opinião em relação as afirmações abaixo?

	Discordo Totalmente	Discordo Parcialmente	Indiferente	Concordo Parcialmente	Concordo Totalmente
1) Tenho um sentimento amigável pelos outros países.	①	②	③	④	⑤
2) Tenho uma atitude aberta sobre o mundo.	①	②	③	④	⑤
3) Tenho uma atitude amigável para com as pessoas dos outros países.	①	②	③	④	⑤
4) Tenho uma atitude para compreender e aceitar as culturas dos outros países.	①	②	③	④	⑤



부
록

22. Qual a sua opinião em relação as afirmações abaixo?

	Discordo Totalmente	Discordo Parcialmente	Indiferente	Concordo Parcialmente	Concordo Totalmente
1) Penso que a cultura brasileira é superior.	①	②	③	④	⑤
2) Penso que a história da imigração do Brasil é superior.	①	②	③	④	⑤
3) Penso que o povo brasileiro é superior.	①	②	③	④	⑤
4) Esforçopara que o mundo saiba a excelência do Brasil e que ela mantenha	①	②	③	④	⑤

IV. Percepção de Coreia do Sul/Comunidade Coreana e Desejo de Participação na Comunidade

23. Qual a sua opinião em relação as afirmações abaixo?

	Discordo Totalmente	Discordo Parcialmente	Indiferente	Concordo Parcialmente	Concordo Totalmente
1) Tenho uma imagem boa da Coreia do sul (coreanos).	①	②	③	④	⑤
2) Coreia do sul tem a situação política estável.	①	②	③	④	⑤
3) Coreia do sul tem a economia desenvolvida.	①	②	③	④	⑤
4) A cultura coreana (K-Pop etc.) é atraente.	①	②	③	④	⑤
5) Penso que a reunificação das Coreias (Sul e Norte) deve ser realizada.	①	②	③	④	⑤

24. Já passou algum tempo com jovens coreanos no exterior (incluindo o Brasil) ou na Coreia do sul?

	Nada	Quase nada	De vez em quando	Frequentemente	Frequentemente Muito
1) Encontro diretamente ou faço contato com jovens coreanos normalmente.	①	②	③	④	⑤
2) Já fiz contato ou agi junto com as pessoas da organização de adolescentes coreanos no exterior.	①	②	③	④	⑤

25. Onde se encontra com jovens coreanos?

- ① Escola regular (Escola local/Escola internacional)
- ② Escola de Hangul(Carácter coreano)
- ③ Igreja
- ④ Atividade de tempo livre fora da escola
- ⑤ Outro

26. Já participou de algum dos eventos abaixo?

	Nada	Quase nada	De vez em quando	Frequentemente	Frequentemente Muito
1) Já participei de acampamento de jovens coreanos ou treinamento no Brasil (Curso de concentração da escola de Hangul etc.).	①	②	③	④	⑤
2) Já participei de programa de jovens coreanos que foi realizado na Coreia do Sul.	①	②	③	④	⑤



27. Qual a sua opinião sobre a expectativa que a sociedade coreana no exterior e na Coreia esperam de você?

	Discordo Total mente	Discordo Parcialmente	Indiferente	Concordo Parcialmente	Concordo Total mente
1) Consigo obter sucesso no Brasil para desenvolver a sociedade dos coreanos no exterior	①	②	③	④	⑤
2) Consigo introduzir a cultura coreana no Brasil.	①	②	③	④	⑤
3) Consigo ajudar para que a sociedade Coreano-Brasileiro possa se unir e interagir com as outras sociedades coreanas.	①	②	③	④	⑤
4) Consigo contribuir minhas ideias e capacidades para o desenvolvimento econômico ou social coreano..	①	②	③	④	⑤
5) Consigo realizar o papel da ponte na sociedade internacional para a reunificação das Coreias(Sul e Norte)	①	②	③	④	⑤

28. No futuro, qual seria o apoio necessário para a contribuição do desenvolvimento da sociedade de Coreano-brasileiro ou da Coreia do Sul?

	Discordo Total mente	Discordo Parcialmente	Indiferente	Concordo Parcialmente	Concordo Total mente
1) É preciso que programas de visita à Coreia do Sul sejam fornecidos mais.	①	②	③	④	⑤
2) É preciso ajuda para uma melhor interação de outros jovens coreanos no Brasil.	①	②	③	④	⑤
3) É preciso ajuda para uma boa interação com jovens coreanos na Coreia do Sul.	①	②	③	④	⑤
4) É preciso apoiar a educação étnica para maior conhecimento sobre o povo coreano.	①	②	③	④	⑤

29. Qual a sua opinião sobre as atividades abaixo?

	Discordo Totalmente	Discordo Parcialmente	Indiferente	Concordo Parcialmente	Concordo Totalmente
1) Quero encontrar com amigos da mesma idade na Coreia.	①	②	③	④	⑤
2) Quero participar do programa de treinamento na Coreia do Sul.	①	②	③	④	⑤
3) Quero participar do acampamento de jovens coreanos ou o programa de treinamento no Brasil.	①	②	③	④	⑤
4) Quero estudar na Coreia do Sul.	①	②	③	④	⑤
5) Quero trabalhar em uma empresa coreana no Brasil.	①	②	③	④	⑤
6) Quero trabalhar na Coreia do Sul.	①	②	③	④	⑤
7) Quero experimentar as diversas culturas coreanas (Ruínas históricas, Show de K-Pop etc.).	①	②	③	④	⑤

30. Se houver alguma dificuldade para estudar ou trabalhar na Coreia do Sul, embora você queira, qual seria a razão? (Pode escolher mais do que uma.)

- ① Não tenho a nacionalidade coreana.
- ② Não falo bem coreano.
- ③ Não cumpri o serviço militar.
- ④ Falta de informação sobre educação e emprego da Coreia
- ⑤ Falta de oportunidade para estudar e trabalhar na Coreia
- ⑥ Dificuldade econômica
- ⑦ Não me sinto confiante na adaptação à cultura de organização e empresa da Coreia.
- ⑧ Não me sinto confiante para viver sozinho/a separado de meus pais.
- ⑨ Outro



31. O que influencia você a ter interesse na Coreia? (Pode escolher mais do que uma.)

- ① Atenção e educação dos pais ou adultos por perto
- ② Atenção e conversa dos amigos
- ③ Telenovelas coreanas ou K-Pop etc.
- ④ Visita ao sítio internet ou atividade de SNS
- ⑤ Educação de Coreano como escola de Hangul
- ⑥ Visita individual à Coreia do Sul
- ⑦ Intercâmbio educacional ou programa de visita à Coreia do Sul
- ⑧ Acampamento do povo coreano ou festa
- ⑨ Outro

32. O que você quer ser no futuro? Ou qual profissão você quer no futuro? Escolhe só um exemplo na caixa seguinte e escreva o número do mesmo. ()

<EXEMPLOS>

- | | | |
|--------------------------------|--|-------------------------|
| ① Médico/a | ② Profissão jurídica | ③ Gestor profissional |
| ④ Professor(a) | ⑤ Funcionário/a privado | ⑥ Funcionário/a público |
| ⑦ Político | ⑧ Enfermeiro/a | ⑨ Policial |
| ⑩ Cozinheiro/a | ⑪ Artista(Ator, Atriz, Cantor(a) etc.) | |
| ⑫ Atleta | ⑬ Cientista | ⑭ Assistente social |
| ⑮ Diplomata | ⑯ Engenheiro/a | ⑰ Contador(a) |
| ⑱ Comissário/a de bordo | | ⑲ Farmacêutico/a |
| ⑳ Programador(a) do computador | | ㉑ Desenhista de moda |
| ㉒ Músico/a | ㉓ Pesquisador(a) (Doutor etc.) | ㉔ Autônomo/a |
| ㉕ Agricultor(a) | ㉖ Outro | ㉗ Nada especialmente |

33. O que é importante na vida? (Pode escolher mais do que um.)

- ① Ganhar muito dinheiro
- ② Obter honra
- ③ Contribuir para o desenvolvimento da sociedade
- ④ Servir à outras pessoas
- ⑤ Fazer o trabalho que eu faço bem e adoro
- ⑥ Viver saudável
- ⑦ Viver com felicidade em casa
- ⑧ Praticar bem a sua religião
- ⑨ Encontrar um bom cônjuge
- ⑩ Outro

34. Se acredita em alguma dificuldade para realizar a sua esperança no futuro, qual seria isso nas seguintes respostas? (Pode escolher mais do que um)

- ① Por causa da dificuldade econômica de casa
- ② Falta de capacidade própria
- ③ Falta de oportunidade de educação
- ④ Falta de atenção dos pais
- ⑤ Falta de atenção e apoio da sociedade de Coreano-Brasileiro
- ⑥ Discriminação da sociedade brasileira
- ⑦ Por causa da economia brasileira
- ⑧ Outro

♡ Obrigado pelas respostas. Confira mais uma vez,
verificando se não ficou alguma sem respostas ♡

6. 전문가용 심층면접 조사지

■ 전문가용 심층면접 조사지 ■

I.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1. 성별?
2. 연령?
3. 직업?
4. 경력?(교사나 현재 일에 종사한 기간)

II. 재외동포청소년의 교육 및 문화활동 환경

1. 현지의 초·중·고·대학교의 특성?
2. 진학 및 진로 상황?
 - 1) 중·고등학교 (한국/ 로컬/ 국제 고등학교 중 어디? 진학률?)
 - 2) 대학진학시 (국내/ 국외(한국, 미국 등) 중 어디?, 진학률?)
 - 3) 미진학 학생의 진로는? 취업 시 어떤 분야?
 - 4)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데 요구되는 능력? 관련 능력개발을 위한 여건은?
향후 진로 능력개발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것은? (본국/ 동포사회/ 한국정부)
3. 학생들의 특성?(개인적·문화적 특성, 가정의 경제적 상황)
4. 방과 후/주말 여가 활동은? 활동 시설이나 장소는?
5. 동포청소년 단체 및 모임 유무와 활동 상황은?

III. 한국(한글)학교

1. 청소년들이 한국문화/역사를 아는 것과 한국어 사용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진로에 도움이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학교의 현황과 역할 :

1) 학교의 운영 상태는 ?

(현재 학생 및 교사 수, 한 반의 학생 수, 입학상황, 학비, 교사경비지원, 재원 등)

2) 학생이 학교에 머무르는 기간은? (특별히 한글학교의 경우 평균재학기간, 수업시간)

3) 교육 내용은? (정규과목, 특별 프로그램)

4) 학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 현재 학교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학교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정부/동포사회로부터 어떠한 지원이나 협조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V. 재외동포청소년 이슈 및 지원 방안

1. 동포청소년의 현재의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또한 앞으로는 어떤 것이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 청소년 관련 이슈에 대한 현재 대응과 향후 지원방향은?

4. 일반적으로 성공한 동포는 어떤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성공한 동포들이 청소년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5. 동포들이 한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미래에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이나 한민족 공동체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 동포청소년이 대한민국이나 한민족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포사회에서의 지원은? 한국에서의 지원은?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recognize the overseas Korean youths as important members of Korean ethnic community and contributors for its development, as a consequence to prepare supporting policy measures in order to reinforc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society. The research is a project of 3 years from 2015 to 2017, taking specific agenda per year. In 2015, policy directions and initiatives which can be commonly applied to the overseas youths all around the world were set and offered. In 2016, the range was narrowed down to focus on the policy initiatives for the youths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hile in 2017, for the ones in Latin America(Brazil and Argentina) and Central Asia(Uzbekistan and Kazakhstan).

Research methodology for the study in 2017 weighed heavily on surveying the youths and interviewing field experts on the Overseas youths in Latin America and Koryein youths. The survey was taken for 436 Korean Overseas youths residing in Latin America(221 in Brazil and 215 in Argentina) and 465 Koryein(208 in Uzbekistan, 174 in Kazakhstan, and 83 Koryein living in Korea) on capacity for future talent, awareness and desire to communicate with Koreans, and willingnes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ethnic community. On the other hand, the experts were interviewed regarding the actual conditions and concerns the overseas youths are going through, and to determine which support initiatives enable them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ommunity.

Based on the research taken, following policy tasks are suggested. For the overseas Korean youths living in Brazil and Argentina, diversifying and distributing TOPIK workbooks while revising the test itself, developing training programs for teachers, operating parents education programs, improving various experiential and exchange programs for the overseas youths, establishing youth activity and career support centers, and founding network for youth education and culture exchange were offered. As of

characterized policy tasks for the ones in Brazil, fostering the organizations which can lead the Korean community in next generation, supporting normalization of Korean schools in the region, providing aid for rural residing youths when taking TOPIK, holding training sessions for teachers in provinces, and establishing information centers specialized for working and studying in Korea were recommended. Furthermore, for the ones in Argentina, running programs to develop future talent capacity and understand cultural diversity and the concept of community belonging, developing programs to help them achieve vision as members of Korean community, assisting exchange invigoration between Korean schools in Argentina and equivalent schools in Korea, building institutes for local teachers to acquire teaching training and license, and prepare interaction programs between Korean and Argentinean governments could be advocated.

Common policy tasks directed for the overseas youths in Uzbekistan and Kazakhstan and Koryein in Korea include providing Korean language and history lectures, nurturing qualified teachers, boosting activities among the youths, equipping youth activity institutes, establishing youth exchange and network system, and managing programs to assist for those who wish to work and study in Korea. Characterized policy initiatives designed especially for the Overseas youths in Uzbekistan are expanding career education and programs, assisting children whose parents migrated to Korea, and filing petition for Korean language course to be formally taught in regular schools. Additionally, for the ones in Kazakhstan, sharing information for working and studying in Korea, offering the children of expatriates the opportunities to visit Korea, opening Korean language classes targeting the Koryein, and developing curriculums to learn language and culture together are advocated. Lastly for the Koryein youths residing in Korea, revising and distributing Korean study books according to several ages and levels, diversifying the forms of Korean culture and history lecture materials, strengthening student management system through liaison between regular schools and consigned alternative schools, providing counselling sessions by Russian speaking counsellors, developing historical and cultural exposure programs by visits to local provinces, aiding after-school programs

in the public schools the Koryein are enrolled to, and offering educational counselling to pursue higher education in Korea are taken as policy initiative recommendations.

Keywords: Overseas Korean, Overseas youths, Global, Future talent, Korean ethnics, Korean ethnic community, development of Korean ethnic community, expected role, Overseas Koreans in Latin America, Overseas Koreans in CIS, Koryein, Argentina, Uzbekistan, Kazakhstan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황여정
-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정소연
- 17-R02-1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정소연
- 17-R03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업-아동·청소년 NPO-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 임지연·김한별
-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강영배
- 17-R05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황세영·최정원
- 17-R06 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 배상률·박남수·백강희
- 17-R0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김혁진
- 17-R08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 / 서정아
- 17-R0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김기현·이윤주·유설희
- 17-R09-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이윤주·유설희
-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임희진·문호영·조남익
- 17-R10-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기초분석 보고서 / 임희진·문호영
- 17-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 오해섭·최인재·염유식·김세광
- 17-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총괄보고서 - / 양계민·강경균
- 17-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다문화·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 연보라
- 17-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정책제언 - / 양계민
-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 김경준·정은주
-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Ⅱ / 윤철경·성윤숙·최홍일·유성렬·김강호
- 17-R15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2017 : 총괄보고서 / 김영지·김희진·이민희·김진호
- 17-R15-1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2017 :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 김진석
- 17-R15-2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2017 통계 / 김영지·김희진
- 17-R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 사업보고서 / 하형석·최용환·정은진·정윤미·한지형
- 17-R16-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 연구성과분석보고서 / 최용환·박상현·한지형
- 17-R16-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 - / 정은진·하형석·고강혁·정윤미
- 17-R16-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Ⅷ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 하형석·정은진·최승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 김태준·홍영란·김홍민 (자체번호 17-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5 IEA ICCS 2016 조사틀(Assessment framework) / Schulz, W·Ainley, J·Losito, B·Agrustii, G (자체번호 17-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7-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집 / 김현철·백혜정 (자체번호 17-R18-1)

연구개발적립금

- 17-R19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연구(2018년 4월 발간) / 황진구·유민상
-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2018년 4월 발간) / 이유진·김영한·윤옥경

수시과제

- 17-R21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 이창호
- 17-R22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조진우·이윤주
- 17-R23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 한국사례분석 / 이창호·김기현
- 17-R24 현장적용 제고를 위한 자유학기제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분석 / 임지연
- 17-R25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특성 연구 / 이윤주
- 17-R26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황세영·김기현
- 17-R27 청소년동반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장근영·진은설
- 17-R28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황진구

수탁과제

- 17-R29 2017년 4개국(한일중미) 청소년 의식조사 / 김기현
- 17-R30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운영계획 수립연구 / 장근영·황진구
- 17-R31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32 2016년도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 / 배상률·김동일·유홍식
- 17-R33 화랑마을 운영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영한·서정아·임지연·좌동훈·한상철·신상구·박시현
- 17-R34 다문화 교육 종합 발전방안 / 양계민
- 17-R35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황세영·이윤주·조성화
- 17-R35-1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세미나 자료집 / 황세영·이윤주·조성화
- 17-R35-2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국내외 사례요약집 / 황세영·이윤주·조성화
- 17-R35-3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정책리포트 / 황세영·이윤주·조성화
- 17-R36 지식협력단지 초·중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모듈 교재 개발 / 강경균
- 17-R36-1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2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6-3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4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7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초·중·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 성윤숙·김경준·최정원
- 17-R3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 정제영·김성기·선미숙
- 17-R37-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 정제영·김성기·선미숙
- 17-R37-3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연구 / 안동근·박병식·김영옥
- 17-R38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2017년 청년정책포럼 / 김기현·한지형
- 17-R39 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 이윤주·김기현·하형석
- 17-R40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백혜정·임희진·김현철·유성렬
- 17-R41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최인재·정은주·김영지
- 17-R4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김지연·백혜정
- 17-R43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연구 / 김영지·이윤주·유설희
- 17-R44 시립청소년시설 적정 위탁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 최용환·이재완·박정배
- 17-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2017 / 김희진·정윤미
- 17-R46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이경상·이창호
- 17-R4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 황세영·강경균
- 17-R48 청소년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이성혜
- 17-R49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김지연·유민상·이상정
- 17-R49-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 / 김지연·유민상·이상정
- 17-R49-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유민상·이상정

- 17-R50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이윤주·하형석·한지형
- 17-R51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 김영한·이유진·정은진·강동영
- 17-R52 20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구사업 / 서정아·연보라
- 17-R53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 운영/ 장근영
- 17-R54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연구 / 김형주·김정주
- 17-R55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5-1 학업중단 숙려제 특화 프로그램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6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7-S01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2/9)
- 17-S0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심화 워크숍 (2/13~14)
- 17-S03 제7차 청년정책포럼 (2/23)
- 17-S04 제8차 청년정책포럼 (4/20)
- 17-S05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3/7)
- 17-S06 2016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31)
- 17-S07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1권역 (4/4)
- 17-S08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2권역 (4/7)
- 17-S09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3권역 (4/11)
- 17-S10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4권역 (4/12)
- 17-S11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1권역 (4/14)
- 17-S12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2권역 (4/18)
- 17-S1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2차 심화 워크숍 (3/31)
- 17-S14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1)
- 17-S15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4/13)
- 17-S1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1권역) (4/20)
- 17-S17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2권역) (4/28)
- 17-S18 2017년 제1회 대안학교장 협의회 (5/12)
- 17-S19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청소년 진로교육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5/17)
- 17-S20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5/18)

- 17-S21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5/22)
- 17-S22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5/24)
- 17-S23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5/29)
- 17-S24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5/30)
- 17-S25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5/31)
- 17-S26 세계시민교육 사례 공유를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5/26)
- 17-S2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콜로키움 (6/22)
- 17-S28 SDGs 청소년 역량 환경교육 (6/26)
- 17-S29 2017 13th citizED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citizenship and youth work: educational meanings, possibilities and practices (6.29~7.1)
- 17-S30 다문화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 방안(통합과 선별) (9.22)
- 17-S31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7.28)
- 17-S32 2017년 한·러 차세대 전문가 세미나 - 한국과 러시아의 성인지 이행 : 청년 자립 '결혼 출산 현황 및 정책'(7.27)
- 17-S33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 (8.18)
- 17-S34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8.28)
- 17-S35 2017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8.29)
- 17-S36 2017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중·고교) 담당교원 협의회」(9.1)
- 17-S3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9.14)
- 17-S38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9.15)
- 17-S39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토론회 세미나 (9.9, 9.16)
- 17-S40 4차 산업혁명 및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역량증진의 방향 (9.13)
- 17-S41 국제심포지엄 2017 [무업청소년(NEET) : 국제적 동향과 대응] (9.25)
- 17-S42 한·중 국제세미나 (10/31)
- 17-S43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11.3)
- 17-S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11.17)
- 17-S45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입법 과제 (11.2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8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8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8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87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7호 :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8호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9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0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1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2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013-2016)’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3호 :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4호 :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5호 :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6호 :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7호 :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8호 : 청소년 동반자 활동 효율화 방안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9호 :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운영 특성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0호 :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한국사례 분석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1호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와 과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2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3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성과분석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4호 : 자유학기제 등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활용방안
-
- NYPI Bluenote 통계 33호 :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
- NYPI Bluenote 통계 34호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NYPI Bluenote 통계 35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 NYPI Bluenote 통계 36호 : 청소년 수면과 비만의 종단적 변화
- NYPI Bluenote 통계 37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로 살펴본 청소년 관련 국정과제
- NYPI Bluenote 통계 38호 :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성적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KCYPs 초 4패널-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 ◆

남 부 현 (선문대학교 교수)

◆ 자문·협력진 ◆

강 성 봉 (동북아신문 편집인)

김 범 수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원장)

김 소 연 (브라질 한국교육원 원장)

박 옥 식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회장)

박 종 필 (알마티 한국교육원 부원장)

박 지 애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박 채 순 (인하대 강사)

오 석 진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관)

이 순 흙 (타슈켄트 한국교육 부원장)

이 종 미 (재외동포재단 서울사무소 소장)

이 진 영 (인하대 교수)

최 금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황 영 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한 상 목 (아르헨티나 교육원장)

◆ 감수·윤문 ◆

이 종 미 (재외동포재단 서울사무소 소장)

천 정 웅 (대구기톨릭대학교 교수)

연구보고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인 쇄 2017년 12월 22일

발 행 2017년 12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044) 868-3537**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67-7 93330

연구보고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